

수원역사문화연구

특집 1. '물고을' 수원(水原) 한반도의 배꼽을 꿈꾸다

- | | |
|-----------------------------------|-----|
| · 수원(水原)의 지명 및 관할구역의 변천과정 | 이재범 |
| · 조선시대 수원의 상무전통과 '무향(武鄕)'의 형성 | 정해은 |
| · 정조시기 읍치 이전(移轉)과 수원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 이정일 |
| ·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 김인호 |
| ·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성장특성과 향후 도시정책 방향 | 이창수 |

특집 2. 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

- | | |
|-----------------------------------|-----|
| · 일제강점기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 성주현 |
| ·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 한동민 |
| · 洪承河의 전도활동과 민족운동 | 박 환 |
| · 일제하 전시체제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 박철하 |



창간호 (통권 1호)

수원 역사문화 연구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 목 차 ■

특집 1. '물고을' 수원(水原) 한반도의 배꼽을 꿈꾸다

수원(水原)의 지명 및 관할구역의 변천과정 · 5	이재범
조선시대 수원의 상무전통과 '무향(武鄕)'의 형성 · 35	정해은
정조시기 읍치 이전(移轉)과 수원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 71	이정일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 125	김인호
역사문화도시 수원의 성장특성과 향후 도시정책 방향 · 165	이창수

특집 2. 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 203	성주현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 229	한동민
洪承河의 전도활동과 민족운동 · 261	박 환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 303	박철하

수원(水原)의 지명 및 관할구역의 변천과정

이재범*

1. 서론
2. 삼국시대 : '매홀' 과 '수성' 시기
3. 고려전기 : '수주' 시기
4. 고려후기 : '수원' 시기
5. 수원의 지정학적 위치
6. 수원의 역사적 재평가-결론에 대신하여

1. 서론

수원지역에서 사람이 거주하였던 흔적은 구석기시대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로 추정되며, 수원지역에서는 지동과 이의동, 고색동·파장동유적 등지에서 중기 구석기시대 후기와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화서동 꽃피유적·울전동유적과 옛 수원 지역이었던 화성 동학산유적 등지에서 신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고, 서둔동 여기산유적 등지에서 집 자리와 유물이 출토되어 오랜 시기에 걸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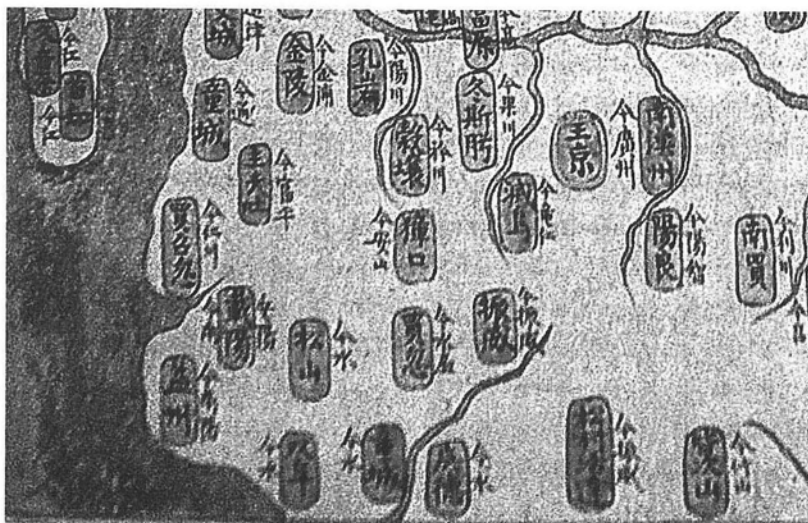
이 시기의 거주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대하여 일정한 명칭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청동기시대 이후부터는 성읍국가의 존재가 인정되는 만큼 자신들의 나라에 국명을 붙였을 것은 틀림없다.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소국들의 이름이 그것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위치비정이 어려운 만큼 수원지역에 대한 당시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¹⁾

대체로 수원지역의 고지명으로 알려진 것은 ‘매홀’에서부터이다. 매홀은 고구려어인데, 그 이전 수원지역을 점령하였던 백제에서도 수원을 백제로 불렀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매홀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수원의 가장 오래된 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수원의 지명 변천에 대하여 그 시기를 매홀의 시기에서부터 현재의 수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이루어지는 고려후기까지 이지역의 지명변천과정과 그 관할지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후로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비교적 소상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지만, 지명변천이라는 관점보다는 행정관할구역의 변경 등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져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비록 영성한 자료지만 당시의 시대상과 수원의 행정제도상 지위, 지명의 변천과 위치 비정의 변화 등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상외국(桑外國, 지금의 화성시 우정읍·장안면 일대), 원양국(爰襄國, 화성시 남양동 일대), 모수국(牟水國, 옛 수원 지역) 등의 수원과 관련된 지명들이 전해오고 있다. 특히 모수국의 뜻은 물나라로 쓰인 것 같다고 한다.(천소영, 『수원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53쪽) 모수국은 광개토왕릉비문의 모수국으로 비정.

2. 삼국시대 : ‘매홀’ 과 ‘수성’ 시기



〈그림 1〉 『동여비고』 고구려 남변

삼국시대는 전투가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삼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가장 요지인 한강변과 그 일대를 차지하는 것은 삼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과제였다. 특히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한 당항성이나, 좋은 항구와 넓은 평야를 가진 수원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수원은 4세기말까지 수원은 백제지역이었으나, 5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알 수 있는 수원의 가장 오래된 고지명은 고구려어의 형태로 남아 있다. 당시의 지명은 매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고자 한다.

A. ① (漢州) __ 水城郡은 본시 買忽郡인데, 景德王이 改名하였으니 지금 水州다.²⁾

② (楊廣道) __ 水州는 원래 고구려의 買忽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水城郡으로 고쳤다.³⁾

위의 두 자료의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고려전기에는 수주였는데, 신라때는 수성군이었고, 그 이전은 매홀군으로 불렸는데 매홀군은 고구려 점령 당시의 지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매홀의 매는 고구려어로 ‘물’이라는 뜻이며, ‘홀’⁴⁾은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고을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매홀은 ‘물고을’이라는 의미이다. 경덕왕은 이를 ‘의역’하여 한자어인 ‘수성’으로 바꾸었던 것이다.⁵⁾ 그러므로 본래 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물’과 관련된 지역의 상징성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⁶⁾ 한편 조선후기에 작성된 지도인 『동여비고』에서는 백제의 북쪽지역과 고구려의 남쪽지역에 관한 내용을 실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수원을 매홀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에도 수원을 매홀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흔적이자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수원을 매홀로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사학계에서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볼 때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매홀로 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앓을 것 같다. 한국사학계에서의 통설은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동류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배층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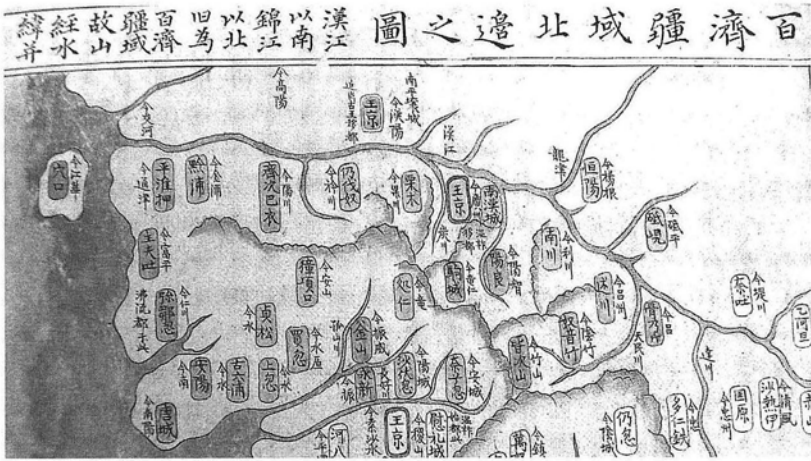
2) 『삼국사기』 권35 지리2 신라 한주 수성군조.

3) 『고려사』 권56 지리1, 양광도.

4) 구루는 성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나온다. 홀은 곡 구루 구려 등과 동음이사 현상이며, 이 구루는 고구려의 국명이 된다.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는 종전까지 호로고루 성으로 불렸으나, 여기서 고루는 성이므로 중복이 된다고 하여 지금은 호로고루로만 부르고 있다. 한편 호로고루도 호로로만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호로나 고루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5) 『삼국사기』 권9 신라 경덕왕16년(757) 12월조.

6) 수원 의 고지명을 모수(牟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도 물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호로고루처럼 물수라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동여비고』 백제강역북변지도

동이 부여 → 고구려 → 백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들의 언어의 유사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라도 백제에서 부르던 지명을 변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⁷⁾ 위의 내용을 보면 매홀이라는 지명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인 757년 이후부터 수성군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개명이 되면서 수성군이라고 한 것을 보면 신라 지방제도 아래에서 주 이하의 행정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⁸⁾ 이 시기 수성군의 관할지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단지 앞에서 소개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는 매홀의 위치와 같은 지역이라는 점은 위의 자료에 지명 변화 이외의 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그렇게 본다면 수성군의 위치는 지금의 수원시보다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성군은 당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던 당은현에 합병되었던

7) 오히려 백제가 이 일대를 점령한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은 많다.

8) 신라 점령 이후 이 일대는 553년에 신주, 557년에는 북한산주, 561년에는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9주 5소경의 설치에 따라 수원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하였다.

적이 있다.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B. (현덕왕) __ 15년(823) 2월, 수성군과 당은현을 합병하였다.9)

위의 내용으로 보면 수성군은 823년 이후부터 당은현에 합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기사の内容만으로는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수성군을 당은현에 합병을 한 것인지, 당은현을 수성군에 합병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하위의 행정구역을 상위로 병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수성군에 당은현이 합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당은현은 수성군의 통제를 받는 하위 행정구역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성군의 관할 현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¹⁰⁾

당은현이 수성군의 하부로 위치하게 된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은현이 한때는 당은군으로 되었던 적이 있었다.

C. 당은군은 본시 고구려의 당성군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였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대로 하였다. 영현이 둘이다. 거성현은 본래 고구려 상(혹은 차)홀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였으니 지금의 용성현이다. 진위현은 본래 고구려 부산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¹¹⁾

위의 『삼국사기』 지리지의 내용에는 당은군이 당성군의 개명이라는 사실은 밝히고 있지만, 당은현으로 되었던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

9) 『삼국사기』 권264 신라본기 현덕왕15년 2월조. (合水城郡當恩縣)

10) '合水城郡當恩縣'의 해석을 수성군을 당은현에 합병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무언가 수성군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단위의 공과로 인하여 승강을 하는 것은 자주 행해졌던 방법이다. 땅이 망소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11) 『삼국사기』 권36 지리2 신라 한주.

은군과 수성군과의 관계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리지에서 누락된 것이거나, 현덕왕 15년 이후에 또 다시 개편이 있었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현덕왕 15년에는 당은현이 있었고, 수성군에 합병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려전기 : ‘수주’ 시기

1) 수주로의 지명변화와 관할구역

신라말까지 수성군은 현재의 수원 남쪽에 있었던 군(郡) 단위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러한 수성군이 비약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된 시기는 고려초에 이르러서이다. 고려 태조대에 군 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격이 높은 주(州)로 승격되고 있는 것이다.

D. 고려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이 군의 사람인 金七, 崔承珪 등 2백여명이 태조에게 귀순하여 협력하였으므로 그 공로로 하여 수주로 승격시켰다.¹²⁾

위의 내용을 보면 수성군은 군의 인물인 김칠·최승규와 200여인이 고려 태조를 도와 남방정벌을 도운 공으로 수주로 승격되었다는 것이다. 군에서 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은 수성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수성군의 위치가 수주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주치(州治)가 되었다는 의미로, 행정단위의 등급에 따라 처우를 달리 했던 고려사회에서는 일종의 신분적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실이었다.

12) 『삼국사기』 권264 신라본기 현덕왕15년 2월조. (合水城郡當恩縣)

수성군에서 수주로 승격된 시기는 대체로 940년(태조 23)으로 추정된다. 고려 태조는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행정 편제화하면서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는데,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의 행정구획이 처음 정비된 시기가 바로 940년이기 때문이다. 이때 태조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주·부·군·현으로 구분하여 그 명칭을 고쳐 설정하였다고 한다.¹³⁾ 수성군도 그 가운데 하나로 수주로 승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때의 행정단위는 지역의 넓고 좁음이나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태조에 대한 충성과 신뢰에 상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지역의 호족인 김칠·최승규 등이 귀순하여 공을 세운 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을 것이다.

성종 14년에는 수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게 되었다.¹⁴⁾ 이 성종때의 지방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전국을 10개도로 하고, 12개 주에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 당시 설치된 10개의 도는 관내·증원·하남·영남·영동·산남·해양·삭방·패서도이며, 그 아래 주와 군의 총수는 5백 8십개였다.¹⁵⁾ 이때의 도는 지금과 같은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 도에 절도사를 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수주와 같은 주에는 도단련사 혹은 단련사를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⁶⁾ 성종때 설치된 수주의 도단련사는 목종 8년에 폐지되었다.¹⁷⁾

그리고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년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현종 9년(1018)에 실시된 지주사제로 되면서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개혁내용은 절도사를 폐지하고, 전국에 5도호와

13) 『고려사』 권56 지리 1.

14) 『고려사』 권56 지리1, 개관

15) 『고려사』 권56 지리1, 수주조.

16) 995년에 12목제를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절도사(節度使)·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자사(刺史)·방어사(防禦使) 체제로 전환하면서, 안변(安邊 : 영흥)·안서(安西 : 풍산)·안동(安東 : 김해)·안남(安南 : 영암)도호부를 추가했다.

17) 『고려사』 지리지1 수주조.

75도안무사를 두었다가, 얼마 후 안무사를 파하고, 4도호와 8목을 두었다. 그 뒤 5도 양계로 정하게 되었는데, 즉 양광·경상도·전라도·교주도·서해도와 동·북계이다. 전국에 총계 경 4개, 목 8개, 부 15개, 군 129개, 현 335개, 진 29개를 두었다.

이 현종때의 지방제 변화에서 수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수주에만 국한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현종 9년에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¹⁸⁾ 는 내용으로 보면 수주는 이 무렵 주 등급의 행정체제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5도 양계체제하에서 수주로 있으면서 지방관으로 지사가 관장하였다. 그 뒤로도 수주라는 명칭은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역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㉔ ① 명종 25년 춘정월 계묘, 왕이 수주 정곡촌에 노구가 있어 나이 104세인데 자손으로 장정된 자가 95인을 모두 요역에 이바지한다는 말을 듣고 穀 30석을 주었다.¹⁹⁾

②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수주의 속읍인 處仁部曲의 작은 성에서는 바야흐로 전투를 할 때 괴수 撒禮塔을 활로 쏘아 죽이고, 사로 잡은 것도 또한 많았다. 남은 무리는 궤멸하여 흩어졌다. 이로부터 기세를 상실하여 안정함을 얻지 못하여 이미 군사를 돌이켜 같다. 그러나 일시에 모아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먼저 가고 혹은 뒤에 가며 혹은 동으로 혹은 북으로 가고자 하여 가히 시일을 지정하지 못하겠으며 또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는지도 알 수 없다.²⁰⁾

18) 『고려사』 지리지 수주조.

19) 『고려사』 권20 명종세가

20)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 19년 12월

③ 愼安之의 자는 원로이니 역시 송나라 개봉부인이다. 아버지 수가 문종조에 배를 따라 왔는데 학식이 있고 또한 의술에 정통하여 과거에 놀라 벼슬이 수사도좌복야 참지정사에 이르러 치사하니 공헌이라 시하였다. 안지가 예종과 인종 이조를 섬겨 水州를 맡았을 때에 정사함이 많고 엄숙하여 관속은 두려워하고 백성은 사모하였다.²¹⁾

위의 내용에서 수주에 정곡촌이 있었고, 처인부곡이 속읍으로 있었으며, 당시 수주를 관장하였던 신안지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고종 이후까지 수주라는 명칭이 변하지 않았다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려묘지명집성』에서도 그 사례가 확인된다.²²⁾

2) 고려 현종 9년(1018)의 수주의 관할범위

고려시대 수주의 관할범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고려사』 지리지 개관에는 수주에 속한 현이 7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수주에 7개의 속현이 있었던 시기는 고려말에 해당한다. 고려사를 편찬하던 시기와 가장 가까웠던 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수주의 시기가 아니라 이미 수원도

21) 『고려사』 권97 열전 유재 부 신안지전.

22) 몇가지 예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의 이름은 사위이고, 자는 동환으로 한남도 광주목 관내 수주사람이다. <최사위 묘지명, 문종 29(1075), 『역주고려묘지명집성』(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5쪽.>
- 공의 이름은 계방이고, 자는 복시이며, 성은 최씨인데, 선조는 수주 출신으로 삼한의 대족이다. <최계방 묘지명, 예종 12년(1117), 『역주고려묘지명집성』(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54쪽.>
- 임금이 일찍이 간관 송단을 남쪽 지방에 보내어 10년 이래 전후 수령들의 다스린 성적의 우열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수주에서 공이 다스린 일이 최고로 꼽힌 지가 무릇 30년이나 되었다. <윤승해 묘지명, 고종대 추정, 『역주고려묘지명집성』(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632쪽.>
- 공의 이름은 함이고, 자는 자화이며, 성은 최씨이다. 8대조 서천은 한남사람이니, 한남은 지금 수주이다. <최함 묘지명, 의종 14년(1160), 『역주고려묘지명집성』(상), 김용선 역주,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84쪽.>

호부체제 이후의 사실이므로 수주의 관할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려의 지방제도가 가장 정비되었던 시점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여러차례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고려의 전형으로 보는 지방제도가 5도·양계제이다. 5도·양계제는 현종 9년(1018)에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수주의 관할범위를 살펴 보는 것이 수주의 사정을 아는 데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관계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F. ① 안산현(安山縣)은 원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산군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수주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충렬왕 34년에 문종이 탄생한 곳이라는 이유로 지군사로 승격시켰다.
- ② 영신현(永新縣, 烏陀, 또는 永豐이라고도 한다)은 현종 9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 ③ 쌍부현(雙阜縣)은 옛날의 육포(六浦)로서 현종 9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 ④ 용성현(龍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 車忽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은 차성(車城)으로 고쳐서 당은군(唐恩郡)의 관할 하의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수주에 소속시켰다.
- ⑤ 정송현(貞松縣)은 옛날의 송산부곡(松山部曲)으로서 현종 9년에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수주에 소속시켰다.

- ⑥ 진위현(振威縣)은 원래 고구려의 부산현(釜山縣, 옛날의 淵達部曲인 바 金山縣, 또는 松村活達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수성군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고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으며 후에 현령관으로 승격시켰다.
- ⑦ 양성현(陽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인데 신라 경덕왕은 적성으로 고쳐서 백성군(白城郡)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5년(1015)에 본 주에 소속시켰으며 명종 5년(1175)에 감무를 두었다.
- ⑧ 당성군(唐城郡)은 원래 고구려의 당성군인데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옛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수주의 소속군으로 되었다. 후에 본 인주(仁州)에 소속시켰다.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 16년(1290)에 홍다구(洪茶丘)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강녕도 호부(강녕도호부)로 되었고, 34년에 또 다시 승격시켜 익주목(益州牧)으로 되었는데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폐지 됨에 따라 낮추어서 남양부(南陽府)로 되었다. 대부도(大部島), 소우도(小牛島), 선감미도(仙甘彌島), 영흥도(永興島), 소물도(召勿島), 승황도(承黃島), 인물도(仁物島), 이즉도(伊則島), 잡랑곶도(雜良串島), 사야곶도(沙也串島), 난지도(難知島), 목력도(木力島) 등이 있다.
- ⑨ 재양현(載陽縣)은 옛날의 안양현(安養縣)으로 현종 9년에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수주 관하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인주에 소속시켰다.

위의 내용을 보면 현종9년의 수주의 속현은 모두 9개이다. 이 가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산 등 다른 지역의 속현으로 변한 경우가 나오지만, 수주의 관할 범위는 9개의 속현을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주의 관할지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종 9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주의 속현과 관할지역(현종 9년, 1018)

연번	지역명	삼국시대	경덕왕	고려초	현종5년	현종9년	?	비고(이병도)	위치비정
1	안산현	고구려 장항구현	장구군	안산군		수주		시흥군 수암면	안산 수암동
2	영신현	오타, 영풍				수주			영신
3	쌍부현	육포				수주			쌍부
4	용성현	고구려 쌍홀현, 차현	차성 (당은군)			수주		화성 남쪽	평택 안정
5	정송현	송산부곡				수주			정송
6	진위현	부산현 연달부곡 금산현 송촌월달	진위현 (수성군)	수주				화성 송탄	평택 진위
7	양성현	고구려 사복홀	적성 (백성군)		수주			안성 양성	안성 양성
8	당성군	당성군	당은군	당성군		수주	인주	화성 남양	화성 당성
9	재양현	인양현				수주 개명	인주		화성 남양
10	처인부곡							시기미상	용인 처인구

위의 <표 1>을 참고하면 고려 현종9년에는 수주의 관할지역에 속현이 9

23) 처인부곡은 그 뒤 처인현으로 바뀌었다. 최서가 최서현령으로 보직된 바가 있다.(최서묘지명)

개와 처인부곡²⁴⁾까지 포함하여 10개의 독립된 단위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다.²⁴⁾ 그 가운데 당성군과 재양현은 뒤에 인주로 소속이 바뀌고 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 속현이 7개로 『고려사』 지리지 개관조에 기록된 내용과 같아진다. 그렇지만, 현종 9년에는 속주가 9개이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처인부곡까지 포함해 10개 구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 지명이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앞의 <그림 1>을 참고로 하고 선학의 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위치 비정을 하면 수주지역은 지금의 수원시보다는 화성과 남양, 시흥 등 수원시의 외곽에 퍼져 있으며, 안성천과 서해안에 닿아 있다. 또한 재양현의 경우는 이전에는 안양현이라고 하였는데, 이 안양현도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이다.²⁵⁾ 그리고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처인 일대로 수주의 관할이었던 때가 있었다.²⁶⁾ 이 밖에도 안산현은 현재의 안산에 해당되며, 진위현은 평택의 진위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재까지도 살아 있는 지명들을 고려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지도에 비추어 보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 개략을 짐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수주는 안산·용인·안성·평택 등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런데 위의 지역들을 총괄하여 수주의 속현 분포를 살펴계 되면 지금의 수원과는 지리적 성격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의 수원시는 내륙에 위치한 분지와 같은 도시이다. 수원시를 흐르는 하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한 수원천이 있다. 그러나 결코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

24) 고려의 지방제도를 균형제영역과 부곡제영역으로 나누기도 한다.(박종기, 『고려시대부곡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5) 안양현은 지금의 안양 일대로 보면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안양시사에 보면, 안양시의 기원으로 두가지 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고려 태조가 건립했던 안양시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을 제기한다. 고려시대에도 안양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증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사』에 나오는 재양현=안양현은 지금의 안양시와는 다르다. 이 시기의 안양은 지금의 남양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6)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 19년 12월

주로 불리던 현종 9년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수주는 당성군과 인접한 안성천과 가까운 지역, 즉 물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주치가 있으며 그 서쪽은 서해와 연결된 물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다. 즉 ‘물의 고장’이 되는 것이다.

한편 수주의 관할범위에는 많은 향·부곡·장·처 등이 속해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다.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수주에는 정송현의 전신인 송산(松山)부곡을 비롯하여 20여 향·부곡·장·처가 나타난다. 부곡은 포내미·육내미·쟁홀·제촌·청구·사랑·공촌·양량·감미탄·마전·신곡·처인 등이다. 향은 주석·분촌·공이 등이 있었고, 장과 처는 오타장·종덕장·송장²⁷⁾·사정처·금음촌처·삼봉처·고등촌처·심곡처·유제처 등이 있었다고 한다.²⁸⁾

4. 고려후기 : ‘수원’ 시기

오랫동안 존속해왔던 수주의 명칭과 행정구역상의 성격 변화는 1271년(원종 12)에 일어난다. 수원이라는 이름은 몽골 간섭기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 G. ① 원종 12년(1271)에 착량(窄梁) 주둔 몽고 군사들이 대부도(大部島)에 침입하여 그 곳 주민들을 약탈하므로 섬 사람들이 격분하여 원한을 품고 몽고 군사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부사(副使) 안悅(安悅)이 부대를 동원하여 폭동군을 진압하였다. 그 공로로 하여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승격되었다.²⁹⁾

27)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장, 『동국여지승람』에는 부곡으로 나온다.

28)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제1권, 2005.

29) 『고려사』 권56 지리1 수주조.

- ② 신축에 착랑을 방수하던 몽고병이 대부도에 들어가 주민을 침탈하니 백성이 심히 원망하더니 대부인이 승겸(崇謙) 등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반하거늘 수주부사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토평하니 질(秩) 5품을 승진시켰다.³⁰⁾

위의 내용은 수원부사 안열이 대부도에서 몽고병을 죽인 대부도민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수주를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다는 사실을 전한다. 그리고 이때 수원이라는 지명이 기록상으로 최초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원이라는 명칭은 도호부라고 하는 군사적 기능을 가진 행정기구화 되면서 명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호부는 변경지역에 설치한 군정이 일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처음에는 새로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그러나 점차 시일이 경과하면서 자국내에도 중요한 거점에는 도호부를 설치하여 국방과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도호부는 주보다 행정기관의 격이 한단계 높아진 것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수주가 수원도호부로 명칭이 바뀌며 지역의 격이 한단계 높아진 계기는 바로 앞에서 인용한 대부도사건과 직접 관련된다. 그런데 이 대부도사건은

30) 『고려사』 권27 세가 원종 12년 2월 신축

31)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삼국시대에는 당(唐)이 도호부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 고려의 건국체인 918년(태조 1) 여진족을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해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했으며, 936년(태조 19)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전주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설치했다. 광종 때는 고부(高阜)에 안남도호부, 경종 때는 상주에 안남도호부를 두었다. 983년(성종 2)에 12목(牧)을 두면서 남부의 도호부를 폐지하고 안주에 안북대도호부를 두었다. 995년에 12목제를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절도사(節度使)·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 체제로 전환하면서, 안변(安邊: 영흥)·안서(安西: 풍산)·안동(安東: 김해)·안남(安南: 영암)도호부를 추가했다. 1018년에는 안동(경주)·안남(전주)·안서(해주)·안북(영주)의 4도호부제를 실시했다. 1022년(현종 13)에 안남도호부가 전주로, 1030년에 안동도호부가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개편되었는데, 기록상에는 계속 4도호부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에도 도호부의 수와 지역은 변동이 있었는데 대체로 해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했다. 관원은 초기에는 사(使: 4품 이상)·부사(副使: 5품 이상)·판관겸장서기(判官兼掌書記: 6품 이상)·법조(法曹: 8품 이상) 등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사와 사록(司錄), 또는 사와 법조만 두었다.

한국사에서 조명하였을 때 상당히 평가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위에서 예시한 내용으로 대부도사건을 수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원부사 안열의 전과 확대를 위한 전투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동을 일으킨 대부도민을 진압하고, 그 결과로 국가로부터 받은 은전(恩典)과 같은 논공행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단에서 결과까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 사건이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넘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도호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도사건의 발단은 고려 정부가 몽고와 강화를 하면서 출륙환도의 문제를 두고 조정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나타난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³²⁾ 이미 삼별초는 진도를 거점으로 대몽항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육지와 강화도는 몽고군에게 점령 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강화 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반몽감정이 높았던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앞의 인용문 B에 보이는 승겸·공덕의 대몽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H. ① 춘정월 계사에 관노 崇謙·功德 등이 그 도당을 모아 다루가치(達魯花赤)와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는 자를 죽이고 진도에 往役할 것을 꾀하였다. 대정 宋思均이 변을 고하자 왕이 장군 崔文本과 趙子一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케 하였다. 이윽고 지후 辛佐宣이 여항에 7~8인이

32) 삼별초는 출륙환도에 반대하였으나, 원종은 1270년(원종 11) 5월 27일 개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9일 장군 김지저(金之底)를 강화도에 보내어 삼별초의 명부를 압수하자, 삼별초는 6월 1일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승화후 온을 왕으로 세우고 항몽전을 펼쳤으나, 실패하였다. 그 뒤 제주도로 옮겨 저항을 계속했으나, 1273년(원종 14) 김방경 등이 이끄는 고려·몽골 연합군에 의한 탐라 공격으로 소멸되었다.

33) 당시의 고려라는 국가 정체성으로 본다면 난이라고 표현되어야 하지만, 삼별초의 대몽항쟁과의 일련의 과정에서 설명한다면 대몽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함께 말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 왕에게 말하기를 “일이 급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 해가 저물어가므로 재추 및 승선·중방·내시·다방이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지추밀원사 李玄原·상장군 鄭子璜을 보내어 구원을 脫染兒에게 청하니 탈타아가 홍다구 등과 더불어 재추를 모아 승겸 등 10여인을 잡아 국문하니 모두 自服하였다.³⁴⁾

- ② 2월 을미삭, 승겸 등 4인은 기시하고 그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송사군으로 섭별장을 제배하고 은병과 羅網 등의 물품을 사하였다. 기해에 상장군 정자여를 몽고에 보내어 방보와 승겸의 난을 고하였다.

위의 내용이 승겸의 난의 전말이다. 승겸의 신분은 관노인데 이들은 몽골의 다루가치와 조정의 중요 인물을 죽이고 삼별초에 합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이 되어 실패에 돌아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주변에 상당히 컸던 것 같다. 바로 대부도민들도 승겸의 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몽고군을 살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도민의 몽고병 살해는 출륙환도를 한 개경정부에 있어서는 반정부적인 폭도이지만, 삼별초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대몽항쟁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³⁵⁾

수주가 수원도호부로 승격된 것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고려 정세의 미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바로 대몽항쟁의 방법에 대한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대몽항쟁은 같은 지역민이라고 해도 대응하는 자세가 달랐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잠깐 나온 방보의 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4) 『고려사』 권27 세가 원종 12년 춘정월 계사.

35)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189쪽.

I. 춘정월 병술, 밀성군인 方甫·桂年·朴平·朴公·朴慶純·朴慶祺 등이 군인을 소취하여 장차 진도에 응하려 하여 이에 副使 李蓬을 죽이고 드디어 攻國兵馬使라 칭하고 군현에 이첩하며 그 당을 보내어 청도감무 林宗(혹 崔良梓)을 죽이자 청도군인이 거짓으로 항복하였다. 그리고 술을 마시어 취하게 하고 모두 죽여 버렸다. 이때에 밀성인 趙陴이 일선현령이 되었는데, 적이 천을 불러 함께 모반하고자 약속하니 천이 좃기로 하였다가 이어 그 당이 청도에서 섬멸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군인 孫逸과 더불어 적괴를 죽이려 하다가 안렴사 李敖(혹 李淑眞)가 금주방어사 金暄와 경주관 嚴守安으로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문득 이르매 천 등이 방보를 베고 항복하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³⁶⁾

방보의 사건은 당시 삼별초를 비롯하여 몽고에 대한 일반민의 정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수주부사로 있던 안열이 대부도의 몽고군을 죽이고 모반한 백성들을 평정하여 품질이 5품으로 승진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몽고와 강화를 한 고려에 있어서 삼별초는 반란군이었고, 방보의 무리는 반란군과 내통한 부하뇌동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반란의 무리를 진압한 수원의 부사 안열을 위한 최고의 포상은 수주를 승격시켜 그와 함께 안열의 지위를 높이고, 그 지역민을 우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수주는 수원도호부로 승격이 되었다.

수주가 수원도호부로 승격 된 것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는 이 일대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몽고군을 죽인 대부도인을 토평한 안열의 직무지였던 수주를 승격시킴으로써 안열에 대한 배려와 함께 몽고로부터의 비난을 면하

36) 『고려사』 권27 세가 원종 12년 춘정월 병술.

려고 했던 조치였을 수도 있다. 수원이라는 지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원은 도호부격의 지역으로 지속되었다. 물론 잠시 수주로 환원된 적이 있으나, 이 시기에는 도호부보다 격이 높은 목으로 승격되면서 이루어진 처사였으므로 그 위치에 크게 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³⁷⁾ 그리고 충선왕 2년에는 전국의 목(牧)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수원부(水原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원이라는 지명은 행정기관의 고저와 관련없이 사용되었다.³⁸⁾ 다음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J.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이 선봉부대를 파견하여 양광도 내 각 주·군에 항복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때 수원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적을 맞아 항복하였으므로 수원군으로 격하되었다. 그런데 수원군 사람들이 당시 재신(宰臣)인 김용(金鏞)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부(府)로 고치게 되었다.³⁹⁾

위의 내용을 보면 1362년 홍건적이 공격을 하였을 때 수원부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항복하여 수원군으로 격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으로 격하되었지만, 수원이라는 지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뒤로도 수원이라는 지명은 변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원의 고려말까지의 지명

37) '뒤에 다시 승격되어 수주목(水州牧)으로 되었다.'(『고려사』 지리지 수주조.)는 기록이 있으나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38) 관할구역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다.

39) 『고려사』 지리지 수주조, 『고려사』 권131 반역 김용 열전과 『고려사』 권56 지리지1 천안부 안성현에도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다. 안성현조에는 '홍적의 침입)때 안성군인은 수원 임내의 陽良·甘彌吞·馬田·薪谷의 네 부곡을 떼어 주었으나, 뒤에 김용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세 부곡을 도로 수원에 소속시켰다. 공민왕 10년에 홍적이 송도에 들어와 왕이 南巡하매 적이 선봉을 보내어 양광도의 주군을 초항코자 하니 이르는 곳에 감히 그 예봉을 꺾지 못하였으나 오직 현만이 거짓 항부하는체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먹고는 그 취한 틈을 타서 괴수 6인을 참살하니 적이 이로 말미암아 감히 남하지 못하였다. 11년에 그 공으로 지군사로 올리고 수원 임내의 陽良·甘彌吞·馬田·薪谷의 네 부곡을 떼어 주었으나 뒤에 김용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세 부곡을 도로 수원에 소속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고려말까지 수원지명의 변화

시 대	연 혁	비 고
원삼국시대	- 모수국(牟水國)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 (475년 ~ 553년)	- 매홀군(買忽郡)	
신라 (553년 ~ 668년)	- 553년 신주(新州) 설치 - 557년 북한산주(北漢山州) 설치 - 561년 남천주(南川州) 설치	
통일신라시대 (668년 ~ 935년)	- 685년 한산주(漢山州) - 757년(경덕왕16) 한주(漢州) 수성군(水城郡)	
고려시대~조선초 (918년 ~ 1392년)	- 940년(태조 23) 수주(水州) 승격 - 1271년(원종 12)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승격 - 1308년(충렬왕 34) 수주목(水州牧) 승격 - 1310(충선왕 2) 수원부(水原府) 격하 - 1362년(공민왕 11) 수원군(水原郡) 강등 - 1366년(공민왕 15) 수원부 승격 - 1413년(조선 태종 13) 수원도호부	

5. 수원의 지정학적 위치

지금까지 수원의 지명에 관하여 연원에서부터 관할지역에 관하여 살펴본 왔다. 그리하여 수원의 고지명 가운데 ‘매홀’이 고구려어로 가장 오랜 된 형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의미가 ‘물고을’로서 지금의 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도 ‘물고을’이라는 의미로서 수원은 신라 경덕왕때에 ‘수성’, 고려 태조때에 수주로 바뀌었으나 물과 관련된 고을이라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수원이라는 지명은 1271년(원종 12)에 처음 수원도호부로 개편되면서 확립

된 것임을 살펴 보았다. 그 이후로는 수원이라는 지명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변하지 않고 사용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원이라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변천은 지금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매홀’과 ‘수성’ 시기에는 아마도 독립된 군으로서의 영역과 그에 맞는 행정조직을 가졌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단지 비록 후대에 나온 지도를 통하여, 그 위치는 다소 지금의 수원보다는 서남쪽 방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고려의 ‘수주’ 시기에는 그 관할지역이 상당히 넓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1018년(현종 9)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지금의 수원일대는 물론 수주에 속한 9개의 현의 범위가 남양·안성·양성·직산·안산 등 지금의 용인군·안산시·안성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지역들을 포함한 수주는 대부분의 지역이 안성천을 끼고 있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물고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할구역은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고려 후기까지도 크게 변화없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륙도시라는 인상의 수원과는 엄청난 지리지거 차이가 있고 지역적 특성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원의 물고을로서의 지리적 특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K. 6월 병신, 감찰사가 상언하기를 “그윽히 들건대 乘輿가 수원에 행차하여 궁궐을 경영코자 한다하옵니다. 그러나 수원은 좁고 바다에 가까이 있어 왜구가 염려되으며 맨 처음 홍적에게 항복하였으니 인심을 보장하기 어렵나이다. 청주는 이미 순행을 준비하였고 또 삼도의 요충에 당하여 양곡운반에 편리하고 적이 능히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오니 원컨대 아직 청주에 어가를 멈추었다가 서서히 농사의 틈을 기다려 경성의 근지를 가려 써 이어할 곳을 삼으소서. 이제 농무가 바야흐로 성한데 어찌 가

히 난리를 치른 백성을 사용하여 공역을 일으키오리까?”하니 도첨의사에 내려 이를 논의케 하였다.⁴⁰⁾

위의 내용은 흥건적의 침입이 심해지자 천도할 지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록이다. 여기에서 보면 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수원은 좁고 바다에 가까이 있다고 하였다. 수원이 좁고 바다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물고을’로서의 수원의 특성을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다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수원은 자주 바다로부터 온 외적인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L. ① 3월, 왜가 남양에 침구하여 드디어 수원부를 불사르고 노략하였다.

부사 신안도는 겨우 몸만 건졌고, 원구·왕빈은 더불어 싸우다가 패전하여 군사 중강을 청하니 밀직부사 박수경으로 하여금 전투에 임하게 하였다.⁴¹⁾

② 5월, 왜가 서주 비인현에 침구하고, 또 수원·용구 등 처에 침구하자 호장 李富가 10여인을 금획하였다.⁴²⁾

③ 11월, 왜가 수원의 工二鄕에 침구하자 府使 許操가 賊의 諜者 3인을 잡았다.⁴³⁾

④ 우왕초 ____ 왜 50^旆가 다시 강화에 침입하여 府使 김인귀를 죽이고 1,000여 인을 사로잡고, 또 수원에 침입하자 나세가 원수 양백연과 더불어 전함 50척을 거느리고 이를 쳐서 쫓아버렸다.⁴⁴⁾

40) 『고려사』 권40 세가 공민왕 11년 6월 병신조.

41) 『고려사』 권133 반역열전 신우4년.

42) 『고려사』 권133 반역열전 신우4년.

43) 『고려사』 권135 반역열전 신우 10년 11월.

44) 『고려사』 권104 나세 열전.

⑤ 처음에 적(왜구)이 안성에 들어와서 삼밭에 복병하고, 포로 3~4명을 시켜 밭두렁 위에서 밭을 매며 농부같이 하여 속이게 하였다. 수원부사 朴承直이 3원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밭을 매는 자에게 문기를 “적이 물러갔느냐? 3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적은 이미 물러가고 3원수는 이를 추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승직이 이를 믿고 관아에 바로 들어가니 적의 복병이 뛰어나와 포위하자 승직이 單騎로 포위를 뚫고 탈주하니, 시졸이 많이 죽고 포로가 되어 수원에서 양성·안성에 이르기까지 속연히 다시 인가의 연기를 볼 수가 없었다.⁴⁵⁾

위의 내용을 보면 수원은 왜구로부터 침략을 자주 당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군사 지휘부인 도호부가 있으므로 당연히 군사공격 목표의 거점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왜구들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구들의 침구가 해양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원의 지리적 위치가 해양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수원의 지정학적 위치는 현대에 이르면서 고대와는 그 특성이 크게 변하였다고 하겠다. 고대에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원은 ‘물고을’이었으나, 점차 수원의 속현들이 독립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해안에 위치한 남양 등과 같은 지역들이 떨어져 나가 수원은 내륙 도시화되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5) 『고려사』 권126 간신 왕안덕 열전.

6. 수원의 역사적 재평가 -결론에 대신하여⁴⁶⁾

‘수원(水原)’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271년(원종 12)이다. 그러므로 올해는 수원이라는 명칭이 생긴지 740년이 된다. 수원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물이 많은 고장이라는 모수(牟水)·매홀(買忽)·수성(水城)·수주(水州)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수원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는 왜 물이 많은 고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수원에 대한 역사지리적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려묘지명집성』에 나오는 수주최씨들의 출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수주’에 대한 역자의 번역은 ‘경기도 수원시의 고려시대 이름’이다.⁴⁷⁾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 수주최씨의 세거지는 ‘경기도 수원시’라고 하기 보다 ‘경기도 화성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연구자의 불찰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수원시나 수원에 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수원의 역사지리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신라나 고려시대의 ‘州’의 관할 범위는 매우 넓었다. 광주·양주·무주·상주 등은 지금의 도의 범위에 버금간다. 그런데 많은 인물들의 출신을 ‘광주인’·‘상주인’·‘수주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시·군을 밝혀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그 지명이 현재의 시·군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국한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 광주의 왕규 같은 경우가 그렇다. 왕규는 광주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출신지를 지금의 광주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의 광주는 일제 때 광주군의 중심부가 된 곳이며, 실제로 왕규 생존 당시에는 지금의 하남

46) 수원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경우가 있다.

시가 광주의 대표적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가 수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수주최씨의 세거지라고 하면 지금의 수원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수주가 넓어서 수주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시 수주의 읍치(邑治)라고 하면,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보통리 일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수주최씨의 경우에 수주는 ‘경기도 수원시’가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라고 해야 당연하다.

한편 지금의 수원을 대표하는 화성은 조선 후기의 시설물들이다. 수원의 본래의 모습은 지금의 경기만과 안성천을 포함한 광역의 행정구역이었다. 그리고 그 행정기관의 격도 군·현(지금의 시·군)보다 높은 목·도호부·주(지금의 도·광역시)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수원은 지명상으로는 ‘물고을’ 이면서 ‘물 없는’ 수원이 되고 말았다. 행정기관의 단위로서는 군·현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수원은 통과인구나 유동인구로 볼 때는 이미 광역시의 기준은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원에 대해서는 지명의 역사적 근거와 함께 행정기관의 격에 관해서도 ‘물있는’ 수원과 ‘격이 높은’ 지역이라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려시대연구』 V, 2002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화성시사』, 2005

김용선, 『역주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연구』, 일지사, 2000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천소영, 『수원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신라말까지 수성군으로 불렸던 수원일대는 고려 태조대에 군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격이 높은 수주로 승격되었다. 수성군에서 수주로 승격된 배경은 '고려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이 군 사람인 김칠, 최승규 등 2백여명이 태조에게 귀순하여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는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편제화하면서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는데, 고려 지방행정 구획이 처음 정비된 것은 940년(태조 23)이라고 한다. 태조는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을 주·부·군·현의 명칭으로 설정하였다. 수주는 성종 14년에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게 되었다. 이 성종때의 지방제도 변천을 살펴보면 전국을 10개도로 하고, 12개 주에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 당시 설치된 10개의 도는 관내·중원·하남·영남·영동·산남·해양·삭방·패서이며, 그 아래 설치한 주와 군의 총수는 5백 8십개였다. 이때의 도는 지금과 같은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의 도에 절도사를 두었다고 한 것을 보면, 수주와 같은 주에는 도단련사 혹은 단련사를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 년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현종 9년(1018)에 실시된 지주사제로 되면서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개혁내용은 절도사를 폐지하고, 전국에 5도호와 75도안무사를 두었다가, 얼마 후 안무사를 없애고, 4도호와 8목을 두게 되었다. 그 뒤 5도 양계로 정하게 되었는데, 즉 양광·경상·전라·교주·서해도와 동계와 북계였다. 그 뒤 전국에 계 4경, 8목, 15부, 129군, 335현, 29진을 두었다.

이 현종때의 지방제의 변화에서 수원이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종 9년에 지주사로 고쳤다.'는 내용으로 보면 수원은 이 무렵 다시 주단위의 행정체계상의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5도 양계제하에서 주로서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그 뒤로도 수주라는 명칭은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역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수주는 속현을 9개나 두었던 넓은 관할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단위였다. 이 수주라는 명칭은 그 뒤로도 계속하여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수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271년(원종 12)이었다. 수원부사 안열이 폭동을 진압한 공으로 수주에서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 다시 1308년(충렬왕 34)에는 목으로 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수원부로 격하되었다. 그리고 다시 1362년(공민왕 11) 수원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1366년(공민왕 15) 수원부로 승격된 뒤 1413년(조선 태종 13) 수원도호부로 되었다. 수원이라는 지명은 1271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는 수원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된지 740년이 되는 해이다

* 주제어 : 매홀, 모수국, 수성군, 수주, 수원도호부, 수주목, 수원부, 수원

水原の地名變遷

李在範

水原の古地名には牟水、買忽という名が見える。牟水は‘水’と関係がある地名で、買忽も同様である。特に買忽は高句麗語で買は‘水’、‘忽’、‘は’、‘城’という意味である。水原一帯が新羅に占領された後、‘ムルゴウル(물고을)’という意味は漢字で意識され水城郡に変わる。そして高麗初期に金七と崔承珪というこの地域の豪族たちが高麗太祖を助け功を立てたことにより水州に変化した。この変化は単純な名称の変化だけではなく、‘郡’という行政単位において最も広く等級の高い‘州’になったという事実を示す。1018年(顯宗9)頃の水州は現在の水原の中心地とは異なり西南に位置し、華城、平澤、烏山等や龍仁、安山等の一部を含む広域であった。水州が水原に名称が変わった時期は1271年(元宗12)で水原副使の安悦が暴動を鎮圧した功により水原都護府に昇格されてからである。その後水原の行政単位名と管轄区域は変わったが、地名だけは水原が使用された。

* 主題語：買忽、牟水國、水城郡、水州、水原都護府、水州牧、水原府、水原

조선시대 수원의 상무전통과 '무향(武鄕)'의 형성

-17세기 방어사와 총융청의 설치를 중심으로-

정 해 은*

1. 머리말
2. '활쏘기에 힘쓰는' 수원사람들
3. 17세기 군영 설치와 '무향(武鄕)'의 형성
4. 읍지에 오른 무인들
5.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이 자리한 수원은 주로 18세기 후반 이후의 역사가 주목받는 편이다. 수원하면 화성이고 화성이면 수원이라 할 만큼 수원에 대한 관심은 화성이 건립되고 장용영 외영이 설치된 정조 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함께 수원의 군사 위상 역시 화성이 축조된 시기를 중심으로 조명되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고 있다. 수원이 정조 대에 장용외영이 설치되고 우수부로 승격되면서 18세기 후반 경기에서 중요한 군사적 위치를 점했던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18세기 말 정조대의 신도시 화성 건설로 인해 수원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를 부여받아 역사의 전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말해지거나, “수원은 이제 왕가의 발상지이자 무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¹⁾

그런데 수원이나 화성에 대한 연구가 18세기 후반에 집중되다 보니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조시대 화성이 조성되기 이전의 역사는 옛 읍치(邑治)로서의 수원만 조명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수원이 정조 대에 부각되어 도성 방어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정조시대 수원에 대한 이해가 주로 화성의 건설 과정, 화성의 구조 및 방어력 등에 치중하다보니 정조가 왜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애매모호한 편이다.²⁾

이 글은 18세기 후반 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18세기 이전 수원의 군사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군의 정비 문제를 논하면서 간략하게 언급한 글이 있을 뿐이다.³⁾

사실 수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보면 18세기 이전에 이미 수원은 도성의 보장처로서 부각되고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시선을 끈 자료가 17세기 후반 실학자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

1) 최홍규,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경기사학』 4, 2000, 6쪽 ; 배우성, 「정조의 우수부 경영과 화성 인식」, 『한국사연구』 127, 2004, 260쪽

2) 수원 및 화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최홍규, 「제7장 조선 후기 경기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특히 화성과 수원지방사 연구와 관련하여」,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일지사, 2005)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정조대의 군사사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7쪽에 자세하다.

3)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서울, 한국연구원, 1985), 90~106쪽

志)』(1656년)였다. 이 책에서 유형원은 수원의 풍속에 대해 “농사에 열심이
며 활쏘기에 힘쓴다.”고 기록하였다. 유형원의 지적은 수원의 상무 전통을
화성 이전으로 소급해야 하며, 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7세기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글은 정조가 수원에 주목한 배경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론으
로서 유형원의 지적에 근거하여 수원이 언제부터 ‘무향(武鄕)’으로 자리 잡
았는지를 밝힌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수원이 무향으로 형성된 시기를
추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첫째, 임진왜
란 이후부터 1601년 방어사의 설치까지 수원의 연혁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수원의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함께 임진왜란 이후 도성 수비에 대한 인식이 수원이 중요 군사 지
역으로 부상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탐구해보았다.⁴⁾ 둘째, 인조
대 충용청의 설치를 통해 방어사 설치 이후 달라진 수원의 위상과 함께 수
원이 무향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셋째, 17세기 수원 지역의 특
성을 수원 읍지의 인물조를 분석하여 접근해보았다. 수원인들이 기억하고
싶은 무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수원의 무풍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글은 단순히 수원의 상무 전통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의 군사적인 변화를 통해 수원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것은
‘무(武)’라는 프리즘을 통해 수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이며, 18세기 후
반 정조시대의 수원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기도 하다. 이 글이 수원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4) 17세기는 아니지만 18세기 후반 화성과 도성의 연계성을 논의한 논문으로 장필기, 「정조대의 화성
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서울학연구소, 1998); 배우성, 앞의 논
문이 주목된다.

2. ‘활쏘기에 힘쓰는’ 수원사람들

17세기 후반의 지식인 반계(潘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1656년(효종 7)에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라는 역사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수원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 수원의 상무 전통과 관련해 재미 있는 사실이 실려 있다. 곧 풍속조에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⁵⁾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 “활쏘기에 힘쓴다.”는 표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데 전국을 뒤져봐도 이렇게 표현된 지역을 찾기 어렵다.⁶⁾

유형원은 수원지역에 대해 꽤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도 수원에 대해 “북쪽 들 가운데 지세를 보고 생각하니 지금의 읍치도 좋기는 하나 북쪽 들은 산이 크게 굽고 땅이 태평해 농경지가 깊고 넓으며 규모가 광원하여 성을 쌓아 읍치로 삼으면 참으로 큰 번진(藩鎭)이 될 수 있는 기상이다. 그 땅의 안팎에다 1만 호(戶)를 수용할 수 있다.”⁷⁾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수원에 대한 자세한 지적으로 보아 유형원이 수원을 답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활쏘기에 힘쓰는다는 지적도 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 사람들이 활쏘기를 열심히 한다는 지적은 18세기 중반 영조 대에 편찬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곧 수원사람들이 “무예[武技]를 좋아하고 인심은 질박하다. 글을 아는 사람이 적고 밭농사를 즐겨 한다.”⁸⁾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지도서』에 실린 이 내용은 『수원부읍지』(편년미상, 19세기후반 추정)나 『수원군

5) 유형원, 『東國輿地志』 권2, 경기 수원도호부, 풍속 “務稼穡 力於射藝”

6) 참고로 『여지도서』에서 경기지역을 조사한 결과 武에 관한 언급된 지역으로 진위와 廣州가 있다. 진위는 “재능과 기예가 있으니 무인이 선비보다 많다.”, 廣州는 “문(文)·무(武)를 숭상한다.”고 되어 있다.

7) 『潘溪隨錄』 보유 권1, 군현제, 수원도호부

8) 『輿地圖書』 보유편(경조·송도·수원) 수원부읍지, 풍속. “好武技 人心多質 小文而好田作”

읍지』(1899년)에도 그대로 올라 있다. 이처럼 『동국여지지』를 시작으로 『여지도서』를 비롯하여 각종 읍지에 실린 내용으로 보아 수원의 지역적 특성이나 분위기가 '무(武)'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원에서 활쏘기나 무예를 즐겨하는 분위기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연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수원에 진(鎭)이 설치된 시점은 도호부 시절인 1455년(세조 1)이었다. 세조가 내륙도 변방처럼 요해처를 설치해 외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의 주요 거점 지역에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소속시켰던 것이다. 이 때 경기의 거진으로 선택된 곳은 광주, 양주, 부평이었고, 수원은 부평도의 좌익(左翼)에 소속되었다.⁹⁾ 곧 이 때만 하더라도 수원은 군사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457년에 다시 전국이 진관체제로 개편될 때에 부평도에 소속된 수원이 거진으로 승격되었다. 이때 경기의 거진으로 선정된 곳은 광주, 수원, 양주, 강화, 개성이었다. 독진(獨鎭)이던 강화 및 개성을 거진으로 만들고 부평 대신에 수원으로 교체한 것이었다. 수원은 거진이 되면서 부평·인천·금천·안산·남양·진위·안성·양성 등 근처 지역의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다.

그 후 진관체제는 수정을 거쳐 전국의 읍을 주진(主鎭:첨절제사) → 거진(巨鎭:동첨절제사) → 제진(諸鎭:절제도위)으로 세분화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에 실리게 되었다. 『경국대전』에서 경기의 주진으로 최종 결정된 곳은 광주, 수원, 양주, 장단이었다.¹⁰⁾

9) 『세조실록』권2, 세조1년 9월 계미

10)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서울, 한국연구원, 1983), 243~252쪽

〈표 1〉 『경국대전』에 나타난 경기의 진관체제

진관	수령지위	참절제사	동참절제사	절제도위
광주진관	광주목사	여주목사, 이천목사, 양근목사		광주판관, 여주판관, 지평현감, 음죽현감, 양지현감, 죽산현감, 과천현감
수원진관	수원부사	부평부사, 남양부사, 인천부사 안산군수, 안성군수		수원판관, 진위현령, 양천현령, 용인현령, 금천현령, 양성현감, 통진현감
양주진관	양주목사	파주목사, 고양군수		영평현령, 포천현감, 적성현감, 교하현감, 가평현감
장단진관	장단부사	강화부사, 풍덕군수, 삭녕군수 마전군수		연천현감, 교동현감

수원이 평범한 부(府)에서 거진에 이어 주진으로 승격한 배경은 무엇보다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한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15세기경 수원은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1만결 이상에 달한 군현 22개 가운데 한 곳이었다. 수원이 경지면적이 넓었다는 사실은 18세기 후반에 다시한번 확인된다. 정약용(丁若鏞)은 민호의 수와 전결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읍을 대주(大州)부터 잔읍(殘邑)까지 8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가장 큰 읍인 대주 15개에 수원이 올라있다.¹¹⁾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원은 군정(軍丁)도 많았다. 1470년(성종 1) 3도의 군정을 재정비할 때에 수원은 전국에서 군사 1천이 넘는 20곳 가운데 하나였고, 경기에서는 최고로 많은 군정을 보유한 곳이었다. 당시 경기의 군정 6,373명 가운데 수원의 군사만 1,249명으로, 광주(245명)나 개성(728명), 강화(250명) 등을 제치고 경기에서 으뜸을 차지하였다.¹²⁾ 1466년(세조 12)

11) 최영준, 『영남대로-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411~412쪽

12) 『성종실록』 권3, 성종1년 2월 기묘. 경기의 군사규모를 보면, 지평 25명, 양천 21명, 영평 21명, 김포 21명, 부평 207명, 가평 51명, 진위 136명, 파주 107명, 죽산 184명, 교동 36명, 과천 55명, 마전 10명, 용인 172명, 양주 262명, 삭녕 93명, 양성 218명, 포천 89명, 인천 89명, 안성 191명, 양근 59명, 안산 55명, 수원 1,249명, 양지 92명, 적성 25명, 강화 250명, 음죽 147명, 연천 55명, 광주 245명, 풍덕 117명, 남양 198명, 여주 231명, 이천 257명, 통진 101명, 교하 127명, 개성 728명, 고양 167명, 금천 55명, 장단 138명이다.

에 판관을 수원에 둔 것도 지역이 넓어서 수령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¹³⁾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물적, 인적 요소가 풍부하던 수원이 거진·주진으로 승격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각종 자료에 수원이 주진으로 승격된 사실만 나올 뿐 수원의 군사적인 요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전기에 함흥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를 풍패지향(豊沛之鄕)이라 하면서 무풍(武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과 같은 정책을 수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수원이 주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중요 지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관체제에서 주진일 뿐이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따로 무풍을 진작시킨 지역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로서 조선왕조실록에서 16세기까지 수원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면 진(鎭)의 설치 이외에 군사에 관한 기록이나 특징을 말해주는 기록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또 15~16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등 읍지를 조사해도 수원의 풍속이나 특징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원이 군사 방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읍이 아니었다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에 수원의 특성을 상무와 연관시킨 기록은 아마도 『동국여지』가 처음이며, 수원이 '무풍(武風)'의 도시로 각인되기 시작한 것도 17세기 무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으니 수원에 파견된 수령들의 명단이다.

오늘날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수원부읍지』¹⁴⁾에는 <부사선생안(府使先

13) 『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 1월 무오

14) 본고에서 이용한 『수원부읍지』(규장각소장), 『수원군읍지』(장서각소장), 『화성지』(규장각소장)는 「국역 수원부(군)·남양부(군)읍지」(2006, 화성시)를 이용하였다. 이하에서는 따로 각주를 밝히지 않았다.

生案)이 남아있다. <부사선생안>에는 선조 대 부터 수원이 유수부가 되기 전인 1793년(정조 17)까지 수원에 파견된 수령들의 명단과 함께 출신 성분을 표시해놓았다. 수령이 문과 출신이면 ‘문(文)’, 무과 출신이면 ‘무(武)’, 음관 출신이면 ‘남(南)’으로 기록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수원부읍지』를 기준으로 수령들의 출신을 정리했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¹⁵⁾

<표 2> 선조~정조연간 수원에 파견된 수령의 출신성분

출신성분	원조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計
문신		11	4	2	3	12	33	5	32	12	114
%		45.8	57.1	12.5	37.5	70.6	73.3	100	64	85.7	61.3
무신		11	3	8	3	3	6	·	13	2	49
%		45.8	42.9	50	37.5	17.7	13.3	·	26	14.3	26.3
음관		2	·	6	2	211.8	6	·	5	·	23
%		8.3	·	37.5	25	·	13.3	·	10	·	12.4
計		24	7	16	8	17	45	5	50	14	186
%		99.9	100	100	100	100.1	99.9	100	100	100	100

* 근거자료 : 『수원부읍지』

<표 2>에서 보듯이 『여지도서』에는 수원이 문·무 출신의 수령이 교차로 파견된 곳으로 되어 있으나,¹⁶⁾ 실제로 비중이 낮은 하나 음관도 파견된 지역이었다. 표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선조~인조 대에 무신 수령의 비중이 45.8%, 42.9%, 50%로서 꽤 높았다는 사실이다. 현종 대 이후로 수원 부사는 문신 위주로 파견되었는데 유독 선조 및 인조 대에는 수원부사의 절반

15) 참고로 『수원부읍지』 <부사선생안>에 문·무·음이 기록된 시기는 선조 대 현감 우성전부터 수원이 유수부가 되기 전인 1793년(정조 17)까지이다. 현감 우성전이 언제 부임했는지 알 수 없으나 1581년(선조 14) 2월에 파직되었다. (『선조실록』 권15, 선조14년 2월 을미).

16) 『여지도서』 보유편(경조·송도·수원) 수원부읍지 관직. “官職 都護府使兼兵馬左防禦討捕使(文三品 武二品)”

정도가 무신으로 파견되어 문신 수령과 격차가 큰 편이다.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문·무 출신 수령을 교차로 파견된 지역은 주로 군사적으로 중시된 연변지역에 집중 분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무 교차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문신의 임용이 우세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무신의 임용이 우세한 지역도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는 전반적으로 문·무 교차 지역의 경우 문·음·무 교차 지역 내지는 무신 파견 지역으로 변해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¹⁷⁾ 그러나 수원은 이 경향과 다소 차이가 난다. 문·무 교차 지역으로서 선조~인조 대까지 무신 수령의 비중이 높다가 현종 대 이후로 문신 파견 지역으로 변해가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선조(宣祖) 이전 시대의 수원지역 선생안(先生案)이 남아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연대기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조선전기에도 수원은 문신이 주로 임용된 지역으로 판단된다. 중종 대에 사헌부에서는 수원에 무신이나 남향 출신을 수령으로 임명될 때마다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이요, 지역도 넓고 사람과 물산이 많기 때문에 예로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 왔습니다.”고 하면서 문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일수였다.¹⁸⁾

임진왜란기도 수원의 사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진왜란기 수원에 파견된 부사 8인은 음관출신 부사 유영건을 제외하고 모두 문관이었다. 더구나 유영건의 경우 1597년에 사간원에서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이고 또 산성을 지키는 일과 군병을 조련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그를 파직하는 대신에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임명하자고 건의하였다.¹⁹⁾ 결국 유영건은 파직되었고 새로 임명된 부사는

17) 구완희, 『조선후기의 수령제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5~29쪽

18) 『중종실록』 권64, 중종24년 1월 병오 ; 『중종실록』 권93, 중종35년 5월 경술. 1529년에 문제가 된 김구는 1510년(중종 5년)에 무과에 장원 급제한 인물이다.(『중종실록』 권10, 중종 5년 3월 정축)

19) 『선조실록』 권87, 선조30년 4월 경진

문과 출신 정업이었다.

이처럼 무신이나 남향 출신의 수령을 꺼리던 수원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1604년(선조 37)으로 선조가 집권하던 후반기였다. 1604년 이후부터 1608년 선조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파견된 수령 8인이 모두 연거푸 무신이었다. 광해군도 집권하면서 계속 무신을 파견하다가 사간원과 비변사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1614년부터 문신 수령을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인조 연간에 다시 무신 수령이 늘어나게 되었다.

수원에 파견된 무신 또는 문신 수령의 경향성은 조선 관료제의 특징이나 문치주의(文治主義) 속성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이나, 필자가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한 사항은 1604년이라는 시점이다. 1604년 이후부터 인조 대에 걸쳐서 무신 수령의 비중이 높았다면 수원의 역할이나 위상이 이전 시기와 달리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신과 무신 수령이 비율이 같은 효종 대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변화가 17세기 초·중반에 걸쳐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동국여지지』의 편찬 시기와 겹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수원은 17세기 초에서 중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동국여지지』에서 활쏘기를 좋아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과출신의 부사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란 여러 정황으로 살펴건대 군사적인 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겠다.

3. 17세기 군영 설치와 '무향(武鄕)'의 형성

1) 임진왜란과 방어사의 설치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수원은 경기의 다른 읍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침입을 겪었다. 특히 제2차 평양성전투와 해주대첩 이후 조·명연합군에 쫓기던 일본군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²⁰⁾ 그러나 일본군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물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풍요로운 편이었다.

1592년 9월 무렵 비변사에서 “(수원은) 창고의 곡식과 군민(軍民)이 제일 넉넉하고도 많아 경성의 울타리가 되어 왔으며, 적도가 여러 차례 들어갔으나 물력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²¹⁾고 보고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 준다. 1593년 말에도 “수원이 경기에서 조금 온전하여 온갖 경비[調度]를 여기에서 장만하였다”고 할 정도였다.²²⁾

임진왜란기 물산이 풍부한 수원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군사적인 평가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비변사에서는 “강화는 해로의 보장처이며, 수원은 또 남쪽길의 요충이니, 요새를 설치하고 곡식을 저장하여 서로 견제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실로 기의(機宜)에 합당합니다.”²³⁾고 하면서 강화와 수원을 호응관계로 파악하였다. 또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이고, 또 산성을 지키는 일과 군병을 조련하는 책무가 있습니다.”²⁴⁾는 지적처럼 서울의 보장지이자 양호의 요충지로 부상하였다. 전쟁 중이던 1593년·1594년에 왕세자(광해군)가 수원에 두 번이나

20) 『선조실록』 권36, 선조26년 3월 갑자, 기묘, 임오 ; 『선조실록』 권39, 선조26년 6월 무자

21) 『선조실록』 권30, 선조25년 9월 경오

22) 『선조실록』 권45, 선조26년 윤11월 을미

23) 『선조실록』 권67, 선조28년 9월 임신

24) 『선조실록』 권87, 선조30년 4월 경진

머물렀던 일이나,²⁵⁾ 선조가 친정(親征) 의사를 밝히면서 “수원과 공주 사이를 왕래하면서 독전하려한다.”²⁶⁾고 말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임진왜란기 수원을 군사요충지로 만든 요소는 독성산성의 존재였다. 사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성산성에 대해 373년 이전에 축성되었으며 삼남으로 통하는 요충일 뿐만 아니라 백제초기부터 군사적으로 중시해온 산성으로 보고 있다.²⁷⁾

그러나 독성산은 『삼국사기』에 한 번 등장한 이후 『고려사』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²⁸⁾ 『세종실록』지리지 「수원도호부」조에도 독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동국신증여지승람』에서 ‘독성산(禿城山)’으로 등장하는데 “부 남쪽 77리 되는 곳에 있다”고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²⁹⁾ 이처럼 독성산성의 존재는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그저 평범한 산에 불과하였다.

독성산이 요새로 부각된 때는 1593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1593년 1월에 조선 정부는 명군 지휘부의 요청으로 전국에 주둔해있는 병력수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군사 4천을 이끌고 수원에 주둔했다가 행주로 옮겨갔다.³⁰⁾ 그런데 수원 의 각종 읍지를 검토해보면 권율이 주둔한 곳은 다름 아닌 독성산이었다.

1603년(선조 36) 이정구(李廷龜)가 쓴 독성산성의 기문(記文)에 따르면 “만력 임진년에 왜구가 크게 이르자 도원수 권율이 여기저기서 싸우다가

25) 『선조실록』 권45, 선조26년 윤11월 경자; 『선조실록』 권54, 선조27년 8월 무진

26) 『선조실록』 권83, 선조29년 12월 25일(정해)

27) 최홍규,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경기사학』 4, 2000, 14~15쪽

28) 『고려사』에 나오는 ‘독산’은 평안북도 강동성 근처에 있는 지역이다.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수원도호부 산천

30) 『선조실록』 권34, 선조26년 1월 병인; 『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기유

이곳에 들어가 거점을 삼아 여러 번 적병을 물리쳤다. 이에 사람들이 이 성의 형편이 나라의 요충이 되는 곳임을 알았다.”³¹⁾고 한다. 곧 독성산은 1592년에 권을 장군의 분투가 계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는 의미다.

독성산을 요충지로 주목한 사람은 임진왜란기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로서 군무를 주관한 유성룡(柳成龍)이었다. 1593년 유성룡은 “원주·지평·양근에는 수어할 만한 곳이 많고, 광주의 남한산성, 수원의 독성, 금천의 금지산은 모두 특이한 요새로 되어있어 여기를 지키면 호남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고 건의하였다.³²⁾ 이듬해에도 유성룡은 “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수원·인천·행주 등의 경우로 보면 산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³³⁾고 하면서 독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독성이 산성으로 면모를 갖춘 해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수원 읍지는 모두 1602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만기요람』에는 1593년에 쌓았다고 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1592년에 “옛 성을 수축했다”고 하면서 1602년에 변응성이 수축했다고 함께 적고 있다. 『선조실록』에는 1594년 9월에 독성에 곡식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하고, 1595년 10월에 성첩을 쌓고 포루도 설치하는 등 제반 시설을 정비했다고 나와 있다.³⁴⁾

수원의 읍지들에 나오는 1602년은 수원에 방어사가 설치된 직후이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독성이 임진왜란 직후에 수축되었다가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거듭 보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분명한 사실은 1596년 무렵에 독성산이 일본군이 다시 침입할 때 지키기 좋은 곳으로 꼽혔다는 점이다.³⁵⁾ 1597년 1월에도 선조가 독성산성에 대해 묻자 노직

31) 유흥원, 『東國輿地志』 권2, 경기 수원도호부 성곽; 『水原郡邑誌』 산성

32) 『선조실록』 권43, 선조26년 10월 임인

33) 『선조실록』 권53, 선조27년 7월 계사

34) 『선조실록』 권55, 선조27년 9월 갑오; 『선조실록』 권68, 선조28년 10월 병인

35) 『선조실록』 권82, 선조29년 11월 무오

이 “들으니 하삼도에는 이렇게 험하고 견고한 성은 없다고 합니다.”고 대답한 것도 확 달라진 독성산의 위상을 알려주고 있어 대단히 인상적이다.³⁶⁾

여기서 독성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방어사이다. 수원이 중시되고 독성이 부각되면서 수원에 방어사(防禦使)를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1593년에 유성룡은 독성을 주목하면서 경기방어사를 차출해 광주·이천 등지의 군사를 취합해 서울을 방어하자고 건의하였다.³⁷⁾ 1595년 비변사에서도 독성산성에 방어에 요긴한 무기를 갖추고 군사 단속을 전담시키기 위해 방어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³⁸⁾

그러나 여러 건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 방어사 설치는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방어사가 설치되었다. 1601년 윤두수는 경기 방어책으로서 “수원은 경기 가운데 가장 큰 고을로서 무인이 거의 1천 명에 이르니, 실로 우리나라의 정병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도 누차 군사를 조련하였고 독성과 같은 요새지도 있습니다.”³⁹⁾고 하면서 수원에 병영을 설치하고 지휘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결국 1601년(선조 34) 9월에 김거병이 수원 부사 겸 방어사로 임명되면서 수도 방어사를 둔 지역이 되었다.⁴⁰⁾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수원은 임진왜란 동안 군사 요새로 중시되었고 1601년에는 방어사까지 설치되었다. 수원에 무신 수령이 파견된 시점 역시 1604년 이후로서 방어사 설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수원이 임진왜란기에 주목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 조선전기까지 그저 산에 불과한 독성에 산성을 쌓아 요새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임진왜란기 수원에 대해 쏟아져 나온 평가에서 수원

36) 『선조실록』 권85, 선조30년 2월 병술

37) 『선조실록』 권43, 선조26년 10월 임인

38) 『선조실록』 권67, 선조28년 9월 경오, 임신

39) 『선조실록』 권135, 선조34년 3월 을묘

40) 각종 읍지에는 1602년에 수원에 방어사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선조실록』에는 1601년으로 나와 있다.

을 서울의 보장지이자 남쪽길의 요충지로 강조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적으로 수원에 대해 도성 보장지의 역할을 부여했음을 뜻한다. 1592년 비변사가 서울을 회복하는 방책으로 “남쪽군사가 수원 등지에 주둔했다가 바로 경성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⁴¹⁾이라 한 것도 도성 보장처로서 수원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수원의 군사적 성장이 지니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조선의 수도 한성이 크고 작은 산과 길고 짧은 하천들이 막고 감싸있어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곳이라고 평하고 있다.⁴²⁾ 이러한 평가는 처음 한성을 수도로 정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신료들의 평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성종 대에도 노사신·양성지 등은 “그 지세의 훌륭함은 동방의 으뜸이요 천연의 요새지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사람들의 인식은 다소 달랐던 것 같다. 한성이 외적이거나 반란군에게 점령당한 역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도성의 방어력에 대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1712년(숙종 51) 판중추부사 이유는 “도성이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려운 것은 실로 동쪽과 서쪽이 평탄하기 때문이다.”고 했으며 숙종 역시 “도성은 지형이 평탄하고 주위가 넓어 방어하기 힘들다”고 토로하였다.⁴³⁾

또 수도 한성을 둘러싸고 있는 도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성의 기능이 외적 방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5년에 조사된 서울의 도성 길이는 약 18km정도다. 한양을 둘러싼 도성은 1398년(태조 7) 2월에 완성되었다가 세종 대에 다시 보수되었다. 1421년(세종 3)에 보수된 도성은 성의 높이도 종전보다 더 높아졌으며, 성 위에도 낮은 담장인 여장을 신축하

41) 『선조실록』 권31, 선조25년 10월 기유

42)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992), 243~245쪽; 원영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25쪽

43) 『숙종실록』 권51, 숙종38년 4월 신유; 『숙종실록』 권38, 숙종29년 3월 경신

고 성구(城口) 16,000개 정도를 설치해 방어력을 높였다.⁴⁴⁾

그럼에도 조선전기의 도성은 주변국 성곽에 비해 다소 방어력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중국 북경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오사카성에 비해 성곽의 높이가 2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낮으며, 위의 성들이 너비 20~30m 이상의 해자 시설이 있는 반면에 해자도 없는 구조이다.⁴⁵⁾ 프랑스 왕 샤를 5세가 잉글랜드의 공격으로부터 파리를 지키기 위해 1370년에 동쪽 교외에 세운 성곽 요새인 바스티유(Bastille)도 높은 성곽과 함께 너비가 24m의 해자가 있었다.⁴⁶⁾

그렇다면 조선은 외적으로부터 도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려고 했을까? 조선이 건국되면서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한 존재는 북방의 여진과 남방의 왜구였다. 그래서 조선초 국방의 관심은 도성이나 내지보다는 변경 지역에 집중되었다. 조선이 선택한 방위전략은 적을 국경에서 곧바로 물리쳐 적이 조선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었고,⁴⁷⁾ 그런 가운데 도성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국방 체제는 변경의 관방(關防)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관방이란 요충지에 험한 시설을 만들어 방어를 튼튼히 하는 것을 말한다.⁴⁸⁾ 조선후기 도성 방어의 확립을 꾀한 영조조차 “강토를 방비하면서 외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고, 도성을 지키며 외부의 원조를 기다리는 것이 중등의 계책이고, 황급하게 파천하는 것이 가장 하책이다”⁴⁹⁾ 고 했듯이 방위전략의 으뜸은 적을 변경에서 막아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16세기 말 조선이 직면한 현실은 초기에 상정한 국경 중심의 방위 전략을 고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

44) 원영환, 앞의 책, 131~138쪽

45) 이기봉,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새문사, 2008), 34쪽

46) 버나드 로 몽고메리 지음, 송영조 옮김, 『전쟁의 역사(A History of Warfare)』(책세상, 1995), 283~284쪽

47) 김호일, 『양성지의 관방론』,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1, 22쪽

48) 『萬機要覽』, 군정편 4, 관방(민족문화추진회 간행본, 1989, 2책 363쪽)

49) 『영조실록』, 권10, 영조2년 9월 기해

면서 전황이 불리하자 선조는 한성을 포기하고 백성을 뒤로한 채 피난길에 나섰고 예상대로 도성은 수성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토방위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했고 도성 방위의 필요성이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선조는 서울 환도 후 도성을 점령당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성의 외곽인 경기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성곽을 축조해 도성을 지키려고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성룡에 의해 북한산성의 축성이 건의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기 수원을 도성의 보장처로 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방어처를 갖추기 위해 독성을 새롭게 주목한 이유도 달라진 조선의 도성 방어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수원의 풍부한 물산과 군정이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수원에 방어사를 설치한 것도 도성 방어의 연장선이었다. 방어사가 조선 전기에 임시 비상체제에 따라 요해지에 파견되다가, 왜란 이후 수원을 비롯하여 광주·과주(이후 장단)에 증설,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란을 비롯하여 이괄의 난, 호란 등을 겪는 동안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는 난국을 당하자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설치한 것이 방어사였던 것이다.⁵⁰⁾

요컨대, 조선이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면서 도성이 함락된 경험은 그때까지 분명하게 천명되지 않던 도성 방어를 새롭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풍부한 물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수원이 도성을 보호할 새로운 지역으로 부각되었고, 전쟁 이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군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50) 차문섭, 「조선 후기 병마방어영 설치고」,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255~257쪽

2) 총융청과 수원군의 역할

수원은 1601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 달리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임진왜란 동안 문신이 파견되던 수원에 방어사 설치 이후 무신이 파견된 것도 달라진 수원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수원이 방어사 설치를 전후한 시기에 무의 중심지로 부각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자리하였다.

첫째, 수원을 군사 요충지로 공고히 한 데에는 독산성의 역할이 컸다. 1610년(광해군 2) 비변사에서 경기의 산성이 17곳이나 되는데 오직 수원 독성만 꾸준히 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계속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¹⁾ 인조 대에도 독산성이 수어(守禦)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중시되면서 파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⁵²⁾

하지만 독산성은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성 안이 좁고 물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미 선조 대에 우물을 조성하는 등 단점을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 대에 우하영(禹夏永)도 독성산성의 단점을 들어 신읍(新邑)으로 이속하는 것이 수원의 방어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건의하였다.⁵³⁾ 그럼에도 독성은 방어사 설치 이후로 오랜 기간 수원의 방어 요새로 기능하였다. 현릉원 조성을 마무리한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강유(姜游)가 수원의 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독성산성과 서로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어떤 적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듯이,⁵⁴⁾ 화성 축조 이전까지 수원의 방어 중심에는 독산성이 자리하였다.

둘째, 충청도·경상도의 군사 거점이 이동하면서 수원의 지리적 여건을

51) 『광해군일기』 권24, 광해군2년 1월 17일(갑오)

52) 『승정원일기』 10책, 인조3년 11월 8일(계축)

53) 장필기,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75쪽

54)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154쪽

개선시킨 것도 수원이 무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수원은 서울과의 거리가 1백리로서 하루걸이[一日程]여서 서울이 위급할 때 군사를 바로 파견할 수 있었다.⁵⁵⁾ 또 수원은 전라도와 충청우도 방면의 삼남로(三南路)와 경상우도에서 추풍령을 경유하는 상경로가 모이는 교통요지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수원부 자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곳으로,⁵⁶⁾ 수원이 조선 초부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 역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경상도에서 도성에 이르는 길은 대구-조령-충주-죽산-양재-한양으로 이어지는 축선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전쟁 직후 충청도와 경상도의 군사 거점이 바뀌면서 수원의 지리적 위상도 달라졌다. 1598년에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되고, 1601년에 경상감영이 상주에서 대구로 옮겨졌다. 그 결과 충주와 상주로 수렴되던 경상우도 및 충청도 동부지방의 교통량의 일부가 대구-김천-추풍령-청주-천안-수원을 잇는 축선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 재발견되었다. 정조대에 화성이 완공된 후에는 아예 양재 첩방이 폐지되고 화성 북문 밖에 영화역이 신설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보기도 했다.⁵⁷⁾ 곧 충청도·경상도의 군사 거점의 이동이 수원의 지리적 이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수원은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군사 지역으로 주목받았고, 이에 힘입어 인조 대에 군사 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 배경에는 인조의 도성 방어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필자가 보기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두된 도성 방어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때는 인조연간이라고 판단된다. 인조는 재위

55) 『연산군일기』 권36, 연산군 6년 2월 갑인 ; 『승정원일기』 19책, 인조 5년 10월 2일

56) 김동욱, 「18세기 화성의 도시 발달과 성곽 축조」,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백산서당, 2001, 89~90쪽

57) 최영준, 『영남대로-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152~155쪽

기간 동안에 무려 세 번이나 도성을 비우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왕이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는 반정 후 채 1년도 안된 1624년 1월에 반정 공신 이괄의 난에 직면하자 공주로 피신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도 후금군이 침입하자 인조는 강화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난을 피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기에도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1달 보름 동안 도성을 비웠다.

이 같은 인조의 경험은 17세기 조선의 방위전략을 도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곽을 방위하는 보장처의 강화로 바뀌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장처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 전략적 거점 지역을 의미하며 동양의 병법 가운데 하나인 퇴전(退戰)을 위한 대책이다. 퇴전이란 아군의 병력이 열세할 때 병력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⁵⁸⁾ 곧 보장처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국왕이 도성을 지킬 수 없을 때 잠시 후퇴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점지라고 할 수 있다.

인조는 이괄의 난 직후에 남한산성을 축조해 1624년(인조 4)에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도성 외곽을 방비한 군대로 어영청과 총융청을 창설하였다. 이 가운데 수원과 관련있는 군영이 총융청이다. 총융청은 인조반정 이후 후금과 관계가 악화되고 이괄의 난 등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해지자 수도를 외곽에서 수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624년(인조 2) 인조가 경기군을 정비하고 이서(李翼)의 관할군을 총융군으로 명명한 것이 시초였다. 그러다가 1646년(인조 24) 총융군의 일부가 궁궐 속위를 담당하면서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으로 구분되었다. 본청인 내영은 도성에 있고, 주 방어거점인 외영은 북한산성에 설치해 도성 방어를 주요 임무로 하였다.⁵⁹⁾

58)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6~17쪽

59) 총융청에 대해서는 차분섭,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재편」, 『한국사론』 9, 국사편찬위원회, 1991;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최효식, 『조선후기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참조

총융청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척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원과 관련한 사항만 짚어보기로 하겠다. 총융청은 시기에 따라 5명에서 3명으로 변화를 거듭했는데 창설 때에는 수원·광주(廣州)·양주·장단·남양의 다섯 곳이 주영(主營)을 형성하였다. 이 다섯 곳의 진영 가운데 수원·광주가 중시되었다.⁶⁰⁾

수원은 인조 즉위 직후부터 경기의 중심지이자 중진(重鎭)으로 평가되면서 도성 방어를 위한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원은 경기의 중요한 곳이므로 중병(重兵)을 총괄하여 도성을 상호 수어하는 형세를 이루어야 한다.”는 비변사의 의견이나,⁶¹⁾ 수원·장단·양주에 군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경기감사 이서의 발언이 이를 증명해준다.⁶²⁾ 인조 즉위 직후 경기군을 정비할 때 첫 번째로 물망에 오른 곳도 수원군이었다. 인조는 인조반정 당시 훈련대장이던 이홍립을 수원부사로 임명해 부내의 출신 6백여 명과 삼수병 2천 여 명을 정비하게 하였다.⁶³⁾

수원이 총융청에 소속된 이후 수원군은 훈련도감에 버금가는 군사로 대우받았다. 훈련도감 군사처럼 수시로 도성으로 와서 국왕호위는 물론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수원군사들은 서울에서 결진을 연습했으며, 교외에서 습진할 때에도 훈련도감군과 함께 합동훈련[合操]에 참여하였다. 또 인조의 호위군으로 수원군을 뽑아 배치하기도 하였다.⁶⁴⁾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원군사들은 국장 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도 도성으로 와서 호위에 참여하였다.⁶⁵⁾

수원군들이 인조 초부터 중시되다보니 반란이나 외적 침입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동원되었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수원부사

60) 최효식, 『조선후기군제사연구』(신서원, 1995), 74쪽

61) 『인조실록』 권권, 인조 1년 윤10월 병오

62)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한국연구원, 1985), 92쪽

63) 『인조실록』 권3, 인조원년 11월 임술

64) 『승정원일기』 17책, 인조5년 1월 28일(병신); 『승정원일기』 27책, 인조7년 7월 23일(병오), 28일(신해)

65)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4월 병신;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7월 을해

이흥립이 이끄는 수원군은 임진강을 지켰다. 당시 수원군이 비록 파수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쓸 만한 군졸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⁶⁶⁾ 무엇보다도 인조가 수원에 보내는 신뢰는 이괄의 군사를 피해 공주로 피난 갈 적에도 수원 독성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환도할 때에도 수원부를 거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⁶⁷⁾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에도 이시백이 이끄는 수원군 3천명이 도성으로 들어와 국왕을 호위하였다. 이 때 수원군은 군량을 스스로 준비하여 종군하였다.⁶⁸⁾ 정묘호란 당시 조정에서 방어책을 논의하면서 수원군을 임진강으로 파견해 후금군과 싸우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훈련도감군·어영군과 함께 어가의 호위 병력으로 강도에 들어갔다. 그 결과 “훈련도감 포수와 어영군과 수원병은 바로 나와 생사를 같이 한 군졸”이라는 평을 받았다.⁶⁹⁾

1636년 병자호란 때에도 수원군의 활약은 여전하였다. 병자호란기 수원군의 활약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어서 여기서는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병자호란당시에는 이미 남한산성을 전담하는 수어청의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군사가 인조를 호종한 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종전 후 병조참판 이시백이 남한산성에서 조선군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원군사 태반이 포로가 되었다고 보고했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희생도 컸다.⁷⁰⁾

그 결과 수원군사들은 효종 대에 이르러 훈련도감군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1651년(효종 2) 좌의정 이시백은 “수원군사들은 그 뜻이 도감군사보다 뛰어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일찍이 습진할 때에도 신지

66) 이태진, 앞의 책, 98쪽

67)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계사, 갑진;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월 계해

68)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을유, 3월 을유

69)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병술

70)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3월 신축

(信地:약속장소)를 약속하자 일제히 모였습니다.”라고 평가하였고, 효종도 수원군이 훈련도감군의 규모와 유사한 5천 명으로 파악되자 놀랄 정도였다.⁷¹⁾ 1654년에도 총융청 소속의 경기 읍들의 군사 및 무기를 점검할 때에 수원이 경기 도내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⁷²⁾ 이 일로 효종은 수원부사 유혁연이 무장임에도 승지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수원군은 인조 대에 총융청이 설치되고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1653년 대사성 이일상이 효종에게 “수원의 군병은 훈련도감에 견주어 더욱 성대하고 그 사람들은 무사(武事)에 익숙한데다 쓰여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고 보고하자 효종이 “수원은 본디 무향(武鄕)으로 과연 경의 말과 같다.”⁷³⁾고 대답하듯이 수원은 17세기 중반에 중앙의 훈련도감 못지않은 무풍을 떨치면서 무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었다.

4. 읍지에 오른 무인들

수원의 무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수원의 무과급제자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오늘날 현전하는 조선시대 무과방목은 약 138개 정도이다. 조선시대 무과를 실시한 횟수인 800회분의 약 17.3%에 불과한 상태다. 그것도 대부분 조선후기에 실시된 무과의 합격자명단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무과방목을 통해 부족하나마 조선시대 무과급제자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⁷⁴⁾

71) 『승정원일기』 122책, 효종2년 10월 23일(경묘)

72) 『효종실록』 권13, 효종5년 12월 신유

73) 『효종실록』 권10, 효종4년 2월 경신

74) 조선시대 무과방목에 대해서는 정해은, 「조선시대 무과방목의 현황과 사료적 특성」 『군사』 4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년 참조.

수원에서 얼마나 많은 무과급제자를 배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전하는 무과방목 가운데 임진왜란이후부터 고종연간의 무과방목에 실린 16,537명의 거주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서울이 5,745명(34.7%)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두 번째는 평양으로 699명(4.2%)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무과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 바로 수원으로 총 445명(2.7%)이었다.⁷⁵⁾

조선후기 무과급제자를 배출한 지역이 총 372곳인데 이 중 수원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수원의 지역 특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전해 준다. 경기에서 군사 요충지역들의 무과급제자 배출 현황을 보면 광주 305명, 양주 113명, 강화 236명, 개성 338명이다. 이처럼 수원 사람이 인근 지역에 비해 무과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원을 무향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할 만 하다.

또 이 수치와 함께 주목해야 할 통계가 하나 더 있다. 임진왜란 이전인 1583년과 1584년의 무과급제자 80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수원 출신이 12명(1.5%)으로 총 180개 지역 가운데 홍주와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하였다. 1위는 서울 186명(23.1%), 2위는 홍양 20명(2.4%), 3위는 해주 17명(2.1%), 4위는 장흥 16명(1.9%)이며 공동 5위는 원주·연안 각 15명(1.8%)으로 수원의 순위가 높은 편이다.⁷⁶⁾ 이 통계에 나타 나듯이 수원에서 무과급제자의 배출이 16세기 후반부터 이미 많아졌다고 할 수 있어 수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러면 본 장의 주제인 수원의 무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차례이다. 오늘날 수원의 읍지 가운데 인물조가 들어있는 대표적인 읍지로는 18세기 중반의 『여지도서』(1757~1765),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수원부읍지』(편찬

75)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25~126쪽

76)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76~281쪽

연대미상)와 『수원군읍지』(1899년) 등을 꼽을 수 있다.⁷⁷⁾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의 인물 1명, 『동국여지지』에는 고려의 인물 2명만 올라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수원의 읍지를 기준으로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 다음으로 수원에 대해 알려주는 읍지가 『여지도서』이며, 수원의 인물들이 『여지도서』가 편찬되었을 무렵에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읍지에 기록된 인물조를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여지도서』의 경우 조선시대 인물 56인 가운데 무인만 35인(63%)이다. 『수원부읍지』도 조선시대 인물 56인 가운데 무인만 35인(63%)인데, 『여지도서』에 실린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여 『여지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군읍지』는 조선시대 인물 25인 가운데 무인만 17인(68%)이다. 이처럼 읍지 인물조에 실린 사람 가운데 무인이 각각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수원이 무향(武鄕)으로 불릴 만 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읍지에 실린 무인들을 종합하면 중복인을 제외하고 총 38인으로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인물조에 오른 사람들의 성(姓)은 권(權), 김(金), 류(柳), 박(朴), 오(吳), 원(元), 유(柳), 유(劉), 윤(尹), 이(李), 장(張), 전(田), 정(鄭), 최(崔), 형(邢) 등 14개이다. 현재 38인의 본관은 전부 알 수 없으나 파악된 사람만 살펴보면, 김채건·김대건·김성·김우추는 해풍김씨, 김양서는 낙안김씨, 김준룡은 원주김씨,⁷⁸⁾ 유몽룡·유찬광·유찬선은 강릉유씨, 윤정준은 파평윤씨, 정탁은 영일정씨, 최덕인·최만득은 전주최씨, 최종두·최정현은 수원최씨, 형협은 장흥형씨이다. 나머지 사람들의 본관은 조사가 더

77) 수원의 읍지에 대해서는 최홍규, 「조선 후기 수원지방의 읍지」 『경기향토사연구』 2, 1998년;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부록-자료·해제-』 (경기출판사, 1999), 참조.

78) 읍지에는 김준룡을 모두 金天龍이라 기록했으나, 조사결과 김준룡이어서 '김준룡'으로 바로 잡았다. 현재 번역본도 김준룡으로 고쳐 실었다.

〈표 3〉 수원 읍지에 기록된 무인 38인의 이름과 활동

이름	활동시기	기재사항
권정길(權井吉)	조선후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움
김체간(金體乾)	1605~1667	무과급제. 김우추 손자, 김대건 동생. 세자 봉림대군 근황을 알 아보기 위해 단신으로 창에 들어감
김계남(金繼男)	조선후기	병자호란 임금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감
김기축(金起丑)	1613~?	무과 급제. 병자호란 때 인조 호종
김대건(金大乾)	1583~?	무과 급제. 김우추손자. 이괄의 난으로 진무공신 1등
김 성(金城)	1625~1688	무과 급제. 장단·장연·철영·회령·영변·김해 부사 역임
김양서(金良恕)	1541~?	무과급제(1583년). 병마절도사
김우추(金遇秋)	17세기후반	17세기후반 활동. 여진 정벌의 공이 큼
김준룡(金俊龍)	1586~1642	무과급제, 병자호란기 광교산전투 참여.
김축남(金丑男)		병자호란기 김계남과 함께 임금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감
김하중(金夏重)	1656~1698	무과 급제, 부사
박응신(朴應信)		무과급제. 군수
오대남(吳大南)		가선대부. 병마절도사
오도홍(吳道弘)		무과 급제, 병마절도사
원승선(元承善)	인조연간	병자호란기 임금 호종
류세웅(柳世雄)	중종연간	중종반정으로 2등 공신이 됨
유몽룡(劉夢龍)	선조연간	임진왜란기 전공을 세워 선무 일등공신이 됨
유찬광(劉燦光)	인조연간	유몽룡 아들. 영국공신(寧國功臣), 수군절도사
유찬선(劉燦先)	인조연간	유몽룡 아들, 영국공신, 수군절도사
윤정준(尹廷俊)	1580~1624	무과 급제. 강홍립을 따라 요동 파견. 이괄의 난에 전공 세움
이득남(李得男)		활쏘기·말달리기 잘함. 무과급제. 병자호란 때 임금 호종해 전공 세움
이유현(李維賢)	인조연간	무과 급제. 병마절도사. 병자호란 때 유진장(留鎭將)으로 적을 막아냄
이응춘(李應春)		무과 급제
이저언(李抵言)	인조연간	무과 장원. 병자호란 때 전사
이탁남(李卓男)		무과 급제, 영장
장세걸(張世傑)		무과 급제. 뒤늦게 공마를 익혀 무과 합격, 병마절도사
전 봉(田鳳)		무과 급제. 병마절도사
정 척(鄭弼)		무과 급제. 경력
정 탁(鄭卓)	인조연간	무과 급제, 정몽주 8대손. 병자호란기 인조 호종하다가 전사
정한기(鄭漢冀)	인조연간	1637년에 박형(朴瀾) 등과 함께 8장사에 들어 소현세자 배종
최덕인(崔德仁)	인조연간	무과 급제. 1638년(인조 16) 선전관
최동로(崔東老)		무과 급제. 가선대부로서 방어사가 됨
최만득(崔晩得)		무과 급제. 버드나무를 뚫는 재주가 있음
최응일(崔應一)	인조연간	무과 급제, 강동현감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이 됨
최정현(崔廷顯)	인조연간	무과 급제. 소현세자가 심암에 인질로 들어갈 때 세자 호종
최종두(崔宗斗)		무과 급제, 영장
최천인(崔千仞)	1606~?	무과 급제, 영장
형 협(邢決)		무과 급제. 무재가 뛰어났음

* 근거자료: 『여지도서』/『수원부읍지』/『수원군읍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인물조에 오른 무인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읍지에 오른 무인 가운데 병자호란과 관련된 인물이 14 인이나 된다. 곧 권정길, 김체건, 김계남, 김기축, 김천룡, 김축남, 원승선, 이득남, 이유현, 이저언, 정탁, 정한기, 최덕인⁷⁹⁾, 최정현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에서 싸우거나, 인질로 심양으로 잡혀가는 소현세자를 호종하거나, 광고산 전투 등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밖에 인조의 정권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도 5인이나 된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공을 세운 김대건, 윤정준, 최응일이 있으며, 심기원 역모사건을 진압한 공으로 영국공신이 된 유찬광, 유찬선도 있다. 이처럼 수원의 읍지에 오른 무인 총 38인 가운데 병자호란을 포함하여 인조와 연관을 맺은 사람이 19인(50%)으로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렇다면 읍지 인물조에 오른 무인 가운데 50%가 인조시대와 연관을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무인들이 인조대에 펼친 활약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원은 임진왜란 이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경기에서 무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도성수비책의 일환으로 설치한 방어사는 실제로 도성이 이괄의 난 및 정묘·병자호란 등 정변이나 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큰 힘을 발휘하였다.

1651년(효종 2) 좌의정 이시백은 효종에게 수원 무사에 대한 진작책을 건의하면서 수원의 군사들이 정묘·병자호란 때에 어떻게 싸웠는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시백은 이귀의 아들로서 1627년 정묘호란 당시 수원부사로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수원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다.

79) 최덕인은 읍지에 따르면 군량을 싣고 북쪽으로 가다가 영유에서 배가 난파되어 사망하여 인조가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인조실록』에는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비변사에서 “한 질과 최덕인은 모두 남한산성에서 힘을 다해 싸운 사람들”이라 하면서 恤典을 건의하였다. (『인조실록』권40, 인조18년 2월 무인(27일))

정묘년에 병사를 징발할 때에 아침에 표신을 받고 오후에 행군하여 동작진을 건너 결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선왕이 이를 기특하여 여겨 3천 6백여 명에게 각각 포 1필씩을 주고 장관 70원에게도 전복(戰服)을 위해 금단(鎗段) 1필씩 지급했는데 소신도 홍금단 1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술을 내리셨습니다. 병자년에 구인후가 방어사가 되었을 때에도 아침에 명령을 받아 저녁에 출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호종하였습니다.⁸⁰⁾

정조 대의 무신 송규빈(宋奎斌)도 독성산성에 대한 수비책을 논하면서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이 독성산성에서는 군사가 아침에 출동,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여 즉시 적을 막아내는 공을 세워 성조(聖祖)의 큰 포상을 받았다.”⁸¹⁾고 적고 있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공통점은 수원군이 이괄의 난을 비롯해 정묘·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서울로 달려가 근왕(勤王)했다는 점이다.

특히 병자호란에서 수원군의 활약은 더 두드러졌다. 병자호란 때에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이후 유사시에 대비한 보장처로 부각되면서 1626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었다. 그 후 정묘호란 후 평안도 군사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경기 특히 강도 보장을 위해 남한산성의 방비가 새롭게 강조되었다. 이에 1628년에 광주 읍치를 산성 안으로 옮겨서 광주 목사가 남한산성방어사를 겸임하고, 총융군 중 일부인 광주 군사를 소속시켜서 산성 관리를 맡도록 하였다.⁸²⁾ 그러다가 남한산성을 전담하는 수어사를 두었으며 유사시 성으로 들어오는 병력도 전국적으로 배분하였다. 배분된 병력 규모만 해도 병자호란 직전인 1636년 7월에 12,782명이었다.⁸³⁾

80) 『승정원일기』 122책, 효종2년 10월 23일(정묘)

81) 송규빈, 『水原禿城山城形便』, 『風泉遺響』(성백호 번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96쪽)

82)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한국연구원, 1985), 117~121쪽

83) 최효식, 『조선후기군제사연구』(신서원, 1995), 243쪽

하지만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수성군은 수어군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인조는 산성 방비를 위해 훈련대장 신경진, 어영대장 이서, 총용사 구평, 수어사 이시백에게 각각 남한산성의 동성·북성·남성·서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⁸⁴⁾ 즉 남한산성에는 수어군 이외에 경군인 훈련도감·어영청의 군사, 총용사 소속의 군사도 들어와 있었다.

총용청에 소속된 수원 군사의 경우 전군(全軍)이 입성했다고 말할 정도로 수원부사 구인후를 좇아 남한산성으로 들어와 남문을 담당하였다.⁸⁵⁾ 병자호란 이후에 구인후가 성을 지킨 공로가 큰 수원의 장관을 수령으로 임명하도록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한다.⁸⁶⁾

병자호란기 수원 군사들이 남한산성에 들어간 규모를 알려주는 또 다른 자료는 병자호란이 끝난 해인 1637년 8월 24일에 실시한 정시(庭試)의 합격자 명단이다. 이 방목에 따르면 급제자 총 5,536명 가운데 수원 출신이 1,022명(18.5%)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는 광주 출신으로 354명(6.4%)이었다.⁸⁷⁾ 광주는 남한산성이 소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격차가 큰 편이다.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한 군사들에 대한 위무책으로 실시된 과거시험에서 수원 거주자가 전체 합격자의 18.5%를 차지했다는 점은 병자호란기 수원군의 활약상을 그 어떤 자료보다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상으로 수원의 읍지에 오른 무인 38인 가운데 절반이 인조 시대와 연관을 맺고 있는 점은 17세기가 수원의 역사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이는 방어사 설치 이후 수원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인조 대에 수원이 중시된 결과라고

84) 『연려실기술』 권5, 仁祖朝故事本末 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 12월 15일 ; 『인조실록』 권34, 인조15년 1월 병인

85) 『인조실록』 권34, 인조15년 1월 병인(26일) ; 『승정원일기』 77책, 인조19년 2월 10일(을묘)

86) 『승정원일기』 63책, 인조16년 2월 18일(임자) ; 『승정원일기』 68책, 인조17년 1월 15일(계유)

87) 정해은, 「병자호란 시기 軍功 免賤人의 무과 급제와 신분 변화-정축정시문무과방목(1637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 1998, 87쪽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괄의 난과 정묘·병자호란에서 수원 군사들의 활약은 수원을 무향으로 거듭나게 한 동력이었고 이후 군사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본다.

5. 맺음말

이 논고는 17세기 수원지역의 특성을 ‘무(武)’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한 글이다. 필자가 17세기 수원을 주목한 계기는 수원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다가 17세기 후반의 지식인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수원에 대해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는 기록을 접하고 나서였다. 그리고 『여지도서』에 “무예(武技)를 좋아하고 인심은 질박하다. 글을 아는 사람이 적고 밭농사를 즐겨 한다.”는 언급을 다시 보면서 수원의 상무 전통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날 수원이 화성이 자리한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한 언급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사항은 유형원이 살던 17세기라는 시점이었다. 도대체 17세기 수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형원이 이런 기록을 남겨두었을까 하는 소박한 질문에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략하게 언급되던 17세기 수원의 역사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앞서 머리말에서 말했듯이 현재 수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정조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원 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 배경, 화성의 축조 방식과 구조 등이 세밀하게 밝혀지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집중 조명되다 보니 18세기를 전후한 수원의 상황은 제대로 연구되거나 조명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정조시대 화성을 이해하는 전초단계로서 17세기를 주목했고, 17세기 수원을 들여다보

는 키워드로 '무향(武鄕)'을 선택하였다.

조선전기에 수원은 거진(巨鎭)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무풍(武風)을 진작시킨 지역이 아니었다. 수원이 무풍의 도시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17세기 무렵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부터이다. 수원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1604년 이후부터 인조 대에 걸쳐서 무신 수령의 비중이 높아진 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이 일본과 전면전을 치르면서 도성이 함락된 경험은 그때까지 분명하게 천명되지 않던 도성 방어를 새롭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풍부한 물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수원이 도성을 보호할 새로운 지역으로 부각되었고, 전쟁 직후 방어사가 설치되면서 군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수원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에는 독산성의 역할이 컸다. 독산성은 성 안이 좁고 물이 부족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화성 축조 이전까지 수원의 방어 중심지였다. 또한 충청도·경상도의 군사 거점이 이동하면서 수원의 지리적 여건을 개선시킨 것도 수원이 무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충청감영과 경상감영이 바뀌면서 경상도에서 서울에 이르는 길이 대구-김천-추풍령-청주-천안-수원을 잇는 축선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 재발견된 것이다.

수원을 군사적으로 성장시킨 계기는 단연 충용청이었다. 인조 즉위 직후부터 경기의 중심지이자 중진(重鎭)으로 평가된 수원은 충용청에 소속된 이후 서울의 최고정예부대인 훈련도감군이나 다름없었다. 이괄의 난을 비롯해 정묘·병자호란기의 활약으로 인해 수원군은 효종 대에 이르러 훈련도감군에 버금간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또 수원의 읍지에 오른 무인 38인 가운데 절반이 인조 대와 연관이 있는 점은 17세기가 수원지역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요컨대, 수원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방어사가 설치되고 충용청에 소속

되면서 무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특히 인조 대에 이괄의 난과 정묘·병자호란에서 수원 군사들의 활약은 수원을 무향으로 거듭나게 한 동력이었고 이후 군사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훈련도감군과 비견될 만큼 수원 군사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수원은 무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17세기 수원지역의 특성을 ‘무(武)’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한 글이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이 자리한 수원은 주로 18세기 후반 이후의 역사가 주목되면서, 정조 대에 도성 방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이해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의 학자 유형원(柳馨遠)은 수원의 풍속에 대해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고 기록하였다. 유형원의 지적은 수원의 상무 전통을 18세기 이전으로 소급해야 하며, 수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7세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조선전기 수원은 거진(巨鎭)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무풍(武風)을 진작시킨 지역이 아니었다. 수원이 무풍의 도시로 부각되기 시작한 때는 17세기 후반으로 임진왜란이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기 동안 독성산성이 요새로 부각되면서 수원이 서울의 보장처(保障處)로 주목되었고, 1601년에 방어사까지 설치되었다. 또 전쟁 직후 경상도의 군사 거점지역이 바뀌면서 경상우도 및 충청도 동부지방의 교통량의 일부가 대구-김천-추풍령-청주-천안-수원을 잇는 축선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 재발견되면서 수원이 무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후 수원이 군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시기는 인조연간이었다. 총융청에 소속된 수원 군사들이 이괄의 난과 정묘·병자호란기에 눈부신 활약을 펼친 결과, 수원군사들은 서울의 최고정예부대인 훈련도감군에 비견되었고 수원을 무향으로 거듭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 주제어 : 수원, 화성(華城), 무향(武鄉), 상무(尙武), 방어사(防禦使), 총융청(摠戎廳)

The Traditions of 'Respecting Martial Arts and Military Readiness' in the Su' weon/水原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Su' weon' s Reputation as the 'Town of Martial Arts(武鄉)'

-Examination of the Installation of the Bang'eo-sa officer in the area, and of the role of the Su'weon soldiers who served under command of the Chong'yung-cheong office, in the 17th century-

Chung, Hae-eun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weon area in the 17th century are examined through the concept of 'Martial arts(武).' Su'weon has the Hwa'seong/華城 (fortress), which is now designated by UNESCO as part of "World Heritage," so people came to take interest in the history of this city, especially the history after the 18th century's latter half. Naturally, they came to believe that this city only began to serve as a critical center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n again, a scholar named Yu Hyeong-weon/柳馨遠 who liv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while discussing the traditions and folk culture of Su'weon, described the people living in the region as "hard working peasants who were also deft at archery." If we take his description of the Su'weon area and its residents into account, then we should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was already a tradition of respecting martial arts before the coming of the 18th century. So, in order to gain a mor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Su'weon area, we should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17th century as well.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Su'weon, although it was already a rather large defense center(巨鎮) at the time, was not that different from any other region in terms of its residents' respect for or interest in the concept of martial arts. The people of Su'weon only came to display such trait around the 17th century, when the whole country was struck by the war with the Japanese which broke out in 1592. During that war, which lasted for seven years, the Doksan San'seong fortress(禿城山城) newly became a critical facility for defense, and the importance of Su'weon also rose as well, as the area became quite integral in the government's overall efforts to provide defensive capability for the capital. In 1601, a Bang'eo-sa/防禦使 Commander, Protector officer in charge of defense, was dispatched to the area as well.

Also, right after the war, as the crucial defense posts located in the Gyeongsang-do province shifted to new locations, some of the usual traffic in the Gyeongsang Wu-do province and the east side of the Chungcheong-do province was routed to the Dae'gu→Gimcheon→Chu'pung-ryeong→Cheongju→Cheon'an→Su'weon line as a result. In the process, Su'weon was recognized with a new-found importance, and also developed into an area where martial arts became a valued part of its culture.

Later,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Su'weon displayed another breakthrough in even more strongly establishing itself as a military asset. The soldiers stationed in the Su'weon area, under the jurisdiction and command of the Chong'yung-cheong/摠戎廳 office, proved to be quite instrumental in crushing the insurrection of Yi Gwal/李适, and they also served the country well during the war with the Manchurian forces. The Su'weon area soldiers were praised as invincible ones just like the capital-

based Hun'ryeon Do'gam(訓練都監) soldiers, who were deemed as 'best of the best' at the time. Accordingly, Su'weon as well was hailed as the 'town of military capability and martial arts.'

* Keywords _ Su'weon, Hwa'seong(華城), the "Town of Martial Arts" ("Mu'hyang/武鄉"), Respect for Martial arts(尙武), Protector officer in charge of Defense(Bang'eo-sa/防禦使), Chong'yung-cheong(摠戎廳) office

정조시기 읍치 이전(移轉)과 수원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이 정 일*

1. 머리말
2. 행정구역과 조직의 정비
3. 인구 변화와 상업의 발달
4. 화성 응제(應製) 실시와 문종의 성장
5. 맺음말

1. 머리말

정조대 이루어진 읍치 이전(移轉)과 화성(華城) 건설, 그리고 잇따른 수원 육성책의 실시는 고려시대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수원 지역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 만들어진 화성성곽과 시가지들이 현재 수원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는 수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현재 수원·화성 지역의 뼈대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다룬 그

* 화성시청 전임연구원

동안의 연구는 정조가 화성지역에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러한 정책들이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백년간 속해있던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수원지역 사람으로 편입되었고, 신읍치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던 장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조가 실시한 수원지역 인재 육성책으로 기존에 세거해 온 문중은 물론 새롭게 편입된 문중까지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유력 문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듯 정조 시기 이루어진 각종 정책들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원지역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구역과 조직의 정비

1) 관할지역의 정비와 확대

읍치의 이전과 함께 수원도호부의 행정구역은 약간의 변동이 있게 되었다. 구읍치 시기 부내(府內) 등을 포함하여 47개 면(面)¹⁾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수원의 행정구역은 이읍 직후 50개 면(面)으로 재편되었다가 유수부 승격 후 다시 40개 면(面)으로 개편되었다.²⁾

이 시기 행정구역의 변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내(府內)의 구성 변화와 송동면(松洞面)·일용면(一用面)의 이속(移屬)에 따른 관할지역의 확대이다.

1) 『을사년 읍지(乙巳年邑誌)』 「방리(方里)」 조.

2)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해득, 「정조대 수원이읍(水原移邑)과 이후(以後)의 변화 양상」, 『경기사학』 제3호, 경기사학회, 199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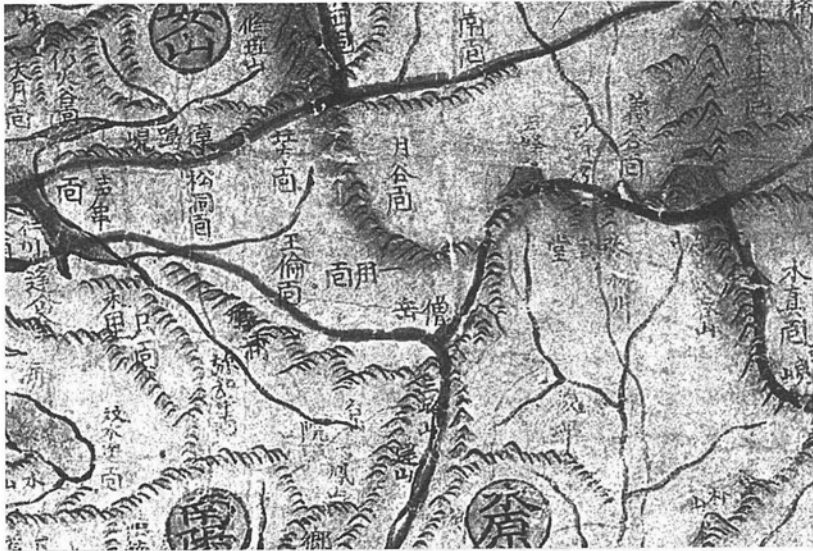
구읍치 시기 문수당(文殊堂) 1수, 3수, 5수, 6수로 이루어져 있었던 부내(府內) 지역은 이읍(移邑)과 함께 문수당면(文殊堂面)과 시봉면(市峰面)으로 편성되었다가 이후 문시면(文市面)으로 통합되었다. 반면 새로운 읍치는 초기에는 남리(南里)와 북리(北里), 고등촌면, 광교면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고등촌면과 광교면이 각각 남리와 북리에 통합되면서 화성성곽을 중심에 두고 20개 동으로 구성된 남부(南部)와 14개 동으로 구성된 북부(北部)로 재편되었다. 이때 편성된 남부와 북부 지역이 이후 수원읍을 거쳐 수원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때의 행정구역 개편이 현재 수원시 탄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지(華城誌)』를 통해 남부와 북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부(南部) : 남창동(南倉洞) · 남수동(南水洞) · 매향동(梅香洞) · 구천동(龜川洞) · 산루동(山樓洞) · 교동(校洞) · 하류천(下柳川) · 장지촌(長芝村) · 향목정(香木亭) · 독산리(禿山里) · 상유천(上柳川) · 하지장포(下芝長浦) · 상지장포(上芝長浦) · 벌리(拿里) · 세동리(細洞里) · 권동(權洞) · 천동(川洞) · 내동(內洞) · 우만리(牛滿里) · 신평(新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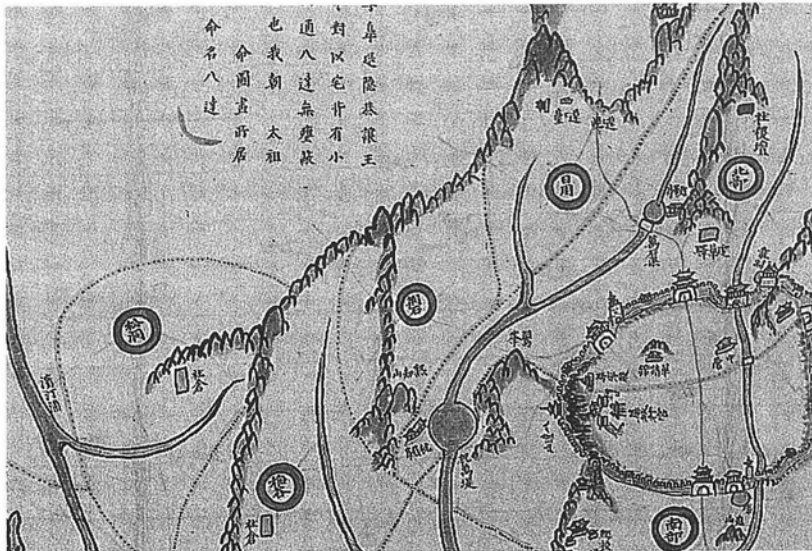
북부(北部) : 보시동(普施洞) · 북수동(北水洞) · 장안동(長安洞) · 군기동(軍器洞) · 신평동(新豐洞) · 관길동(觀吉洞) · 역촌(驛村) · 용연동(龍淵洞) · 지소동(紙所洞) · 광교동(光教洞) · 서둔동촌(西屯東村) · 고양동(高陽洞) · 화산동(花山洞) · 서둔촌(西屯村)

한편 정조는 1789년(정조 13) 광주부에 속해있던 송동(松洞) · 일용(一用) 양면이 지리적으로 수원과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수원으로 이속시켰다. 송동면과 일용면의 이속으로 달라진 수원지역의 경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송동면은 빈정리(濱汀里), 중촌(中村), 야목리(野牧里), 현천(玄川), 병실



〈그림 1〉 광주부 시기의 송동·일용면(경기도부총청도지도, 1776년 이전으로 추정)



〈그림 2〉 화성유수부 시기의 송동·일용면(수원부지도, 1872)

(丙室), 송라동(松蘿洞), 만평리(晩坪里) 등 7개 동으로 구성되었고 일용면은 미륵당(彌勒堂), 파동(琶洞), 일림리(逸林里), 대송죽리(大松竹里), 조원(棗園), 정산리(亭山里), 진목정(眞木亭) 등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 송동면과 일용면의 이속으로 수원의 관할구역이 서북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일용면에 속해 있던 광교산(光敎山)과 정자산(亭子山)이 수원지역의 경계로 들어오게 되었고, 송동면의 빈정포(濱汀浦)가 확보되고 송동면을 통해 남양의 구포(鷗浦)와도 연결되어 뱃길을 통해 서해로 이동하기가 수월해졌다. 또한 1785년(정조 9)경 11,604결 61부⁴⁾이던 수원부의 전결(田結)도 양 면에 속해 있던 전결 217결 56부⁵⁾가 수원부에 속하게 되면서 11,821결 61부로 늘어났다.⁶⁾ 한편 일용면의 전결 중에는 양향청(糧餉廳) 소속 둔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함께 이속되면서 수원부는 둔전에 대한 값으로 광주부에 30냥을 지급하였다.⁷⁾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당시 송동면은 4개리(里)에 165호, 남자 429구, 여자 463구가 거주하였고 일용면은 2개리(里)에 203호, 남자 290구, 여자 632구가 거주하였는데 이들도 모두 수원부로 편입되었다. 일용면과 인근의 형석면(荊石面)을 통합할 것인지를 논하는 자리에서 일용면의 경우 반호(班戶)가 많고 민호(民戶)가 적다⁸⁾고 한 것으로 보아 일용면은 반촌(班村)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동면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포저 조익을 비롯하여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조복양, 부제학을 지내고 소론의 영수로 활약한 조지겸 등의 인물을 배출한 풍양 조씨 문중의 세거지였으며, 이들 삼대가 배향되어 있고 지역 유생들의 여론 형성

3) 『화성지(華城誌)』(박기수(朴綺壽), 1831) 방리(方里)조.

4) 『을사년읍지(乙巳年邑誌)』(1785) 전결(田結)조.

5)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홍경모(洪敬謨), 1847) 전결(田結)조.

6) 『신해년읍지(辛亥年邑誌)』(1791) 전결(田結)조.

7) 一用面移屬水原後 畵價三十兩 庚申冬 出付書吏廳 自辛酉至丁卯 并利本取殖恰滿百兩後 買土收稅 以充減數(『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둔전 부관둔량향둔(屯田 附官屯糧餉屯)조)

8) 一用面則班戶多 而民戶少(『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월 21일(병신))

의 중심지가 되었던 명고서원(明臯書院)이 위치해 있기도 하였다. 두 지역은 모두 민촌(民村) 보다는 반촌(班村)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늘어난 인구에서도 양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수부 승격과 함께 성립된 수원의 행정구역은 이후 한말까지 별다른 개편 없이 40개면, 449동의 상태를 유지하였다.

2) 행정조직의 변화

도호부 시기 수원에는 도호부사 이하 향소(鄕所) 4원, 아전(衙前) 92인, 통인(通引) 39인, 사령(使令) 10명, 뇌자(牢子) 24명, 기수(旗手) 24명, 취수(吹手) 24명, 관노(官奴) 47명, 기생(妓生) 23명, 비자(婢子) 50명 등 총 345명의 이속(吏屬)이 배속되어 있었다.⁹⁾ 도호부사는 겸병마좌방어사 토포사(兼兵馬左防禦使 討捕使)를 겸직하였으며 관할지역을 다스리는 수령으로써 향소와 아전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1793년(정조 17)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로 승격시켰다. 이로써 수원은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수령인 종3품의 외관직(外官職) 아문(衙門)¹⁰⁾에서 경관직(京官職)인 유수(留守)가 파견되는 정2품 아문으로 승격되었고¹¹⁾ 화성유수부는 개성·강화·광주와 함께 경기지역의 4유수부의 하나가 되었다. 유수부로의 승격은 행정조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화성지(華城誌)』에 기록된 유수부 승격 후 행정조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官職	留守二員 判官一員 中軍一員 察訪一員 守門將二員 檢律一員
儒任	都有司一員 有司四員 掌儀八員 色掌四員 訓長二員
鄉官	座首一員 各倉監官六員 風憲三十九員

9) 『신해년읍지(辛亥年邑誌)』 「관직(官職)」조.

10)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 경기(京畿)조

11) 都護府 正宗朝癸丑 置留守 今移錄(『대전회통』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정이품아문(正二品衙門))

將官	中軍一員 從事官一員(判官例兼) 帶率軍官五員 別驍士左右列將各一員 禿城把總一員(中軍例兼) 五司把總各一員 別五司把總各一員 協守兼把總一員 屯牙兵把總一員 斥候將一員(迎華道察訪例兼) 五司哨官二十五員 別軍官一百員 攔後牙兵將一員 駐隊策應將一員 墩臺將六員 塘報將十二員 伏兵將十二員 禿城哨官五員 別五司哨官二十八員 協守哨官二員 攔後牙兵哨官三員 駐帶策應哨官四員 知穀官十員 教鍊官八員 旗牌官四十員 別武士四十員 守堞軍官四十二員 討捕軍官二十七員 烽燧別將一員 烽燧監官十三員 馬醫一人
員役	書吏九十人 廳直五十人 使令四十名 官奴四十六名 官婢四十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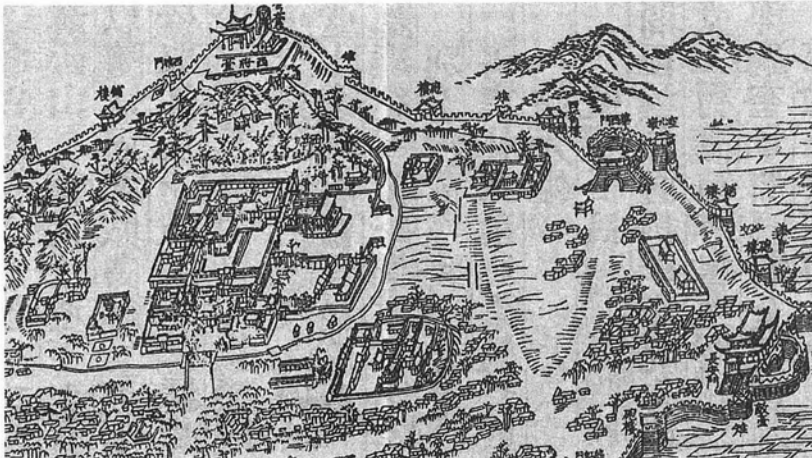
이처럼 화성유수부는 유수 등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리 7인을 포함하여 유입 19인, 향관 46인, 겸직을 제외한 장관 400인, 원역 266인 등 총 738인을 거느린 거대한 행정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화성유수는 경기감사가 겸직하는 1원과, 실질적으로 화성유수부 행정의 총책임을 맡은 1원 등 2원이 배정되었다. 승격 직후 화성유수는 비변사제조·장용외사·행궁정리사를 겸하였고 1801년(순조 1) 화령전(華寧殿) 건립 후에는 화령전제조도 겸하였으나, 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되고 총리영(總理營)이 설치되면서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의 겸직은 없어지고 총리사(總理使)를 겸하게 되었다. 화성유수는 화성행궁에 마련된 집무처에서 서리(書吏) 70인, 청직(廳直) 32인, 사령(使令) 22인, 관노(官奴) 31인, 관비(官婢) 24인을 거느리고 유수부의 행정을 관리·감독하였다.

유수의 아래로 유수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판관(判官)의 배치되었다. 원래 조선 초기 수원도호부에는 판관의 직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1456년(세조 2)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는 당시 현안에 대한 24개 조목의 상소(上疏)를 올리면서

여러 주(州)의 판관(判官)에 대해서입니다. 대개 관청(官廳)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州)는 부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객(客)이 떼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聽理)하겠습니까? ... 경기의 수원·양주, 경상도의 선산·성주·김해·밀양, 전라도의 광주·남원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을 두게 하소서.¹²⁾

라고 건의하였다. 큰 고을의 경우 권농(勸農)과 접빈객(接賓客), 청리(聽理) 등의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수령이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판관을 두어 수령을 보좌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경국대전』에는 수원에 판관직이 설치되었다.¹³⁾ 그러나 이때 설치된 판관직은 이후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기인가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수원 판관이 정무를 보던 이아(貳衙)의 모습(『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

1793년(정조 17) 유수부 승격과 함께 혁파되었던 판관직이 복설(復設)되었다. 판관직이 복설되면서 판관이 거주하며 정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건

12) 諸州判官 蓋張官置吏 本以爲民也 今大州簿書雲委 使客集 守令以一身何暇勸農事 何暇聽詞訟 ... 京畿 水原·楊州 慶尙道 善山·星州·金海·密陽 全羅道 光州·南原 等州 特設判官(『세조실록』 세조 2년 3월 28일(丁酉)).

13) 從五品 判官 五員 左道水運, 右道水運, 廣州, 驪州, 水原(『경국대전』 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

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궁의 남동쪽에 이아(貳衙)가 건립되었다. 유수가 정무를 보는 곳을 상아(上衙) 또는 상영(上營)이라고 한데 비해 판관의 집무처는 부아(府衙) 또는 이아(貳衙)라고 불렀다. 화성유수부의 이아는 지방관아의 동헌(東軒)에 해당되는 화청관(華淸館)을 비롯하여 내아(內衙)격인 축리당(祝釐堂), 서리청(書吏廳) 등 102칸의 비교적 큰 규모로 지어졌다. 판관이 주재하는 이아에는 판관의 행정업무를 돕기 위하여 서리 20인, 통인 15인, 사령 18인, 관노 11인, 관비 12인이 배치되었다.¹⁴⁾

그러면 화성유수부의 행정조직 내에서 유수와 판관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1793년 1월 26일, 화성유수 채제공은 해당 읍 사무의 재결(裁決)을 주장(主張)하는 일은 상영(上營)과 이아(貳衙) 간에 반드시 귀책되는 한 곳이 있는 다음에야 읍 사무가 흐지부지되지 않고 민정(民情) 또한 현혹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당장 품지(稟旨)하지 않을 수 없다¹⁵⁾고 하면서 유수와 판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개 체모(體貌)로 말한다면 읍세(邑務)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판관에게 위임하고 유수는 대체(大體)만 맡는다면 그 체통을 높이는 데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본부는 물(物)이 많고 땅이 넓어 여러 도의 군읍(郡邑) 가운데 최고인데, 판관은 군수의 이력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고 재구(才具)도 혹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 비록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읍관(蔭官)이나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울듯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유수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주장하게 하고 판관으로 하여금 보좌하게 하여 자연히 소민(小民)이 그 위중(威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니, 송심(松沈)의 예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14) 『화성지(華城誌)』 (1831) 원역(員役)조

15) 第其邑務之主張裁決，上營·貳衙之間，必有所歸一然後，邑事不至泮渙，民情亦無眩惑，此不可不及時稟旨矣(『비변사등록』 정조 17년 1월 26일(경신))

민소(民訴)에 있어서는 소소한 것은 모두 이아(貳衛)로 올리고, 그 중에 일
이 혹 큰 것은 의송(議送)의 예에 따라 유부(留府)에 올리게 한다면 마땅하게
처리될 듯합니다. 사객(使客)의 지공(支供)은 유부(留府)가 담당해서 하되, 사
리와 체면을 따져서 지금 이아(貳衛)에서 거행하게 하려면 재력(財力)이 반드
시 넉넉하게 마련된 연후에라야 뒤따르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¹⁶⁾

화성유수부의 행정실무가 경험이 부족한 판관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유
수가 사무를 담당하고 판관은 유수를 보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 백성들의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작은 일은 판관이 처리하고 큰 사건은
의송의 예와 같이 판관을 거쳐 유수에게 올려 처결하게 하며,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일은 유수가 담당하되 판관이 거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력을 마
련하여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유수와 판관이 어떻게 행정업무를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문
서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현존하는 문서들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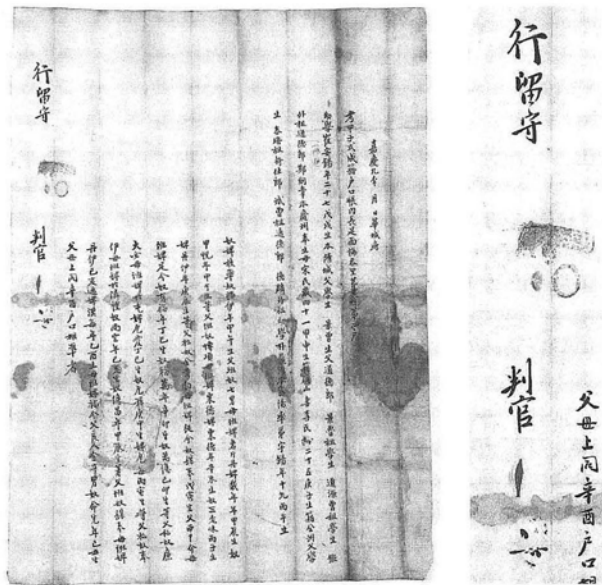
<그림 4>는 1676년(숙종 2) 수류면(水流面) 하리(下里)에 사는 유학(幼學)
최숙(崔淑)에게 발급된 준호구이고 <그림 5>는 1804년(순조 4) 장족면(長
足面) 매탄리(梅呑里)에 사는 유학(幼學) 최안석(崔安錫)에게 발급된 준호구
이다.¹⁷⁾ 좌측에 기재된 발급자 부분을 비교해보면 수원도호부 시기에 발급
된 <그림 4>의 준호구에는 ‘行都護府使’의 착관(着官)과 서압(署押)만 보이
는데 반해 유수부 승격 후에 발급된 <그림 5>의 준호구에서는 ‘行留守’의

16) 蓋以體貌言之，則邑務無論巨細，皆委之判官，留守則持大體而已者，不害爲尊其體統，而但念本府物
衆地大，爲諸道郡邑之最，判官不過郡守履歷之人也，才具之或大或小，雖難預知，以蔭官歷淺者，似
難容易彈壓，毋寧使留守主張庶務，判官承佐，則自然使小民，懼其威重，松沁之例亦如此矣，至於
民訴，則小小者皆呈貳衛，其中事或有小，則依議送例，俾呈留府，似得宜，至若使客支供，留府之擔當爲
之，實損事面，而今欲使貳衛舉行，則財力必優厚磨鍊然後，庶可無後弊(『비변사등록』 정조 17년 1월
26일(경신))

17) 화성시향토박물관 소장 수성 최씨 한림공파 기증 고문서.



(그림 4) 수원도호부사가 발급한 준호구(43×56)



(그림 5) 화성유수가 발급한 준호구(72×52)

착관과 서업 아래 ‘判官’의 착관과 서업이 나타난다. 판관의 착관이 기재되는 것은 행정절차상 판관의 결재를 거쳐야 했음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준호구의 발급행정에 유수의 보좌관으로써 판관이 관여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체제공은 백성들의 송사(訟事)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작은 일은 판관이 처리하고 큰 사건은 판관을 거쳐 유수에게 올려 처결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면 실제 소송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그림 6〉은 1840년(헌종 6) 5월 서울에 사는 윤참판댁(尹參判宅) 노(奴) 흥춘(興春)이 화성유수부 가사면(佳士面) 삼도(三島)에 있는 주인댁 어장(漁場)을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있으니 사실을 조사해서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의송(議送)이고, 〈그림 7〉은 1년 후인 1841년(헌종 7) 4월 같은 내용으로 노 흥춘이 올린 소지(所志)이다.¹⁸⁾ 〈그림 6〉 의송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 문서의 수취자를 ‘水原留相使道主’라고 기재하였고 판결에 해당하는 제사(題辭)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착관은 ‘兼使’라고 되어 있다.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청원서이며 겸사(兼使)는 관찰사겸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를 줄여서 표현한 착관이다.¹⁹⁾ 즉 이 의송은 경기관찰사에게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경기관찰사를 ‘水原留相使道主’라고 표현한 것은 화성유수 2인 중 1인을 경기관찰사가 겸했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송은 1차로 해당 지역의 수령에게 청원한 후 2차로 올리는 문서이므로, 이 의송을 올리기 전 화성유수부에 올린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물은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는지 흥춘은 1년 뒤 같은 내용의 소지를 다시 올렸다. 〈그림 7〉의 소지는 수취자가 ‘水原上營使道主’

18) 규장각 소장 ‘尹參判宅奴興春議送(漁箭)’ 및 ‘尹參判宅奴興春所志(漁箭)’.

19) 심영환, 「조선시대 소지류(所志類)의 착관(着官) 연구」, 『장서각』 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90쪽.



〈그림 6〉 노 흥춘이 올린 의승(7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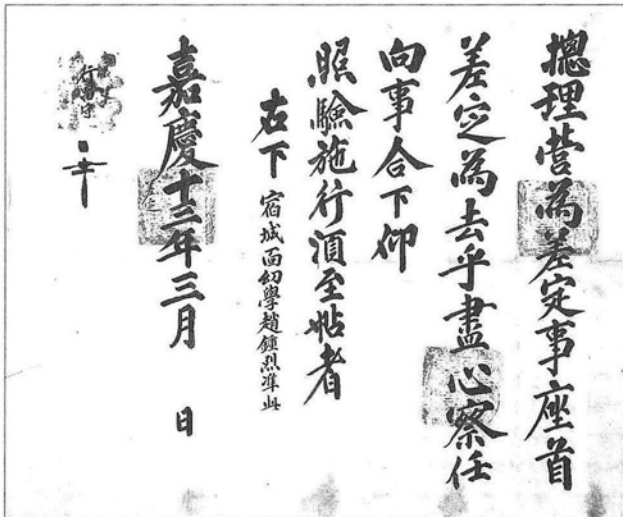


〈그림 7〉 노 흥춘이 올린 소지(69×47)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사의 작성자를 나타내는 착관은 ‘摠理使’라고 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판관을 ‘貳衛’라고 칭한데 비해 유수는 ‘上營’으로 칭했으므로 ‘수원상영사또님’은 화성유수를 말하며, 화성유수가 총리사를 겸했으므로 제사도 화성유수가 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소지의 제사에는 유수의 착관과 서압만 있을 뿐 앞서 준호구에서 보였던 판관의 착관이나 서압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판관에게 올리는 소지와 유수에게 올리는 소지가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먼저 판관에게 1차로 청원을 하고, 1차 청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유수와 관찰사에게 2차 청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소지가 많지 않아 유수의 관여 없이 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판관의 보좌 없이 유수가 처리하는 것이 확실한 업무도 있다. <그림 8>은 1808년(순조 8) 숙성면(宿城面) 유학 조종렬(趙鍾烈)을 좌수(座首)에 임명한 차첩(差帖)이다. ‘帖’ 인(印)에 가려지기는 하지만 발급자의 직함이 ‘行留



〈그림 8〉 총리영 발급 좌수(座首) 차첩(差帖)

守'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서두에 총리영에서 차정(差定)한다고 되어 있으나 화성유수가 총리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화성유수가 발급한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유수부 시기에 발급된 문서임에도 유수의 착관과 서압 아래에 있어야할 관관의 착관과 서압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문서의 작성에 관관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좌수의 임명은 유수의 단독 권한이었음을 말해준다.

3. 인구 변화와 상업의 발달

1) 인구의 변화²¹⁾

읍치 이전(移轉)을 전후한 수원부의 인구 변동은 1785년(정조 9) 편찬된 『을사년읍지(乙巳年邑誌)』와 1831년(순조 31) 편찬된 『화성지(華城誌)』의 호구 기록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을사년읍지』에 의하면 구읍치 시기 수원의 인구는 14,696호에 남자 28,373명, 여자 27,307명 총55,680명이었고 약 40년 후인 순조 31년 수원의 호구는 14,588호, 인구는 남자 30,183명, 여자 27,858명, 총 58,041명이 되었다. 『화성지』의 인구에서 송동·일용면의 인구를 제하고 구읍치 시대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호구 464호, 여자 260명이 감소한 반면 남자는 1,091명이 증가하여 총인구수는 831명이 증가했다. 당시 전국의 인구변화를 보면 기록상 정조 10년(1786) 이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20) 이 문서 뿐 아니라 유수부 시기에 발급된 다른 문서들에서도 유수와 총리사의 착관(着官)이 착중(錯綜)되어 사용된 것이 종종 발견된다. 유수가 총리사를 겸하기는 하지만 두 직책의 직무와 권한도 구분되지 않았던 것인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1) 제3장 제1절은 이정일,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 이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을 참고하였다.

〈표 1〉 18~19세기 수원부의 인구 변화

	읍 면	호 수	인구 수			
			남 자	여 자	계	
을사년읍지 (정조 9)	부 내	문수당 1수	266	455	363	266
		문수당 3수	234	435	328	234
		문수당 5수	170	312	343	655
		문수당 6수	215	341	312	653
		계	885(6%)	1,543	1,346	2,889(5%)
	부외	13,811	26,830	25,961	52,791	
	총 계	14,696	28,373	27,307	55,680	
화성지 (순조 31)		성내	1,347(9.2%)	30,183	27,858	58,041
		성외	13,241			
		계	14,588			

있으며 특히 정조 13년(1789)에서 순조 31년(1831) 사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시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인구감소는 그것이 질병이나 기근 등으로 인한 실질적 감소이건, 미비한 호구 조사에 따른 자료상의 감소이건 전국적인 차원의 것이었고 수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원 지역의 경우 호구는 감소하였지만 남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 남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화성 건설과 정조의 수원육성책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된다. 즉 몇 차례에 걸친 조세 감면과 수원에 거주하는 유생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특별 시취(試取), 철저한 임금 노동으로 진행된 화성 건설 과정에서 모여든 유랑민들 중 일부가 성역이 끝난 뒤에도 상주하면서 발생한 결과인 것이다. 순조 31년 이후 기록상에 나타나는 수원의 인구는 전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광무 3년(1899)에 이르르면 12,579호에 남자 27,632명, 여자 22,076명, 총 49,708명으로 감소한다.²²⁾

22) 『수원군읍지』, 「호구」조.

수원 지역 중심지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읍 전 수원의 중심지는 부내로 기록된 문수당 1수, 3수, 5수, 6수였으며 885호에 남자 1,543명, 여자 1,346명, 총 2,88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 지역 전체에서 호구로서는 약 6%, 인구로서는 약 5%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정관사가 밀집된 실질적인 중심지의 인구는 읍치의 기록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수원 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도 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읍 초기 신읍치의 호구수는 구읍치 이주 대상 319호²³⁾와 신읍치 지역의 원주민을 합하여 400여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⁴⁾ 『화성지』는 호구를 부내, 부외로 나누어 기록하지 않고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은 화성 건설 이후 성내가 수원 지역의 행정·경제적 중심지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성내에는 1,347호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원 지역 전체에서 약 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원 지역 중심지의 호구는 이읍과 화성 건설 이후 19세기 전반에 들어 약 3%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읍 초기 400여호가 거주하던 수원 성내 지역이 순조 31년에 이르면 1,300여호가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해 있었다. 1785년(정조 9)의 부내 보다 1831년 성내의 면적이 훨씬 좁은 점을 감안하면²⁵⁾ 성내의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읍치 시기 수원 지역은 농업이 주요산업이었고 상업이 크게 발달해 있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농업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읍치 이전 및 화성 건설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인구 구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영유원이 화산 아래로 천장됨과 동시에 읍치가 이전되고 행궁과 관사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23) 『일성록』 정조 13년 9월 신해(辛亥)

24) 정조는 신읍치 원주민이 불과 5, 6호라 하였지만(『정조실록』 39권 18년 1월 계묘(癸卯)) 실제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25) 손정목은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에서 성내의 면적을 약 1.3km²(1,289,262m²)로 계산하였다.

유수부 승격과 장용외영 설치에 따라 관리와 군인의 파견도 증가하였다. 이 읍 후 정조가 수원부의 부로(父老)들에게 내린 유시(諭示)를 보면 새 고을에 사는 백성들은 태반이 군교나 아전, 하인이나 종 같은 부류들²⁶⁾이라 하였고, 또 같은 해 부사직(副司直) 강유(姜游)가 올린 상소에서도 새 읍에 집을 짓는 자는 절반이 유생²⁷⁾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수원, 특히 신읍치의 인구구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부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취(試取)의 실시로 유생들이 이사해 왔고 철저한 임금노동에 의해 이루어진 화성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유랑민이나 기술자들이 몰려 들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취(試取)와 화성 건설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수원에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남자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그러므로 정조 말기 수원 지역의 인구 구성은 비농업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특히 유수부 승격 이후 늘어난 관리와 그들의 가족 및 노비, 매달 실시되는 시취(試取)를 보기 위해 읍치 주변으로 이주한 유생과 시전 및 장시 주변의 상업 인구를 합하면 성내 인구 중 상당수가 비농업 인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정조이후에는 시취(試取)가 줄어들어 유생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통과 상업 발달에 따라 상인의 수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전반 장용외영의 효파는 수원 지역 인구수와 구성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용외영 주둔과 함께 증가했던 군인의 비율이 장용외영의 효파와 그 군인들의 이속(移屬)과 더불어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에도 수원은 계속하여 유수부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여전히 많은 관아와 행궁 등을 관리해야만 했다. 따라서 군인의 비율 감소를 제외한 인구 구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26) 諭水原府父老曰…新治居民太半是若校若吏若隸若奴之屬…(『정조실록』29권 14년 2월 병인(丙寅)).

27) 副司直姜游上疏曰…又開築室於新邑者半是儒生云…(『정조실록』30권 14년 6월 기미(己未)).

2) 시전 설치와 장시의 발달²⁸⁾

인구의 증가와 인구 구성의 변화는 수원의 상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읍치 이전과 화성 건설은 단순히 관아 건물과 성곽의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읍치의 이전과 잦은 능행(陵行)은 수원지역 교통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화성의 건설과 더불어 북수문(北水門)인 화홍문(華虹門)과 남수문(南水門)을 지나는 하천이 만들어지고, 팔달문 앞 십자로와 그에 연결되는 간선도로들이 생기는 등 성안 도시 전체의 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정조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상공업 진흥책도 이 지역의 상업 발달에 한 몫을 담당했다. 1790년(정조 14) 2월 수원 행차 후 정조는 별도로 수원에 사람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며칠 후 올라온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제안은 서울 시장의 전방(塵房)과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석 달 뒤인 5월 수원부사 조심태가 새로운 상업 진흥책을 올렸다. 즉 본고장(수원) 백성들 중 살림밑천이 있고 장사 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읍 부근에 자리 잡고 살게 하면서 그 형편에 따라 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장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각 관청에서 무변전(無邊錢) 6만 냥을 고을 안에서 부자라고 이름난 사람 중에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분급(分給)하고 3년을 기한으로 이자와 본전을 거두어들인다면 백성을 모으고 산업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²⁹⁾ 이 안은 좌의정 채제공과 우의정 김종수(金鍾秀)가 쾌히 찬성하여 균역청(均役廳)에서 6만 5천 냥을 대부 받아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수원 성내에는 비단(錦緞)을 판매하는 입색전(立色廛), 어과(魚

28) 제3장 제2절에 대해서는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지역의 장시연구」, 『경기사학』 제6호, 경기사학회, 2002을 참고하였다.

29) 『정조실록』 30권 14년 5월 정유(丁酉).

果)를 판매하는 어물전(魚物廛), 백목(白木), 저포(苧布), 목화(木花) 등을 판매하는 목포전(木布廛), 소금과 상을 판매하는 염 및 상전(鹽及床廛), 잡곡·백미(白米)·남초(南草)·면자(麵子) 등을 판매하는 미곡전(米穀廛), 유철전(鎗鐵廛), 관곽전(棺槨廛), 지혜전(紙鞋廛) 등 8개의 시전(市廛)이 설치되었다. 관(官)의 지원을 받은 이들 각 전민(廛民)들에게는 도고(都賈)행위를 허용했던 듯 하며 그 때문에 이읍 초 전민의 미곡도고(米穀都賈)로 인해 소민(小民)들의 실리(失利)가 자못 심하여 한때 이주민이 감소되는 부작용과 폐단이 뒤따르기도 했다.³⁰⁾

1795년(정조 19) 정조의 화성행차를 호종하고 지은 이희평의 『화성일기』를 보면 이 시기 화성 안 시장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이희평은 장안문 안 풍경을 묘사하면서 길 좌우로 여염집과 높은 관리의 집들이 밀집해 빛나고 있는데 한양과 다름이 없고, 종루 십자가(十字街)에 시정(市井)이 문을 열고 앉은 것, 선 것이 서울 종루와 같다³¹⁾고 하였다. 이 글에서 묘사된 여염집과 높은 관리들의 집은 이읍 후 화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된 유생과 관리들의 집일 것이다. 종루 십자가에 문을 연 시정은 시전을 말하고 앉은 것, 선 것은 보부상이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수공업품을 판매하는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즉 팔달문에서 장안문에 이르는 십자가 양쪽에 시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좌판을 벌인 장사치들이 즐비하여 화성 안에서 상업이 서울 종로 일대와 같이 크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양과 비교될 정도의 여염집과 높은 관리들의 집들이 바로 시전과 장시의 주요한 수요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원도호부 대다수 일반인들의 물화교역(物貨交易)은 시전보다는 장시가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70년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와 『도로고(道路考)』에 의하면 구읍치 시기 수원도호부에는 읍내장(邑內場),

30) 최홍규, 「18세기말 화성지방의 번영과 상업진흥책」,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p.97.

31) 강한영 교주(校註), 이희평, 『화성일기』, 신구문고, 1974, pp.76-77.

오산장(鰲山場), 팔탄장(八呑場), 석현장(石峴場), 안중장(安中場), 사슬곶장(沙瑟串場), 오타장(五朶場) 등 7기의 장시가 개설되었다.³²⁾ 개시일별로 살펴보면 읍내장, 안중장, 오타장, 석현장이 1·6일, 사슬곶장이 4·9일, 오산장이 3·8일, 팔탄장이 5·10일로 동일한 날에 개설되는 장이 4곳이나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시일이 중복되는 장시가 많은 것은 당시 수원도호부의 장시가 아직까지 시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각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어 개별·고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장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므로 수원도호부의 장시 발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세기 전반 화성유수부의 장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세기 전반 화성유수부의 장시 현황³³⁾

임원십육지(1830)		화성지(1831)	여도비지(1851-56)		대동지지(1863년경)		수원부지도(1872)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北門外場	2·7						
南門外場	4·9	南門外場	南門外場	4·9	南門外場	4·9	南門外場
烏山場	1·6	烏梅場	烏梅場	3·8	烏山場	3·8	烏山場
		細籃場	細籃場	1·6	細籃場	1·6	
		八灘場	八灘場	5·10	八灘場	5·10	發安場

32) 7기의 장시 외에 신기장(新機場)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산리 아래쪽 마을의 지명이 '신기산(新機山)'인 점에 착안하여 신기장을 현 태안면 기산리에 있었던 장시로 보았다. 그러나 '신기산'이라는 명칭이 18세기말에도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는 수원의 신기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임원십육지』 등에 남양부로부터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수산면(지금의 송산면 일대)에 신기장이 있는데 매월 4, 9일을 개시일로 가진다고 되어 있다. 개시일이 같고 이후 수원의 장시에 관한 다른 기록에서 신기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남양부의 장시가 수원의 것으로 잘못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

33) 이 외에 1800년 간행된 『동국여도』에 장시에 대한 짧막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앞의 『도로고』와 일치하고 특히 읍치 이전후 개설된 남문의장, 북문의장 대신 읍내장이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당시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구읍치 시기의 기록을 옮겨 적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국여도』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임원십육지(1830)		화성지(1831)	여도비지(1851-56)		대동지지(1863년경)		수원부지도(1872)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石岬場	石岬場	1·6	土津場	1·6	
		安仲場	安仲場	2·7	安中場	2·7	安中場
		沙士串場	沙士串場	4·9	沙士串場	4·9	沙士串場

읍치 이전 후 화성유수부의 장시에는 신읍치에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신설되었고 구읍치 읍내장이 세람장으로 바뀌었으며 오타장이 폐지 혹은 흡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³⁴⁾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은 이읍과 화성 건설 이후 신읍치에 개설된 장이다. 앞서 살폈듯이 이읍 후 화성 주위에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에 의존하는 소비층인 관료·상인·노동자 등의 비농업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전과 함께 두 기의 장시가 개설된 것이다. 그러나 북문외장은 『임원십육지』 이외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즉 북문외장은 1830년대 이후 폐지되었거나 남문외장으로 흡수되어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북문외장과 시전의 축소 혹은 폐지로 성안밖에 증가된 유생, 관리 등의 생필품 조달을 떠맡게 된 남문외장은 화성지역 장시의 중심역할을 하며 19세기 후반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개설되었다. 남문외장은 남문 즉 팔달문 밖에 개설된 장이므로 현재 수원시 권선구 중동에, 북문외장은 수원시 장안문 밖인 장안구 북수동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같은 군현내라 하더라도 장세(場勢)에 따라 장세액(場稅額)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³⁵⁾ 장세액과 장시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 지역의 장세(場勢)를 기록한 것은 없지만 『화성지』 「재용」 조

34) 『임원십육지』에는 북문외장, 남문외장, 오산장 등 3기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다. 『동국문헌비고』나 『도로고』에 비해 5기의 장시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화성지』, 『여도비지』, 『대동지지』와 비교해 볼 때 『임원십육지』의 기록은 당시 수원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대표적인 장시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머지 장시들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김대길, 『조선 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273쪽.

‘각장세전’에 기록된 각 장시의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인 장세를 비교해 볼 수는 있다. 『화성지』 「재용」 조의 ‘각장세전’을 보면 남문외장 309냥 6전, 세람장 33냥, 오매장 309냥 6전, 팔탄장 111냥 9전 6푼, 석현장 157냥 8전, 안중장 53냥 4전, 사사곶장 55냥 8전의 장세를 부담하여 총 1,031냥 1전 6푼의 장세가 징수되고 있다.³⁶⁾

남문외장과 오매장이 가장 많은 장세를 부담하였고 다음으로 석현장, 팔탄장이 많은 장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 사사곶장, 안중장, 세람장은 비교적 적은 장세를 부담하고 있다. 장세와 장시의 크기가 비례한다면 화성유수부에서는 남문외장과 오매장, 즉 오산장이 가장 큰 장시였고 세람장이 가장 작은 장시였다고 할 수 있다. 『화성지』 보다 약 40년 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역실총(賦役實摺)』에 기록된 인근 장시의 장세(場稅)를 보면 전국 10대 장시에 든다는 안성장(安城場)에 720냥, 용인의 읍내장(邑內場), 김령장(金嶺場), 도촌장(道村場)에 총 216냥, 과천의 군포천장(軍浦川場)에 144냥의 장세가 부과되고 있다. 시기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록과 비교해 보면 남문외장, 오산장이 제법 큰 장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문외장과 오산장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연결되는 제5로에 위치하여 큰 장이 형성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남문외장은 북문외장과 시전의 폐지 혹은 축소로 성안밖에서 급격히 증가된 소비인구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유일한 장시로서 더욱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람장은 구읍치 인구의 대다수가 신읍치로 이동하여 소비인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장시의 명목만을 겨우 유지하는 작은 장시로 축소되었다. 이후 고종 6년(1869) 5월 각종 군병(軍兵)과 사령(使令)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원의 전대방(塵大房)에서 300냥, 남문의

36) 一千三十一兩一錢六分 三百九兩六錢南門外場稅 三十三兩細藍場稅 三百九兩六錢烏梅場稅 一百一十一兩九錢六分八灘場稅 一百五十七兩八錢石峴場稅 五十三兩四錢安仲場稅 五十五兩八錢沙土串場稅 有閏朔則加 值雨下則減 『화성지』 「재용」 조 각장세전

장 여각(旅閣) 4곳에서 120냥, 오산장 여각 1곳에서 30냥, 그 외 여각 2곳에서 30냥의 세금을 거둔 기록이 있다.³⁷⁾ 이는 시전에 대방(大房)의 조직이 생기고 장시에 여각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지역 장시의 거래 물품은 대체로 경기도나 전국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품목과 일치하고 있다. 『임원십육지』 「예규지(倪圭志)」 권제4, 화식(貨殖) 팔역장시(八域場市)조에 의하면 수원의 장시에는 주로 미곡, 면포, 채소와 과일, 해산물, 소금, 다시마, 담배, 송아지 등이 거래되었다. 조선후기 조세의 금납화에 따른 미곡과 면포의 상품화는 전국적인 추세였다. 따라서 미곡과 면포는 전국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품 중 하나였다. 특히 18세기말 수원의 실학자 우하영(禹夏永)은 『관수만록』에서 ‘본부의 구역내에 백성들이 돈을 쓰는 길은 오직 농사에 있으며, 농사 중에서도 벼농사에 가장 힘을 쓴다. 따라서 시장에 팔려고 내는 물건이 오로지 미곡이라서 대체로 쌀장사로 생활하는 자가 경향에 줄을 잇는다’³⁸⁾고 할 정도로 당시 이 지역에서는 미곡 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조의 농업진흥책의 결과 수리시설과 둔전이 확충되어 미곡의 생산량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고, 부내에 거주하는 관리와 상인 등 식량을 시장에 의존하는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곡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염과 다시마는 수원과 가까운 해안지역인 남양으로부터 유입되어 거래되었다. 특히 소금의 거래에 대해 우하영은 ‘지금 본부는 남쪽과 북쪽 시장에서 소금장사가 이익이 가장 크다. 남쪽 시장은 보통 때 한 번 열리는 장의 매매량이 항상 백여바리가 되고, 3·4월과 8·9월의 장을 담거나 김장할 때는 하루에 팔리는 소금이 수백 바리나 된다.’³⁹⁾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37) 『화영신정식질목(華營新定式節目)』 「各色軍兵及色驅使令等料布矯弊節目」

38) 且本府界內民人用錢之道 專在於農穀 而農業之中最務禾農 故其所出市者專是禾穀 而凡於場市以米商爲業資生之徒 纏繞於京鄉(『관수만록』 「모민홍판지책(募民興販之策)」).

39) 顧今府下南北場市鹽利最鉅 南場則平時每場賣買之數 恒爲百餘駄 而若值三四月八九月沉澹沉菜之時 則一日所賣輒至數百餘駄(『관수만록』 「모민홍판지책」).

은 19세기 전반에도 계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장사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품은 미곡과 소금이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소나 연초 등 상품작물의 재배 및 판매도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하영은 『관수만록』에서 미곡과 보리의 경작보다 미나리나 채소의 재배가 이익이 커 도하의 민인들이 미나리와 채소를 심고 부내로 팔러 오는 자가 도로에 줄을 이을 만큼 많다고 하였다.⁴⁰⁾ 이것은 당시 장사에서 상품작물의 매매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전반 도로의 정비로 교통이 발달하고 읍치의 소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작물의 재배 및 판매도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의 거래도 많았다. 앞서 말했듯이 『임원십육지』에는 ‘우독’ 즉 어린 송아지가 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수원의 우시장(牛市場)은 성내·성의 시장을 합하여 1년에 거래되는 소가 2만여 마리를 넘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장시로 성장하게 된다.⁴¹⁾ 이러한 우시장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선 후기부터 형성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구읍치 시기 수원도호부의 장시를 개시일별로 살펴보면 1·6일 4기(읍내장, 석현장, 안중장, 오타장), 3·8일 1기(오산장), 4·9일 1기(사슬꽃장), 5·10일 1기(팔탄장)로 나타난다. 반면 읍치 이전 후인 1860년대의 장시는 1·6일이 2기(세람장, 토진장), 2·7일이 2기(북문외장, 안중장), 3·8일이 1기(오산장), 4·9일이 2기(남문외장, 사사꽃장), 5·10일이 1기(팔탄장)로 나타나 18세기에 비해 중복된 개시일이 다소 조정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개시일 조정 과정은 이 지역의 시장권 형성과 관련된다. 『대동지지』에 기록된 장시들을 거리와 개시일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면 대체로 수원 남부와

40) 水田種稻十斗之地 種芹二斗 則可獲稻田十斗之利 旱田種麥十斗之地 種菜二斗 則可俵麥田十斗之利 故近年以來 都下民人之馱券芹蔬 而轉販於府內者 相續於道路(『관수만록』 「경세권농지책(輕稅勸農之策)」).

41) 강만길, 앞의 논문, 34쪽.

북부 두 개의 시장권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토진장(1·6)-안중장(2·7)-사사곶장(4·9)-팔탄장(5·10)이 남부의 시장권을 형성하고 세림장(1·6)-오산장(3·8)-남문외장(4·9)-팔탄장(5·10)이 북부의 시장권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이 지역 백성들은 원하는 날짜에 편리하게 장시를 이용할 수 있었고 상인들은 열흘을 단위로 두 시장권의 모든 장시들을 한번씩 돌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남부의 시장권은 특히 해상 교통 및 해산물의 유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9년(1872)의 『수원부지도』를 보면 발안천이 현재보다 훨씬 내륙 깊숙이 까지 들어와 토진면과 발안장 부근까지 흘러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사곶장 또한 그 명칭에서 해상교통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토진장과 안중장은 그 위치로 보아 평택과 충청지역으로부터 올라오는 물품을 수원에 조달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팔탄장은 구포장(1·6)-남양 읍내장(2·7)-남문외장(4·9)-팔탄장(5·10)으로 이어지는 남양의 장시와 연계를 가지며 서해안의 풍부한 어염과 해산물을 수원지역에 조달하고 수원지역의 미곡, 채소나 과일 등을 남양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반면 북부 시장권은 육상교통로를 통해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품들을 수원과 인근 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산장은 서울과 제주를 잇는 제5로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청호역이 설치되어 있는 등 큰장이 형성될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수원지역뿐 아니라 가까운 용인, 진위 등의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 안성장(2·7)과 남문외장(4·9)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남문외장은 서울의 물품을 받아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인근의 물품을 받아 서울에 공급하는 서울과 수원 이남 상권의 중계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 연간 노량진에서 수원까지의 도로가 확장·정비되었고 그로 인해 수원은 전국적 물자 유통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19세기 전반 두 지역의 상권은 더욱 긴밀해졌다. 순조 초년 노량진에서 사근평(肆觀坪: 현재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부근의 뜰)까지의 도로가 정조때 보다 다시 몇 파(把)이상 그 폭이 확장되었고 시흥의 도로도 크게 확장·개수되어 서울-수원의 길은 19세기 이후 10대로에 포함되는 간선도로로 승격하게 되었다.⁴²⁾ 이것은 이 시기 서울-수원간 물자 유통의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또 안성의 곡물, 남양·팔탄의 어염, 평택을 통해 올라오는 삼남지방의 물화가 이 장에서 집하되어 서울로 공급되었다. 이처럼 남문외장은 부내 민인들의 식량 및 생필품을 조달함과 동시에 서울 상권과 연계되어 서울로부터 유입된 물화를 주변 장시에 공급하고 삼남에서 올라오는 물품을 서울로 공급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었다. 이리하여 19세기 남문외장은 서울 이남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장시로 성장하게 된다.⁴³⁾

4. 화성 응제(應製) 실시와 문중의 성장

1) 화성 응제(應製)의 실시

정조가 화성에서 설행(設行)한 시취(試取)는 제2차 원행이 있었던 1790년(정조 14)과 제7차 원행이 있었던 1795년(정조 19) 두 번에 걸쳐 시행한 별시와 1790년부터 1795년까지 거의 매달 시행된 응제(應製)로 구분된다. 『은대조례(銀臺條例)』, 『예고(禮考)』에 의하면 응제(應製)란 특지로 인해 설행(設行)되는 시험으로 황단(皇壇)·종묘(宗廟)·문묘(文廟) 등 국왕의 행차에 참여했거나, 원점(圓點)을 받았거나, 행차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유생

42) 고동환, 「조선후기 교통발달과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문화역사지리』 제8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6, 3쪽.

43) 이현창·김종혁, 「경기지역의 시장변동」,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상, 한광문화사, 1997, 200쪽.

들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왕이 직접 시험하는 것과 제학(提學)에게 패초(牌抄)하여 시험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절차는 절일제(節日制)와 동일하다고⁴⁴⁾ 되어 있다. 응제(應製)는 원래 국왕의 명에 의해 시문(詩文)을 짓는 것으로 조선초기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25년(중종 20) 응제(應製)에서 수석(首席)을 차지한 부제학 정옥형에게 활을 상으로 내린 것⁴⁵⁾과 같이 응제(應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국왕이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신진(新進)들을 권장한다는 명목으로 관원들에 대한 응제(應製)를 수시로 실시하고 직접 고시(考試)하여 성적이 좋은 관원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렇지 못한 관원에게는 훈계와 처벌을 내렸다. 주로 입직(入直) 관원과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대상이 정해지면 시제(試題)를 써서 승지(承旨)를 통해 전달하고 즉시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 시권(試券)이 작성되면 승지가 거두어서 응시자의 신상이 기록된 부분을 봉한 후 입시하여 정조에게 올렸다. 고관(考官)을 정하여 고시(考試)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독관(對讀官)이 시권을 읽게 하고 정조가 직접 평(評)과 과차(科次)를 매기기도 하였는데, 시권이 많을 때는 밤늦게까지 해도 마치지 못하여 다음날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⁴⁶⁾ 고관(考官)이 우수한 시권을 추천하면 정조는 좋은 글귀에 비점(批點)하도록 하고⁴⁷⁾ 채점이 끝나면 봉미(封彌)를 뜯어 누구의 시권인지 확인한 후 성적에 따라 상을 내리거나 직접 불러 격려하기도 하였다.⁴⁸⁾ 정조는 이렇게 그동안 관원이나 성균관 유생들에게 실시하던 시험인 응제를 화성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44) 因特旨設行 參班(皇壇宗廟文廟)迎饗迎輿圓點輦路邑儒生赴 親臨與提學牌招試取 節次同節制 承史及闕內外入直門蔭官或命製進 而無試官磨鍊 直爲入啓 門蔭則或命試官磨鍊 而諸般節次同儒生應試 (『은대조례(銀臺條例)』, 『예고(禮考)』, 응제조(應製條))

45) 『중종실록』 중종 20년 6월 7일(을미)

46) 『일성록』 정조 2년 윤6월 29일(정해)

47) 『일성록』 정조 2년 10월 6일(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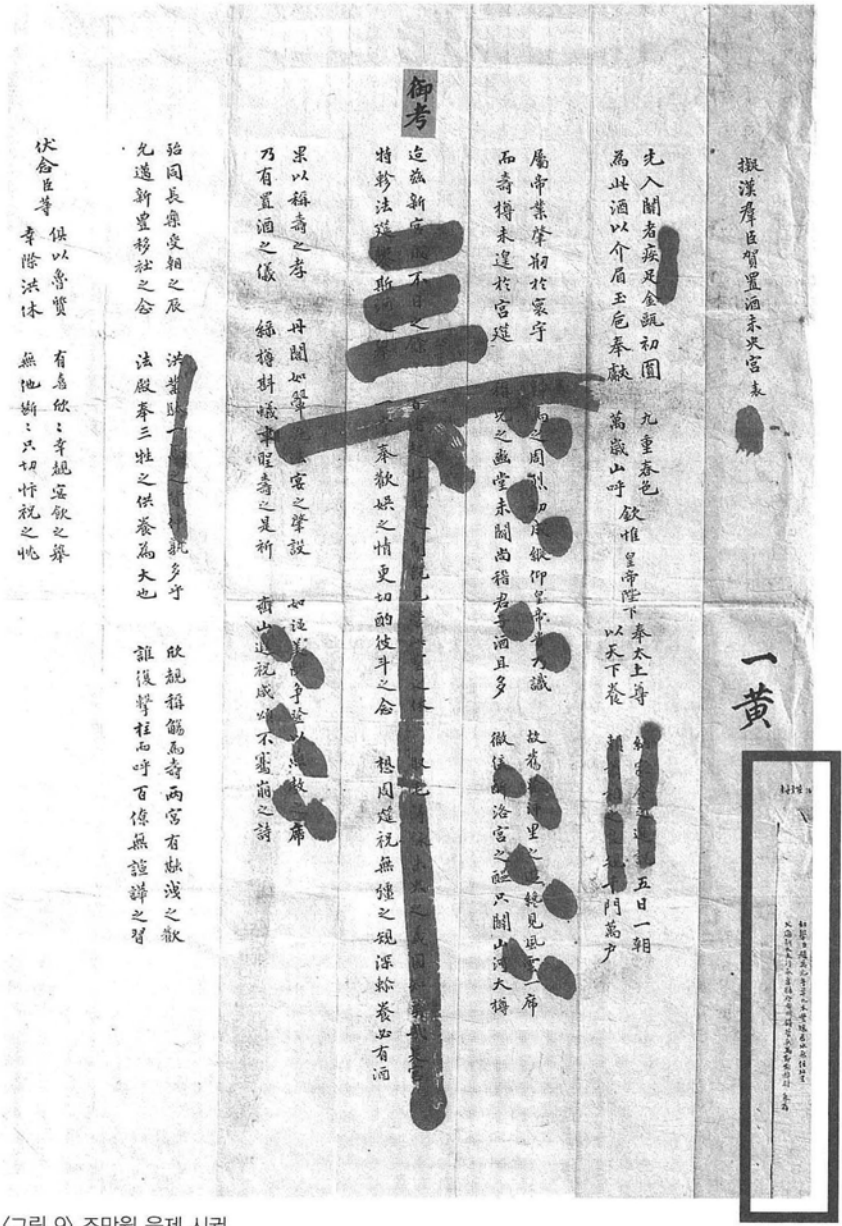
48) 『일성록』 정조 2년 7월 1일(무자)

하였던 것이다.

화성에서 실시된 응제는 새로 조성된 읍치에 많은 유생들을 이주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읍내 원거인(原居人) 및 신접인(新接人)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삭시(朔試)라고도 하였으며 매월 초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 같지만 몇 달치를 합설(合設)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성 응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1790년 2월, 2차 원행(園行) 다음 달인 3월 처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까지는 정기적으로 매달 시행되었고 1794년에는 5, 6, 9, 10, 11월의 5회, 1795년에는 1월과 2월, 6월 3회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⁴⁹⁾ 정조는 매달 시제(試題)를 기재한 봉서(封書)와 응제 시행에 대한 당부를 적은 전령을 규장각 각신(閣臣)이나 별군직(別軍職) 등을 통해 화성유수에게 전하였다. 화성유수는 정조가 내려 보낸 시제를 응시한 유생들에게 반포하여 시취한 뒤 시권을 거두어 장교(將校)를 통해 올려 보냈다. 화성 응제의 고권(考券)도 관원과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했던 응제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된다. 정조가 친히 고권하여 과차(科次)를 정한 후 성적별로 상품을 정하고 시권, 거수(居首)에게 내리는 방(榜), 상품을 함께 내려 보내면 화성유수가 받아 해당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시 화성 유생이었던 조만원(趙萬元, 1762(영조 38)~1822(순조 22))이 작성한 시권과 그 성적을 기록한 응제방은 이러한 수원 응제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림 9>는 1790년(정조 14) 5월 5일 시행된 응제에서 조만원이 작성한 시권이다.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시제(樂也者樂其所自成)와 과목(表)이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의 할거(割去)된 부분에는 응시자의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앙에 답안을 작성하였다. 과거(科擧)의 시권에는 본인의 직역(職役), 성명, 연령, 본관, 주소, 부·조·증조의 관직 및 성

49) 화성 응제의 시취 현황에 대해서는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이름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39~249쪽 참조



擬漢釋臣賀置酒未天宮表

一黃

先入闈者疾足金既初圓 九重春也
 為此酒以介眉玉卮奉獻 萬歲山呼 飲惟皇帝陛下 奉太上尊
 以天下養 禮樂全通 五日一朝

屬帝業肇初於寰宇 而之周制 仰皇中 乃誠 故為 里之 轉見 席
 而奇樽未達於宮筵 之之 幽堂未闢 尚稽君手酒且多 徵信 洛宮之 醴只 關山 河大樽

御考

迨茲新宮 特珍法 奉歡娛之情更切酌使斗之念 想因燈祝無燻之現深紓養必有酒

果以稱壽之孝 丹闈必 宴之策設 如 手 席
 乃有置酒之儀 錦樽封 壽之是祈 新山 祝成 不塞前之詩

殆同長樂受相之辰 洪業 就多乎 欣親稱觴而奇 兩宮有缺淺之歡
 允邁新堂移祉之念 法殿奉三牲之供養為大也 誰復擎柱而呼 百億無謬辯之習

伏念臣等 俱以魯賢 有嘉飲 幸親宴飲之舉
 幸際洪沐 無地斯 只切忭祝之忱

此詩見於... 本朝... 禮部... 奉天宮... 洪業... 就多乎... 欣親稱觴... 兩宮有缺... 誰復擎柱... 百億無謬... 謹辯之習

(그림 9) 조만원 응제 시권

명, 외조의 관직·성명·본관을 5행으로 쓰는데 반해, 이 시권에서는 응시자의 직역, 성명(趙萬元), 연령(二十九), 본관(豐壤), 거주지(水原 北里), 부(父)의 관직(通訓大夫行永柔縣令安州鎭管兵馬節制都尉)과 성명(象存)을 2행으로 썼다. 작성이 완료된 시권은 이동의 편의를 위해 위로 한번, 옆으로 6번 접고, 접수번호(一黃)를 기재한 후 신상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거된 부분을 종이끈으로 묶고 그 위에 근봉(謹封)을 써 넣었다. 시권을 받은 정조는 고권(考券) 과정에서 잘된 구절에 붉은 색의 방점을 찍고 점수를 매겼고 이 점수가 시권 중앙에 붉은 색으로 기재되었다. 모든 시권의 고권이 끝나면 봉미(封彌)를 풀어 응시자를 확인하고 국왕이 친히 고권했다는 표시로 시권의 중앙 상단에 ‘어고(御考)’라고 기재된 노란색 쪽지를 붙여주었다.

이 시권이 작성된 응제시는 5월 5일 실시되어 5월 6일에 표(表) 30장, 시(詩) 64장이 서울로 보내졌고,⁵⁰⁾ 당일 채점이 이루어졌다.⁵¹⁾ ‘한나라 못 신하가 미양궁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축하한다[擬漢群臣賀置酒未央宮]’이라는 제목의 표(表)와 ‘스스로 일컫길 신(臣)은 술 속의 신선이다[自稱臣是酒中仙]’라는 제목의 고시(古詩)를 시험하여 표(表)는 삼상(三上), 삼중일(三中一), 삼중이(三中二) 각 1명, 삼하(三下) 12명, 초삼하(草三下) 3명, 차상(次上) 6명, 초차상(草次上) 7명으로 시상하였고, 고시(古詩)는 삼상일(三上一), 삼상이(三上二), 삼상삼(三上三), 삼중(三中) 각 1명, 삼하(三下) 4명, 차상(次上) 10명, 초차상(草次上) 8명을 뽑아 시상하였다.⁵²⁾ 즉 표를 시험 본 유생은 전체가 모두 합격하였고,⁵³⁾ 고시를 시험 본 유생은 64인 중 26인만

50) 『수원하지초록』 경술 5월 초2일 및 경술 5월 초6일.

51) 『일성록』 정조 14년 5월 6일(병술)

52) 앞의 『수원하지초록』 경술 5월 초6일의 기사에는 표 30장을 상송(上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성록』과 『내각일력』의 합격자 명단에는 총 31인이 시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3) 이와 관련하여 채점을 끝낸 정조는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표(表)를 지어낸 시권이 전달에 비해 많이 우수해져서 권장하는 뜻으로 이번에는 시험에 응시한 유생 전체에게 합격(及格)을 주었으니 여러 유생들은 이러한 뜻을 알고 앞으로 더욱 공부에 힘쓰라고 당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수원하지초록』 경술 5월 초6일)

이 입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의 삼상에게는 팔자백선(八子百選) 1건과 대장지(大壯紙) 1권, 삼중일과 삼중이에게는 각각 정음통석(正音通釋) 1건과 차장지(次壯紙) 1권, 삼하에게는 붓 3지, 먹 1정, 부채 2병, 초삼하에게는 붓 2지, 먹 1정, 부채 1병, 차상에게는 부채 2병, 그리고 초차상에게는 부채 1병씩을 상으로 내렸다. 또 고시의 삼상일에게는 팔자백선 1건과 대장지 1권, 삼상이와 삼상삼에게는 각각 팔자백선 1건과 차장지 1권, 삼중에게는 정음통석 1건과 차장지 1권, 삼하에게는 붓 3지와 먹 1정, 부채 2병, 차상에게는 부채 2병, 그리고 초차상에게는 부채 1병씩을 상으로 내렸다.

한편 정조는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차지한 사람에게 시권 및 상품과 함께 방(榜)을 주도록 하였다.⁵⁴⁾ 응제방은 응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생들의 성적과 그에 대한 상품을 기록한 성적표 겸 상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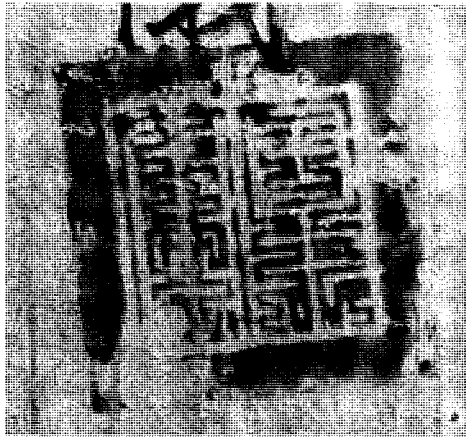
〈그림 10〉 조만원의 응제방

이 응제방은 1792년(정조 16) 10월 초하루에 ‘擬本朝魯孔子七十二代孫孔胤恒謝於讀周南首章之日特賜及第命以雅樂導至泮宮’이라는 제목으로 전(箋)을 지으라는 응제에 참여한 유생들의 시권을 채점하여 21일에 작성한 것이다.⁵⁵⁾ 방(榜)의 형식을 살펴보면 오른쪽부터 작성날짜와 문서제목을 쓰고 시험과목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낮은 점수

54) 『일성록』 정조 14년 6월 7일(병진)

55) 『일성록』 정조 16년 10월 21일(병술)

을 받은 사람의 순으로 점수,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부(父)의 관직 및 성명, 상품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차상일(次上一)을 받은 조만원이 거수(居首)를 하여 씨를 뺀 목화 2근과 이 방(榜)을 상으로 받았고 다음으로 차상(次上)을 받은 이득양(李得養) 외 2명은 씨를 뺀 목화 1근을 받았다. 그 외에 이 응제방에는 다른 방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違)’를 받은 유생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위(違)’는 위격(違格), 즉 격에 어긋 났다는 뜻으로 시험과목으로 내준 과목의 형식에 맞지 않은 글을 지어 냈거나, 자신의 신상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달의 응제에서는 신광식 외 8명이 위(違)를 받았는데 이렇게 위격을 범한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서제(書題)를 내려서 다시 시취하기도 하였다.⁵⁶⁾



〈그림 11〉 응제방의 인장

현재까지 화성지역과 관련된 이러한 형태의 방(榜)은 조만원의 유생 응제방 4건과 장용군(壯勇軍) 황철민(黃喆敏)에게 발급된 무사시취방(武士試取

56) 『수원하지초록』 경술(1790년) 6월 초8일

榜) 등 5건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어디에도 발급자가 누구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일성록』 등의 응제 관련 기록에서도 방(榜)을 내린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발급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문서에는 발급자를 찾아 낼 수 있는 한 가지 정보가 남겨져 있다. 문서에 답인되어 있는 정방형 인장 5개가 그것인데 인문(印文)을 읽어보면 “슴大”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주역(周易)』 「상경(上經)」편 건괘(乾卦)에 나오는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意味)의 대화합(大和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보합대화(保合大和)를 줄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합대화”는 정조가 평소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자주 언급하였던 것으로 이를 줄여 인장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의 발급주체는 인장의 주인인 국왕 정조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성록』과 『내각일력』, 『수원하지초록』 등에서 화성응제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점수는 이중일(二中一)을 최고득점으로, 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단위에서 다시 이중일(二中一)·이중이(二中二)·이중삼(二中三)·이중사(二中四)·이중(二中)·초이중(草二中)과 같은 형태로 세분화되었다. 시험과목은 부(賦), 시(詩), 표(表), 전(箋), 의(義), 송(頌), 고시(古詩), 명(銘) 등 다양하게 출제되었는데 그 중 부(賦)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상으로는 『팔자백선(八子百選)』·『정음통석(正音通釋)』·『대전통편(大典通編)』·『규장전운(奎章全韻)』·새로 간행한 『대학(大學)』이나 『송서백선(宋書百選)』과 같은 서책류, 종이·붓·먹 등의 문구류, 생선·쌀·고기·솜·자흑모(紫黑帽) 등의 생활용품이 주어졌다. 그리고 여름철에 해당되는 3월~5월에는 부채를, 겨울철인 11월과 12월에는 황장력(黃粧曆), 백력(白曆), 중력(重曆) 등의 책력(冊曆)을 상으로 주는 등 시기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상은 회시(會試)나 전시(殿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직부(直赴)’였다. 직부전

시(直赴殿試)는 초시(初試)나 복시(覆試)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급제자의 석차를 정하는 전시(殿試)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과거 급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아무 시험에서나 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화성 응제의 경우 매년 정조가 화성에 행행(行幸)했을 때 치른 친림(親臨) 응제, 정조 14년 8월의 응제 및 정조 15년 이후 세자(순조)와 어머니 혜경궁이 태어난 달인 6월에 치러진 응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직부의 자격을 상으로 내렸다.

이렇게 화성 유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응제를 실시하고 상(賞)을 베푸는 것은 유생들에게는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관계에 진출하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고, 국왕에게는 응시자들의 재능을 직접 시험함으로써 마음에 드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 정조가 친히 문제를 출제하고, 손수 시권을 채점한 후 ‘어고(御考)’의 표식을 남겨 국왕이 고권(考券)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삼았던 ‘보합대화(保合大和)’를 뜻하는 ‘합대(合大)’의 인장을 답인한 응제방을 거수(居首)자에게 내려주는 것은 시취에 응시한 유생이 정조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으며 국왕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화성 응제를 통해 관계에 진출하는 관리들을 근신(近臣)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원지역 문종의 성장

정조의 수원지역 육성책, 특히 문·무과 응제 실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의 관료 진출 확대와 그로인한 문종의 성장일 것이다. 1790년(정조 14) 8월의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한 이회검(李會儉)을 비롯하여 매년 6월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한 12명은 직부회시(直赴會試)를 받았고 매년 친림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한 임희존(任希存, 1791년), 권의

(權倚, 1791년),⁵⁷⁾ 임후상(任厚常, 1792년), 윤지승(尹持昇, 1793년), 조만원(趙萬元, 1793년), 민영조(閔榮祖, 1794년) 등은 직부전시를 받아 다음번 식년시 등에서 급제하여 곧바로 관직에 등용되었다. 또한 1795년(정조 19) 7차 원행(園行) 중 시행된 별시(別試)에서 장원(壯元)을 한 최지성(崔之聖)도 관계로 진출하였다.

이들 중 주목되는 인물로 조만원, 윤지승, 임희존 등이 있다. 조만원은 원래 광주부 송동면에 세거해 온 소론 성향의 들목(풍양) 조씨 문중의 인물로, 들목 조씨 문중은 1789년 송동면이 수원부로 이속되면서 이 지역의 유력한 문중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1790년 2월 11일, 현릉원(顯隆園)을 천장한 후 가진 첫 수원 원행 중, 정조는 화성 행궁의 득중정(得中亭)에서 ‘고평군(股肱郡)’을 제목으로 부(賦)를 짓는 별시문과를 실시하여 수원에서 3인, 과천과 광주에서 각 1인씩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 시험에서 광주 사람인 이덕승(李德升)이 삼하(三下)의 점수로 거수(居首)를 차지하였고 오성근(吳聖根)이 과천 사람으로, 신덕우(辛德羽), 김성운(金星運), 조만원(趙萬元)이 수원 유생으로써 입격하였었다. 그러나 조만원, 김성운, 신덕우는 3식년(式年) 동안 수원에 적을 두고 살아온 유생에 한정되었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응시하여 입격한 것이 밝혀져 조정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은 완고한 입장을 취해 세 사람의 입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변방으로 충군(充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조는 이 시험이 다른 과거와 다르고 이미 합격을 알리는 창명(唱名)을 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채제공이 다시 지난해 남한별시(南漢別試)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음을 들면서 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대사간 홍문영(洪文泳) 또한 후대에 폐단이 될 우려가 있으

57) 1791년(정조 15) 6월 화성 응제 부(賦) 과목에서 거수를 한 심취진(沈徽鎭)은 직부전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과방목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로 합격을 취소하고 충군(充軍)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러 신료들이 합격취소와 충군(充軍)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조는 합격을 취소하고 조만원 등에게 부득이하게 합격을 취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이후의 과거에서 다시 발탁되기를 도모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월 13일 응교(應敎) 정만시(鄭萬始), 부응교(副應敎) 유문양(柳文養) 등이 조만원 등을 절도(絶島)로 충군(充軍)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시험은 이덕승이 갑과(甲科), 이이희(李履熙), 이서조(李瑞朝)가 을과(乙科), 오성근(吳聖根), 이운행(李運行)이 병과(丙科)로 선발되고 조만원 등 3인은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표 3〉 조만원의 화성 응제 응시⁵⁸⁾

시상일(응시일)	과목	점수	상품	비고	
1790 (정조 14)	2월 朔試	-	入格	-	2차 원행 별시, 응시자격 미달로 입격취소
	4월 朔試	賦	三下	장지 2권	
	5월 朔試	表	三下	필 3지, 묵 1정, 선자 2병	시권
	8월 朔試	表	之次	급2분	
	11월 朔試	詩	次上	지1권, 황장력 1건	
1792 (정조 16)	4월 朔試	賦	二下一	정음통석 1건	응제방
	6월 朔試	賦	三上一	직부식년감시회시	
	7월 朔試	賦	三上	장지 2권, 필 5문, 묵 2홀	
	8월 朔試	賦	三上	팔자백선 1건	응제방
	9월 朔試	賦	三下	장지 1권	
	10월 朔試	箏	次上一	거핵 2근	응제방
	11월 朔試	賦	次上	황장력 1건	응제방
12월 朔試	賦	草次上	세찬미 4두		
1793 (정조 17)	1월 朔試	表	居首	직부전시	5차원행 친림응제

58) 『일성록』, 『내각일력』, 『수원하지초록』의 화성응제 관련 기사에서 발췌.

이렇게 화성별시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보호하에 무사할 수 있었던 조만원은 바로 2개월 후부터 지속적으로 화성 응제에 응시하였다. 기록에 남아있는 조만원의 응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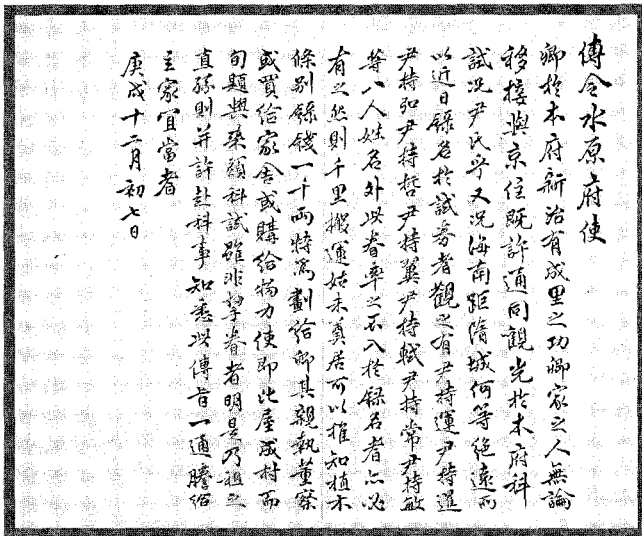
조만원은 1790년의 별시를 포함하여 총 13차례 화성응제에 응시하였다. 그 중 1790년 8월의 응제에서는 정조가 특별히 사관(史官) 서유문(徐有聞)을 보내 현릉원을 봉심(奉審)한 후, ‘上皇來遊’를 제목으로 하는 부(賦)와 ‘擬漢群臣賀移新豐’을 제목으로 하는 표(表)를 내걸고 신음의 유생들을 시험하여 각각 거수를 차지한 사람을 다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직부(直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부에서 거수를 차지한 유학(幼學) 이회검(李會儉)과 표에서 거수를 차지한 유학 권의(權倚)는 함께 직부회시에 나아가게 되었고, 다음 등수를 차지한 조만원 등에게는 각각 2분의 점수가 내려졌다. 또 정조 15년 6월 응제에서는 삼상일(三上一)의 점수를 받아 식년감시회시(式年監試會試)에 직부(直赴)되기도 하였으나 조만원은 이 시험에서 탈락되었거나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조만원은 여러 번 응제에 응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792년(정조 16) 1월 제5차 현릉원 원행 후 실시된 친림 응제(親臨 應製)에서 표(表)의 거수(居首)로 뽑히게 되고 그에 대한 상으로 직부 전시(直赴殿試)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794년(정조 18) 2월, 정순왕후의 오순(五旬)과 혜경궁의 육순(六旬)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된 친림춘당대정시문과(親臨春塘臺庭試文科)에서 병과(丙科) 19인으로 급제함으로써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관직에 진출한 조만원은 규장각 초계문신에 선발되어 1799년(정조 23) 초계시(抄啓試)에서 세 번 수석을 하여 4품에 오르는 등 정조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이후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의 참판(參判)을 거치고 대사성, 강화유수를 거쳐 형조판서·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조만원 이후 아들 조학년(趙鶴年, 1786~1854)도 1828년(순조 28) 화성유생응제시

(華城儒生應製試)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어 문과에 급제한 후 대사헌과 예조·형조·이조의 판서를 거쳐 종1품의 승정대부 겸예문관제학지실록사(崇政大夫 兼藝文館提學知實錄事)에 임명되었고 손자인 조희철(趙熙哲, 1815~1897)도 1844년(현종 10)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 6위로 급제한 후 한성부 좌윤 및 우윤(漢城府 左尹·右尹),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를 거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되는 등 들목 조씨 문중은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名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793년 친림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하고 직부전시를 받은 윤지승(尹持昇, 1741~1815)은 공제(恭齋) 윤두서(尹斗緒)의 증손이다. 해남 윤씨 윤선도(尹善道) 집안의 후손들은 정조가 수원 신읍치의 인구 조성책으로 실시한 시취(試取)에 응해 집단 이주한 대표적인 실례로 자주 거론되어 왔다. 해남 윤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은사첩(恩賜帖)』 중에는 정조가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내린 전령(傳令)을 등서(謄書)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 12> 해남 윤씨 소장 은사첩 수록 전령

이 문서는 1790년 12월 9일, 정조가 당시 수원부사였던 조심태(趙心泰)에게 내린 전령의 등서본이다. 조심태는 1789년 7월부터 1790년 12월까지 수원부사로 재직하면서 현릉원 천봉(遷葬)과 신읍치 조성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여 정조 년간의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이러한 공을 인정하여 정조는 조심태의 집안 사람은 수원에 옮겨와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를 논하지 말고 수원부에서 실시하는 시취(試取)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러한 점을 환기하면서 정조는 윤씨 집안도 조심태가 세운 공과 견줄만한 공이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고, 먼 곳에서 이주해온 해남 윤씨들이 수원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록 식솔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더라도 윤선도의 직손임이 분명하다면 수원에서 실시하는 순제(旬製)와 과시(科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정조는 이 전령을 내린지 한 달 여 후인 1791년 1월 16일 제3차 원행으로 수원에 도착한 후, 저녁 무렵에 관교(官校)를 보내 해남 윤씨들을 부르게 해서 한 명씩 접견하고, 그들의 직(職)과 성명, 나이, 과거 공부한 한햇수와 과거 응시 여부 등에 대해 세세히 묻고 과거 공부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수학과 오도록 권고하였다.⁵⁹⁾ 위의 전령에서는 시권에 보이는 이름이 8인이라고 하였으나 이 문서에 의하면 약 20인의 해남 윤씨들이 수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날인 1월 17일 정조가 현릉원 전배를 마친 후 실시한 시취(試取)에서 ‘文王孫子本支百世’로 부(賦)를 지으라는 과제에 유학 윤지승, 윤지홍이 3등을 차지하며 상으로 각각 2푼(分)씩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해남 윤씨 문중 인물들은 계속해서 응제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남 윤씨 문중 인물들의 응시결과는 다음과 같다.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제3권-해남윤씨편 정서본-, 1986, 871~872쪽.(잡문기 16번)

〈표 4〉 해남 윤씨 화성응제 응시결과

연도	과목(응시월)	시제	점수	응시자	상품
1790	賦(7월·8월 합실)	上皇來遊	之次	幼學 尹持哲	各給二分
	七言古詩	扶桑大藹歌	三下	幼學 尹持哲	各 正音通釋一件 黃粧曆一件
1791	七言古詩	-	草三下	幼學 尹持哲	各壯紙一卷
	賦	-	次上	幼學 尹持昇	各 扇子一柄
	詩	-	三下	幼學 尹持初	別壯紙一卷, 筆三枝, 墨二笏, 民魚一尾
			次上	幼學 尹持運 幼學 尹持翼	各 民魚一尾, 蘇魚三級
			次中	進士 尹愔 幼學 尹持哲	各 民魚一尾, 蘇魚二級
			次下	幼學 尹持讓 進士 尹愔	蘇魚二級
	賦	時維后稷	之次	幼學 尹持讓 幼學 尹持哲	各給一分
	詩(七月朔試)	-	二下	幼學 尹持昇	別壯紙三卷, 筆五枝, 墨二笏
			三上	進士 尹愔	各 別壯紙二卷, 筆三枝, 墨一笏
			三中	幼學 尹持初	各 壯紙二卷, 筆三枝, 墨一笏
詩(去十月朔)	門外惟有吏日來 徵租更索錢	三下	幼學 尹持哲 幼學 尹持翼	各 壯紙一卷	
		三中	幼學 尹持翼	各 八子百選一件	
		二中	幼學 尹持昇	大典通編一件	
		三中	幼學 尹持喆	別壯紙二卷, 筆三枝, 墨一笏	
詩(去十一月朔)	天教瑞雪報豐年	三下	幼學 尹持昇	各 正音通釋一件	
		次上	幼學 尹持昇	正音通釋一件 各 白曆一件	
1792	賦(去四月朔)	老人星	三下	幼學 尹持昇	筆二枝, 墨一笏
	賦(去五月朔)	綠野堂		幼學 尹持昇	各 食物米五斗
	賦(去閏四月朔)	約飲十日而更	次上	幼學 尹持昇 幼學 尹持哲	各筆二枝, 墨一笏
	賦(去六月朔)	靈壽閣	三下	幼學 尹持昇 幼學 尹持哲	各 米四斗 大口二尾
	賦(七月)	客亦知夫水與月乎 蟻於南郊爲 來年祈穀	次上	幼學 尹持昇	各 壯紙一卷
	賦	來年祈穀	三下	幼學 尹持昇	各 歲饌米六斗
1793	詩	生動三湖一夜波	三下	幼學 尹持哲	米三斗大口魚一尾
1794	賦	但願年年似今日	額外居首 草次上	進士 尹愔	各扇子二柄
	表	擬唐魏人謝報籩	次上	進士 尹愔	各紫帽一立
1795	詩(去正月朔)	-	三下	進士 尹愔	各 壯紙一卷
	賦(二月朔)	-	草三下	進士 尹愔	食物米三斗

이들 중 윤지승은 1792년의 제4차 원행에서 실시된 친림 응제에서 삼하이(三下二)의 성적으로 직부회시(直赴會試)를 상으로 받았으며 다음해인 1793년 제5차 원행 친림 응제에서는 ‘人情者聖王之田’라는 주제로 부(賦)를 지으라는 과제에 응하여 거수(居首)를 하고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자격을 얻게 되어 1794년 춘당대친림정시문과(春塘臺親臨庭試文科)에서 병과(丙科) 36인으로 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외에 화성 응제에 응했던 해남 윤씨 중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해남 윤씨 집안은 수원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정조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으며 화성 응제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과거에 급제한 인물은 윤지승 한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시 수원으로 이주했던 인물들 중 수원에 정착한 인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윤규백(尹奎白)⁶⁰이 1803년의 별시에서 병과(丙科) 9인으로 급제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거주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 집안에 ‘水原宅’⁶¹이라는 택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읍 초기에 수원으로 이주하였던 해남 윤씨들 중 일부는 수원에 남아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희존(1748~1828)의 본관은 풍천(豐川)으로 자는 신지(身之)이고 증조는 형조참의를 지낸 임순원(任舜元), 조부는 군수를 지낸 임수관(任守寬)이다. 1791년 화성 친림 응제에서 거수(居首)를 하여 직부전시를 받은 후 1794년 정시(庭試)에서 병과(丙科) 24위로 급제하였다. 1795년 수원에서 시행된 혜경궁의 회갑연 때 경모궁(景摸宮) 친향대축을 담당하여 가자(加資)되었으며 이후 한성부판윤·공조판서·판의금부사·지중추부사 등을

60) 초명은 윤지방(尹持房)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앞의 책, 539~540쪽(간찰류 125번), 576쪽(간찰류 306번). 한편 간찰류 243번에는 ‘南昌宅’이라는 택호와 함께 신읍(新邑)에 도착해서 남양의 선산을 살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남창택도 당시 남부(南部)의 남창동(南倉洞)으로 추정된다.

역임하였다. 화성 응제에는 임희존을 비롯하여 임후상, 임희계(任希季), 임정상(任鼎常), 임우상(任禹常), 임백겸(任百謙), 임백풍(任百豐), 임익상(任益常), 임백선(任百選), 임천백(任天白) 등 풍천 임씨 문중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 차례 참여하였다. 이 문중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정조 시기 장용영 설치와 무반에 대한 시취(試取)를 계기로 관직에 등용된 인물을 배출한 문중들도 있다. 화성지역 무반 가문 중 정조시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가문은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이다. 해풍김씨 남양쌍부파는 화성지역에 500년간 세거하며 6명의 공신을 비롯하여 다수의 병마·수군절도사, 삼도통제사를 배출해낸 화성의 대표적인 무반 가문이다.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해풍 김씨 남양쌍부파의 김후(金煇: 1751~1805), 김희(金熾: 1749~1811), 김혁(金赫: 1751~1814) 등이 화성 축성과정에 참여하였다. 화성성역을 시작할 당시 김후는 경기중군(京畿中軍)으로 재직하였으며 성역에서는 별감동(別監董)의 직위를 맡았다. 이후 독성의 중군으로 옮겨 제수되었으나 성역에 관해서는 잡물책임도청의 임무를 겸하여 맡았다. 화성성역이 끝난 후 김후는 성역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다. 김혁은 1795년 1월 감동의 임무를 맡아 화성성역에 참여하였고, 김희도 별군직으로 근무하며 감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충청도병사로 승서(陞叙)되었다.

또한 김종철(金宗喆, 1759~1812)과 김의(金熾, 1755~1817)는 무과 급제 후 장용외영에서 근무했다. 무과에 급제한 후 오랜 기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던 김종철은 첫 관직으로 장용영초관에 임명되었다가 6개월 후 이직하였으며, 이후 장용외영의 좌사좌초관에 임명되어 다시 한번 장용영과 인연을 맺기도 하였다. 김의는 과거 급제 후 선략장군행오위도총부도사, 어모장군훈련원정 등의 관직을 거쳤다. 그리고 장용영 초관과 장용외영의 친군위별장으로 임명되어 장용영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정조 시기 화성성역

과 장용영 설립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해평 김씨 남양쌍부파 문중의 무신들은 활발히 관직에 나아갔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판서를 배출하는 등 무반 명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다.⁶²⁾

동탄면 산척리에 세거해 온 함평 모씨 문중 또한 정조시기에 성장한 무반 문중이다. 산척리는 조선 후기 어탄면 산척동에 해당하며 이 지역의 함평 모씨는 스스로를 오산지구파라고 자처하고 있다. 함평 모씨 오산지구파의 산척리 입향조는 14대 모방형(牟方亨)으로 알려져 있으며⁶³⁾ 입향 계기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전쟁을 피해 이 마을로 숨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이 집안의 23세 모응운(牟應運, 1751~몰년미상), 모응훈(牟應勳, 1748~몰년미상), 모응린(牟應麟, 丙午生~몰년미상)⁶⁴⁾이 화성지역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모응운의 자(字)는 일강(一綱)으로 1798년(정조 22) 장락우부장(長樂右部將)에 임명되고⁶⁵⁾ 1805년(순조 5)에는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의 자격으로 정순왕후국장도감(貞純王后國葬都監)에 거안자(舉案者)로 참여하였다.⁶⁶⁾ 장락위는 장용외영의 장안문 일대를 지키는 장안위, 팔달문 일대를 지키는 팔달위, 화성문 일대를 지키는 화서위, 창룡문 일대를 지키는 창룡위, 화성행궁을 지키는 신평위 등 5개 부대를 일컫는 명칭으로 모응운이 임명된 우위(右衛)는 화서위에 해당한다. 『함평모씨오산지구파보(咸平牟氏烏山地區派譜)』(1978)에 의하면 모응운은 이 경력으로 인하여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화령전(華寧殿)의 겸수문장(兼守門

62) 정혜은·심영환, 『해평 김씨 남양쌍부파』, 화성시·화성문화원, 2008 참고.

63) 『함평 모씨 오산지구파보』에 의하면 모방형의 묘는 오산시 벌음리에 위치하고 산척골에 처음 묘를 쓰기 시작한 것은 17대 모일보(牟一寶)부터이다.

64) 병오(丙午)에 해당하는 해는 1726년이나 1786년이지만 아버지인 모광훈(1732~1803)과 형 모응훈(1748)의 생몰 년과 맞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본인의 활동 시기와도 맞지 않아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안 내력에 참고한 『함평모씨오산지구파보』(1978)은 이처럼 오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여러 곳아서 앞으로 구보(舊譜)와 비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5) 『日省錄』, 정조 22년 10월 29일(기미)

66) 『貞純王后國葬都監虞主所儀軌』, 1805

將)⁶⁷⁾을 지내고 이후 종4품 상계인 선략장군 행부산진관서평만호(宣略將軍 行釜山鎭管西平萬戶)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⁸⁾

모용훈의 자(字)는 순서(舜瑞)로 족보에 의하면 종5품 상계인 통덕랑(通德郎)의 품계에 올랐다. 장용외영 친군위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한 활쏘기 시험 중 1795년(정조 19) 7월 기추(騎蓺) 분야에서 좌열친군위(左列親軍衛)에 소속되어 있던 한량(閑良) 모용훈이 삼중(三中)의 성적을 거둔 기록이 있는 것⁶⁹⁾으로 보아 그가 장용외영 소속 부대에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모용린의 자(字)는 운서(雲瑞)로 족보에 기록된 그의 관력은 선략장군 행가덕진관옥포수군만호 겸장용외영부장(宣略將軍 行加德鎭管玉浦水軍萬戶 兼將勇外營部將)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783년(정조7) 부장(部將),⁷⁰⁾ 1785년(정조9)에는 수문장(守門將),⁷¹⁾ 1787년(정조11)에 다시 부장(部將)에 임명되었다.⁷²⁾ 그리고 1798년(정조22)에는 장락위 후부장(後部將; 장안위부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⁷³⁾ 1795년(정조 19) 장용외영 친군위의 활쏘기 시험 중 6월의 유엽전(柳葉箭) 부분에 참여한 우열친군위(右列親軍衛) 소속 전만호(前萬戶) 모용린은 관일중 변일중(貫一中 邊一中)의 성적으로 목(木) 1필(一疋)을 상으로 받았고 7월의 유엽전 부분에서도 변이중(邊二中)의 성적으로 목(木) 1필을 받았으며, 기추(騎蓺) 부분에서는 이중(二中)의 성적으로 전죽(箭竹) 15개와 모자 1립(立)을 상으로 받았다.⁷⁴⁾ 이들은 정조 시기 화성유수부에 장용외영이 설치되면서 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군관직 선발에 이 지역 사람들을 우대하여 선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던

67) 화령전의 겸수문장의 임명과 임무에 대해서는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이 참고된다.

68) 長樂部副將(因爲參上)部將華寧殿兼守門將 訓鍊院主簿 宣略將軍 行釜山鎭管西平萬戶(『咸平牟氏烏山地區派譜』)

69) 『日省錄』정조 19년 8월 19일(정유)

70) 『承政院日記』정조 7년 6월 24일(갑신)

71) 『承政院日記』정조 9년 6월 24일(신축)

72) 『承政院日記』정조 11년 1월 24일(계사)

73) 『日省錄』정조 22년 10월 29일(기미)

74) 『日省錄』정조 19년 8월 19일(정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무반가문으로 남산밀 차씨라 불리는 연안 차씨 문중이 있다.⁷⁵⁾ 남산밀 차씨들은 조선 초의 공신 차운혁을 파조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곳에 언제, 어떤 과정으로 세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공신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현달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여 쇠락해가고 있었던 남산밀 차씨 문중은 정조의 현릉원 천봉을 계기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릉원 조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은 인근에 세거하는 남산밀 차씨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식목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91년 4월, 정조는 원소(園所) 경내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흙을 돋우고 잔디를 깎는 등, 현릉원 주변과 용주사를 꾸미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공역에 관계된 인사들에 대해 상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⁷⁶⁾ 현릉원의 식목사업과 이후의 송추 보호는 현릉원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남산밀에 거주하는 이 집안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남산밀 차씨 집안의 종손인 차도항(車道恒, 1732~1805)은 수원부의 초관(哨官)으로 이 공역에서 나무를 심는 일에 참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자(加資)되었다.⁷⁷⁾ 식목 사업을 위한 공사는 시작된 지 3년 만인 1792년 4월에 이르러 완료되었다. 이때 정조는 이 사업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차등 있게 상을 주라고 하교하였는데⁷⁸⁾ 이 시상에서도 차도항은 공로를 인정받아 다시 한번 가자(加資)되었다.⁷⁹⁾ 두 번에 걸친 가자(加資)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오른 차도항은 그로부터 2년 뒤 종2품 실직인 어진봉안각위장(御

75) 남산밀 차씨 문중에 대해서는 김혁·이정일, 정조의 현릉원 조성과 남산밀 차씨 집안의 대응, 『남곡최홍규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한국사의 탐구』, 논총간행위원회, 2005 참고

76) 『정조실록』 정조 15년 4월 16일.

77) 『일성록』 정조 15년 4월 16일.

78) 『정조실록』 정조 16년 4월 4일.

79) 『일성록』 정조 16년 4월 4일.

眞奉安閣衛將)에 임명되고 이로 인해 차도항의 3대도 추증되기에 이른다. 차도항이 어진봉안각위장에 임명된 1794년(정조 18) 1월, 어진봉안각 관계 자들에 대한 시상에서 차도항은 윤치홍(尹致弘)과 함께 위장으로써 궁자(弓子) 1장을 받았다.⁸⁰⁾ 공신의 먼 후예로 관직진출자를 배출하지 못하여 쇠락의 길을 가고 있던 남산밀 차씨 문중은 차도항이 실직 2품에 임명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웅만한 경제력과 위세를 획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860년(철종 11) 세거지인 남산밀(현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에 차운혁의 충신 정려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충신정려를 받음으로써 당시 남산밀 차씨 집안의 훈예로서의 위치와 향촌사회에서의 지위는 더욱 안정될 수 있었다.

5. 맺음말

읍치의 이전과 우수부 승격으로 수원지역의 관할구역이 넓어지고 행정조직도 변화되었다. 송동면과 일용면의 편입으로 수원의 북쪽 경계는 광교산까지 확장되었고 반정포와 구포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양 면은 모두 반촌(班村)으로 그 동안 광주에 속해있던 문중들과 인근지역의 여론 형성지였던 명고서원이 수원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화성유수부의 행정은 총책임자인 유수와 보좌관인 판관이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인구는 구읍치 시기에 비해 호구는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급증으로 전체적인 인구는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소의 증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조 시기 이루어진 각종 수원육성책과 면세조치 등에 의해 증가된 인구가 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80) 『일성록』 정조 18년 1월 14일조.

보여주는 것이다.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인구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인구의 급증이다. 이것은 정조년간 실시된 잦은 시취(試取)에 따른 유생의 증가와 철저한 임금노동으로 이루어진 화성 건설 과정에서 유입된 인부들의 일부가 수원에 정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성내의 인구증가도 주목된다. 『화성지』 「호구」 조에서는 기존의 읍지와 달리 ‘부내’의 호구를 기록하지 않고 ‘성내’의 호구를 별도로 기록하였는데 이때 성내의 인구밀도는 구읍치 시대 부내와 비교하여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성내주변에는 관리와 상인, 유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 후반까지 고립적·분산적으로 개설되어 온 수원 지역의 장시는 정조대 조정기(調整期)를 거치고 19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큰 장시를 중심으로 시장권을 형성하여 개설되었다. 남문외장, 오산장, 석현장, 팔탄장과 같이 좀 더 규모가 큰 장시를 중심으로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되어 이들이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에는 한달 내내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남문외장과 오산장은 가장 큰 장시로서 이 지역 상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장시에서는 주로 미곡과 어염이 많이 거래되었고 채소와 소의 거래도 활발하였다.

수원지역 인재 육성책으로 실시된 별시와 응제에서 정조는 친히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취(試取)를 주관하였다. 수십 차례의 응제를 거치는 동안 수원지역 유생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빠르고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정조는 마음에 드는 인재를 골라 등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채점한 시권에 ‘어고(御考)’의 표식을 남기고 자신의 정치이념을 담은 ‘합대(合大)’의 인장을 찍은 응제방을 상품과 함께 하사하는 과정을 통해 화성 응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유생들을 자신의 근신(近臣)으로 키우고자 도모하기도 하였다.

정조대 이루어진 수원 육성책과 그로 인한 인구 증가, 상업 발달은 수원 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분기(分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시행된 육성책들 중 대부분은 수원을 자족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주로 읍치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읍치의 발전은 19세기 전반에도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전반에는 도시와 농촌의 분기가 뚜렷이 나타나 읍치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19세기 전반 성내의 인구 집중과 성내 장시의 발달, 그리고 비농업 인구의 증가 및 분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계속된 읍치 부양책으로 읍치의 인구가 증가하여 순조 31년(1831)에 이르러 성내 호구가 1,347호로 전체 수원 지역에서 9.2%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좁은 성내 면적을 감안하면 이 시기 읍치 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팔달문 밖에 개설된 남문외장은 이 지역 상품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서울의 상권과 연계되어 서울 상권과 수원 이남의 상권을 연결하는 장시로 발전하였다. 상업 발달에 따라 상인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관리, 유생, 상인 등 수원 지역, 특히 성내 지역에서 비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구읍치 시기 읍치는 중앙 정부가 파견한 관료들의 거주지이자 행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경제적으로는 주변 농촌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농업에 의존하여 상업활동은 부진했다. 따라서 정치적 성격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읍치는 관아나 향교 등이 밀집해 있고 관료들이 거주하는 농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신읍치 지역, 특히 성내외 지역은 구읍치 시기의 읍치와는 달랐다. 인구 밀도가 월등히 높아졌고 각종 행정 관사와 더불어 시전이 설치되고 장시가 발달하여 상공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원의 읍치 지역은 기존의 권력의 '저장소'로서의 기능에 상공업적 기능이 추가되어 경제적으로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화성성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가 현 수원시의 모태가 되었다.

읍치의 이전(移轉)과 유수부 승격으로 수원지역의 관할구역이 넓어지고 행정조직도 변화되었다. 수원의 북쪽 경계는 광교산까지 확장되었고 서쪽으로는 빈정포와 구포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화성유수부의 행정은 총책임자인 유수와 보좌관인 판관이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인구는 구읍치 시기에 비해 호구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구는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조 시기 이루어진 각종 수원육성책과 면세조치 등에 의해 증가된 인구가 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내의 인구증가도 주목되는데 신읍치 시기 성내의 인구밀도는 구읍치 시기 부내와 비교하여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구성에서는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성내주변에는 관리와 상인, 유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 후반까지 고립적·분산적으로 개설되어 온 수원 지역의 장시는 19세기 전반에는 큰 장시를 중심으로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되어 시장권을 형성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에는 한달 내내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다. 장시에서는 주로 미곡과 어염이 많이 거래되었고 채소와 소의 거래도 활발하였다.

수원지역 인재 육성책으로 실시된 별시(別試)와 응제(應製)에서 정조는 친히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취(試取)를 주관하였다. 수십 차례의 응제를 거치는 동안 수원지역 유생들은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빠르고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정조는 마음에 드는 인재를 골라 등용할 수 있었다.

정조대 이루어진 수원 육성책과 그로 인한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은 수원 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분기(分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시행된 육성책들 중 대부분은 수원을 자족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주로 신읍치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구읍치 시기 읍치가 중앙 정부

가 파견한 관료들의 거주지이자 행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19세기 전반 신읍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각종 행정 관사와 더불어 시전이 설치되고 장시가 발달하여 상공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화성성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읍치 지역이 현 수원시의 모태가 되었다.

* 주제어 : 수원, 화성, 정조, 장시, 응제, 들목 조씨, 해남 윤씨, 해풍 김씨, 함평 모씨, 남산밀 차씨

The moving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socio-economic transition in Suwon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

Lee, Jeong-ill

The moving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promotion to Usubu(metropolitan city) made Suwon's sphere broader and cause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to change. The border of Suwon extended to Mt. Gwanggyo to the north and took the routes to the sea through Binjeongpo(port) and Gu-po(port) to the east. The administration of Hwaseong was going to be supervised by yusu, or chief, and pangwan, or assistant, due to reorganization in administrative structure.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population in Suwon had overall increased than the old district, though its households had decreased. This means that the population, increased by a variety of promotion plan and tax exemption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 had remained constant to some extent. The increased population inside city wall is worth noting, because the population density inside city wall during the new district seemed more than the population during the old district. The non-agricultural population had increased, in particular officials, merchants, and Confucians mainly seemed to reside near inside the city wall.

By the late 18th century, the market which had been opened separately in Suwon came to be opened on different opening days from the big market in the early 19th century, forming their own market zone. As a result, there

were always the fairs all the time each month in Suwon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y mainly traded grain, fish, and salt, as well as vegetable and cattle.

In the plan for talented persons in Suwon, the King Jeongjo himself would manage the examination, such as making the questions or giving marks, in the byeolsi(the irregular examination) and Ungje(the examination before the king).Through dozens of Ungje, the confucians in Suwon c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take up the offices and thus the king Jeongjo could appoint the talented men for himself.

Due to the promotion plans and thus the increased population and the developed trade during the reign of Jeongjo, the towns and rural communities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Suwon. At that time, most of the promotion plans had been implemented to make Suwon the self-sufficient city, thereby implemented primarily in the new district. For this reason, while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welled and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had been brought, was strong in political features, the new administrative district had the higher population density, shop facilities as well as various administrative offices and houses of the officials, and the more lively trade and manufacture activ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rkets or fairs. The new administrative district, formed around the Hwaseong fortress at the time, has become the basis of present Suwon city.

* Keywords : Suwon, Hwaseong, Jeongjo, market zone, Ungje (the examination before the king)

여 백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김인호*

1. 들어가며 : 두 개의 계기에 대하여
2. 지주제는 강화되고, 전통수공업만 잔존하고
3. 1930년대, 토착시장을 바탕으로
4. 전쟁 특수를 안고
5. 나오며 : 지주제가 강한 곳에 조선인 자본가도
튼튼했다.

1. 들어가며 : 두 개의 계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수원은 농업의 중심지였고, 오곡이 풍성했다. 이는 일본인 눈에도 그러했다. 1923년 사카이(酒井政之助)는 “일래 우리 수원은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지며, 다른데서 보는 조선 특유의 하천범람도 없으며 가는 곳마다 작은 개천이 있어 관개에 편리하고 오곡이 풍성하여 조선 중앙부의 커다란 보물단지라 불리기도 한다”고 하고, 마치 ‘京都 옆의 奈良’에 수원

* 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을 비유하였다. 그만큼 이 지역이 문화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면서 경부철도 개설 이후 급속히 일본의 근대화 세례가 강하게 영향을 남기는 지역이었다. 즉, 부재지주 중심의 수원읍[남면과 북면]이 소작농 중심의 각 면을 마름을 통한 지배를 지속하는 등 공업화 이전의 수원경제는 전통적 지주제가 여전히 강고한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와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등 근대적 농법과 자본주의 경영이 일찍부터 실험되던 곳이었다.

그 동안 근대 수원지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족운동²⁾ 영역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사회·경제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주민의 생활을 다룬 연구³⁾ 그리고 개괄적으로 수원시의 역사적 흐름을 다룬 연구가 근대시기 수원사의 공백을 매우는 정도이다.⁴⁾ 다만, 김인호는 종래 수원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과도한 내재적 계기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수원의 공업은 전통적인 장시와 수공업의 발전에 따른 공업화는 지체되고 오히려 지주제가 강화되고 있었으며, 직물업이나 일부 공업 발전도 침략전쟁 시기 일본인 자본의 도입이나 정치적 선전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⁵⁾ 즉, 수원경제의 근대화는 침략전쟁의 계기(외삽적 계기)가 내재적 계기를 압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외적 동기만 강조한 듯하다. 수원의 직물업 발전에는 유난히 이유복, 홍사운 등 토착 조선인 자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은 침략전쟁 시기 이전부터 조선마직 등으로 결집하였고, 새로운 시장과 활로를 개척하고 적극적인 시설확장과 재화를 동원하고 있었다. 그러므

1) 酒井政之助, 『水原:及附錄』(1923), 23쪽.

2) 수원지역의 근대 민족운동에 관해선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국학자료원, 2003) : 박환, 『1920년대 수원고등농업학교 학생비밀결사』(『길현의 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1996) 등의 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3)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수원문화원, 2003).

4)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수원시, 1996).

5) 김인호, 『근대 수원경제의 특징과 진로』, 『수원학연구』제2집, 수원학연구소, 2006.2.

로 침략전쟁 동인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수원산업사 연구들은 실제의 역사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일제강점시기 수원지역 산업을 지주제 확대에 따른 조선인 자본의 대대적인 직물업 진출이라는 내재적 계기와 침략전쟁에 따른 직물 수요라는 외적 계기는 수원경제의 근대적 변모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분석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농업사회로서 강고한 지주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전쟁특수와 토착시장 그리고 지역인맥, 지역 자산, 지역 권력을 통하여 근대적인 산업을 새롭게 확장해가는 수원지역 산업의 특이한 역사적 변화상을 밝혀내는데 목적을 둔다.⁶⁾

2. 지주제는 강화되고, 전통수공업만 잔존하고

1) 소작농만 퇴적되는 수원

1930년대까지 수원은 지주제 압박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격심한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가 포진하였다. 그래서 공업화에 필요한 안정적 인 노동력 공급원은 마련된 셈이었지만 현실은 지주제는 안정된 반면 공업화의 기초는 미약했다.

1920년대 수원지역의 농업구성 <표 1>에서 잘 나타난다.

6) 다만 연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한말·식민지시대 수원군의 행정구역에서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91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수원군이 크게 확장된 다음 남북면을 합쳐서 수원면이 되었으며 1931년 수원면이 수원읍이 되고, 1949년에는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었다. 이때 수원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수원과 분리되어 화성군이 되었고, 1995년 반월면 일부(권선구), 태안면 일부(팔달구 영통)가 수원으로 편입되었다.

〈표 1〉 수원군 농업구성의 변화-계층별 구성(1923~1937)

〈단위: 천 호〉

구분		지주(갑)	지주(을)	자작	자소작	소작	계	농가호당 경지면적
1921	수원	287	640	1730	8247	11,652	22,556	
	비율	1.3	2.9	7.8	36.7	51.4	100	
1923	조선	17,157	81926	534.9	971.9	1,106.60	27,12.5	15.9
	비율	0.6	3	19.7	35.8	40.8	100	
	수원	288	651	1728	8255	11,659	22,581	15.2
	비율	1.3	2.9	7.7	36.6	51.6	100	
1926	조선	19,735	83,832	544.5	910.2	1,184.40	27,42.7	
	비율	0.7	3.1	19.9	33.2	43.2	100	
	수원	207	769	1,873	6,311	13,586	22,746	
	비율	0.9	3.4	8.2	27.2	59.7	100	
1937	수원	-	-	1,769	6,144	16,424	24,337	
	비율	-	-	7.3	25.2	67.5	100	
1940	수원	-	-	1,693	5,604	16,699	24,366	
	비율	-	-	6.9	23	68.5	100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3년판 및 1926년판) : 水原郡, 『朝鮮總督府生活實態調査』 其一(//水原郡調査資料)/ 28집, 1929: 京畿道, 『農事統計』(1937), 13쪽 및 16쪽, (1940), 13·16쪽 : 華城郡史編纂委員會, 『華城郡史』 上 : 澆井政之助, 『水原及附錄』(1923), 27쪽.

비고 : 1) 『華城郡史』 통계는 지주(갑)을 조선, 지주(을)을 일본인지주로 파악했지만, 사실은 부재지주와 재지주(을)를 나타낸다. 2) 지주조사는 1931년까지만 조사됨, 3) 1937년과 40년 전업 및 겸업자 총계와 농민계층별 총계가 다른 것은 후자에 파용자 즉 무산노동자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3) 단위에서 조선은 천 호 기준, 수원은 호 기준.

먼저, 지주와 소작농은 날로 급증하고 자작과 자소작농은 날로 감소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1921년 농업구성을 전조선의 경우와 비교하면 수원군에서는 갑지주가 1.3%로 전조선의 0.6%보다 높다. 지주 중에는 을지주가 증가하고 갑지주가 감소했다. 즉, 갑지주 경우 3년내 절대호수가 감소한 반면 을지주는 0.5% 증가하여 1920년대 중반 수원 농업경제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자작농은 전조선이 평균 19%대인데 반해 1937년까지 거의 7~8%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소작농은 1921년 이미 51.4%이며 1926년에

는 59.7%로 급증한다. 1921년과 비교할 때 8.1% 상승하여 5년 만에 소작 농호는 1,900호 이상 증가하였다. 1920년대 전조선의 자작호 비율이 19~20%인 것과 비교하면 자작농 비율이 무척 낮다.

둘째, 농민의 노동자로 전환이 무척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다. 농민의 임노동자화 경향은 대체로 소작농 감소와 농업피용자 증가에서 그 특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피용자는 1934년 381명에서 1940년 370명으로 줄었다.⁷⁾ 조선 전체적으로 소작호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수원에서는 소작농호가 1926년에 전농가의 59.7%이던 것이 1937년에는 오히려 67.5% 그리고 1940년에는 68.5%로 증가했다.⁸⁾ 소작농이 증가해도 피용자가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는 1923년 전조선의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보다 수원의 경작면적[전조선 15.6단보: 수원군 15.2단보]이 적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작농이 되고 경작지가 줄어도 마땅히 나갈 곳이 없어서 평균농가당 경작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원읍과 다른 읍면과의 경제적 불균등 실태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원군내 읍면별 농업구성(1923)

면별	부재지주	재지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계	소작호비율
수원	135	12	28	25	123	333	36.94
일형	55	57	134	365	521	1,132	46.02
의왕	8	13	25	174	516	746	69.17
반월	4	14	98	873	365	1,154	31.63
매송	6	22	35	295	505	863	58.52
봉담	-	35	69	201	555	860	64.53
비룡	5	35	50	310	546	964	56.64
음덕	38	54	75	369	820	1,356	60.47

7) 『農事統計』 1934년판, 1940년판.

8) 당시 조선 전체적으로 자작농은 전농가의 18%정도로 소작농은 1941년까지 52~54%였으나 1943년에는 49%로 하락한다. 따라서 수원의 소작농 비율은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면별	부재지주	재지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계	소작호비율
마도	-	41	102	395	412	950	43.37
송산	10	37	136	703	557	1,443	38.6
서신	-	24	45	240	698	1,007	69.31
팔탄	4	16	87	456	589	1,152	51.13
장안	-	18	59	418	493	988	49.9
우정	-	29	86	580	698	1,393	50.11
향남	-	30	98	448	502	1,078	46.57
양감	6	27	53	399	315	800	39.38
정남	1	36	109	455	626	1,267	49.41
성호	-	30	86	405	535	1,056	50.66
동탄	8	50	89	412	600	1,159	51.77
태장	4	22	107	432	759	1,324	57.33
안릉	4	39	147	360	824	1,374	59.97

비고: 1) 수원읍은 현재 수원시, 2) 의왕·오산·안산은 현재 각각 시로 분리, 3) 봉담·(남양)·매송·동탄·(태안)·팔탄·우정·장안·양감·향남·정남·비봉·송산·마도·서신은현재 화성시 소속, 4) 안릉·태장·일형·음덕·성호·반월 등은 지금 행정구역에 없으나 각기 일형은 수원시로, 안릉·태장은 태안면 그리고 음덕은 남양면, 성호는 오산면으로 소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태안면 영통구가 현재 팔달구 영통이고, 반월면은 1995년 수원시 권선구 및 나머지는 안산 및 군포시로 각각 분리되었다.

출전 : (표 1)과 동일

먼저 갑 지주(부재지주)는 대체로 수원읍에 집중되었고 <135호> 기타 일형면[55호]과 음덕면[38호]에도 비교적 많은 부재지주호가 있다. 또한 재지주주는 면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탄과 음덕, 일형에서 50호 이상의 재지주주가 있다. 소작호 비율은 반월이 365호로 32%, 수원은 123호로 36%, 송산 39%로 다른 면에 비해 무척 낮고 반대로 의왕은 746호로 69%, 서신은 69%, 음덕은 60%, 봉담은 65% 안릉은 60% 등으로 비율이 높다.

따라서 수원읍은 주로 지주·자작계급이 중점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음덕은 부재지주와 소작농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⁹⁾ 아울러 일형은 재지

9)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1914), 32쪽.

지주와 자작농이 집중되어 있고, 반월은 지주는 취약하고 자작농 중심으로 존재한다. 또한 재지지주 20호 이하 면의 소작호 비율을 보면 재지지주호가 적다고 해서 소작호가 적은 것은 아니다. 이는 재지지주가 적은 곳이라도 오히려 부재지주가 많아서 소작농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반월의 경우만 소작호 비율이 낮은 '자작농 중심'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면마다 지주제 수준은 달랐으며, 편차도 컸다.

수원읍의 경우 지주호 특히 갑지주[부재지주]호가 몰려있었기 때문에 주로 사음을 통하여 면 지역의 소유지를 경작했다. 다른 지역이 소작호가 높다는 면에서 이는 수원군내 읍과 면지역 사이의 분업구조를 말하며, 지역단위로 계급관계가 약화될 가능성, 읍 사람에 대한 다른 면 사람의 '경계심'이 커질 가능성 등을 말한다. 이는 수원읍에 재지지주가 거의 없고 경작인 중에서도 자작·자소작농이 많았다는 점에서 연간 경제력 격차도 포함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도 그 지역 지주는 경성이나 수원읍에 거주하면서 사음에게 자기 소유지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자도 있으며, 오직 사음에 의지하고 있기에 사음이 부정을 함부로 하고 소작계약에서도 계약서를 쓰거나 연한을 정하는 일이 없고 지조나 종자는 지주가 부담하는 대신 추수할 경우 절반을 나눈다. 해마다 가을 사음이 감독하는 아래서 벼는 절반은 결량¹⁰⁾이라고 하여 1결[5되]은 결량하는 인부에 지불하고, 끝자락이 1말이 안되는 단수의 싹은 사음이 착복하는데, 그래도 사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주가 받는 분량 중에서 비용 및 자기 이익을 빼고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지주는 실수납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꾸짖는 것은 대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묵과하고 만다.¹⁰⁾

10) 상동, 32~33쪽.

이러한 추세는 1930년대 전반기에도 대동소이한데 이는 1937년 통계에서 1937년 전호수의 67.5%가 소작농이었고 1940년에는 68.5%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반면 자작농은 1926년에 8.7%였지만 1940년에는 6.9%에 불과하다. 만약 지주층을 자작농에 포함한 통계일 경우 실질적인 자작층 감소는 더욱 크다. 그나마 소폭으로 감소한 것이 자소작농이었는데, 1921년 36.7%에서 1940년도에는 25%로 하락했다.

요컨대, 일제하 수원지역의 농업은 지주제의 강화와 소작농의 비약적 확대 그리고 상대적인 자작·자소작농의 몰락이라는 틀에서 지주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노동으로 소작농이 전환하는 것도 무척 제약되어 있었다. 이는 식민농정의 파행이 고스란히 식민지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수원은 그러한 모순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간에서 농촌진흥운동이니 자작농 창정계획이니 하여 일정하게 자작농이 증가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수원군만큼은 식민지 내내 시종일관 자작농 감소와 소작농 급증이라는 봉건적 분해양상을 보여준다.¹¹⁾

2) 영세 수공업만이 일자리의 모든 것

그런데 문제는 공업이었다. 1904년 수원에 농상공학교가 1906년에 수원 농림학교로 개칭되어 발전하였다. 1909년에는 수원상업강습소가 개설되었고, 1906년 6월에는 통감부 소속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까지도 수원의 공업상태는 농촌지역에서 퇴락한 과

11) 일제 말 조선의 농업호수 상황을 보면 1933년 이후 자작농은 전농가의 18%정도로 크게 늘지 않으나 자소작농의 경우 1933~1940년 24%정도였으나 이후 28%로 상승한 반면, 소작농은 1941년까지 52~54%였으나 1943년에는 49%로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자작농 상승은 미약하나 소작농 또한 전시체제기에 들어오면 비중이 하락한다. 『朝鮮經濟年報』, 朝鮮銀行調查部, 1948, I 28~29쪽. 미곡생산량은 1939년까지 『朝鮮의農業』, 1942, 198쪽. 1941년부터는 『朝鮮經濟統計要覽』, 1949, 26쪽(문영주, 「촌락금융조합의 금융활동」(『식민지조선경제의 총말』, 신서원, 2000. 12), [표 14], 307쪽 참조).

잉인구를 포함할 만큼 성장하고 있지 않았다. 즉 『수원군생활상태조사』에 따르면 1926년 현재 수원군의 인구는 2만 7,182명으로 조선인 2만 6,338명, 일본인 787명, 중국인 56명, 영국인 1명이었다. 이 시기까지 공장수는 10개정도였고, 노동자는 137명정도 그리고 자본금은 38만 3천 원 그리고 생산액은 89만 4,125원, 생산물은 전기력 2만 4,522kw, 인쇄물 510만 매 조선지 11만 8천 매, 백미 2,378석, 현미 1만 9,954석, 생사 80관으로 나타난다.¹²⁾ 즉 당시 수원지역의 공업은 인쇄·제지·정미·생사업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수원지역에서 직물·방적·화학공업 등 일본자본의 직접투자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불과 137명의 노동자 수를 염두에 둔다면 하강 분해하는 소작농 1만 1,659호(1923)~1만 6,424호(1937)를 수용할 만한 공업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근대적 대공업의 미발에도 불구하고 <표 3>처럼 산업화의 단서로

<표 3> 1926년 수원군 수공업 상황

종류	수량(개)	생산액(원)	종사호수(호)	호당생산액(원)
도자기	156,200	17,650	36	490
소소물	72,300	14,520	12	1,210
와	15,000	750	1	750
금은세공	3,893	2,406	6	401
조선연관	1,800	540	2	270
종이류	895	13,425	2	6,713
나막신(게다)	1,500	600	2	300
조선나막신	950	385	6	64
대나무제품	2,850	600	2	300
삿갓(笠子)	300	900	1	900
관, 망건	530	530	3	177
양복	1,900	41,700	5	8,340
조끼	12,478	11,238	43	261

출전: 京畿道, 『水原郡生活狀態調査』(1929).

12) 『華城郡史』(상), 461쪽.

서 수원의 수공업이 전통적인 숙련노동과 개인경영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자기·소소물·기와·금은세공·조선연관·종이류·나막신·조선나막신·대나무제품·삿갓·모자망건류·양복·조끼 등이 존립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양복과 조끼와 같은 의류 생산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양복업의 경우 호당 평균생산액이 8,340원으로 가내공업 수준을 넘는 수준이며, 종이류도 생산액이 호당 6,713원에 달한다. 이는 수공업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적 환경을 능동적으로 적응한 초기 매뉴팩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의류보다는 이처럼 서구적인 의복관련 수공업자가 많은 것은 당시 수원의 사회적 풍속에서 조선의복이 서구의복으로 급변한 증거이며 이후 침략전쟁 시기에 수원에서 일본인 및 조선인의 투자로 피복·직물업 공장이 급증하는 단서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소공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의 여파가 남았던 1932년 현재 수원경제는 실로 참혹한 지경이었다.

근래 경제적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襲來하게 되어 언의곳(어느 곳)을 勿論하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特히 수원군은 금융기관이 발달된 건만큰 (발달된 것에 비해) 그 반면에는 자본집적이란 원칙에 의하여 일반경제 상태는 날로 파멸의 길에 드러가 극단의 절곡을 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수원군내에 산재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잔고를 총계하여 全 郡戶數에 分배하여 보면 매호당 2백 여 원이라 하며, 다시 차용인 전반에 평균하여 보면 1인당 천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릇막면(그렇다면) 다시한번 追求하여 보자. 전군을 통하여서는 9할 가량이 빈곤민이라는데 何處를 勿論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2백 원 이상의 생활자료를 保持한 이가 누가 있는가. 그네들의 장부상 差引高를 본다면 赤字만이 남아 있을것이며 전부가 채무자가 되어있다 한다.¹³⁾

13) 「水原經濟狀態」, 『每日申報』1932. 8. 20.

대공황을 지낸 수원에서 전부민이 금융자본의 볼모가 된 채 농업의 붕괴와 공업의 미발이 더하여 전 부민의 9할 가량이 200원 이하 생활자료 보유자로서 극한의 생활고에 처했으며, 나머지 유산자 1할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채무자의 가능성이 큰 형편을 전하고 있다.

3. 1930년대, 토착시장을 바탕으로

1) 부업 중심 직물업

1930년대에도 경기도의 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 중심이었고, 거기에 수원의 상공업계도 여전히 부업 중심의 생산이 지배적이었다. 1934년 말 경기도의 경우 총 공장수는 1046개 있었고, 이중에 상시 5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대공장은 겨우 81개 공장, 기타 965공장은 중소기업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¹⁴⁾ 그런 현상은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일부 산업의 경우 조선인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먼저, 직물업의 경우 20년대에도 주로 수공업단위로 양복업 등이 주목되었는데, 1930년대에는 직물공장이 출현했다. 수원상회직물공장이 그것인데, 1934년의 경우 1년에 약 74,200원 정도의 마직물을 생산하였다. 그해 경기도내 공장직물 생산 총액인 9,530,768원의 0.78% 정도로 수원에서 공장공업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는 아직 한계가 많았다.¹⁵⁾ 반면 부업으로 이뤄지는 직물 생산은 면직물 방면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4) 京畿道, 『京畿道道勢概要』, 1936, 566쪽.

15) 「소화9년 공장생산직물 생산액조」, 『京畿道道勢概要』, 1936, 541쪽.

〈표 4〉 1934년 경기도와 수원의 (부업)직물생산액

(단위: 원)

부군명	면직물	견직물	마직물	인견 기타 직물	계
수원	22,772	953	2,433	-	26,158
경기도	207,208	61,843	199,227	763,818	1,232,096
비율	10.98%	1.54%	1.22%	-	2.12%

출전: 소화 9년 (부업) 직물 생산액조, 京畿道, 『경기도도세개요』(1936).

〈표 4〉에서 보듯이 1934년 부업으로 생산된 직물생산액 상황을 보면, 수원의 경우 직물생산의 경우 강화부와 양평부에 이어 경기도 총 21개 부군에서 총 3위인 22,772원을 차지하였다. 그중 면직물은 경기도내 총생산액 207,208원의 11%정도인 22,72원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은 마직물, 부업은 면직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인군 기흥면 출신이자 전직 증추원 의관이던 吳性善이 관직을 그만두고 器興面으로 돌아온 이래 지방개발과 산업개발에 진력하여 龍水機業組合을 설립하였다. 경기도는 용수기업조합에 대하여 1928년부터 기업기술원급보조금을 매년 200원씩 1933년까지 총 1200원 지급했고, 기업강습회 보조금으로 1926, 1927년 각각 180원씩 총 360원이 지급되었다.¹⁶⁾

〈표 5〉 기업개발기계기구설비비보조상황조

연차/단체	機臺 보조금(대수)	회전정리기 보조금(대수)	精練釜(金) 보조금(대수)		綜綱(金) 보조금(대수)	整經共同 作業場	染色共同 作業場
龍水機業組合	600(26)	100(1)	100(1)	100(20)	-20	—	—
23개 경기도 군면·농회조직	9,750(527)	820(12)	400(4)	1,117(230)	-230	1,050(12)	700(3)

출전: 「기업개발기계기구설비비 보조상황조」, 『경기도도세개요』(1936), 경기도, 543쪽.

16) 「機業技術員給補助狀況調」, 『경기도도세개요』(1936), 경기도, 558~9쪽.

〈표 5〉에서 개량기계 설비 보조 상황을 보면, 경기도 23개 군면 농회에 대한 지원중에서 용수기업조합에 대한 보조로는 機臺 26개(600원), 회전 정리기 1대 (100원), 환강 20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업 중심의 수원 직물업은 외형적으로 수원에서 여전히 직물업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후 수원지역에서 직물업이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했다. 단순한 외래기업, 특히 일본기업에 의한 직물업 이식이 아니라 부업의 발전이라는 내재적 토대가 강력하게 전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1936년 2월 수원에서 자본금 50만원 규모의 수원 마포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수원도 점차 공장지대화하여 감에 따라 각종의 공장이 날로 들어간다는 바 수년전부터 방직공장을 설치하고자 사계에 유력자인 실업가 홍사훈(洪思勳)(필자: 洪思運의 사촌형)씨와 수원직물공장주 金學培씨 李有福씨 등의 발기로 전설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 활동한 결과 수일전에 전기 三씨가 당 지방의 실업가인 車在潤과 寺澤捨三郎 등 제씨가 제휴하여 수원지방 발전상 또는 수원공업계를 번창시키고저 일방 빈국민 구제 겸 수원마포주식회사를 창립하게 되었다. 총자본은 50만원으로서 삼백명 이상의 직공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바 불원간 동 공장을 건축코저 위치를 물색 중이었는데 수원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공장인 만큼 앞으로 찍으로나 유망하다고 한다.¹⁷⁾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대공장 수립계획을 주로 차재운, 이유복, 홍사훈(洪思勳) 등 민족주의 성향의 조선인 자본이 중심이 된 점이다. 마포공장을 지은 것은 그동안 수원직물에서 마포를 생산한 공장주 김학배의 영향으로 보인다.

17) 「자본금 50만원으로 수원에 직물공장, 조선인을 중심으로 불원공장 착수예정」, 『동아일보』, 1936.2.29.

2) 전통 공업의 성장

직물업 이외에도 다양한 소공업이 성장하고 있었다. 먼저, 수원의 잠업은 1913년 수원에 잠종제조소를 설치한데서 성장을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17년에는 수원 잠종제조소를 잠업시험소로 개칭하고 1929년에는 농사 시험장 산하 잠사부로 개편하였다.¹⁸⁾ 1935년까지 수원의 양잠호는 3,638호로 경기도내 23개 군 중에서 8위 그리고 뽕나무 면적은 7위로 408야드, 잠종 종묘장수는 9위로 3,579개. 누에고치 생산량은 9위로 6만 6,176톤, 공판액은 10위로 3만 8,553톤이었다.¹⁹⁾

둘째, 수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금 생산이 활발했다. 즉, 소금은 수원군의 지형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일찍부터 발달한 산업으로 1930년까지 전오염[전통적인 소금생산방식으로 끊어서 소금을 추출하는 방법] 생산 상황은 <표6>과 같다.

<표 6> 수원군의 전오염 생산상황

(단위: 명, 부, 평, 근)

구분	업자수	부수	염전면적	수량(근)	금액(원)	평당 생산고	업자당 면적	부당 생산고
1930	266	125	109,660평	4,082,960	36,337	37	412	32,663
1934	213	99	176,779평	3,888,700	42,322	22	830	39,279

비고 : 1930년도 제조업자수는 주로 겸업자만 조사됨. 1934년 제조업자는 종업자 456명을 뺀 순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출전 : 京畿道, 『商工水産統計』, 1930년판, 88쪽 및 1934년판, 49쪽.

즉, 1930년에 비해 34년은 업자수와 전오염 생산 가마수가 많이 줄고 있다. 반면 염전 면적은 60%가량 늘었는데도 생산량은 12만 근 감소했다. 1평당 생산고를 보면 1930년은 37근이었지만 34년에는 22근이다. 대신 생산

18) 華城郡史編纂委員會, 『華城郡史』(上) 399쪽.

19) 京畿道, 『昭和 10年 蠶業統計』(1936.4), 1~2쪽.

액이 높다. 이는 생산감소에 따른 가격등귀의 결과로 보인다. 가마당 생산고가 1930년 3만 2,663근에서 34년에는 3만 9,276근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1930년경에는 소금의 채산성이 무척 낮았고, 이에 1934년에는 상당한 생산자가 정리 통폐합하여 전오염 생산에서 이탈한 점을 알 수 있다. 즉 업자는 266인에서 213인으로 줄었고 업자당 염전면적도 1930년의 412평에서 1934년에는 830평으로 커졌다. 염전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소에 따른 생산고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전오염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전근대적 소금제조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와 업자수 그리고 수량과의 관계는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수원의 염업의 과제는 천혜의 입지에도 근대적 천일제염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방식을 고수한데서 나타났다.

넷째, 1930년대 수원의 산업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가마니제조업과 도자기 공업이었다. 가마니공장에서는 193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6만 9,267개를 생산하여 금액으로 39만 5,082원 72전인데, 이 수치는 예년수확보다 13만 5,396매, 1만 6,630원 5전 많다고 한다.²⁰⁾ 또한 <표 7>에서 보듯이 1934년 경기도내 도자기 공장은 160개인데 그중에서 18곳이 수원에 있다. 또한 종업원도 133명으로 공장이나 종업원이나 12%내외의 비중을 보이지만 생산액은 16309원으로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공장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세하다는 말이다. 다만, 생산액 면에서 수원은 경기

<표 7> 1934년 경기도와 수원의 (부업)직물생산액조

(단위: 원)

부군명	공장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원	18	133	16,309
경기도	160	1,058	240,153
비율	11.25%	12.57%	6.79%

출산: 「소화 9년 각 군별 도자기 생산 상황」, 『경기도도세개요』(1936), 경기도, 558~9쪽.

20) 『동아일보』 1938.3.19. 「水原郡内臥生産高 四十萬圓臺突破」.

도에서 시흥, 김포에 이어 3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1930년대 광산업이 증가하였다. 1930년 9월 14일 등록된 수원군 마도면의 광구평수 983천 평 규모의 흥승렬 광산, 1934년 3월 7일 등록의 수원군 마도면에 소대한 887천 평 규모의 한인수 광산 그리고 1934년 6월 1일 등록하고 텅스텐·수은을 채굴하는 752천 평 규모의 남양중석광산과 1930년 9월 14일 등록된 244천 평 규모의 삼봉광산 등이었다.²¹⁾ 주로 1930년대 전반기에 채굴을 개시하고 조선인 소유가 많았다.

3) 축우교환 시장에서 공산품 시장으로

이러한 공업생산은 당연 상품 교환에 필요한 시장을 매개로 하여 자본축적을 강화한다. 대체로 1917년과 1931년의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거래내역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911년까지 수원군 지역의 전통적인 장시는 성내장·성외장·오산장·발안장·안중장 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산장에서 활발한 물자거래가 이뤄진다고 기록되어 있다.²²⁾ 이처럼 수원의 옛 시장은 전통인 장시를 통해 전개되었다. 수원시장은 1922년경 규모가 3,373평, 성외시장이 2,965평 규모였고, 시장 내에 사무소 2동과 가옥·축우계류항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시장의 개시일은 10일 간격으로 성내 시장이 음력 9일 19일 29일 성외 시장이 4일·14일·24일에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일장이었다고 한다.²³⁾ 그런데 수원 및 오산시장의 규모는 1917~1931년간 대단위로 유지되고 있지만, 수원성 내외시장은 1926년 이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21) 華城郡史編纂委員會, 『華城郡史』(上), 490쪽.

22) 『한국수산지』(1911)의 기록, 華城郡史編纂委員會, 『華城郡史』(上), 452쪽에서 재인용.

23) 『수원시사』(상), 256쪽.

〈표 8〉에서 전통장시의 거래량은 1917~1926년 구간에서 크게 성장했으며, 역시 수원 성내외시장과 오산장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신흥 반월시장과 남양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1926~1931년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수원 내외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전체 장시의 거래량도 미약하다.

〈표 8〉 수원지역 시장규모

시장명	소재지	1년간 거래액			증가율		개시일
		1917	1926	1931	1926~31	1917~31	
수원성내시장	수원읍 복수리	179,299	408,171	383,524	-94	214	9
수원성외시장	동 산루리	165,830	503,422	387,266	-77	234	4
오산시장	성호면 오산리	174,307	238,564	306,854	129	176	3,8
발안시장	향남면 발안리	37,264	91,109	99,590	109	267	5,10
남양시장	음덕면 남양리	9,151	30,360	38,086	125	416	3,8
신기시장	송산면 사강리	-	24,329	138,285	568	-	2,7
삼괴시장	우정면 조암리	-	-	60,870	-	-	4,9
반월시장	반월면 건건리	2,422	21,270	22,560	106	931	1,6
계	-	568,273	1,317,225	1,438,035	109	253%	

출전: 1931년 통계는 경기도, 『상공수산통계』(1931), 58쪽. 1917년 통계는 화성군사편찬위원회, 『華城郡史』上, 452쪽.

오산장은 계속 성장하는 한편, 새로운 신기시장[동기간 568% 성장]과 신흥 삼괴시장[개설 직후 곧바로 6만 870원의 거래량]이 크게 성장했다.

당시 수원시장에 집산되는 1개월당 출하량은 〈표 9〉와 같다. 주로 쌀·콩과 같은 생필품과 더불어 소와 소가죽이 많다. 정작 면제품이나 공산물 출하는 미약하다. 그런데 소나 쌀 이외 엽연초 출하가 주목되는데 이는 당시 용인군이 대단위 엽연초 산지로 수원시장을 통해 반출된 결과였다.

〈표 9〉 1929년 수원시장 1개월 출하량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쌀	520석	소	340두	소두	172석	식용소금	170석
콩	280석	소가죽	150매	업연초	150석		

출전: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45~46쪽.

〈표 10〉을 보면 성내외시장에서 가축류 매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직물류는 극미량임이다. 성내시장에선 총 40만 6,321원의 매매액에서 가축류만 31만 970원(76.5%)이고, 성외시장도 총 41만 75원 중 31만 3,829원(76.3%)이 그것이었다. 농산물이 각각 11.6%와 12.2%이었다. 그러나 직물류는 각각 3,529원(0.8%), 3,549원(0.9%)으로 총 매매고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장과 수공업의 유기적 연관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신흥 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적어도 생산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곳 즉 지주제가 약하고 자작농이 비교적 발달한 지역이라는 면에서 시장의 확산과 자작농의 안정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당연히 새로 개시된 다음 급속히 성장한 신기시장·삼괴시장의 경우도 비교적 소작호가 적은 송산[소작호 비율 38%]과 우정면(51%)에 위치한다. 자작농이 많을수록 교환의 가능성이 높고, 새로이 교환관계의 성장 바꿔 말해 상업의 발달이 추동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신흥장시가 전통적인 장시규모를 능가할 정도는 아니었다.

〈표 10〉 1922년 수원성 내외시장의 1년간 매매고

시장명	소재지 (경영자)	개시 회수	1년간 매매고						개시일
			농산물	수산물	직물	가축류	기타	합계	
수원	북수리	36	47,485	915	3,529	310,970	43,422	406,321	9일
성내시장	(수원면)		-11.60%	-0.2	-0.80%	(76.5)	-10.7	-100%	
수원	산루리	37	50,011	800	3,549	313,829	41,855	410,075	4일
성외시장	(수원면)		-12.20%	(0.2%)	-0.9	-76.3	-10.2	-100%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1924).[수원시사편찬위원회, 『水原市史』上(1996), 257쪽의 [표]에서 재인용]

신흥시장의 성장의 두번째 이유는 당시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다. 1934년 당시 수원군내 7개 장사에서 거래되던 상품총액은 204만 6,727원이었는데 축류가 단연 수위였고[139만 780원] 잡품[29만 5,022원]-직물[16만 5,756원]-농산물[14만 5,207원] 순이었다.²⁵⁾ 물론 가축 매매가 가장 거래가 많은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1934년의 상품 거래내역을 <표 10>과 비교하면 1920년대까지는 직물류의 출하가 거의 없지만 1930년대는 잡품이나 직물 등 공산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²⁶⁾

4. 전쟁 특수를 안고

1) 전쟁과 직물업의 성장

침략전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원에 독점자본의 진출이 예정되었다. 우선 1937년 1월에는 대일본방이 청진에 인건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2월 17일에는 수원에 공장건설 계획내용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직물업 성장의 기회가 왔다.²⁷⁾ 하지만 대일본방은 수원 대신에 영등포에 공장을 건설(1938. 5.3 입찰)하기로 하면서 무산되었다.²⁸⁾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원의 조선인 자본가들은 당면의 침략전쟁을 자본축적의 유리한 조건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원지역에서 공장이 출

25) 華城郡史編纂委員會, 『華城郡史』(上), 455쪽의 [표] 참조.

26) 실제로 1930년대 이후 공업화 기운에 따라 수원에는 당분이나 화장품 판매방면의 상업자도 증가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1934년 10월에 개설된 수원 당분상 협동조합 상황을 보면, 조합원 12명, 동업자수 14명, 불입공제출자금 2,300원이었고, 화장품상의 경우도 조합원 8명, 동업자 9명 출자공제금 1,550원을 보이는 등 당분과 화장품 방면의 상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상동, 360~361쪽.

27) 『동아일보』 1937.2.18.

28) 『동아일보』 1938.4.28.

현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매체에서 ‘수원의 공도화’, ‘확장일로의 수원공업’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침략전쟁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공장들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36년의 수원마직에 이어 1939년 11월 홍사운이 朝鮮明紬를 주로 제직하는 동아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수원 지방에는 최근 각공장이 군립하야 공장지대로 화하여가며 잇다는데 금년 11월중 또 공장이 개소나 창립되엇다는데 동아직물공장은 수원을 매향정에다 설치하고 수원의 교육가인 홍사운씨가 단독으로 경영한다는데 공장에서 순조선 명주를 제직한다고 한다.²⁹⁾

洪思運은 1933년경에는 일본에 유학했고, 일경은 그를 조선인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조선으로 들어와 수원의 직물업에 투신하여 1939년 동아직물공장을 건설했으며,³⁰⁾ 1942년에는 직기 22대를 유지하고 새롭게 신공장 건설을 예정할 정도로 성장하였다.³¹⁾ 해방 후에도 이 공장은 종래의 명주생산 대신 학생복지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였으나 사장은 李起弘으로 바뀌었다.³²⁾ 昌和織物工場의 주인이자 홍사운과 함께 마포회사를 열었던 李有福도 마찬가지로 1942년 경에는 직기 21대를 가진 중소기업가로 성장하였으며, 수원직물공장의 김학배도 직기 60대 이상을 소유하고 시설 확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렇게 태평양전쟁 이후 수원의 직물업이 활황인 것은 전쟁이 곧 수요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1939년 12월

29) 「東亞織物工場創立 水原工都化도 不遠」, 『동아일보』 1939.11.17

30) 그는 「在日韓國人民族主義系團體一覽表」(1933년12月末現在)(朝鮮民族獨立運動 Ⅲ)에 따르면 홍사운은 재일한국인 민족주의계 단체일람에서 재일유학생동창회의 일원으로 김여환, 고병국, 조홍제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 해방 후에도 직물공장을 계속 유지했는데 『全國企業體總覽』(1956년판)에는 그가 洪染織工場을 현재 수원시 장안동 30번지에서 운영하였다고 하고, 1958년판에는 같은 장소에서 洪圓織物工場을 운영하면서 인견직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31) 『식은조사월보』 1942년 4월호, 71쪽.

32)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 매향동 98(「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 1959, 국사편찬위).

24일에는 수원실업협회(소재지 수원읍)가 주최가 되어 수원신사에서 경제보국 선서식을 개최하는 등 시국행사에도 적극 나섰다.³³⁾

이러한 직물업의 성장은 급속히 본토산 면사 수요의 증가를 초래했고, 이는 통제경제의 강화와 함께 심각한 면사 품귀를 초래하였다. 원자재 문제는 1940년 1월 16일 당일에 있었던 수원직물조합이나 수원가정직물조합 등의 창립총회에서도 제기되었다.³⁴⁾

종래 수원읍에는 삼년전부터 가내공업으로 직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가 상당한 수에 달하여 수원에 없지 못할 산업의 부문이였었는데 금반에 몰사통제의 바람은 여지없이 부러 가내공업자에게도 일대 영향을 던지고만 것이다. 즉, 면사배급이 극소하여 종래 산업조합이없는 가내업자로서는 생활의 문제에 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극히 우려하든 나머지 관계당국은 물론유지까지 분기하여 일치협력조합결성에 매진하든 중, 작 16일 정오부터 수원군 회의실에서 관민유지 다수 참석하여 수원직물조합 창립총회를 결성하였다는데 정관외의 제 결의사항은 만장일치로 가결을 짓고 내빈출사와 본군군수의 간곡한 고사로 일동 감격한 가운데 무사히 2시경에 회를 마쳤다한다. 당일 송정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역원 조합장 洪吉善 이사 禹永根, 李有福

감사 徐廷烈, 梁成厦 평의원 朴昌淑, 洪思運, 고문 수원군수, 수원경찰서장, 수원읍장

초대 조합장인 洪吉善은 1904년생 수원 출신으로 培材中學과 東京武藏野音樂學校를 졸업하고, 1929년에 설립한 수원양조(주)의 사장이었다. 아울러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주조조합 이사장,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33) 『동아일보』 1939.12.25.

34) 「수원직물조합창립총회 개최」 『동아일보』 1940.1.20.

수원상공회의소 부회두를 역임한 대표적인 수원 실업계의 거물이었다.³⁵⁾ 한편, 수원마포주식회사에 참가하였던 이유복, 홍사문 등이 각각 이사과 평의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직물조합에는 이러한 수원지역의 직물업자뿐만 아니라 고문으로 수원군 수와 수원읍장, 그리고 수원경찰서장까지 선임된 것으로 보아 조합에 대한 국가통제가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원 유지들이 면사 배급을 명분으로 혹은 가내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수원직물조합을 창립한데 이어 1940년 1월 16일 3시에는 수원을 본정 4정목에서 동아직물공장 등을 비롯하여 수원지역 가정직물소공업 등이 결집하여 수원가정직물조합을 결성하였다.

수원지방은 근년에 와서 각종 직물 소공업이 날로 확장되어 오던 중 수원군에서는 동아직물공장을 비롯하여 전수원군에 있는 가정직물소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가정직물조합을 조직하고 창립총회는 16일 오후 3시 수원을 본정 4정목에 있는 영락관에서 개최하였는데 수원군내에서 직조한 직물은 본 조합에서 검사를 하여서 조합명의로 판매한다고 한다.³⁶⁾

이렇게 같은 날 수원직물조합과 수원가정직물조합이 양립하고 각각 창립한 것은 당시 직물원자재 특히 면사에 대한 배급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35) 홍길선은 1904년생 수원 출신, 배재중학, 동경무장야음약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양주주식회사 사장, 수원신평공립국민학교 후원회장, 수원매향여자중학교 후원회장, 수원공립여자중학교 후원회장,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주조조합 이사장,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수원상공회의소 부회두, 조선소년단 수원군련합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수원에서 초대민의원(제헌국회의원, 선거구 경기도 수원, 대동청년단 수원단 단장), 2대 민의원(민주국민당), 무소속,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제4, 5대 민의원의원(선거구 경기도 수원, 소속정당 민주당) 역임하였다. 해방 후에는 수원주조조합 이사장, 수원금융조합 조합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사단법인 달성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당 중앙당무위원, 민주당 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 이후 캐나다 거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6) 「수원업자들이 직물공조 창립 생산품은 조합에서 판매」, 『동아일보』, 1940.1.20.

사활적 과제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원직물조합 평의원인 홍사운이 수원가정직물조합을 주동한 사실도 그러하다. 즉, 총독부가 추진하는 배급 통제에 적극 나서는 길만이 조선인 직물업자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한편, 수원실업협회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1941년 1월 20일 역원회의에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전형하고, 인가신청수속을 하기로 결정한데 이어서 2월 11일에는 수원읍내 京電 수원지점에서 최고 중역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이하 9명이 모여서 창립 일정을 조율하였다. 결정된 사항은 첫째, 사회자인 高山在燁(조선명 최재엽)이 창립운동에 대한 경위 및 경과보고를 하도록 했다.³⁷⁾ 둘째는 상공회의소 창립 신청서에 부속하는 동의서를 받고 2월 25일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그 사이에 회두와 사무담당자 등이 회의소 정관을 정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일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당시 동의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수원지역 영업자 즉, 영업세 7개월 이상을 납부한 숫자가 총 330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개인이 305명, 법인이 25개였다.³⁸⁾ 그리고 동의서는 이들 330명의 3분의 2인 2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어서 3월 2일 수원읍 공회당에서 수원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7) 최재엽(崔在燁)은 1895년 京畿道 水原邑 山樓里에서 출생하였고, 보성전문을 졸업했다. 배우자 金順德(1911년생, 金奎煥의 딸, 평양여고보 졸업)과 결혼했다. 조선총독부 郡屬으로 근무했으나 퇴관하고, 금융업, 무역상을 경영했다. 1935년 현재 재목상을 하는 외에 경기도 道會議員, 수원금융조합 및 동 實業協會 役員, 보통학교 후원회 부회장의 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8) 京畿道 警察部長, 「水原實業協會 役員會 開催에 관한 건」 문서번호 京高秘 제460호 「思想에 關한 情報(14)」, 1941년 2월 22일.

2월 24일 오후 4시 수원읍에 있는 京電 수원지점 루상에서 역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高山在擘 외 17명이 집합하여 사회자로부터 상공회의소 창립준비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자문과 여러 가지 협의의 결과 3월 2일 오전 10시 수원읍 공회당에서 개최할 것으로 결정하고 창립사무소는 수원을 宮町에다 두고 사법서사 佐伯二郎편에 창립인가까지 설치하기로 했다.³⁹⁾

그런데 경기도경찰부장은 이러한 수원상공회의소 설립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첩보를 1941년 3월 4일부로 경고비 제460호-2 즉, 비밀문서로 경성 지방지원 검사정, 경성헌병대장 각도 경찰부장, 부내 각 경찰서장까지 통첩하고 있다. 그만큼 조선인 중심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총독부의 의심은 깊었다. 1941년 12월 26일 마침내 수원상공회의소 설립 인가가 났으며, 이듬해 3월 22일 의원선거가 완료되었다.⁴⁰⁾ 또한 수원시 남수동에 1941년 4월 27일 수원상업전문학교가 개교하였는데, 이후 홍사운(洪思運)의 사촌형 홍사훈(洪思勛)이 기금 20만원을 출연하여 매교동 부지에 학교를 짓기로 하고 1941년 10월 27일 기공식을 가졌다.⁴¹⁾ 마침내 1943년 2월 매교동 교사(校舎)로 이전한 뒤 6년제 수원중학교가 되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수원의 직물업 상황을 보면, 먼저, 조선총독부 고시 124호(1942.1.29)로 「조선상업조합령」에 기초하여 水原郡生活必需品小賣商業組습을 지정하였다.⁴²⁾ 이는 직물에 대한 일반 유통을 전면적으로 국가통제

39) 京畿道 警察部長, 「水原實業協會 役員會 開催에 관한 건」 문서번호 京高秘 제460호-2, 「思想에 관한 情報(14)」, 1941년 3월 4일(수신자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수신일 3월 6일)

40) 「水原商工會議所 초대의원선거 완료」, 『每日新報』 1942.3.28.

41) 「水原商業專修校 二十七日, 開校式舉行」, 『每日新報』 1941.5.2, 및 「水原상업전문학교 기공식」, 『每日新報』 1941.10.31.

42) 水原郡生活必需品小賣商業組습은 1941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읍 본정 1정목 91에 설립하였고, 적립금은 총 80,150 원인 상업조합이었다.朝鮮銀行會社組습要錄(1942년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하에 두겠다는 포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태평양전쟁 이후 활황을 보였다. 『식은조사월보』(1942년 4월호)에 「직물공장 발전」이라는 제하로 수원지역의 직물공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東亞織物工場 경영자 洪思運 직기 22대 신공장건설 논의 중/ 昌和織物工場
경영자 李有福 직기 21대

수원직물공장 경영자 金學培 직기 60대 새롭게 직기 44대 및 염사기 6대
구입공장확장 계획 중

小和織物工場 경영자 車在潤 직기 180대 새롭게 염사공장 건설을 계획중
염사기 20대

이외에도 100대 전후의 직기 공장으로 하여 목하 내수해야할 부지를 물색
인 것도 2개가 있다. 이상의 실현하려면 당지는 조선에서 우수한 직물생산지
가 된다.⁴³⁾

이어서 8월 호에는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과 소화직물제3공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조지아 계열에서 자본을 대고 있는 선만주단 수원공장은 이후 1943년 4월에 준공되어 선경직물 평동공장이 되었는데 기기는 100대 정도였다. 그런데 1944년 8월 기업정비 실행으로 인해 조선직물 산하의 회사로 흡수되었다. 조선직물은 1934년에 경기도 안양에서 설립된 인견직 전문생산업체로 부지 13만 5300㎡(4만1000평), 건물 3만 30㎡(9100평)이었다. 안양공장이 항공기제조창으로 징발 당한 대신 수원에 산재해있는 직물 공장들을 전부 접수한 것이다.⁴⁴⁾ 이에 당시 수원에는 선경직물 외에 선일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동흥직물공장 등 6개 공장이 있었는데, 접수한 직후

43) 『殖銀調査月報』(1942년 4월호), 71쪽.

44) 이한구, 「한국재벌사」 10 SK편 - 1화 창업주 최종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일요신문』, 2011.12.06.

1944년 9월에는 매산동에 있던 선일직물을 조선직물 제1공장으로, 세류동으로 본사를 옮긴 선경직물을 제2공장으로 개편했다. 이리하여 조선직물 제2공장(선경직물)은 1944년 9월부터 세류동에 있던 동흥직물로 옮겨지면서 벌말의 공장과 더불어 제1, 2공장체제가 되었고, 기모도식(木本式) 직기 100여대와 염색가공설비, 보일러, 기숙사 등을 완비하고 종업원 200여명(남자 약 40명)으로 태평양전쟁 와중인 1943년 봄부터 인견과 시루빠(Silver)를 직조했다.⁴⁵⁾

그리고 차재윤의 소화직물공장도 1942년 7월에 제3공장(연사공장)을 준공했다.

1.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 : 정자옥계와 경도직물의 합자로 당지 대구정에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미 동지 1만 5천평의 매수를 완료하여 자재의 배당을 기다려 기공을 예정함. 기기는 100대
2. 소화직물 제3공장 : 나카타(차)재윤씨가 경영에 매달리고 있는 소화직물공장의 제3공장(연사공장) 예정계획중인바, 5월 초순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7월중에 준공할 예정임. 제3공장을 완성하면 연사제직 및 염색의 일관작업이 가능하여지고 동고장의 생산고 증가가 기대되어 진다. 이외에도 지난번 이래 용지를 물색중인 직물공장이 2개소(직기 각 200대)이고, 근자에 확정될 예정이다.⁴⁶⁾

물론 이 공장도 44년 8월의 정비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새롭게 직기 200대 규모의 직물공장 2개소가 건설 예정되어 용지를 물색중이라고 하는데 규모로 보아 대규모 공장이 이주 예정된 듯하다. 하지만 실현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증언에 나타나는

45) 이한구, 상동, 『일요신문』, 2011.12.06.

46) 『殖銀調査月報』(1942년 7월호), 84쪽.

鮮一織物과 東興織物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먼저, 최종건의 증언에서 동흥직물과 선일직물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먼저 수원 세류동에 있던 동흥직물은 1944년 9월 선경직물의 본사가 되었다고 증언했다.⁴⁷⁾ 또한 수원시 매산동에 자리한 鮮一織物은 극동연합군사령부가 조사한 『일본인 해외 자산 실태 보고서』 〈그림 1〉에 보이는데 자산평가액이 무려 38만 5천 달러였다. 선경직물의 16만 9천 달러보다 2배가 넘는다. 해방 후 1946년 7월 3일 선일직물에서 여공 100여명이 임금인상 등 대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으켰고, 4일 경찰의 습격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격변을 겪기도 했다.⁴⁸⁾

한편, 1949년도 『경제연감』에 의하면 수원지역 직물회사로 大和有職織物[수원읍, 대표 崔敏鍾]⁴⁹⁾ · 조선견직(주)[수원군 서서동?] · 선경직물(주)[수원읍, 대표 黃清河]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조선인 직물공장은 연사→제직→염색에 이르는 일관작업이 가능하였다.⁵⁰⁾ 창씨개명을 한 공장주가 적은 것을 보아 그것은 총독부가 전장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자동원을 위하여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공업에 참가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고려’인 듯하다.

이러한 직물업 발전과 더불어 성냥, 인쇄, 양조업 등에서도 전쟁경기에 편승한 공업성장이 두드러졌다. 〈표 10〉은 1937년 이후 1942년까지 수원 지역에서 조사된 제조[광업·철도 포함]회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942년까지 수원에는 성냥·인쇄·양조·제탄 등의 회사가 있었지만 비교적 큰 회사가 조선경동철도[자본금 300만 원]이나 남양광산[자본금 200만 원]였

47) “그날로 최종건은 박윤환을 데리고 수원시 매산동 선일직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고철로 팔려고 내놓은 직기들이 공장 한쪽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중에 성한 것으로 10대를 골랐다. 다시 세류동에 있는 동흥직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낚은 직기 50대를 주문했다.” 『최종건의 SK 창업 비사 ① 아버지 몰래 땅 분서 훔쳐다 줬』 『중앙일보』, 2007.05.02

48) 「대우개선요구 선일직물 수원공장 파업」, 『現代日報』, 1946. 7. 8.

49) 大和有職織物이 해방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1955년 국제청 납세지원국에서 정세과에서 인계감사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 최민중이 다른 사람에게 이 회사를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50) 『殖銀調査月報』(1942년 4월호), 71쪽 : (1942년 7월호), 84쪽.

〈표 10〉 증일전쟁 이후(1937~1940) 수원지역 주요 제조[광산·철도]회사 상황

구분	설립일시	본점위치	자본금/대표자	사업내용
조선경동철도	1928.8.27	수원을 매산정 1정목	300만원/岩崎眞雄	철도부설, 하역
남양광산	1935.7.2	음덕면 북양리 산109-1	200/櫻本秀雄	광업
수원인촌	1937.12.27	수원을 영화정 124-2	10/花岡芳文	성냥제조
수원인쇄	1918.5.29	수원을 궁정 74	6(1.8)만 원/香山弘	인쇄
수원양조	1929.3.22	수원을 본정 1정목 14	20(5)梁奎龍	조선주
수원양조(합자)	1919.4.3	수원을 복수리 316	2/上原陸郎	양조
수원주조	1927.5.26	수원을 본정 2정목	5(2.5)/富山仁行	주조, 보험
동양인쇄	1928.1.16	수원을 남수리	0.5/朴貞烈	인쇄
수원장유(합자)	1918.5.29	수원을 본정 3정목	0.6/都志艶太郎	간장, 일본된장
천일제탄공장(합자)	1940.6.17	수원을 남부정 189	0.8/井村宇祥	목탄대용품
오산주조	1942.7.13	오산면 오산리 388	8/伊東軍造	주조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 회사조합자료, 『朝鮮銀行會社錄』(1937·1939·1942년판)

고, 수원인촌⁵¹⁾과 수원양조[조선인 경영] 정도가 자본금 10만 원을 넘겼고, 水原釀造⁵²⁾가 자본금 7만원(불입 5만원) 水原印刷가 자본금 6만원(불입 18천원) 규모였다.⁵³⁾ 이외는 대부분 자본금 2만 원 이하 혹은 1만 원 이하의 영세한 회사나 합자회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양조는 1919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기업을 유지하는 등 전쟁기간 특별히 나타난 신흥 중소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51) 水原燐寸(株)은 1937년 12월 27일 자본금 100,000 원(불입금 100,000 원)으로 성냥의 제조 및 판매, 전항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사업 경영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 嵯峨山作一(이사)岡田松治, 岡田兼治, 嵯峨山作太郎, (감사)圓尾宗次郎, 矢嶋福松이었다. 본점은 수원을 영화정 124이었다.

52) 이 회사는 1929년 3월 22일 수원을 본정 1정목 14에 설립되었고, 자본금 7만원, 불입금 5만원으로, 조선주의 제조 및 그의 부대업 및 일반 상업 경영을 목표로 했다. 배당률은 1942년 현재 9%를 유지하고, 사장/대표가 洪吉善이었다. 전무는 大峰廷玉 이사는 洪原官利, 감사는 車南舜, 趙敦甲이 맡았으며, 총 주식 2000주 중에서 주주는 10명이며, 趙敦錫(538), 洪思憲(361), 大峰廷玉(300) 등이었다.

53) 이 회사는 1918년 5월 29일 경기도 수원군 수원을 궁정 74에 설립하였고, 1942년 현재에도 기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총 1200주의 주식 중에서 사장인 香山弘이 500주, 이사인 岡田義道 300주, 後藤五十子 100주 등을 소유하고 있다.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년판), 東亞經濟時報社.

상업회사로는 1920년 5월 18일 수원읍 매산리 124에 설립된 水原商事가 자본금 10만원(불입 3만원) 규모로서 1935년까지도 운영되고 있었으나 1942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어서 1940년 2월 수원읍 본정 1정목에 설립된 水原商工(자본금 10만원/불입 25천원)이 비교적 규모가 컸는데, 수원직물조합 조합장인 홍길선이 전무로 활동하고 있었다.⁵⁴⁾

2) 적산 선경직물의 향방

선경직물(수원시 평동 4)은 1939년 만주 일대를 대상으로 직물을 수출하던 조지야(丁字屋) 계열에서 세운 조선의 鮮滿綢緞과 일본의 京都織物이 1941년경 합작한 것이었다. 합작에 의한 수원공장은 1943년 4월에 완공되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鮮滿綢緞(株)⁵⁵⁾의 ‘鮮’자와 교토직물의 ‘京’자를 딴 것이다. 교토직물은 직기를 현물 출자하고 선만주단은 공장부지와 공사비를 냈다.

훗날 선경직물의 소유자가 된 최중건의 아버지 최학배는 21세 때 결혼과 함께 서해 바닷가인 수원군 팔탄면 해창리에서 수원 평동으로 이주, 그곳에서 대성상회를 개설하고 수원잠업시험장에 벗짚과 왕겨 등을 납품하는 한편 미곡상을 경영했다. 이재(理財)에 밝아 사업이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선경직물공장을 건설할 때는 골재와 자재를 납품하기도 했다.⁵⁶⁾ 그는 선경직물(특히 鮮滿綢緞)이 처음 수원 벌말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1941

54) 양회사에 모두 香山弘이 대주주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55) 선만주단은 1936년 8월 15일 경성부 장곡천정 65에서 자본금 50만원으로 설립되었고, 처음 대표자는 小林源六, 모면 걸마 인견 기타의 직물 및 가공품의 매매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 및 중립대리업을 중심으로 했으며, 중역으로 (이사)鈴木文次郎, 小林喜太郎, 小林源次郎, (감사)中村宗太郎, 上木金一 등이 있었고, 여기서 지배인이 黃清河였다.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7년판), 東亞經濟時報社.

56) 이한구, 「한국재벌사 10 SK편 - 1화 창업주 최중건의 구슬땀이 SK의 ‘초석」, 『일요신문』, 2011.12.06.

년 경) 일본인 공장측과 조선인 지주측 사이에서 공장 부지를 매매하는데 적극 흥정해 준 이력이 있었다.

일본인 소유의 선경직물은 1940년 10월 수원시 평동 4번지에다 공장부지 8000평을 매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선경은 조선인 지주에게 1차로 8,000평에 대한 토지대금 2만 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잔여분 4,000평은 2차로 5년 이내에 시가에 따라 매수키로 하며 지주 차철순과 선만주단 측이 공동명의로 하였다. 그리하여 훗날 차철순과 공동명의로 된 4,000평은 적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렇듯 최종건의 부, 최학배는 일본인이 설립한 선경직물과 설립 당초부터 잘 알고 있던 사이였던 바, 1944년 아들 최종건이 쉽사리 선경직물에 취직하는데도 유리하였다.

Province Type of Enterprise	Name of Corporation	Corporate Assets	Assets According to Province, and Combined
Field (cont'd)			
B. Petroleum & Rubber (cont'd)	Nippon Asbestos & Rubber Industry Co., Ltd.	9 416,000	9 1,117,000
	Daigo Oil Mfg. Co., Ltd.	140,000	
S. Textiles	Aikoku Textile Co., Ltd.	9 261,000	9 4,759,000
	Chiyoda Cloth Mfg. Co., Ltd.	177,000	
	Chosen Sanitary Goods Mfg. Co., Ltd.	471,000	
	Chosen Textile Printing Co., Ltd.	209,000	
	Choyo Spinning & Weaving Co., Ltd.	203,000	
	Fujino Sanitary Goods Industry Co., Ltd.	154,000	
	Kakuta Clothes Co., Ltd.	126,000	
	Kangafuchi Chosen Cloth Co., Ltd.	258,000	
	Kyowa Thread Co., Ltd.	473,000	
	Intevatom Textile Industry Co., Ltd.	173,000	
	Hishikon Himegane Co., Ltd.	411,000	
	Sama Silk Weaving Co., Ltd.	377,000	
	San-ichi Silk Cloth Co., Ltd.	385,000	
	Sangyo Textile Co., Ltd.	159,000	
	Yoshio Clothing Co., Ltd.	185,000	
Toakta-gumi Ltd.	276,000		
Tome Cloth Co., Ltd.	311,000		
T. Trade & Commerce	Aoki Shotai Co., Ltd.	9 172,000	9 230,000
	Asahi Industry Co., Ltd.	304,000	
	Ataka Commercial Industry Co., Ltd.	173,000	
	Chosen Central Beer Sales Co., Ltd.	318,000	
	Chosen Central Rice Oil Co., Ltd.	230,000	

〈그림 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해방 직후 한국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 자료』, 139쪽(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volume1), 1948.9.30, p.106).

1945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선경직물은 일본인 재산으로 미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정부 수립 이후 정부에 귀속되었다. 이후 1953년 10월 **崔鍾建**이 불하받아 선경직물로 재출범하였다. 그는 1926년

경기도 수원군 벌말(현 수원시 평동 7)에서 아버지 최학배의 8남매 중 장남으로 수원 평동7에서 출생했다. 신풍중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4월 京畿工業高等學校(경성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하였고, 곧바로 일본인의 선경직물에 입사하여 3급 견직기사로 일하다 1949년 퇴직하였다. 이후 여러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였다.

선경직물은 해방 후 일본인 자산 즉 귀속재산으로 분류되어 미군정의 관할이 되었다. 1948년 9월 GHQ는 선경직물을 경기도 내 중급 일본인 자산으로 보고, 자산규모를 169,000달러로 평가하였다. 당시 수원시 매산동에 소재하던 鮮一織物은 385,000달러로 평가하는데 선경직물 자산의 2배가 넘는다. 미군정은 해방 후 부터 종래 회사 지배인이던 黃淸河를 선경직물의 대표로 삼았다. 황청하는 본래 1936년 8월 선만주단이 설립될 때 이 회사의 지배인이었다. 이와 관련 하여 최종건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새롭게 공장의 경영인이 된 사람은 황청하와 김덕유였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에 새로 회사를 세우려면 명목상으로 조선인 주주가 있어야 했고 두 사람이 각각 100주씩 갖게 된 것이다. 전체 50만 주 가운데 두 사람은 200주밖에 없는 ‘소액주주’ 였지만 일본인이 철수하고 난 다음엔 ‘최대 주주’ 였다.⁵⁷⁾

최종건은 황청하와 김덕유가 전체 50만주(액면가 1원) 중에서 100주씩 밖에 가지지 못한 소액주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힘으로 최대주주가 되고 대표가 되었다고 말했다.⁵⁸⁾ 하지만 황청하는 단순한 100주 소유자가 아니라 이미 1936년 선만주단 설립 당시부터 황청하는 지배인이었고

57) 「최종건의 SK 창업 비사 ①아버지 물래 땅 문서 훑쳐다 줘」 『중앙일보』, 2007.05.02

58) 이렇게 된 데 대해 이한구는 미군정법령 ‘적산관리요령’의 내용 중 “적산업체의 주주 또는 당해 적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에 따라 선임된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한구, 상동, 『일요신문』, 2011.12.06). 근속 측면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고 본다. 따라서 황청하가 단순히 주주였기에 관리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일부 문제가 있다.

누구보다 선만주단을 잘 알고 있었다. 어쨌든 미군정은 황청하와 김덕유를 선경직물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대표이사 황청하, 전무는 김덕유가 맡았다. 이때 최종건은 생산부장이었다.

선경직물은 1946년 2월부터 조업을 재개했는데 공장장은 황청하의 동생 황철하가, 총무부장에는 김덕유의 조카 표덕은, 생산부장에는 최종건이 임명됐다. 1947년부터 다시 선경직물이 본격적인 가동을 했으나 1948년부터 북한의 대남 斷電으로 동력원을 확보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1949년 여름 최종건은 선경직물을 퇴직하였다. 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최종건은 다시 1952년 5월에 수원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선경직물을 어떻게 해서 최종건이 인수하였을까? 1953년 3월 경 관재청에서 선경직물의 불하고시를 했다. 아무래도 한국전쟁으로 선경직물이 크게 파괴되었지만 무척 어려운 정부 재정으로는 회사를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선경직물의 불하대금을 13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무척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당시 옛 선경직물 부지는 1만 2000평이었다. 8000평은 회사 소유였고, 나머지 4000평은 지주인 차철순과 일본인 공동명의였다. 이에 최종건은 수원한량 소리 들던 방구현의 조언을 듣고 선경직물 공장부지 3만 9600㎡(1만2000평) 중 차철순의 지분 1만 3200㎡(4000평)을 우선 매입한 다음에 귀속재산 우선매수권을 차철순과 공동명의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은 당시 최종건이 아버지 최학배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으로 선경직물 부지 1만 2,000평 중에서 4,000평을 매입할 수 있었다.

1953년 7월 27일에는 관재청으로부터 선경직물의 '귀속재산 매각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로서는 귀속재산 매각통지서를 손에 넣는다는 것이 곧 큰 행운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귀속재산을 불하 받아서 손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

었다. 귀속재산은 으레 시가보다 싼값에 매각되기 마련이었으며 매수대금도 5년 내지 15년까지 장기분납이 가능했다. 매수계약금에 해당하는 1차 납부금도 매수총액의 1/10만 납부하면 되게 됐으며, 게다가 매수대금은 액면가보다 훨씬 싼값에 살 수 있는 농지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치솟는 인플레이로 화폐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귀속재산을 불하받는다는 것은 황재나 다름없었다”⁵⁹⁾

본래 선경직물의 우선불하권자는 황청하와 김덕유 차철순 순이었다. 그렇다면 왜 황청하나 김덕유는 불하를 받지 못했을까? 이는 해방 직후 최종건의 행적에서 유추된다. 즉, 그는 해방되자마자 선경치안대를 조직했고, 우익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다.⁶⁰⁾ 이런 그의 反共 경력이 ‘불하 특혜’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총 매각 대금은 130만환이었는데, 당시에는 1/10씩 분할 납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매수 계약금 13만환은 차철순에게 차입하여 지가증권 형태로 지불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경직물 50만 주 중 주식 50만주 중 황청하, 김덕유 몫(각각 100주씩 소유)를 제외한 49만 9800주를 받을 수 있었다. 선경직물은 최종건 주도가 되면서 운전자금은 선경직물의 고철을 팔아 확보한 돈으로 원사를 구입해 생산을 개시했다. 차철순 차입금마저도 추석 대목에 인조견 400필(1필에 900환)을 내놓아 36만환을 확보하여 9월 30일 차철순에 지가증권 13만환을 상환하고 공동매수인권리 포기각서를 받아 최종건은 선경직물의 주인이 됐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선경직물 창립을 선포하였다. 당시 직기는 20대였고, 종업원은 60명이었다.⁶¹⁾

59) 「선경40년사(약사)」, 378면.

60) 이후 그는 ‘수원태백문화동지회’ ‘평동대동청년단’ 같은 우익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인해 인민군 치하에서 고초를 겪었고, 京畿道 水原市議會 議員(4년 역임), 美國TCI總會 韓國代表 참석, 韓國織物工業協同組合聯合會 會長, 鮮京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도 역임하였다.

61) 「최종건의 SK 창업 비사 ①아버지 몰래 땅 문서 훔쳐다 줬」, 상동.

5. 나오며 : 지주제가 강한 곳에 조선인 자본가도 튼튼했다.

일제하 수원 경제의 발전 동인에는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토착 조선인 자본의 자본 축적과 이들에 의한 적극적인 직물업 도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내재적 계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특수에 부응한 적극적인 시국활동과 일본인과의 교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술 및 설비 동원이라는 외적인 계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토착시장을 매개하여 성장한 평양메리아스처럼 수원의 직물업은 내적인 발전 요소가 유난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수원의 근대적 진로는 1930년대까지 철저하게 자작·자소작농 감소, 소작농의 비약적 증대라는 농업구성에서도 드러나듯이 낙후된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존립했고, 늘 소작농 및 그 주변에 피용자들이 존재했다. 그런데 그러한 지주·소작 모순은 일면 수원읍과 기타 면사이의 모순 즉 도·농 사이의 모순 및 수원읍에 집중한 일본인과 기타 면에 집중한 조선인과의 모순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도시=일본인=지주와 농촌=조선인=소작농이라는 지역분업 및 계급구도로 농업의 '과도' 자본주의적 특성을 확산하고 있었다.

공업 방면에서 1930년대 이전에도 성냥·양조라든가 조선경동철도·남양광산 등 큰 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있었으나 직물업 등 노동집약산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직물업에서 소공업, 가내공업, 부업 등이 직물 자급적 유형으로 수원지역 하층경제를 광범위하게 위호하였다. 물론 1937년 전쟁물자 보급과 관련하여 대일본방의 수원 진출계획이 알려지면서 직물업 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대일본방이 그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본인의 진출은 선만주단 등이 진출하는 1941년 이후에야 가능했다. 대신 조선인자본에 의한 직물업 발전이 주목되고 있다.

1930년대부터 지주제의 지속적인 강화와 원축의 취약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공업 및 중소기업이 크게 확장국면에 있었다. 특히 홍사운 이 유복, 김학배와 같은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분류된 조선인 자본가들이 직물업 방면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동이 된 조선마직을 비롯하여 동아직물(홍사운), 昌和織物(李有福) 수원직물(金學培) 등이 속속 설립되었다. 또한 훗날에는 최종건 등이 부친인 최학배의 재력으로 적산 선경직물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이들 ‘민족적’ 조선인 기업들의 판로는 역시 침략전쟁이었다. 수원실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시국활동에 나선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 1940년 이후 중국 지역을 석권한 일제가 조선의 황해권 지역에 대대적인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직물업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1942년 경 조선인 소유의 동아직물 창화직물, 수원직물, 소화직물 등이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장했고, 1943년에는 조지아계의 선경직물이 준공되었으며 곧바로 확장에 들어가 두 개의 공장을 거느렸다. 직기 200대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 부지를 고르고 있었다. 아마도 동흥직물, 선일직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역시 최종적으로 선경직물이 해방 후 수원지역 직물업의 주역이었다. 선경직물의 성장 동력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조지아 계열인 선만주단이 선경직물을 설립하는과정에서 최종건의 부, 최학배의 재력과 인맥이 깊숙이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최학배는 해방 후에도 현역 수원시 의회의원이자 지역의 재력가로서 자신의 인맥과 권력, 자산으로 아들 최종건이 황청하, 김덕유 등을 따돌리고 선경직물을 인수하도록 힘을 실었다. 둘째는 친구 방구현, 지주 차철순, 거상 임명한 등 수원 지역의 재력가와 부유층 친구들과의 교분이었다. 이는 특히 자금 동원 측면에서 유리했다. 세번째는 선경치안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이는 반공지상주의 풍조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로부터 선경직물을 불하받거나 보호받게 되는 역사적 경험이기도 했다.

요컨대, 일제강점시기 수원 산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주제가 오히려 강고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심각한 소작쟁의를 초래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듯하다. 지주들의 아들들은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직물업 방면의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수원에서 일본인 자본보다 먼저 직물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지역 유지답게 지역 단위의 인맥과 재력 그리고 일본인과의 교분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민족주의와 친일성이 교묘히 배합되어 조선인 본위의 직물업 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하 수원지역의 산업 발달을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로서 지주제도와 토착시장,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전쟁 특수, 그리고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맥, 자산 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하 수원 경제의 발전은 지주제에 기반을 둔 조선인 자본가의 자본 축적과 이들에 의한 적극적인 직물업 도자기업 투자라는 내적 계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쟁특수에 부응한 적극적인 활동과 일본인과의 교분 그리고 일본의 기술 이전 및 강제적인 설비의 동원이라는 외적 계기도 있었다.

먼저 내적 계기에서 1930년대까지 수원은 자작·자소작농의 감소, 소작농의 증대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아직 생산양식이 낙후되었다는 증거이다. 아울러 도시=일본인=지주와 농촌=조선인=소작농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도 보이고 있었다. 공업에서도 1930년대 이전에는 성냥·양조라든가 철도 광산 등에 많은 투자가 있었다. 1937년 이후 전쟁물자 보급과 관련하여 대일본방의 수원 진출계획이 알려지면서 직물업 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1930년대부터 지주제의 강화와 원시적 축적의 취약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홍사운 이유복, 김학배와 같은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분류된 조선인 자본가들이 조선마직을 비롯하여 동아직물(홍사운), 昌和織物(李有福) 수원직물(金學培) 등을 창립하였다.

하지만 이들 '민족적' 조선인 기업들의 판로는 역시 침략전쟁이었다. 수원실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시국활동에 나선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 1940년 이후 중국 지역을 석권한 일제가 조선의 황해권 지역에 대대적인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직물업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1942년 경 조선인 소유의 동아직물 창화직물, 수원직물, 소화직물 등이 대대적으로 시설을 확장했고, 1943년에는 일본 재벌 계열의 선경직물이 준공되었으며 곧바로 확장에 들어가 두 개의 공장을 거느렸다.

이중에서 역시 선경직물이 주역이었다. 선경직물의 성장은 3가지였다. 첫째는 조지아 계열인 선만주단이 선경직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건의

아버지, 최학배의 재력과 인맥이 많이 동원되었다. 둘째는 친구 방구현, 지주 차철순, 거상 임명한 등 수원 지역의 재력가와 부유층 친구들과의 교분이었다. 세번째는 선경치안대,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이는 반공지상주의 풍조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로부터 선경직물을 불하받거나 보호받게 되는 역사적 경험이기도 했다.

요컨대, 일제강점시기 수원 산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주제가 오히려 강고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것은 심각한 소작쟁의를 초래했지만 한편으로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듯하다. 지주들의 아들들은 일본 유학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직물업 방면의 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수원에서 일본인 자본보다 먼저 직물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지역 유지답게 지역 단위의 인맥과 재력 그리고 일본인과의 교분을 충분히 이용하였다. 민족주의와 친일성이 교묘히 배합되어 조선인 본위의 직물업 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 주제어 : 선경직물, 선만주단, 동아직물, 선일직물, 조선마직, 적산불하, 침략전쟁, 전쟁특수

Suwon's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rule time

Kim, In-ho

This research is purpose for understanding process of Suwon's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rule time. And this is deals with special war procurements originated Invasion war, Korean capitalist's region-faction and property. More than anything else, understanding of Suwon's economic development is important for analyzing inner primary factor like Korean capitalist's accumulation of capital based on land owner system, active investment on textile factory and pottery business. Also there is external primary factor. Korean capitalist acceded to demand of the special war procurements,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Japanese business, acceded to the government general's policy that moving Japanese technology from Japan-mainland.

First, inner primary factor come into tendency of independent of farmer class reduce and tenancies class increas at that time in Suwon. This is showed that Suwon's agriculture system was fall behind in Japanese rule time. In addition that showed dual composition of Suwon's economy like as city=Japanese=land owner, village=korean=tenancy. Age of proto-industrialization, there are many investment of match, brewing, railroad, mine before 1930s. There is Suwon citizen's expectation on development of

Suwon economy as invite the Great Japanese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extending to supply war-goods for War After 1937.

From 1930s,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industry was increased even though there was difficult of enhance land ownership, weakness of accumulation. Especially Saun-Hong, Yubok-Leechosun, Hakbae-Kim who classified tend to nationalist were established Chosun linen textile company. Dong-A textile(Saun-Hong), Changhwa textile(Yubok-Lee), Suwon textile(Hakbae-Kim). But also market of national korean capitalists came from Japanese invasion war. As Japanese invader process grand Korea industrialization policy in Yellow sea in time of occupied China. So Korea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textile factory was more increased After 1940s. Sun-kyung textile company had bright prospects for the future better than the others. In the formalities process of incorporation Sun-kyoung, Jonggun-Choi's father and Hakbae-Choi's financial power was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ly, Jonggun-Choi, the president of Sun-kyung textile was good friends with wealth class as Kuhyeon-Bang, land owner Cheolsun-Cha, wealthy merchant Myeonghan-Lim.

Third, he positive support to the right faction like Sun-kyung public security unit, the Great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etc. This tendency of anti-communism was important factor that obtaining disposed license of Japanese Sun-kyung textile and protecting corporation from the new Korean government .

* Keywords : Dong-A textile(Saun-Hong), Changhwa textile(Yubok-Lee), Suwon textile(Hakbae-Kim), Sun-kyung textile

역시문화도시 수원의 성장특성과 향후 도시정책 방향

이 창 수*

1. 서론
2. 수원의 도시성장 특성
3. 거대도시 수원의 현주소
4.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

1. 서론

오늘날의 수원은 세계문화 유산인 '화성' 축조(1796년)로부터 기원한다. 수원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계획신도시로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군사, 행정,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목표를 두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 화성성곽의 축조와 시가지를 조성함으로써 오늘날의 수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수원시는 2010년 현재 인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이다.

*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수원시는 1949년 시급 도시로 승격되어 1962년에 10만인, 1980년에는 30만인에 이르렀으며 1987년에 인구규모 50만인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후에도 도시성장이 지속되어 2002년에 100만인의 거대도시(megalopolis) 인구규모에 이르렀다. 수원은 인구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성, 자족성, 문화수준에서 세계 초일류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개발연대의 압축성장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수원시의 도시성장특성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수원시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되는 도시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기별 도시공간구조의 변천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공간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도시계획적 접근 특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원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21세기 도시계획의 접근방법을 접목하여 수원시가 초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수원의 도시성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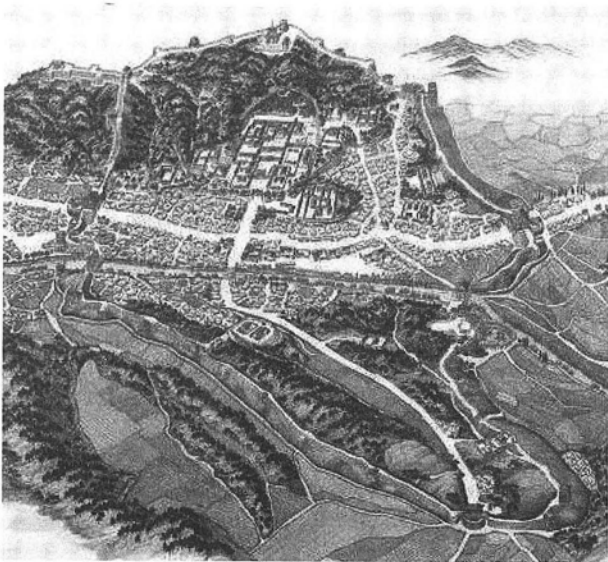
1) 신도시 화성 건설 이후의 도시변화

신도시 화성은 정조의 왕권강화와 개혁왕정을 상징하는 정치도시로서 또 수도에 버금가는 행정·군사·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동기에 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조 24년(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더불어 강력한 왕권의 상징과 화성의 군사력으로 설립했던 장용영의 해체로 인해 화성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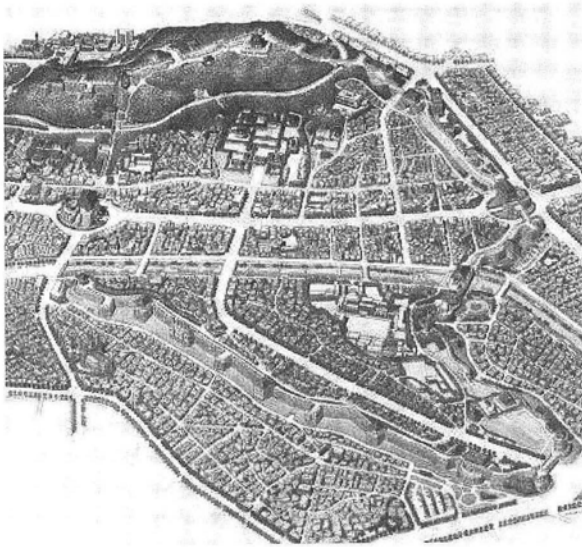
1905년에 개화(開化)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왕조중흥의 왕권을 상징하던 화성 행궁자리에 최초의 서양식의 의료기관인 자혜의원(慈惠醫院)이 자리

잡았고 화성 행궁은 수난과 퇴락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1920년대 초에는 병원 증축으로 인하여 대분의 행궁건축물이 철거되었고, 이후 독립병원으로 지정되고 주변에 경찰서와 민가, 학교가 들어서면서 정조때 왕권강화의 상징물이었던 행궁의 웅장하고 운치가 있는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수원 도시계획 수립은 일제치하인 1934년에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1944년에 수립되었다. 이 때의 수원은 7,572호(36,146명)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의 계획은 1974년(30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시가지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원 및 녹지, 풍치지구 계획 등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것은 일제 말기의 전통적 시가로서 지방민의 유희책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은 팔달토지구획정리사업(팔달문 주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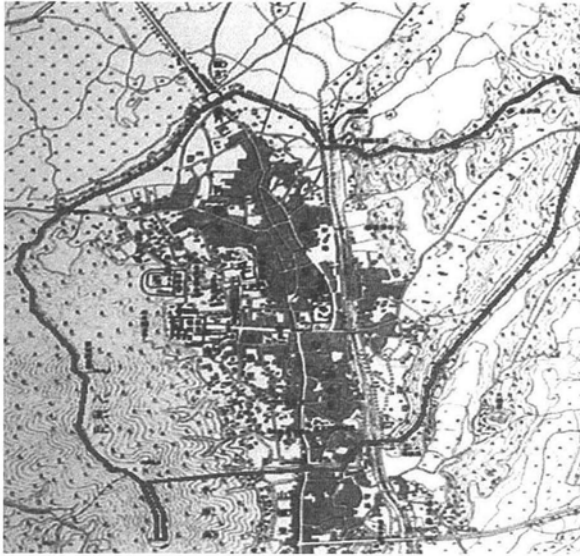
〈그림 1〉 화성 축성당시 조감도



〈그림 2〉 2000년대 화성 조감도

2) 1950 ~ 1960년대의 도시변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누지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으로 수원의 문화재 대부분이 파괴되어 도시는 더욱더 황폐해졌다. 전쟁이 끝난 '50년대에는 새로운 개발보다는 전·후 복구에 치중하였던 시기이다. 1960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진전되어 농업 위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성장해온 지역사회 중심도시였던 수원은 정부의 농공병진(農工並進) 시책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 및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지방행정 중심의 교육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도시정책이 추진되었다.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수원시는 경기도의 광역행정중심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관리기능의 수부도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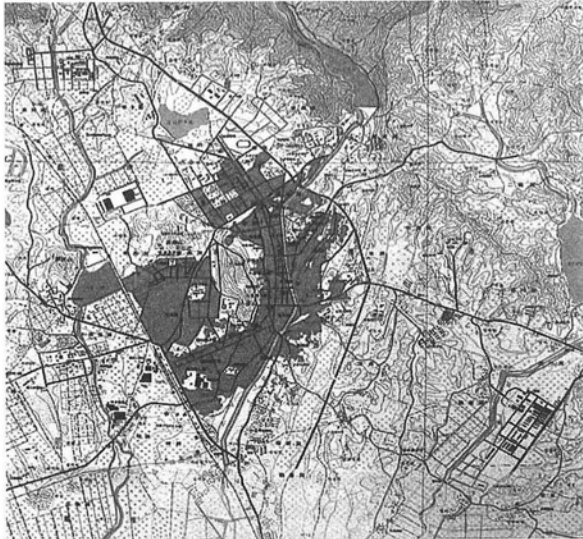
〈그림 3〉 1910년대 수원시가지 현황도



〈그림 4〉 195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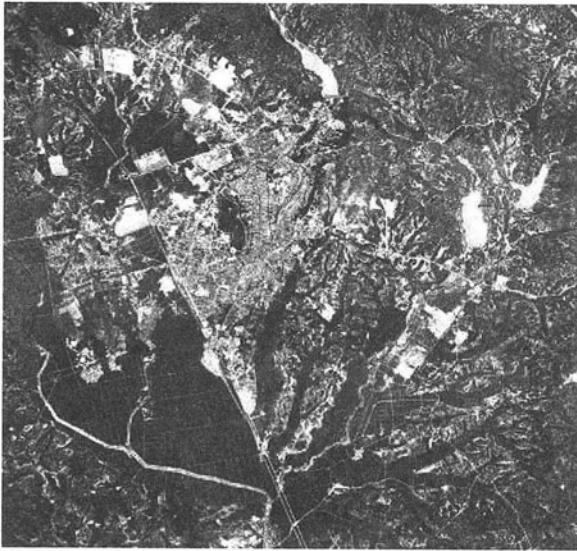
3) 1970년대의 도시변화

1970년대는 수원을 크게 변화시킨 시기이다. 한국경제가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경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도 서울은 과밀과 혼잡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과밀 방지를 위해 서울에 입지한 공장들을 서울 주변 위성도시로 이전 재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삼성전자 등 대규모의 공장들이 수원으로 이전되었다. 수원 도시정책도 정부의 농공병진(農工並進) 시책에서 탈피하여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결과로 선경(SK)의 모태인 선경합섬공장(권선구 평동 일원) 건립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담배인삼공사(KT&G), 금강(KCC), 한일합섬, 선경화학(SK) 등의 공장들이 유치되었다. 이들 대기업 공장이 운영되면서 197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산업기능이 도시발전은 물론 수



〈그림 5〉 1970년대 수원시가지 현황도

원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공업화 진전은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가와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화성' 주변에 고화지구, 영화 1·2지구, 역전 1·2지구, 파송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시가지가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수원~서울), 제1호선 전철(수원~서울)의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림 6〉 197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4) 1980 ~ 1990년대 도시변화

80년대는 과거 1960~70년대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난 수도서울의 교통·환경과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원시도 이에 편승하여 도심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매탄지구 외 4개 지구)이 진행되어 시가지가 확산되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특히, 동수원권 신도시개발은 수원의 공간구조를 개편시켰다. 동

수원 지역은 제2 부도심으로서 중심상업·업무기능이 부여되고 시청이 현 위치로 이전하는 등 수원권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7〉 1980년대 수원시 위성사진

90년대는 수도권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수원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 수원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주택 개발사업을 통하여 인구의 증가와 복부와 서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동 수원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어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영통신도시가 개발되었다. 또한 ‘화성’ 문화재가 1997년 12월 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세계문화 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문화재 및 문화 예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화성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세계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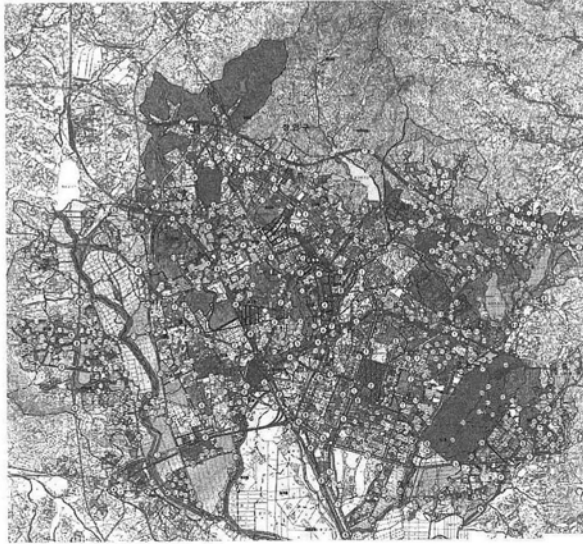
의 모든 도시정책들이 '화성'을 모티브로 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전 유도하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림 8〉 199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5) 2000년 이후의 도시변화

2000년대에는 국경없는 세계화시대의 진전으로 국가 단위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개방화·세계화 및 지식·정보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의 도시정책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와 경제로 변영하는 수원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특히, 세계문화 유산 '화성'의 활용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수원화성의 보존과 정비를 통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 매력도 증진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 상품개발,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인근 관광지와의 관광벨트를



<그림 9> 2000년대 수원시도시계획도



<그림 10> 2000년대 수원시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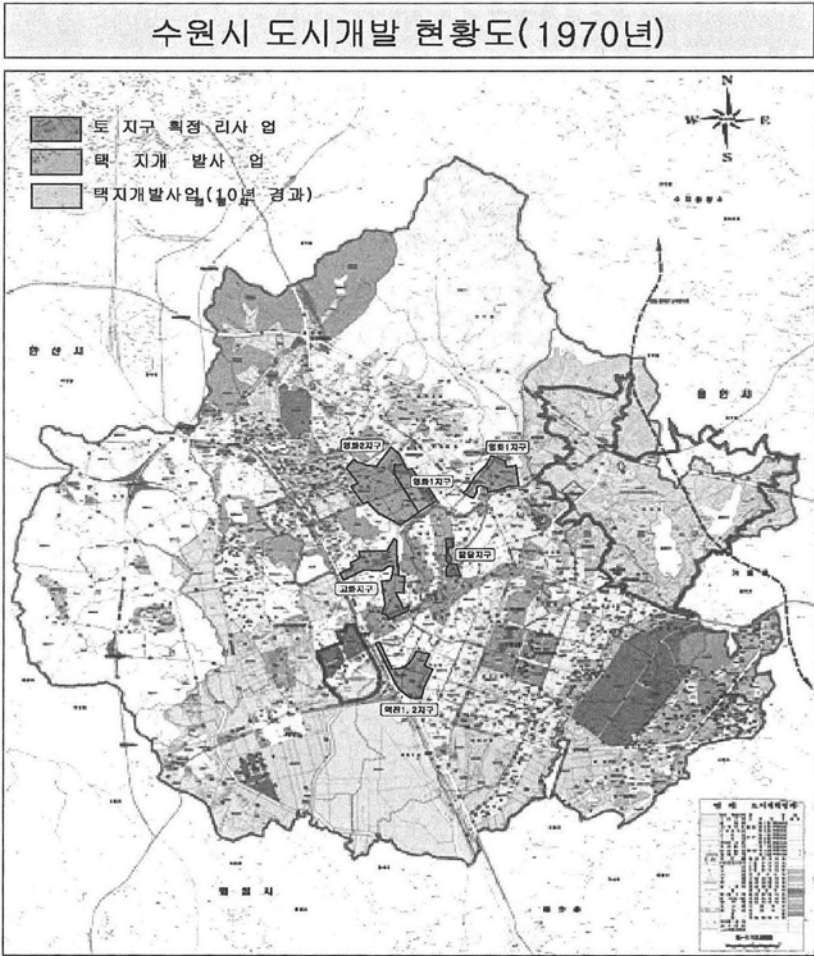
구축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정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 구도심지역의 활력 증진과 수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적 수준의 차별화된 자족형 행정복합의 광고신도시 건설, 낙후된 서수원권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6)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천

수원시는 1970년에 5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영화1지구, 영화2지구, 팔달지구, 역전1~2지구, 고화지구 등의 사업을 1978년 4월에 완공하였다. 5개의 사업지구 총면적은 3,060(천㎡)에 달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원시장이자이다. 5개의 사업대상지 모두 기존시가지와 인접하여 있거나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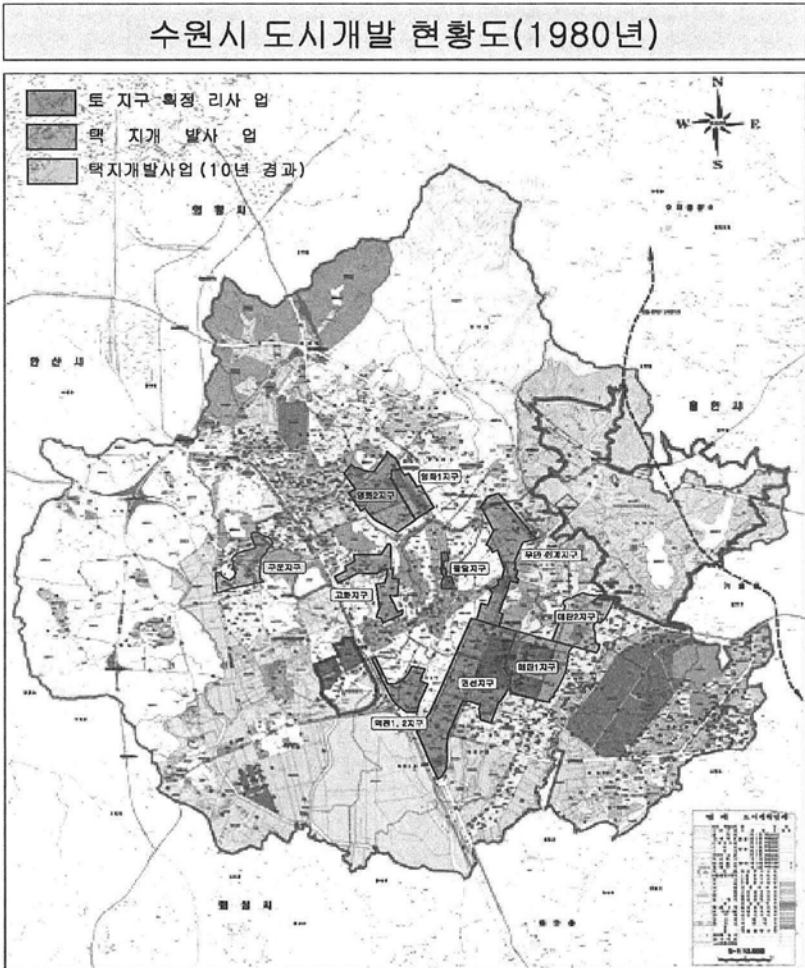
1980년에는 2개 지구(우만·인계지구, 권선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5개 지구(신매탄지구, 구운지구, 매탄지구, 매탄1지구, 매탄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11월 완공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은 1989년 12월에 완공되었다. 2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은 3,530(천㎡), 택지개발사업지의 총면적은 2,709,802㎡에 달한다. 두 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는 기종의 시가지에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 중 구운지구는 기존시가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기존시가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에는 2개 지구(파송1지구, 파송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8개 지구(우만지구, 권선1지구, 권선2지구, 권선3지구, 원천지구, 천천지구, 화서지구, 영통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0년 5월 완공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두 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은 1694(천㎡), 택지개발사업지의 총면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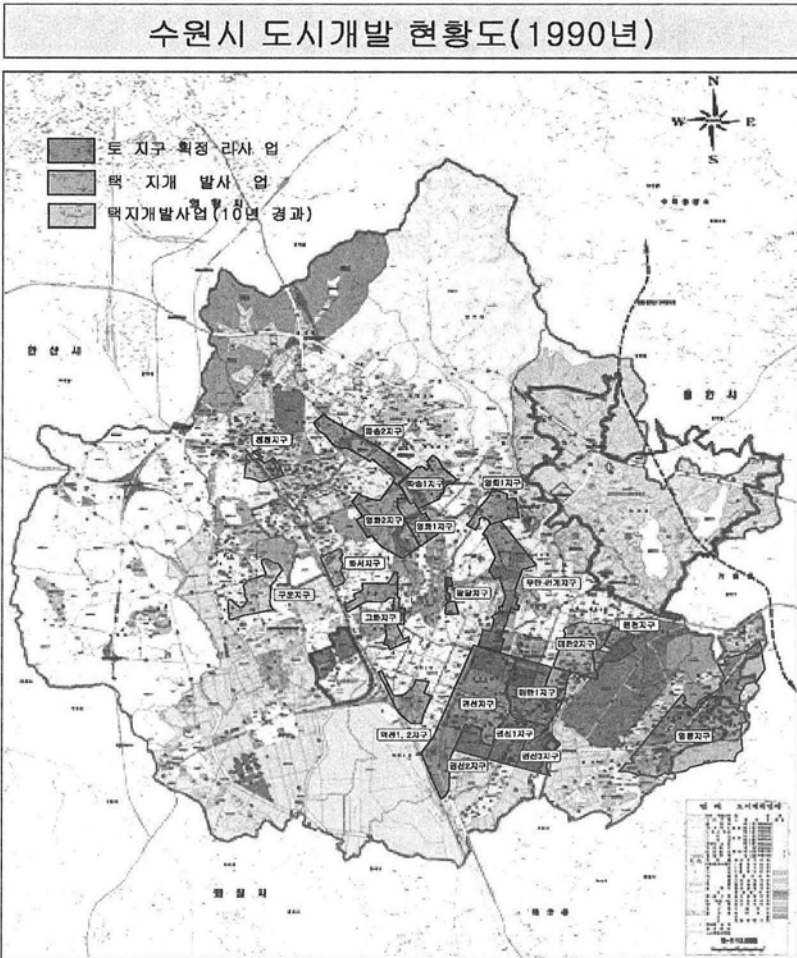
〈그림 11〉 197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5,695,493㎡에 달한다. 두 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는 기존의 시가지 북쪽과 연결하여 북쪽으로 뻗어 있으며, 8개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 중 천천지구는 기존시가지의 북서쪽에, 화서지구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는 기존시가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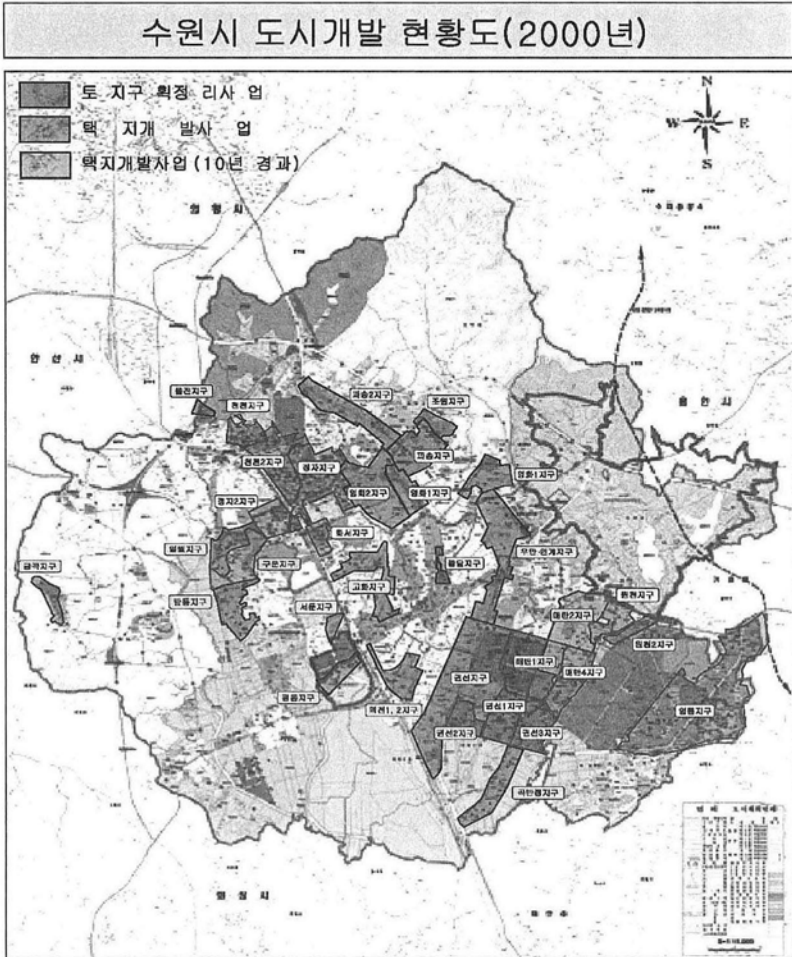
〈그림 12〉 198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2000년에는 3개 지구(일월지구, 탑동지구, 곡반정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6개 지구(정자지구, 원천2지구, 천천2지구, 정자2지구, 조원지구, 매탄4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6년 10월 완공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6월에 완공하였다. 3개의 토



〈그림 13〉 199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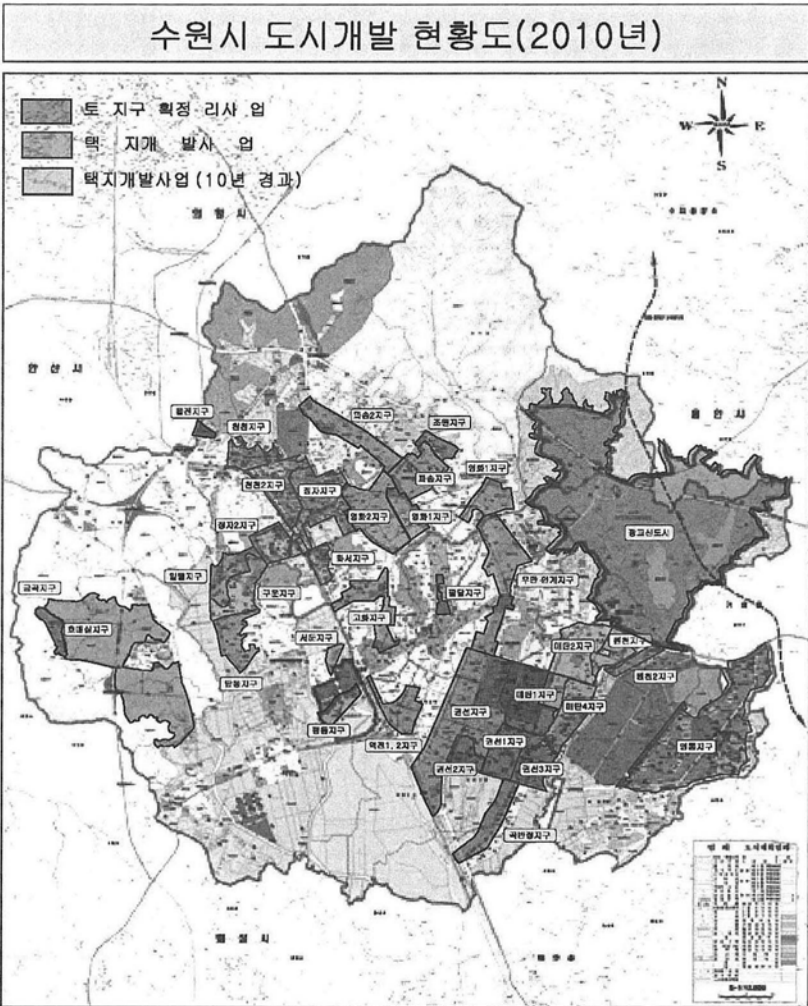
지구획정리사업의 총면적은 1,523(천㎡), 택지개발사업지의 총면적은 2,957,736㎡에 달한다. 3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지는 기존의 시가지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택지개발사업대상지 중 천천지구, 정자지구, 정자2지구는 기존시가지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3



(그림 14) 200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개 지구는 기존시가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에는 2개 지구(광교지구, 호매실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광교지구는 2004년 6월에 고시된 이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호매실지구 역시 2004년 12월에 고시된 이래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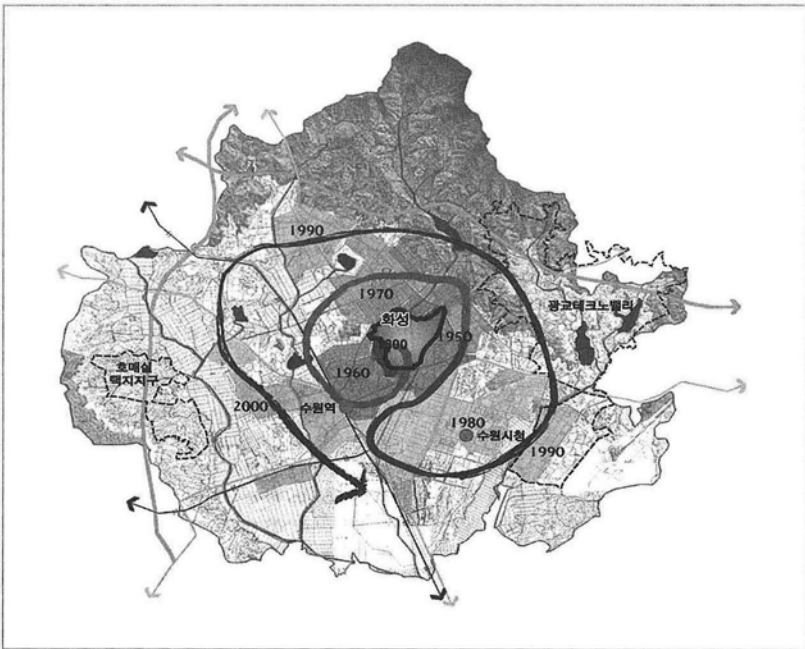
〈그림 15〉 2010년 수원시 도시개발 현황도

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면적은 총면적은 14,404,000㎡에 달한다. 광교지구는 기존시가지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매실지구는 기존시가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7) 소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경제가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가속되었다. 수도 서울의 과밀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등 대규모의 공장들이 수원으로 이전되어 '화성' 주변에 토지구획정리 등 도시개발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의 시가지가 크게 확장되었다.

1980년대는 과거 1960~70년대 고도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나타난 수도 서울의 교통·환경과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원도 이에 편승하여 당시 도심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들이 진행되어 시가지 확산과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1990년



〈그림 16〉 수원 시가지 변천도

대에는 수도권외 주택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영통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화에 의한 개발연대에서는 시가지 및 도시인구 증가를 수반하며 도시성장이 지속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증가와 개발 가용지 부족, 구시가지의 슬럼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광교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구시가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90년대 들어서 나타난 섬유산업의 쇠락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한일합섬의 중국 이전을 시작으로 선경, 금강, 연초제조창(KT&G) 등이 이전되거나 이전 예정에 있다. 이들의 공장 이전 부지 대부분은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의 변화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3. 거대도시 수원의 현주소

1) 국토공간구조상의 입지

수원시는 수도권의 중핵도시 서울의 남측 35km 지점에 위치한다. 수도권 지역은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추권역이다.

행정 및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은 인구규모 측면에서나 인구밀도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인구밀도는 비수도권지역의 아홉배에 이른다. 인구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치의 두배이다.

〈표 1〉 권역별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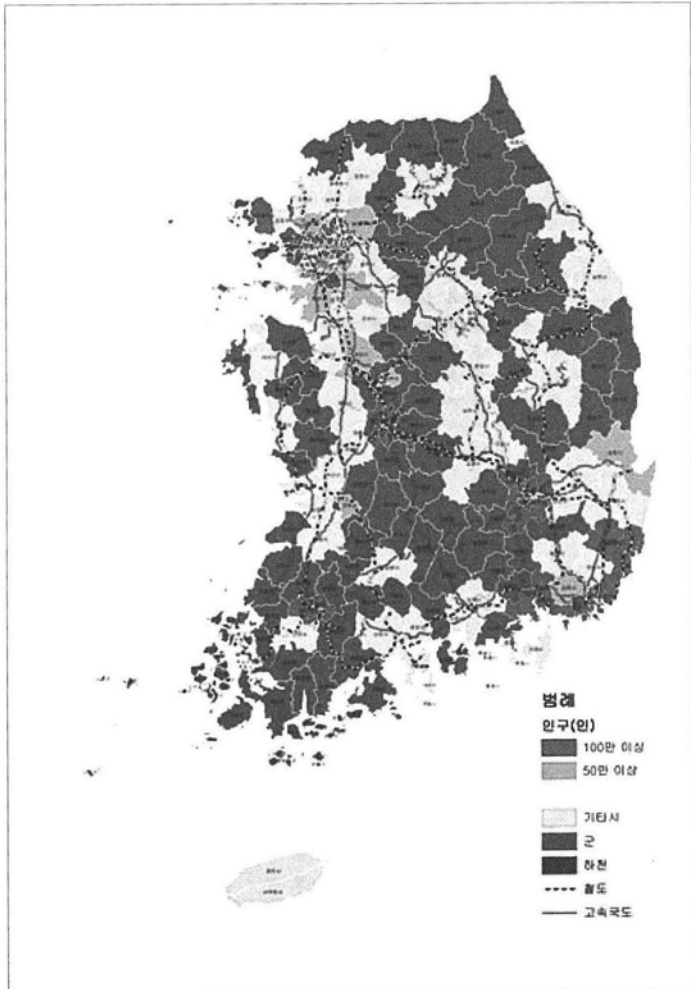
권역별	면적(km ²)	2000년도	2010년도		연평균인구 증가율(%)
		인구(천인)	인구(천인)	밀도(인/ha)	
수도권	11,749.60	22,076	24,857	21.2	1.2
부산권	12,354.40	7,931	7,985	6.5	0.3
대구권	19,911.80	5,321	5,202	2.6	-0.2
광주권	12,714.90	3,503	3,373	2.7	-0.2
대전권	9,140.80	3,307	3,579	3.9	0.8
전북권	8,061.40	1,999	1,869	2.3	-0.5
충주권	7,433.20	1,498	1,550	2.1	0.3
강원권	16,614.00	1,555	1,530	0.9	0
제주권	1,848.50	542	571	3.1	0.5
전국	99,897.40	47,732	50,515	5.1	0.6

수도권의 중핵도시 서울은 1992년 주민등록인구 1,093만인을 기록하며 최고의 집중도를 보였으나 이후 1,030만명 내외의 인구를 유지하며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단계에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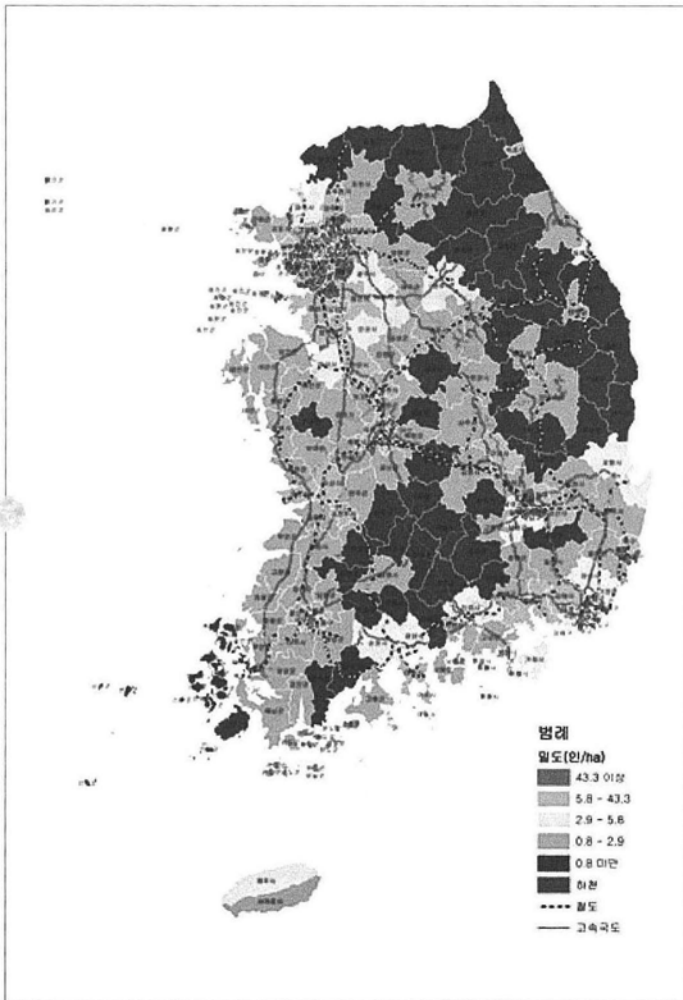
반면에 서울 인접도시들과 서울 남측에 위치한 도시들의 성장추세는 2010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하여 화성, 오산, 용인, 평택시의 인구성장추세는 두드러진다.

이 점에서 볼 때 수원시는 수원시 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들 전부 급격하게 성장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거대한 연담도시권의 중핵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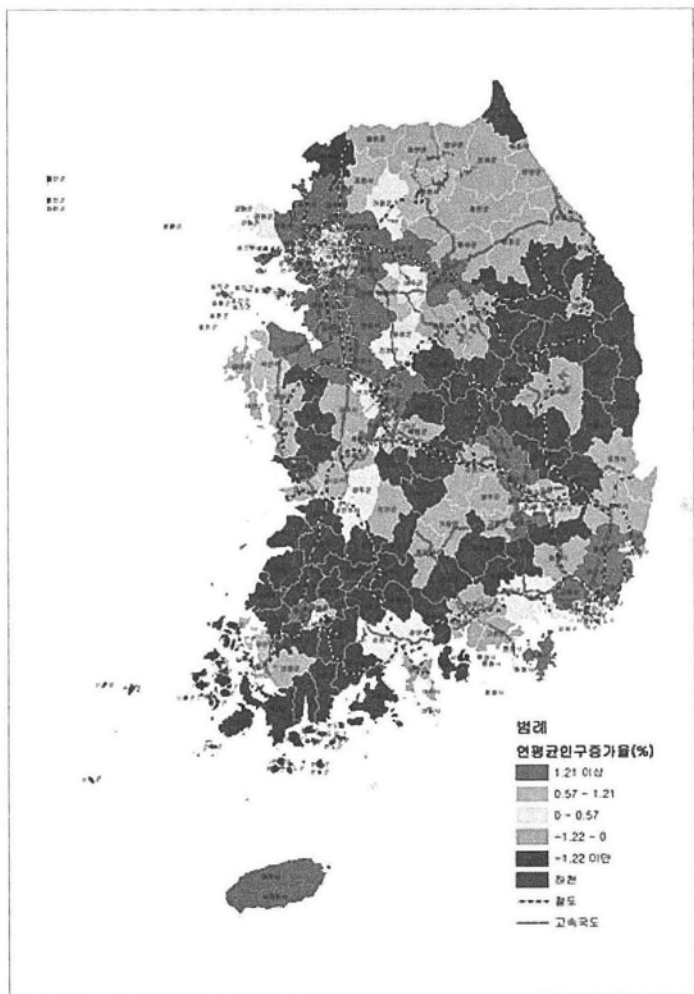
수도권내에 입지하는 도시 중 성장추세가 뚜렷한 도시의 특징은 사회적 제적 측면에서 수부도시인 서울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도시들의 통근통학인구 중 서울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내부 통근통학비율이 89.1%로 가장 높았으며, 40% 이상인 도시는 광명시 42.3%, 과천시 42.6%, 하남시 40.2%이었고, 30%이상인 도시는 의정부시 32.0%, 고양시 32.4%, 구리시 35.8%, 남양주시 30.0%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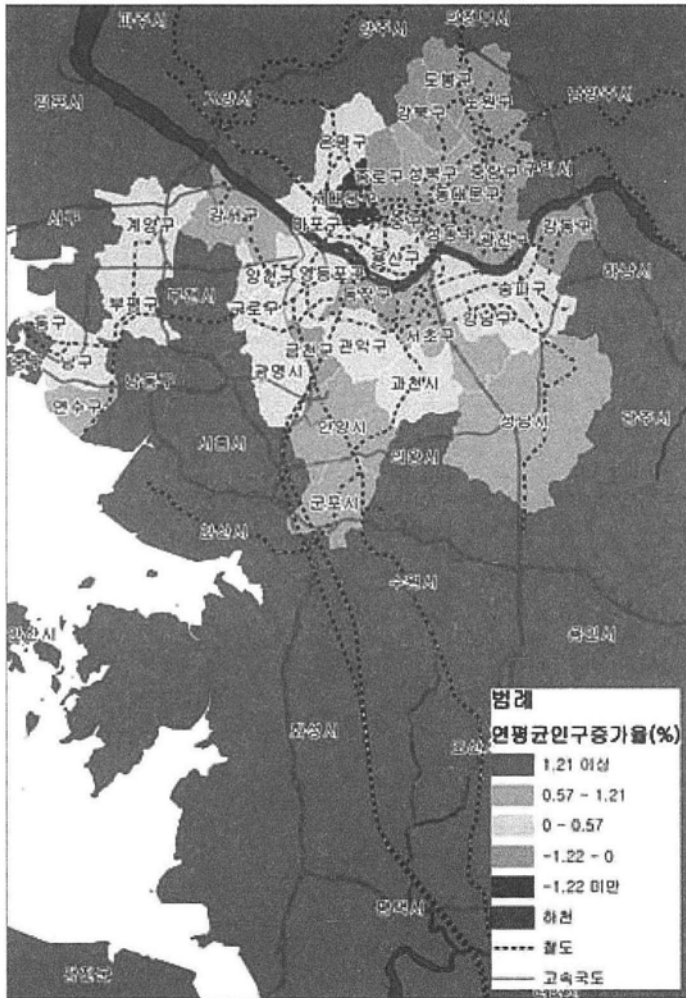
〈그림 17〉 인구 규모별 우리나라 도시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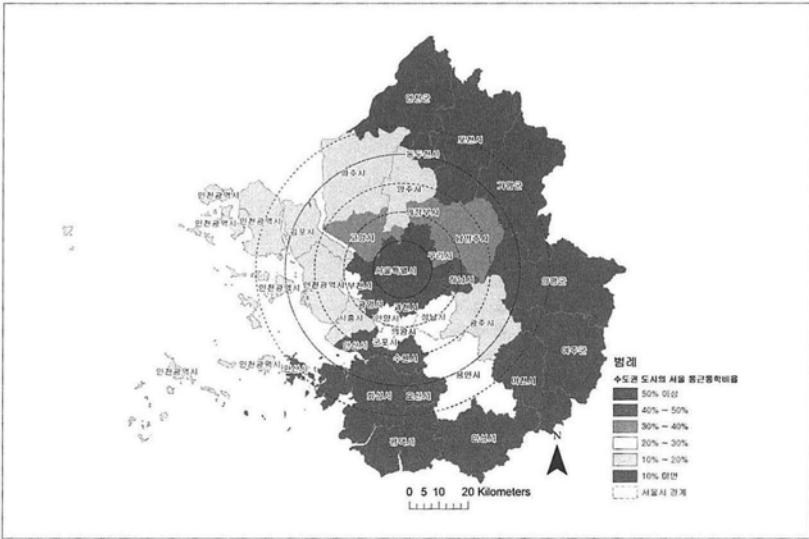
〈그림 18〉 우리나라 도시별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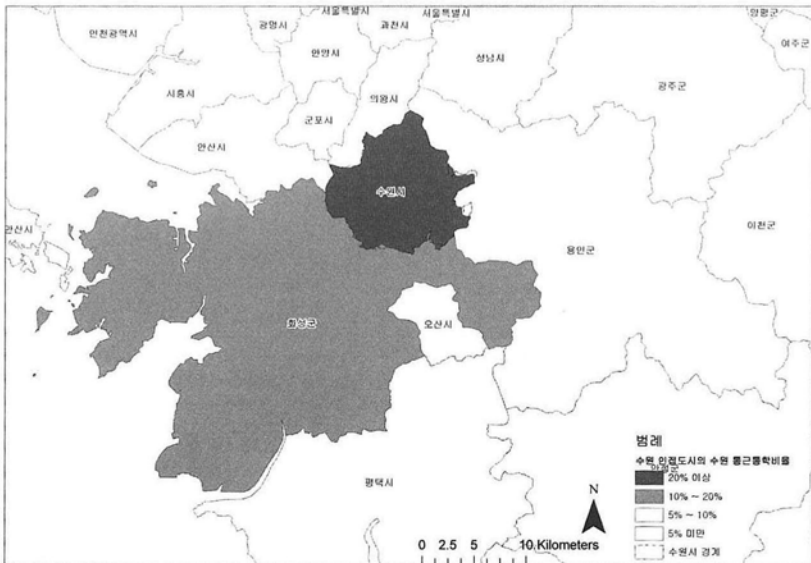
〈그림 19〉 우리나라 도시별 인구증가율



〈그림 20〉 수도권지역 도시별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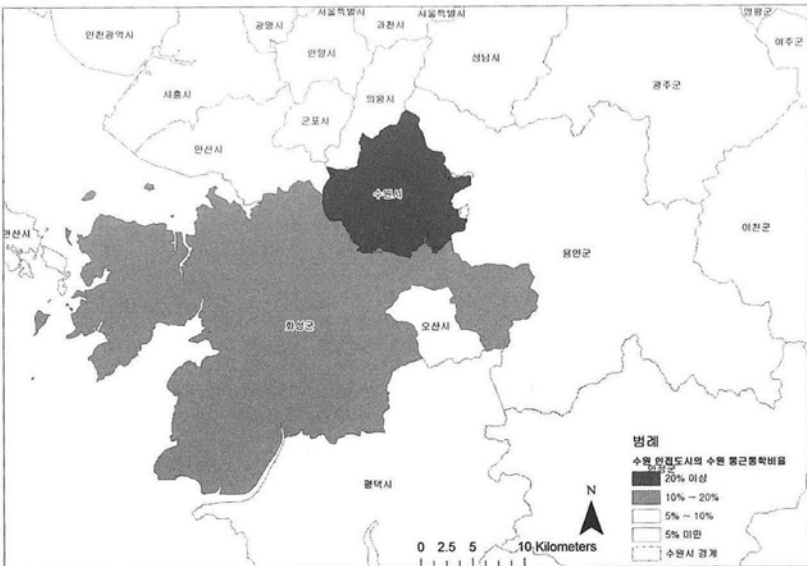
〈그림 21〉 수도권 도시의 서울 통근통학비율



〈그림 22〉 수원 인접도시의 수원통근통학비율

다. 20% 이상인 도시는 성남시 29.1%, 안양시 24.9%, 부천시 24.0%, 군포시 22.0%, 의왕시 22.4%, 용인시 20.8%이었고, 10% 이상인 도시는 인천광역시 10.6%, 시흥시 10.2%, 파주시 13.2%이었다.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등은 10% 미만이었다. 통근통학인구비율을 기초로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과의 사회경제적 의존성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상대적으로 자족성이 확보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화성시의 통근통학인구 중 수원시로 유출하는 인구 비율이 14.3%이고, 화성시로 유입하는 통근통학인구(자체 도착 인구 포함) 중 수원시에서 유출하는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이 22.7%에 이른다는 점에서 수원시는 화성시의 중핵도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된다. 수원시 인접 도시들 또한 이와 같은 수치에서는 수원시와의 연계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원시에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의 오산시와 용인시의 비율은 각각 12.9%, 12.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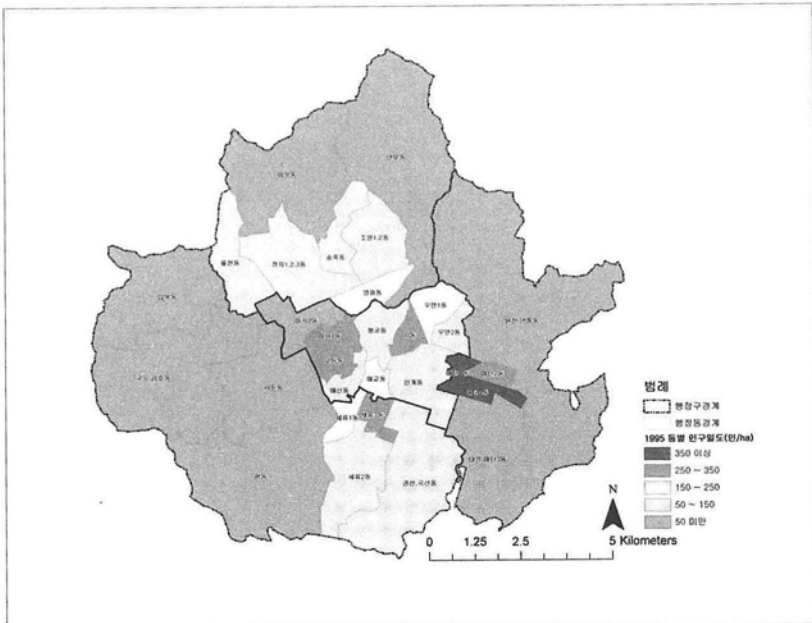


(그림 23) 각 도시 유입인구 중 수원시 유출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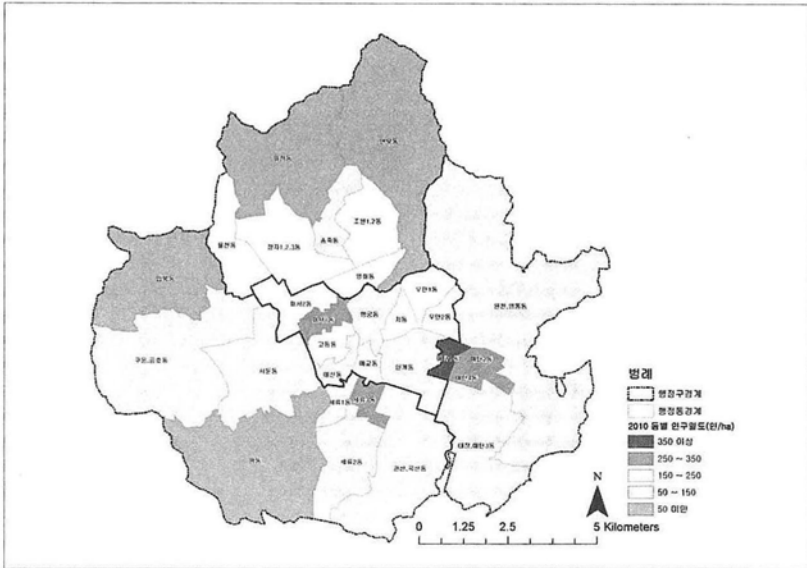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서울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핵적인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수원시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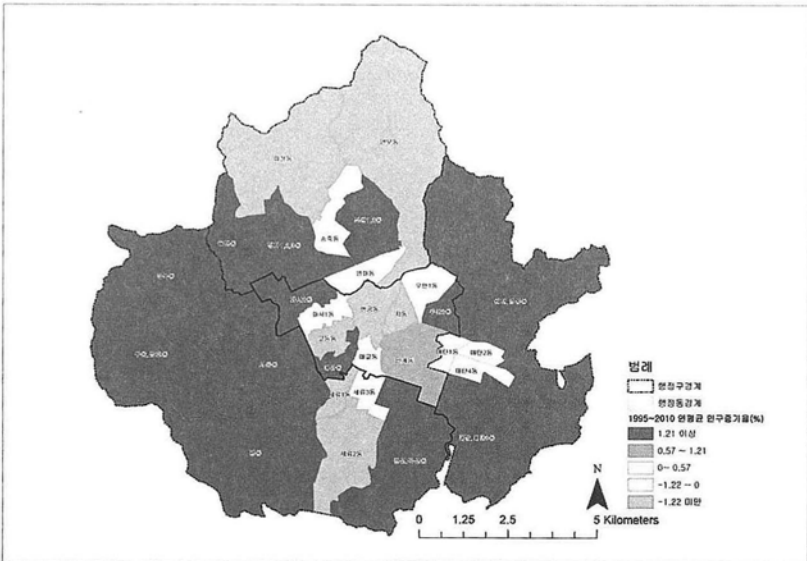
수원시 1995년과 2010년의 동별 인구밀도 변화를 볼 때 지동, 고등동, 매탄4동, 세류1동은 인구밀도가 감소한 반면 울천동, 정자동, 서둔동, 원천, 영통동 등은 인구밀도가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팔달구에 인구가 집중되었으나 2010년에 팔달구에서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로 인구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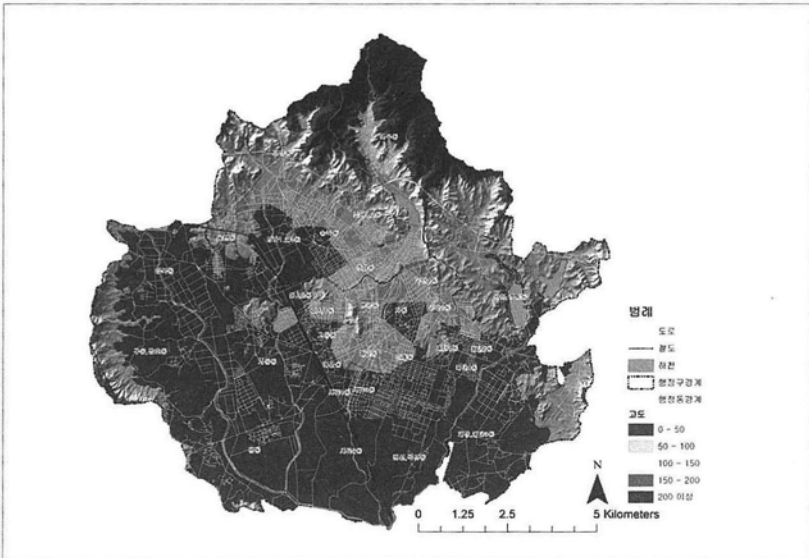
〈그림 24〉 1995 수원시 동별 주민등록 인구밀도



〈그림 25〉 2010 수원시 동별 주민등록 인구밀도



〈그림 26〉 수원시 연평균인구증가율



〈그림 27〉 수원시 표고분석

〈표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전국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수립일		2006-04-27	2009-12-29	2009-07-01	2005-09-12	
목표년도		2020	2020	2020	2020	
계획인구(천인)		9,798	4,100	1,290	1,140	
총계(ha)		9,989,741	60,525	76,612	12,101	14,171
도시지역(ha)		2,487,009	60,525	63,819	12,101	14,171
비도시지역(ha)		7,502,732	0	12,793	0	
시가화에정용지	(ha)	-	-	7,143	251	147
보전용지	(ha)	-	-	60,269	6,602	10,689
시가화용지 (ha)	소계	-	60,590	12,967	5,257	3,336
	주거용지	-	30,910	10,298	4,409	2,702
	상업용지	-	2,810	2,666	580	474
	공업용지	-	2,800	2	268	160
	관리용지	-	24,070	-	-	-

수원시 연평균인구증가율은 권선구와 영통구의 경우 대체로 1.21%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안구의 경우에도 표고가 높은 파장동과 연무동을 제외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팔달구의 경우 대체로 -1.22%미만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수원시의 행정구역면적 121km²는 주거용지 44km² 중 시가화용지는 상업용지 5.8km², 공업용지 2.7km²이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양상은 그간의 지속적인 도시개발의 결과이다.

3) 거대도시로서 수원시의 위상

수원시는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팔달산(八達山:128m)이 솟아 있어 천연공원을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300m 내외의 광교산맥(光敎山脈)있고 서쪽에는 여기산(麗妓山), 남동쪽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지형은 대체로 동북에서 서남 방면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수원시 면적은 121.01km²이며, 4개의 구에 42개 행정동과 56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인구는 1,095,957명 (2010년 8월 1일 기준)이며, 세대수 406,439가구이다.

거대도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도시다. 수원시에는 1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보유 장서는 1,584,462권에 달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2년제 대학으로 동남보건대학, 수원여자대학 등이 있다. 두 개의 대학에 74개 학과가 있으며, 학생수는 11,603명에 이른다. 4년제 대학으로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4개가 있다. 네 개의 대학에 단과대학이 28개 있으며, 학생수는 45,927명에 이른다. 대학원수는 2010년 기준 23개

로 석사과정 5,625명, 박사과정 560명이다.

둘째,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공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공원수가 224개가 있다. 공원면적은 3,532(천㎡)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어린이공원이 182개에 460(천㎡)이고, 근린공원 39개에, 면적은 3,012(천㎡)이다. 그리고 역사공원 1개가 있는데 면적은 1(천㎡)이며, 체육공원 2개가 있는데 면적은 59(천㎡)이다.

셋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이 매우 높다. 수원시의 문화재 보유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총32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11개 있으며, 국보급 문화재가 5개가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과 행궁이 있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은 수원시를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의 도시에 걸 맞는 다양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활동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하고 있다.

넷째, 경기도청이 있는 도시이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에는 경기 도청이 있어서, 11,815,120명의 경기인의 행정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이다. 삼성전자, 선경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어 수원시의 자족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섯째, 스포츠의 도시이다. 수원시에서는 국제·전국 규모에 각 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제8회 수원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제18회 세계 대학생 유도 대회 등 국제 규모에 다양한 대회들을 개최하고 있다.

수원시는 축구의 열기가 특히 높은 도시이다. 2002년 FIFA 월드컵의 개최도시 중 하나로써 명성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수원컵 국제청소년 클럽축구대회 개최, 2006년 피스컵 국제 여자 축구대회 개최, 2007년

FIFA U-17 월드컵 등 많은 국제 경기를 치렀고, 수원시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제 여자 축구 대회인 피스퀼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K리그 수원 블루윙즈의 연고지이며, 내셔널리그수원시청 축구단(수원 FC)과 WK리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수원 FMC)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일곱째, 광교신도시 건설로 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하동, 우만동 등 총면적 11,282,521㎡에 31,000세대를 수용하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에는 종합행정타운과, 첨단연구시설, 종합휴양시설, 신 주거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21세기 국제적 신도시 건설로 수원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거대도시로서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위상에 부합되지 않는 장애요인들이 있다.

첫째, 구도심 교통문제이다. 수원시는 현재 심각한 교통문제를 겪고 있어 대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수원시의 교통 환경을 보면, 경기도 남부도시(성남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원시 서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북쪽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량은 수원시의 교통 환경은 물론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도시로서 수원에 위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수원 공군비행장의 고도제한, 소음 등의 문제이다. 수원시 남서쪽에 수원공군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다. 공군비행장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한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행장이 도심과 접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행장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자리 자리를 잡고 있어 도시의 확장을 가로 막고 있어 도시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행장과 철로가 접하고 있어 도시정비에 사각지대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환경이 열악하여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수원시의 위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이 작은 편이다. 수원시는 대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이다.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광역시 승격의 기준인 1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면적은 121.01km²에 불과하다. 수원시의 입지를 보면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8개의 도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입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수원공군비행장장도 시가지 확장에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 110만 명이라는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좁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연대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의 유산이 도처에 산재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이상과 같이 수원 도시 성장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향후의 도시정책은 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4.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원시 도시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년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년인구 국가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간에 양적 부문에 의존했던 도시성장이 질적 부문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도시성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환경과 안전, 문화와 복지가 도시정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거대 도시 수원은 인구를 양적으로 증가시켜 과밀을 초래하는 정책을 대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과밀은 환경, 교통 등 도시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산성 저하 및 사회경제적 부(-)의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된다. 수원시는 오히려 도시성장관리를 통하여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거점도시로서 중핵기능을 보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거점도시로서 수원시가 담당해야 할 중핵기능은 일차적으로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광역행정기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기능이 기존의 계서적 행정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가 강조되는만큼 광역행정기능이 거점도시기능의 주류가 되기 어렵다. 결국 수원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문은 산업부문이다. 수원시의 산업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첨단산업과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관광 산업이다. 첨단산업과 역사문화·관광산업은 도시의 양적 성장기에 보였던 인구집중에 의한 노동집약적 속성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간에 급속한 압축성장을 유지해온 수원시가 첨단산업과 역사문화관광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 및 정주환경의 질과 어메니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도시는 서구의 도시들이 200년에 걸쳐 이루어졌던 성과를 불과 40여년만에 이루어졌던 압축성장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러한 압축성장은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경제성장률 등 양적·외형적 측면에서의 양태에 국한되는 것이며 질적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삼분의 일 내지 절반에 불과한 체코의 프라하와 폴란드의 바르샤바가 우리 도시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역사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향후의 도시정책이 미래의 패러다임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의 압

축 성장의 부(-)의 효과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구의 도시들이 근대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여년 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서구의 도시들도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에 머물러 있었을 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에 의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다. 레이첼 카슨(Rae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으로 대표되는 환경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이 맞물린 1960년대에 비로소 도시계획 부문에서도 옹호이론(Advocacy Theory)과 선택이론(Choice Theory)이 등장하면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어 프리드만(Friedmann)의 교환거래이론에 기초하여 주민과 함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연히 도시계획의 접근시각은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과거 성장거점 전략과 경제 성장이 강조된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기본 수요이론, 주민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의 분배가 강조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계획에서 주민 참여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커뮤니티 단위의 접근방식이 선호되었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구하던 것에서 지역의 제도와 지식을 활용하는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인구규모상의 거대도시 수원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간의 성장특성과 현주소를 토대로 수원시가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향하여야 할 향후의 도시정책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시권 중핵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광역행정기능 이외에 첨단산업 및 역사문화·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화성 내외 공간의 정비,

재생뿐만 아니라 화성을 거점으로 산업과 문화관광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도시환경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어메니티와 적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역사문화·관광기능을 제고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수변공간(Water Front)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변화시키고 걷고싶은 거리와 삶의 터의 구실점인 광장, 정체성있는 도시경관의 확보 등 다각적으로 어메니티와 적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삶의 터전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의 안정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의 안정성으로서 도시내 균형발전과 소득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삶의 터 만들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가지 접근은 범죄 및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적 감시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환경을 창출하고 방재부문과 도시계획부문이 결합된 공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가 초일류 거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도시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동욱, 『18세기 화성의 도시발달과 성곽축조 정조시대 수원의 화성건설』, 백산서당, 2001.
- 김동욱, 『실학정신을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 박재용 · 문정희, 「수원시 도시개발과정을 통한 시가지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5(5):87-99, 2000.
- 손정목, 「세계최고의 계획된 신도시-화성」, 『도시문제』, 1976.
- 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수원시, 2002.
- 수원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원, 2007.
- 유봉학 · 김동욱 · 조성을, 『정조시대 화성신도시 건설』, 백산서당, 2001.
- 이건원 외 2인, 「수원시의 통근통행패턴으로 본 기능지역구조의 변화:1996~2006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2):87-101, 2009.
- 이건원 · 김세용,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1):7-20, 2010.
- 이우종 · 김상호,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3):231-244, 2002.
- 전영옥 · 이상문, 「전통도시 화성의 수로조영에 나타난 생태적 계획원리 연구」, 『국토계획』 43(5):123-134, 2008.
-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본 연구는 거대도시 규모로 성장한 역사문화도시 수원시의 성장잠재력에 부합되는 도시정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원시의 성장특성과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수원시는 18세기에 정조가 건설한 근대적 신도시 화성으로부터 기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40여년의 개발연대에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도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초일류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개발연대의 관성과 후유증이라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수원시가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거대도시권의 중핵도시로서 첨단산업과 역사문화관광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관광기능은 향후 수원시의 중추적인 도시기능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수원시의 역사문화기능의 보강과 관련한 제반 도시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정주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어메니티를 보강하는 도시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생활의 안정성 즉, 범죄 및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수원, 화성, 역사문화도시, 도시성장, 공간구조, 도시정책

A Study on the Urban Policy Based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Suwon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Lee, Chang-soo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sustainable urban policy matching up to the growth potentials of Suwon metropol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growth pattern and spatial structure. Suwon i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which originated from Hwaseong built by King JeongJo in 18th century. Suwon has been seeing rapid growth for recent 40years. There are plenty of growth potentials and diverse problems.

In conclusion, it needs to reinforce urban functions such as high-tech industr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to play a pivotal role in metropolitan areas. And we should establish urban policies which ensure amenity and suitability of settlement environments. Finally Measures to stabilize citizen's livelihood are urgently needed.

* Keywords : Suwon, Hwaseong,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urban growth, spatial structure, urban policy

일제강점기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

성 주 현*

1. 머리말
2. 천도교 입교와 수원교구
3.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
4. 신간회 경성지회 조직과 활동
5. 종교인으로서의 이병헌
6. 맺음말

1. 머리말

梧菴 李炳憲은 천도교인으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세시위에 직접 참여하였고, 신간회운동에 참여한 민족운동가이다.

이병헌은 서세동점기와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태어났다. 일찍이 동학에 입도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계대교인으로 동학사상을 수용하여 중

*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

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학의 민족주의사상에 따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병현은 유소년기를 평택에서 생활하였지만 청년기는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주요 교역자로 활동하면서 보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초에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진출한 이후 3·1운동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고, 일제의 검거령을 피해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수원지역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제암리화살사건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7년 2월 신간회가 결성되자 경성지회 설립준비위원 및 총무간사를 맡아 설립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조직부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¹⁾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에 참여하여 정치인으로, 1949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장으로 공직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에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행정신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환도 후에는 시사시보사를 운영하는 등 언론인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밖에 민주당 창당위원, 신대한건설협회 부회장, 한족회 부회장, 3·1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한중협회 중앙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였다. 말년에는 천도교로 돌아와 1955년 1월부터 7년간 부교령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 최고 예우직인 종법사에 추대되었다. 1960년에는 민의원에 당선 정계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²⁾

이처럼 이병현은 수원과 서울을 넘나들면서 종교인, 민족운동가,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병현과 관련된 자료는 아직 집적된 것이 없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³⁾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없지 않았을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관련된

1) 이러한 공로로 이병현은 1993년 8월 15일 정부에서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하였으며, 1995년 10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2) 성주현, 「신앙보국의 화신 이병현(李炳憲)」, 『신인간』 575, 1998.7, 80-85쪽.

3) 이병현과 관련된 자료는 『천도교회월보』.

인물로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는 분산된 조각조각의 자료를 모아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의 복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병헌의 민족운동의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천도교 입교와 수원교구

이병헌은 동학혁명이 막을 내린 이듬해 1895년 11월 20일 아버지 李敏道와 어머니 남원 양씨의 4대 독자로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445번지에서 태어났다.⁴⁾ 본관은 함평, 도호⁵⁾는 梧菴, 필명은 石雲이었다. 그가 태어난 권관리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서해안과 마주하는 마을 끝에는 닭 머리를 닮은 鷄頭峯, 마을 뒷편에는 玉女峯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이 두 봉우리는 3·1운동 당시 평택지역에서 최초로 횃불을 올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한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이 태어난 곳은 진위군 현덕면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에 속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중심지는 안중이지만 수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수도권과 더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이병헌의 아버지 이민도는 원래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였지만 28세 되던 해 동학에 입도하였다.⁶⁾ 수원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시기는 1874년으로 1870년대 중반이었다. 이 시기 호남인으로 알려진 안교선의 포교로 안승관, 김정현 등이 동학에 입교하면서 수원지역에서 동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⁷⁾ 이민도는 수원지역에 동학이 포교된 지 5년 후인

4) 「함평이씨 대동보」.

5) 道號는 천도교인에게 내려주는 號이다.

6) 「환원일숙」, 『천도교회월보』 127, 1921.3, 118쪽.

7) 「수원군총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1926.11, 29쪽.

1879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이 시기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입도한 동기는 시천주의 인간존중과 척양척왜의 보국안민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민도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학에 입도한 이민도는 진위와 수원 등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1년 뒤인 1880년 접주로 임명되었으며, 1893년 척양척왜를 기치를 내세운 보은집회에 신용구와 함께 수원지역 동학교인들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4년 동학혁명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혁명 당시 기호대접주 안승관을 비롯하여 김정현, 김원팔 등이 수원지역에서 기포한 바 있는데, 척왜양을 기치로 한 보은집회에 참가한 이민도 역시 동학혁명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후 이민도는 수원교구를 설립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진위군 현덕면 종리사에 선임되는⁸⁾ 한편 1912년 4월 15일부터 3년간 전개한 49일 특별기도에 참가하였다. 이민도는 수원교구장으로 활동하던 1913년에는 북수리에 40여 칸의 교당을 마련하였다.⁹⁾ 당시 마련한 교당은 정조가 수원에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국의 부호를 유치할 때 지은 유서 깊은 8부가 중의 하나였다.¹⁰⁾

이외에도 이민도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때 3월 22일 진위군 현덕면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예비검속을 당하였다.¹¹⁾ 이민도는 봉훈, 교훈, 교구장 등으로 활동한 후 1921년 2월 14일 71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¹²⁾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현은 16세 때인 1911년 6월경 수원교구 제544 강습소에 입학하여¹³⁾ 근대적 학문과 중

8)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31쪽.

9) 수원교구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군 북수리 343번지였다.

10) 수원교구의 규모는 瓦家 40칸이었다.

11) 이병현,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880쪽.

12) 「환일일숙」, 『천도교회월보』 127, 1921.3, 118쪽.

교적 소양을 쌓았다. 당시 천도교에서는 근대적 교육의 하나로 전국의 지방 교구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였다.¹⁴⁾ 교리강습소는 본과는 3년, 특별과는 2년, 속성과는 3개월 과정인데, 이병헌은 속성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이병헌이 수업한 속성과는 ‘천도의 진리’, ‘교육의 원리’, ‘교수법’, ‘학교관리법’ 등 천도교 교리과 학교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수하였다.

제544 강습소를 수료한 이병헌은 이듬해 1912년 6월 22일 중앙총부에서 모집한 제1회 종학강습소 고등과에 입학하였다.¹⁵⁾ 종학강습소는 “지방의 고등 강생을 모집 교수하여 종리의 發闡을 기도하며 또한 각지 강습소의 교수할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병헌이 입학한 고등과는 6개월 과정으로 敎書, 作文, 講解 등 3개 과목을 수학하였다.¹⁶⁾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종학강습소를 마친 이병헌은 수원교구로 돌아와 종교인으로 활동하였다. 1915년 4월 수원교구 현덕면 전교사로 첫 선임된¹⁷⁾ 이병헌은 이후 1916년에는 공선원,¹⁸⁾ 1917년에는 전제원,¹⁹⁾ 1918년에는 금융원,²⁰⁾ 그리고 다시 전제원으로 활동하다가 1919년 1월 교역자 활동을 그만두었다.²¹⁾ 이병헌이 수원교구에서 활동을 그만 두게 된 배경은 당시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손병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병헌은 1914년 수원교구를 복수리로 이전하고 입주식을 가질 때 처음으로 손병희를 만났다. 입주식 때 이병헌이 사회를 보았는데,²²⁾ 손병희가 그를 재목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만남을 계기로 이병헌은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13) 『천도교회월보』 12, 1911.8, 65쪽.

14) 『천도교강습소규정』, 1911; 『천도교강습소규정 부 소칙』, 『신인간』, 621, 2002.5, 104~111쪽 참조.

15) 『학사일반』, 『천도교회월보』 24, 1912.7, 39~40쪽.

16) 『중령 제94호』; 이동초 편지, 『천도교회총령존안』, 모시는사람들, 2005, 187~188쪽.

17) 『천도교회월보』 58, 1915.5, 43쪽.

18) 『천도교회월보』 76, 1916.11, 36쪽.

19) 『천도교회월보』 82, 1917.5, 44쪽.

20) 『천도교회월보』 90, 1918.1, 43쪽.

21) 『천도교회월보』 102, 1919.2, 64쪽.

22) 『수원교회 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 1936.12, 37쪽.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점 이후 유지하여 오던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정책상 변경하였다. 문화정치는 한국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것이며 일제의 식민통치의 근본 목표인 동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였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이러한 문화정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언론·출판·교육·결사·산업·문예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흐름에 천도교 청년들은 천도교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문화운동에 동참하였다.²³⁾

3·1운동 이후 교단의 내적 위기와 사회상황의 변화에 교단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처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9월 2일 정도준, 손재기, 박달성, 박용희, 황경주, 김옥빈, 박래홍, 최혁 등의 발기²⁴⁾와 교단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교리의 연구 및 선전, 조선의 문화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天道敎靑年敎理講研部를 발족시켰다. 강연부는 지방 교구를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²⁵⁾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²⁶⁾ 그리고 이듬해 1920년 4월 25일 강연부를 天道敎靑年會로 명칭을 개정하였고,²⁷⁾ 지방에서는 지회를 조직하였다.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병헌은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병헌은 강연부가 청년회로 명칭을 변경한 직후 1920년 4월경 홍종각, 이연숙, 김유경 등과 함께 수원지회를 조직하였고, 초대 지회장으로 선임하였다.²⁸⁾

이병헌은 수원지회 설립 후 첫 사업으로 5월 17일 천도교청년회 중앙에

23) 천도교의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주현, 「천도교청년당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9를 참조할 것.

24) 閔泳純, 「天道敎六十一年年譜」, 『天道敎會月報』 통권 116호, 1920. 4, 32면.

25) 講研部 支部는 지방교구가 조직된 곳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1919년 11월까지 鎭南浦, 晋州, 定平, 博川, 淸州, 江東, 三登 등 10개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부원 500여 명에 달하였다. (『天道敎會月報』 통권112호, 1919. 12, 41면)

26) 趙基榮, 「天道敎靑年黨一覽表」,

27) 「天道敎靑年敎理講研部의 名義改定」, 『天道敎會月報』 통권 117호, 1920. 5, 114면.

28)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敎會月報』 통권 191호, 1926. 11, 30면.

서 활동하는 박용회, 이돈화, 박사직 등을 초청하여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5, 6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²⁹⁾ 이어 이해 11월에는 역시 중앙의 협조와 강사 유희준의 열성으로 교리강습회를 설치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1920년부터 1921년까지 이병헌이 지회장으로 있는 동안 수원지역의 순회강연, 특별대강연회, 각종 강습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³¹⁾ 이후 수원지회 지회장을 그만둔 이병헌은 중앙으로 진출해 天道教中央總部 1921년 12월에 대종사 종법원, 1922년 9월에 경리과 종리사로서 활동하였다.³²⁾

1925년 들어 교단이 구파와 신파로 분화됨에 따라 천도교청년회도 구파 계열의 天道教青年同盟과 신파계열의 天道教青年黨으로 각각 분화되었다. 수원지역의 천도교는 구파계열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병헌은 구파에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에서 활동하였고,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선 이병헌은 1927년 8월 11일 오후 8시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부를 조직하는데 앞장섰으며, 이날 박영호, 박완일 등과 함께 위원³³⁾과 상무로 선출되었다.³⁴⁾ 이듬해 1928년 2월 5일에 개최된 경성부 임시대회에서 임원을 개편할 때 집행위원으로, 이어 4월 6일 천도교청년총동맹을 결성할 때는 전형위원과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³⁵⁾ 그리고 1928년 4월 천도교청

29) 「中央總部彙報」, 『天道教會月報』 통권 118호, 1920. 6, 102면.

30)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 통권 191호, 1926. 11, 30면.

31) 「各支會의 狀況一覽」, 『天道教青年會會報』 제3호, 1921. 12, 16면(『韓國思想』제16집, 韓國思想研究會, 1978).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昨年 二月 七日 本郡 地方各處에 巡迴講演을 行함.
一. 昨年 四月 十五日 本大教區 內에 特別大講演會를 開함.
一. 昨年 八月 五日 本郡 地方 各處에 巡迴講演을 行함.
一. 今年 一月 四日 本支會에서 講習會를 開催함.
一. 同年 三月 三十一日 講習會 終了되는 授與式을 舉行하니 會員 總數 二十五人.”

32) 「천도교중앙총부 직원록」.

33) 「天道教青年同盟 京城支部組織ノ件」, 京鍾警高秘 第8914호, 1927년 8월 14일.

34) 「천도교회월보」 202호, 1927.9, 27쪽.

35) 「천도교회월보」 208호, 1928.5, 49~50쪽.

년총동맹 경성동맹으로 개편할 때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⁶⁾

또한 이병헌은 경기도연맹을 결성하는데도 적지 않은 활동을 하였다. 이병헌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성동맹을 비롯하여 수원동맹, 시흥동맹 등을 규합하여 1929년 5월 30일 경기도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병헌은 대표로 선임되었다.³⁷⁾ 뿐만 아니라 1930년 12월 20일 개최된 제3회 천도교청년동맹 정기대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기도 하였다.³⁸⁾ 이어 12월 25일 개최된 청년동맹 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신파 천도교청년당과 합동을 위한 위원으로 선정되었다.³⁹⁾ 1931년 2월 16일 구파계열의 천도교청년동맹과 신파계열의 천도교청년당이 합동하여 天道教靑友黨을 창립하자 이병헌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⁴⁰⁾

이로써 이병헌은 경성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청년동맹의 대표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중앙 조직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31년 신파와 구파가 다시 분화됨에 따라 이병헌은 구파의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금융관과 전제관에서 종무원으로 활동하였다.⁴¹⁾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병헌은 아버지로부터 동학적 삶의 영향을 받아 교리 강습소와 종합강습소를 수료하였고, 이후 수원교구와 청년회 수원지회, 천도교청년동맹 경성동맹, 그리고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교역자로서 활동하였다.

36) 『천도교회월보』 209호, 1928.6, 25~26쪽.

37) 『중앙휘보』, 『천도교회월보』 222, 1929.6, 38쪽; 『天道教靑年同盟京畿道聯盟組織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7145號, 1929년 6월 1일.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도내 대표는 광주 한순희, 양주 윤원세, 포천 조규원, 수원 이연숙, 홍종각, 윤준흠, 용인 송재문, 시흥 최재원, 진위 박규희, 경성 박양신, 주중석, 이윤의, 김상집 등이며, 그리고 검찰위원회에는 경성 유한일, 강화 강세희, 인천 이기정 등이 선정되었다.

38)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17914號, 1930년 12월 22일.

39)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18199號, 1930년 12월 26일; 『天道教靑年總同盟通文郵送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62號, 1931년 1월 6일.

40) 『天道教靑友黨通文郵送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2008호, 1931년 2월 21일.

41) 『천도교회월보』 269호, 1934.3, 32~33쪽; 『천도교회월보』 291호, 1936.9, 38쪽; 『천도교회월보』 295호, 1937.5, 38쪽.

3. 3 · 1운동 참여와 ‘제암리학살사건’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보성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하게 된 이병헌은 3·1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병헌은 1919년 2월 27일 밤 10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이를 가마니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석탄을 담아 석탄가마니로 위장하였다. 그리고 신숙과 함께 이종일 보성사 사장의 집으로 운반하였다.⁴²⁾ 당시의 상황을 이병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2월 27일 오후 10시 독립선언서의 인쇄가 끝나자 박동 오모(博洞 吳謀)씨 집에 운반하기로 하였으나 오모는 돌연히 거절하므로 慶雲洞 88번지에 신숙 증인 천도교당 기지로 운반할 때 때마침 전기고장으로 전등이 꺼져 전 시가가 암흑세계로 화하였다. 안국동, 재동 두 파출소 앞을 무사히 지나 목적지에 왔었다.⁴³⁾

이병헌은 신숙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옮길 때 다행히 정전이 되어 무사히 이종일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는 당일 이병헌은 손병희를 따라 민족대표 33인이 모이기로 한 태화관 현장에 참석하였다. 원래는 민족대표들이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소를 태화관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태화관은 전일 민족반역자 李完用이 거주한 집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일본인 이등박문과 밀의하던 장소이며 서기 1907년 7월 17일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케 한 음모도 이 장소에서 했고 合邦條約 준비도 이 집에

42) 신숙, 『나의 일생』, 일신사, 1956, 48쪽.

43) 이병헌, 『日誌中 독립선언서 배포』,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1959, 64~65쪽.

서 모의하였다”⁴⁴⁾라고 하였다. 이병헌의 이러한 인식은 민족반역의 장소를 독립선언의 장소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병헌은 학생 대표인 이규갑과 같이 탑골공원의 연락책으로 활동하였다. 33인 민족대표들이 피체된 이후에는 남대문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어 3월 3일부터 5일까지 만세시위대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면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이병헌은 종로경찰서로부터 검거령이 내려졌다.⁴⁵⁾ 이에 이병헌은 3월 15일을 전후하여 자신이 활동하였던 수원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수원에 내려온 이병헌은 수원교구에서 3·1운동을 논의하였고, 수원지역에서 3·1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병헌은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수원에서도 만세운동과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날(3월 16일-필자) 오후 11시경 북수리에 있는 천도교에서는 때 마침 날이었는데 서울서 연락차 내려온 李炳憲이 교구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교인이 집합하여 서울의 정세를 듣고 앞으로 독립운동비를 부담할 것을 의논하던 중 소방대와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消防用) 갈구리와 팽이를 가지고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구타하였다. 이때 부상자 중 金正談씨는 노인이라 경상만 당하고 金正模씨가 나가서 무슨 일인가 질문하다가 중상을 입었는데, 부상자는 안중환, 안중린, 홍종각, 김상근, 이병헌씨이었다.⁴⁶⁾

이병헌은 3월 16일⁴⁷⁾ 밤 수원 수원교구에서 교구장 金仁泰, 이문원 安政玉, 전제원 金正淡, 강도원 羅天綱, 순회교사 李星九·安鍾麟, 전교사 洪鍾珩·安鍾煥 등 주요 교역자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할 것과 천도교에서 전개

44) 이병헌, 「日誌中 독립선언서 배포」, 『3.1운동비사』, 65쪽.

45)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 2, 1946. 서울신문사, 72쪽.

46) 이병헌, 『3·1운동비사』, 868쪽.

47) 「수원군종리원 연혁」에는 3월 31일로 기록되어 있다.

하고 있는 만세운동 자금을 수원교구에서도 부담할 것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모임에서는 천도교의 최고책임자이며 민족대표인 손병희가 일경에 피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5일 서울로 올라가 구출하려는 비밀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⁴⁸⁾

수원교구에서 이병헌이 중심이 되어 만세시위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정탐한 일제 측의 소방대는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 갈고리와 팽이 등으로 교구를 난입하는 한편 교인들을 마구 구타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김정담·김정모·안중환·안종린·홍종각·김상근 등과 함께 중경상을 입었다.⁴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병헌은 수원과 진위 경찰서에서 계속 추적을 하자 수원교구에서 활동할 때 절친하게 지냈던 향남면 제암리 金學敎의 집에서 숨어 지내면서 치료를 하였다.⁵⁰⁾ 이병헌이 김학교의 집에 머무는 동안 우정면과 장안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시위에서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가 불타버렸고, 화수리주재소의 일본인 순사부장 川端豊太郎을 참살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수비대를 동원, 우정면과 장안면 일대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보복을 자행하였다.⁵¹⁾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우정면과 장안면 마을을 보복한 수비대는 향남면 제암리로 몰려왔다. 4월 15일 12시경 佐板는 有田를 앞세우고 제암리를 완전히 포위한 후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佐板는 ‘할 말이 있으므로 교회로 전원 다 모이랴’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병헌은 탈출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주민들은 金學敎의 집에 숨어 있던 이병헌에게 통역을 부탁하였으나 이병헌은 자신도 검거될 상황이라

48)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 -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349면.

49) 이병헌, 『3·1운동비사』, 868면.

50)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2, 72쪽.

51) 이와 관련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우정·장안면을 중심으로」, 『경기사학』7, 경기사학회, 2003을 참조

하는 수 없이 거절하고 뒷산에 숨어서 동태를 파악하였다.⁵²⁾ 이때 제암리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이 지역에서 본 참상을 목격한 이병현은 훗날 ‘水原事件’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상황을 이병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략) 金學校氏宅에 숨어서 탈출을 준비하고 있던 중 4월 15일 정오에 발안장터 경찰관주재소에서 제암리에 와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에게 오후 한시를 위하여 수원수비대가 打습할 말이 있으니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당시 교인들이 필자를 보고 통역을 요구하였으나 필자는 자신이 체포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安政玉씨의 안내로 뒷산에 숨어서 그 동정을 감시하였던 바, 예배당 정문 앞에 日兵과 倭奴 佐板才吉이가 섰는데 순한 양과 같은 교인들은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문 앞에 섰던 일병은 총 길이로 사람 키를 비교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아버리고 석유를 뿌리고 교회에서 방화를 하고 생화장을 하는 친인이 공모할 참극을 연출시켰다. 그 중에 홍순진씨가 뛰어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넘어졌다.⁵³⁾

제암리에서 탈출한 이병현은 마을 뒷산에서 ‘제암리학살사건’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였는데, 이병현이 제암리학살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1926년 「수원군종리원 연혁」이었다. 「수원군종리원 연혁」에는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월 15일에 本區 管內 鄉南面 堤岩里傳敎師 안중환 외 김홍렬, 김기훈, 김기영, 안경순, 김성렬, 홍순진, 안종린, 김세기, 안응순, 안상용, 안정옥, 안중

52) 이병현, 「수원사건」, 『신천지』2, 72면.

53) 이병현, 「수원사건」, 『신천지』통권2호, 서울신문사, 1946.3, 72쪽.

형, 안중화, 김세열, 안자순, 안호순 제씨는 그곳 즉 야소교당에서 무고히 교의 혐의로 燒殺을 당하고 곳곳마다 심한 고초가 있었다.⁵⁴⁾

이 두 기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고자 한다.⁵⁵⁾ 뿐만 아니라 이병헌은 팔탄면 고주리에서 있었던 김홍렬가의 학살사건도 함께 기록하였다.

그 隣洞(고죽골) 天道敎인 金興烈氏 집으로 가서 金聖烈, 金世烈, 金周男, 金周業, 金興福 等 六人을 逮捕하여 結縛하여 놓고 錠단과 나무로 덮어놓고서 石油을 뿌리고 또 生火葬을 하였다.⁵⁶⁾

이병헌이 제암리에서 목격하고 기록한 ‘제암리학살사건’은 이병헌 자신이 기록한 것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⁵⁷⁾ 제암리학살사건을 조명 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학살된 희생자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이외에도 이병헌은 3·1운동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3·1운동비사』를 남겼는데, 역시 3·1운동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54) 「수원군종리원 연혁」, 『천도교회월보』 191, 30쪽. 그런데 「수원사건」과 「수원군종리원 연혁」의 기록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55) 사실 이외에도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은 많다. 기회가 있으면,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56) 이병헌, 「수원사건」, 『신천지』통권2호, 서울신문사, 1946.3, 81면.

57) 한편 「제암리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이병헌은 『3·1운동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의 학살사건은 천인이 공로(天人共怒)할 잔인무도한 사건이다. 수원읍에 주재하고 있는 수비대는 4월 15일 발안 장날을 이용하여 발안주재소 순사를 앞장세워 가지고 제암리로 가서 좋은 말을 한다는 구실로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을 야소교 예배당으로 집합하라고 권유한 후 야소교인과 천도교인이 예배당으로 집합할 때 정문 앞에서 수비대는 오는 사람마다 키를 재어서 총 길이보다 적은 아이는 돌려보내고 큰 사람은 이우여하를 불문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놓고 예배당에 불을 놓아 생화장을 하였다. 이대 그 비절참절한 것은 목불인견이었다. 그중에서 홍순진은 밖으로 뛰어나오다가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58) 「제암리학살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4. 신간회 경성지회 조직과 활동

1927년 2월 15일 신간회가 결성되고 지방에서는 지회가 설립되었다. 경성에서도 1927년 5월 25일 30여 명이 조선교육협회에 모여 신간회 경성북부지회 설치준비회를 개최하였다. 경성북부지회 설치에 천도교 구파에서도 적극 참여하였는데⁵⁹⁾ 이병헌은 오상준, 박완, 최준모, 김영륜, 박양신, 이황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신간회본부가 경성에 지회를 하나만 둔다는 결정에 따라 경성북부지회는 6월 3일 경성지회 설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병헌은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⁶⁰⁾ 이병헌 등 신간회 경성지회 준비위원들은 6월 10일 하오 8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설립대회를 갖고 경성지회를 설치하였다. 이날 설립대회에서 이병헌은 간사로 선출되었다.⁶¹⁾

이어 신간회 경성지회는 6월 15일 오후 10시 관수동 본부회관에서 제1회 간사회를 열고 서무부, 재무부, 정치문화부, 조직부, 선전부 등 5개 부서로 나누고 총부간사 5명을 선출하였다.⁶²⁾ 또한 이날 간사회에서는 설립대회에서 선출된 간사 중 김정기, 조완숙, 황신덕, 이시완 등 4명이 제출한 사임서를 수리하였고 이병헌, 이원혁, 이병의, 김홍진 등 4명을 간사 보선 전형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간사 후보에는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권태열, 김응집, 이창휘, 김상진 등 8명이 추천되었고 이들 중 이춘숙, 이용흡, 이관구, 신현익 등 4명이 간사에 선출되었다.

59) 조규태,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238~239쪽.

60) 「신간회의 경성지회, 북부지회를 경성지회로 설치 준비」, 『중외일보』 1927년 6월 3일자; 「확충되는 신간회 경성지회 설치」, 『조선일보』 1927년 6월 3일자.

61) 「신간회 경성지회 10일 밤에 설립대회」, 『중외일보』 1927년 6월 12일자; 「신간회 경성지회 성황리 발회」, 『조선일보』 1927년 6월 12일자.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韓龍雲, 부회장 許憲, 간사 이원혁 김홍진 박의양 정철성 이병헌 김항규 강인택 홍기문 이황 이병의 이시완 이희춘 김정기 김영윤 박완 김익동 김동혁 이갑준 박영태 강상희 박일 김인수 조원숙 신현구 황신덕.

62) 「신간회 경성지회 간부 부서 작성」, 『조선일보』 1927년 6월 18일자.

이외에도 이날 간사회에서는 신간회 경성지회 약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⁶³⁾ 다음날 16일 오전 11시 본부 회관에서 개최된 총무간사회에서는 상무간사를 선출하고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병헌은 이날 총무부 상임간사에 선정되었다.⁶⁴⁾ 이로써 신간회 경성지회는 설립대회를 개최한 지 7일 만에 조직이 완료되었다.

경성지회는 10월 29일 오후 1시 안국동 범어사 포교소에서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병헌이 상무간사로 있는 총무부는 8월 11일부터 말일까지 회원 방문 및 회비 징수의 건, 회원 김동철 탈회의 건, 지회 규칙 수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중앙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일임하였다.⁶⁵⁾ 이 보고에 의하면 이병헌은 상무간사로서 회원 방문, 지회 규칙 수정과 그리고 중앙고등보통학교 맹휴사건 조사 등 총무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병헌은 1927년 12월 10일 개최된 정기대회에서 임원진을 개편할 때 간사 등 주요 직책에 선정되지 못하였다. 천도교구파에서는 이병헌이 빠지는 한편 신태순, 손재기 등이 새로 참여하였다. 이로부터 1년여 후 제3회 임시대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3회 임시대회는 1929년 1월 20일 오후 2시 15분 천도교기념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병헌은 전체 참가자 중 55표를 획득하여 간사로 선출되었다.⁶⁶⁾ 이어 1월 23일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이병헌이 참석하여 기존의 조직인 '선전부'를 '조사연구부'로 개편하는데 적극 찬성하였다.⁶⁷⁾

63) 「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件」, 京鍾警高秘 第6701號-1, 1927년 6월 16일.

64) 「新幹會京城支會總務幹事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6833호, 1927년 6월 17일.

이날 간사회에서 선정된 부서별 간사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 : 총무간사 김영륜, 상무간사 김홍진 이병헌 김인수, 재정부 : 총무간사 이용흙, 상무간사 이갑준 박익, 정치문화부 : 총무간사 이춘숙, 상무간사 이관구, 조직부 : 총무간사 김항규, 상무간사 신현익, 선전부 : 총무간사 이원혁, 상무간사 이황 김동혁 정칠성.

65) 「新幹會京城支會幹事會二件」, 京鍾警高秘 第12237호, 1927년 10월 30일.

66) 「新幹會京城支會第三會臨時大會續會二件」, 京鍾警高秘 第642-1號, 1929년 1월 21일.

67) 「新幹會京城支會ノ幹事會ニ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818號, 1929년 1월 24일.

경성지회는 신간회본부의 정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본부는 2월 초 3월 19일과 20일 정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3월 9일 오후 7시 50분 경성지회회관에서 정기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대다수가 경성지회 회원들이었다. 이병헌도 대회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접수부 위원이었다.⁶⁸⁾ 이병헌은 경성지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가능하면 간사회에 참석하였다. 1929년 4월 11일 개최한 임시간사회에서는 부회장 김항규, 총무간사 민중식, 간사 김용기를 선출하는데 적극 의사를 표현하였다.⁶⁹⁾

한편 1929년 3월19일과 20일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신간회 정기대회가 당국으로부터 불허되자 경성지회는 4월 11일 임시간사회를 열고 수개의 인접지회에서 공동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개최하자는 복대표대회안을 제기하였다.⁷⁰⁾ 이에 따라 경성지회도 7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체제로 간무를 인선하기 위해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시대회에서 조병옥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병헌은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⁷¹⁾ 이어 7월 23일 개최된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조직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⁷²⁾ 뿐만 아니라 1930년 1월 23일 개최한 경성지회 임시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병헌은 본부 회관 건립, 회보 발행, 도연합회 조직, 도내 지회 확장, 반조직, 회원 교양, 회비 징수, 공제부 설치, 차가인 문제, 각 단체 연락 등 안건을 다룬 바 있다.⁷³⁾

이외에도 이병헌은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930년

68) 「新幹會大會準備委員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2951호, 1929년 3월 11일.

대회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 : 김인수 김세진 김진태, 용도부 : 이원혁 홍명희, 집대부 : 박명환 박양신 박한경 박완 홍봉유 이청범 이병헌 조현영 김원석 정철성 박호진 정현태 이기홍, 설비부 : 장수창 김응집 민중식 최성원 손재기, 선전부 : 박천 김성수 조현식 조병옥 안재홍.

69) 「新幹會京城支會臨時幹事會二關スル件」, 京鍾警高秘 第4681호, 1929년 4월 12일.

70) 「신간회경성지회 임시간사회회의」, 『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자.

71) 「신간회 경지대회」,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자.

72) 「신간 경지 부서 결정」, 『조선일보』 1929년 7월 26일자.

73)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998號, 1930년 1월 23일.

6월 경성지회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병헌은 이황, 이민행, 김세진 등과 함께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어 기념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⁷⁴⁾ 그리고 기념식이 있는 당일 여흥부 책임을 맡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⁷⁵⁾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친 이병헌은 기념식 후 개최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그동안 맡아오던 교육부⁷⁶⁾에서 서무부로 교체되었다.⁷⁷⁾

이병헌은 경성지회뿐만 아니라 신간회본부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28년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순회강연을 시작하였다. 각 지역별 순회강연에서 이병헌은 이종린과 함께 함경도 지방을 담당하였다. 이때 이병헌은 강연내용이 불순하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⁷⁸⁾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민중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에 12월 14일 안국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민중대회를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
2. 시위운동을 할 것.
3. 다음과 같은 표어로서 민족적 여론을 환기할 것
 - (ㄱ) 광주사건의 정체를 폭로하자.
 - (ㄴ) 경찰의 학교 유린을 배격하자.
 - (ㄷ) 포악한 경찰정치에 항쟁하자.⁷⁹⁾

74)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8253號, 1930년 6월 3일.

75)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8454호, 1930년 6월 5일.

76) 「신간 경지 상무각부임원 결정」, 『중외일보』 1930년 4월 20일자.

77) 「集會取締狀況報告」, 京鍾警高秘 第8815호, 1930년 6월 11일.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169쪽.

78)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169쪽.

79) 「7개항의 슬러건, 12인이 결의 서명」, 『조선일보』 1930년 9월 7일자.

그리고 격문으로 “來하라. 형제여, 자매여, 광주대연설회. 我等의 자질이 희생되는 것을 목시키 불능하다”를 채택하고 각 지회에 우송하였다. 학생들이 12월 9일 쫓기하자 일제는 신간회본부를 찾아와 민중대회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간회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일 민중대회는 분산시켜 진행되었는데, 이병헌은 조병옥과 함께 안국동 네거리에서 민중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일제는 민중대회 하루 전인 12월 13일 신간회본부를 급습하여 신간회 임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병헌은 안국동 네거리에서 가지려고 하였던 민중대회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⁸⁰⁾

이로 볼 때 이병헌은 3·1운동과 신간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종교인으로써 삶을 추구하였다.

5. 종교인으로서의 이병헌

이병헌은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평소 겸손하였던 그는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보다는 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해야 할 일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은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다. 자신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교회적 사회적인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일지(日誌)로 남겼으나 불행하게도 분실되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천도교회월보』에 종종 기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그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특히 교단이 친구파로 분류에 휩싸이자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병헌은 항상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철저한 종교인이기를 원했

80) 이승복, 「신간회소사」, 『한국일보』 1958년 8월 11일자; 이병헌, 「신간회운동」, 『신동아』 1969년 8월호;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184쪽.

다. 더욱이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람은 신앙심이 없어짐에 따라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도 역시 파멸상태에 빠진다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견고하기도 한이 없고 미약하기도 한이 없으므로 견고함으로써 집심(執心)이 되면 근본심주(根本心柱)가 자리를 잡게 되니만치 밖으로부터 침입이 있을수록 더욱 견고하여져서 만효불발이 되며, 미약함으로써 방종을 하게 되면 근본 마음이 위치를 잃게 되므로 이성 목적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앙심과 각비심이 없으면 탈선된 그 마음이 한없이 방종에 빠져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사람은 “종교의 신앙, 도덕의 주의에 입각해야 탈선 방종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으며 인생 생활상으로도 반드시 종교생활을 아니 할 수 없는 것”⁸¹⁾이라고 단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병헌은 철저하게 종교적 수양을 닦았다.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1933년 3월 10일 최계우 순도일을 맞아 49일 특별기도를 할 때의 일이다.

이번 기도 중 기차 안에서 청수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기차가 수원 군포장 사이를 통과할 때인데 식당차에 가서 청수를 얻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뽀이(심부름하는 소년)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묻고 제일 먼저 종지와 유리곱부(유리컵)에 냉수를 갖다 주는 것이 한 예가 됩니다. 그 청수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약 십분 동안은 되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목욕을 하는 동안에 뽀이뿐이라, 그때 마침 만주출병으로 인하여 군인도 식당에 다수였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나보고 종교신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서슴치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⁸²⁾

81) 石襄, 「생각나는 대로(독자논단)」, 『천도교회월보』 235호, 1930.7, 27~29쪽.

82) 오암, 「공동식사가 곤란」, 『천도교회월보』 264호, 1933.3, 16~17쪽.

이처럼 신앙의 규제가 몸에 철저하게 밴 이병헌은 ‘기도는 영통이나 도통보다는 정신통일로 규모일치를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어디서든지 모든 교인이 기도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병헌 자신도 감상적인 신앙인이기보다는 투철한 종교인이기도 했다. 단순히 종교적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병헌은 종교적 수양을 위하여 주문과 기도를 주로 생활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음의 쓸데없는 공상은 수양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상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급할수록 천천히 하여야 하고 어려울수록 참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주문을 많이 읽기를 권하였다. 즉 생활에서 노여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주문을 항상 읽으라고 강조했다. 주문을 만 번 읽으려면 한 시간 내에 천 번씩 열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 열 시간이 비록 지루하거나 짧게 느껴지기도 하나 결국 마음의 병, 즉 공상이라든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실례를 다음과 같이 하나를 들었다.

수년 전 어떤 교인 한분이 오셔서 교를 믿은 지 수십 년이라도 아무 소용도 없으니 그만 두겠다고 하여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을 듣고서 그 때 나는 얼른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그만 두시겠다면 그만 두실 것이나 이왕지사 일 끝치는 것이니 나하고 청수 한 번 더 모시고 주문 만 번만 더 읽고 그만 두시오’ 하였다. 그는 그러면 입교할 때도 청수를 모시고 교를 믿겠다 하였으니 그만 둘 때도 청수를 모시고 그만 두겠다 하느냐고 반문한다. 나는 ‘그러하는 것이 원리라’고 하였다. 그는 청수를 모실 때는 반드시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 때의 그의 표정으로 보아 알 것이다. 주문 만 번을 읽고 나더니 한 번 웃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잘못으로 생각하였다’ 하므로 나는 한 번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만 두겠다고 심고하고 주문을 읽는 동안 꼭 다시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아니 하겠다는 것이 자꾸 나옴으로 마음은 점점 단단하여져서 다 시는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고 힘을 들었다.⁸³⁾

이러한 일화처럼 이병헌은 평소에도 주문을 일만 번씩 읽었을 만큼 철저한 종교인이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이병헌은 한말 경기도 진위(현 평택)에서 출생하였지만 수원을 기반으로 일생을 천도교인으로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일생을 천도교와 민족운동에 매진한 이병헌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병헌의 활동무대는 수원이었다는 점이다. 이병헌은 한말 경기도 진위군 현덕면에서 출생하였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청년기는 수원에서 활동하였다. 이는 이병헌이 태어난 현덕면은 그 생활권이 수원이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이민도도 동학에 입도한 이후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원지역 동학교인을 이끌고 보은 척왜양창의운동과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후 수원교구장을 비롯하여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병헌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수원교구에서 설립한 강습소에서 근대적 교육과 종교적 소양을 쌓았으며, 이후 수원교구 임원으로 적극 활동하였고, 이후 청년회를 조직하여 수원지역 청년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83) 石龔, 「여러 동무들에게」, 『천도교회월보』 207호, 1928.3, 24~25쪽.

둘째, 동학 및 천도교인으로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병헌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동학의 영향을 받아 이병헌은 천도교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손병희의 부름을 받은 이병헌은 독립선언서를 운반하고 3월 1일 당일에는 태화관과 탑골공원과의 연락책으로, 그리고 만세시위 등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 또한 수원으로 피신하여서도 수원지역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제암리학살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남긴 기록은 '제암리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었다고 본다. 또한 이병헌은 천도교 구파에서 신간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경성지회 설립부터 참여하여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병헌이 이처럼 3.1운동과 신간회 등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의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버지 이민도는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인 보은의 척왜양창의운동과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던 사실은 그로 하여금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동기로 판단된다.

셋째, 철저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동학적 삶은 그를 평생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계대교인으로서 이병헌은 아버지를 이어 수원교구에서 교역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하여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처럼 이병헌의 종교인의 삶은 천도교의 종교적 수양에서 비롯되었다. 앞선 일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병헌은 늘 종교적 수양을 위해 기도와 주문, 그리고 수련을 생활화하였다.

이로 볼 때 이병헌은 계대교인으로서 천도교에 입교한 이후 일생을 종교인으로써, 그리고 민족운동가로서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병헌은 서세동점기와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태어났다. 일찍이 동학에 입도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계대교인으로 동학사상을 수용하여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학의 민족주의사상에 따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릴 적 수원에서 생활한 이병헌은 천도교 수원교구에서 주요 교역자로서 활동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초에 천도교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진출한 이후 3·1운동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였고, 일제의 검거령을 피해 수원으로 피신하였다가 수원지역 3·1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제암리학살사건을 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7년 2월 신간회가 결성되자 경성지회 설립준비위원 및 총무간사를 맡아 설립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조직부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 그의 활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이병헌의 활동무대는 수원이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동학 및 천도교인으로서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셋째는 철저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동학적 삶은 그를 평생 종교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계대교인으로서 이병헌은 아버지를 이어 수원교구에서 교역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천도교중앙총부로 진출하여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처럼 이병헌이 종교인의 삶은 천도교의 종교적 수양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볼 때 이병헌은 계대교인으로서 천도교에 입교한 이후 일생을 종교인으로써, 그리고 민족운동가로서 압축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다.

* 주제어 : 동학, 천도교, 3.1운동, 신간회, 수원, 제암리

Life and Racial Movement of Byung-heon Le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Sung, Ju-hyeon

Byung-heon Lee was born the following year of the period of forces in the west to the east more a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fluenced by his father who entered Donghak, he accepted Donghak theories as a succeeding believer and pursued the life as a man of religion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acial movement according to nationalism of Donghak. Byung-heon Lee, who spent his childhood in Suwon, worked as a main religious worker at Cheondogyo Suwon Diocese during his adolescence. In the beginning of 1919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he was called by Uiam Byeong-hui Son, who was the third head of Cheondogyo, and experienced the site of the Movement himself in Seoul. He escaped to Suwon from the arrest of Japanese and then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Suwon area. On the other hand, he witnessed Jeam-ri Massacre. Moreover, as Singanhoe was formed in February 1927, Byung-heon Lee created foundation funds as a member of preparatory committee and an assistant administrator of Gyeongseong Assembly and also worked as an assistant administrator of general affairs of the organization.

His activit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Byung-heon Lee

mostly worked in Suwon area. Second,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racial movement as a member of Donghak and Cheondogyo. Third, he lived a life as a strict religious man.

Byung-heon Lee's life of Donghak that he got from his father built the foundation to live as a religious man and a believer for his whole lif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fter entering Cheondogyo, Byung-heon Lee spent his life as a succeeding religious man and experienced the tough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s a racial activist.

* Keywords : Donghak, Donghak Peasant Revolution, Cheondogyo, Suwo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Singanhoe

여 백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한 동 민*

1. 머리말
2. 이선경과 수원지역 독립운동
3. 잊혀진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4. 결론

1. 머리말

이선경(李善卿, 1902~1921)이 살았던 시기는 작가 홍성원의 대하소설 『면동』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즉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 수원지역을 주무대로 한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거의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격렬하게 들이닥친 때였다. 외래적인 사상과 문물의 수입과 유통에 따른 격렬한 변화와 외세의 간섭이 끝내 국망(國亡)으로 이어졌던 격동의 시대였다.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은 아직도 독립포상을 받지 못한

*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인물이다. 그의 생몰년조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선경에 대하여는 언론인 김운성의 저널리즘적 저술에 처음 기술되었다.¹⁾ 그는 이선경이 3.1운동 만세시위로 잡혀 순국한 것으로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선경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더욱이 “옛일을 더듬는 고로들(당시 10~15세)은李여사를 곧잘 柳寬順여사에 비한다. 비록 옥사는 아니지만 숨을 거두다시피 하여 출옥한 그는 집에 닿자마자 숨졌으니 유관순 여사에 못지않은 순국열사라는 것이다.”라고 당시를 기억하던 사람들의 증언을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선경에 대한 사실은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 특히 1904년 4월 30일 태어나 1923년에 사망한 것으로 생몰년이 잘못 알려져 왔다.²⁾ 그러나 홍석창은 수원지역의 중요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이선경을 널리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암리 홍원식, 화수리의 정서송, 수춘교회의 김교철, 사강의 문상익, 오산의 이성구, 발안의 이정근, 태안의 황창오 등과 함께 이선경을 수원지역의 중요 독립운동가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³⁾

그리고 최근 들어 이선경에 대한 연구는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구국민단(救國民團) 등의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⁴⁾

따라서 「제적부(除籍簿)」와 경기여고의 「학적부(學籍簿)」 등을 통해 이선경에 대한 생몰년을 바로 잡고 그의 죽음이 명백한 순국(殉國)이었음을 확

1) 金雲成, 『殉國少女 李善卿』, 『三一運動小史 - 八達山の 喊聲』; 金雲成, 『殉國한 19세의 꽃』, 『水原五十年』, 學友社, 1973. 이렇듯 이선향(李善卿), 이선교(李善教) 등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대중적으로 그의 존재를 알린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2)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0, 200쪽. 생몰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선경의 생몰년(1904. 4. 30~1923)을 부정확하게 서술함으로써 이선경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가져왔다.

3) 홍석창, 위의 책, 191~201쪽.

4)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2, 1998;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정명희, 「신여성 林孝貞의 생애와 활동」, 수원대 석사논문, 2010.

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더욱이 여성 사회주의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현경(李賢卿)이 그의 친언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선경과 이현경, 그리고 동생 이용성(李容成)으로 이어지는 가계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나혜석의 형제들에 버금가는 근대 수원의 또 다른 빛나는 형제들, 이선경과 그의 형제들의 활약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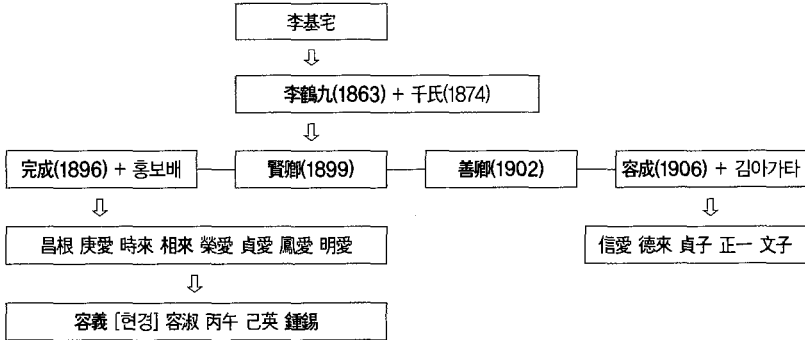
2. 이선경과 수원지역 독립운동

1) 이선경의 가계와 성장과정

「제적부」에 따르면 이선경은 광주(廣州) 이씨이다. 광주이씨는 파장동을 중심으로 세거해온 수원의 대표적 가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선경 가계는 파장동 광주이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아버지 이학구(李鶴九, 1863년생)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지만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자식들 3남매를 고등 교육을 위해 서울과 개성 및 일본 유학을 보낼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선경은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을 단순히 ‘상업(商業)’으로 적고 있지만, 이현경의 학적부는 아버지 직업을 ‘금대업(金貸業)’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학구는 변돈을 놓아 재산을 증식했던 대금업자(貸金業者)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상 수원의 상업적 변영과 독특한 특성은 대금업자의 폭넓은 존재에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성안의 웬만한 사람들은 변돈을 놓아 돈을 버는 대금업을 부업으로 갖고 있을 정도로 대금업은 수원지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수원사람을 ‘수원 깍쟁이’로 부르게 만드는데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표 1〉 이선경의 가계도



제적부를 통해 가계를 살펴보면 이선경은 1902년 5월 25일 경기도 수원면 산루리 406번지(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서 2남 2녀 가운데 차녀로 태어났다.⁵⁾ 제적부에 첫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애기(愛基)’였으나 다시 ‘善卿’으로 이름을 고쳤음을 알 수 있다. 언니는 ‘간난(看蘭)’이었다가 ‘현경(賢卿)’으로 고쳤다. 이들 자매의 이름인 ‘간난’과 ‘애기’를 ‘현경’과 ‘선경’으로 고친 것은 1916년 6월 3일의 일이다.

당시 양반집 딸들은 처음 태어나서 ‘간난이’, ‘애기’ 등으로 불리다가 조금 크면 아래 사람들은 ‘애기씨’로 불렀고, 좀더 크면 ‘아씨’로 불리다가 결혼하면 ‘마님’으로 불렸다. 따라서 ‘간난’과 ‘애기’는 고유명사라기 보다 보통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술한 여성들의 이름은 간난이와 애기·애기 등으로 불렀고, 이는 1909년 민적부가 만들어지면서 집에서 통상적으로 불렀던 ‘애기’와 ‘애기’는 ‘兒只’, ‘愛基’ 등으로 등재되었던 것이다.⁶⁾ 이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서 개명을 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5) 경기도고 학적부에는 원적이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70번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루리 406번지에서 산루리 470번지로 이거한 것은 1916년 4월 5일의 일이다.

6) 나혜석의 경우에도 처음 민적부에 오른 것은 ‘애기(兒只)’였고, 동생 지석은 ‘간난(看蘭)’이었다. 이후 진명여고 학적부에는 ‘명순(明順)’이었다가 다시 1913년 1월 ‘혜석(憲錫)’으로 개명하였다.

한편 기독교의 영향으로 마리아, 메리(메레), 애스터(애시덕) 등의 세례명이 민적부에 올라 한동안 서양식 이름이 세상을 풍미한 것도 그 당시였다.

기존에는 이선경이 1917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입학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⁷⁾ 그러나 실제 이선경은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4월 30일 서울의 사립 숙명여학교(淑明女學校)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19년 3월 5일 서울 학생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구속되어 3월 20일 무죄 방면되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숙명여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19년 9월 1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였던 것이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언니 이현경이 이미 1917년에 졸업한 학교였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전학한 이선경은 2학년(1~3학기) 성적과 3학년 1학기 성적만이 기재되어 있다. 3학년 1학기의 경우에도 결석일수가 22일에 달하고 있다. 이에 1920년 8월 31일 학교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퇴학 조치를 당하였다. 이는 1920년 8월 구국민단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석이었다. 함께 체포되었던 이화학당의 임순남·최문순 등도 똑같이 체포되어 학교에 결석을 하였지만 그들은 퇴학조치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이선경이 독립운동을 하여 결석하였다는 이유로 퇴학 처리를 한 것이다.

한편 학적부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평가란에 ‘表面으로 溫順하지만 책임감이 강하다, (記主人物)’로 표기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溫順, 溫和 등으로 적고 있는 것임에 비해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의 친구들을 이끄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인물로 파악한 것이다.

7) 김운성은 1917년 이화학당을 거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

2) 이선경의 독립운동과 구국민단 활동

숙명여학교 재학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이후 이선경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수원에서 조직된 구국민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 집에서 순국하였던 것이다.

이선경은 수원에서 함께 서울로 유학하여 공부하던 이화학당의 임순남(林順男, 일명 林孝貞)·최문순(崔文順) 등 여성동지들과 행동을 함께 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또 다른 선을 대고 있었던 박선태(朴善泰)·이득수(李得壽)를 통해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에 그들과 1920년 6월 7일 수원 서호 부근에서 만나 혈복단(血復團)을 구국민단(救國民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후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의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는데, 이에 단장 박선태, 부단장 이득수(李得壽), 서무부장 임순남, 재무부장 최문순, 교제부장 차인재(車仁載), 이선경은 구제부장을 맡았다. 이선경은 구국민단의 구제부장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수원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젊은이들이었다.

근대 수원지역사에 있어 구국민단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원최초의 비밀결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된 비밀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구국민단은 혈복단과 연관이 있고, 혈복단은 1919년에서 1920년까지 활동한 비밀결사 대한독립애국단과 연관되어 있었다. 대한애국단의 단장 신현구가 1919년 11월 20일 체포되어 조직이 와해되자 다시 혈복단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것이었다. 조선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단체였던 혈복단이 수원지부를 두었는데 윤익중·서병철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⁸⁾

8)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 382~383쪽.

〈표 2〉 구국민단 관련 인물

성명	주소	나이	학교	비고	구국민단 관련
박선태 朴善泰	수원면 산루리	20	휘문고보 4년		단장
이득수 李得壽	일왕면 하광교리	19	경성기독교청년학관	3.1운동때 20일 구류	부단장
이선경 李善卿	수원면 산루리	18	경기고녀 3년	숙명여학교 전학	구제부장
임순남 林順男	수원면 북수리	17	이화학당 2년	삼일여학교 졸	서무부장
최문순 崔文順	수원면 남수리	17	이화학당 2년	삼일여학교 졸	재무부장
윤익중 尹益重	鍾路通 2丁目	25	휘문고보 졸		

당시 이득수(일명 李鍾祥)는 이전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그것을 선전하고자 결심하고 1919년 3월말부터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차관호(車寬鎬)와 연락해 왔다. 이전에 한문을 가르쳐 주던 이득수의 한문선생이었던 차관호는 수원과 일정한 관련을 맺었던 인물로 보인다. 차관호는 상해 임시정부의 동정과 조선독립에 관한 기사를 실은 『독립신문(獨立新聞)』과 『대한민보(大韓民報)』 등을 이득수에게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이득수는 독립신문 등을 동지였던 삼일여학교 교사 차인재와 함께 수원 시내에 배포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시 구국민단은 다음과 같이 2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나갔다. 1) 한일 합방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 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2)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 등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920년 7월까지 1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수원 읍내에 있는 삼일여학교(현 매향여고)에서 회합하여 독립신문의 배포 등을 논의하고, 동시에 상해로 가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이선경을 비롯한 여학생 3명은 상해 임시정부 적십자회에 들어가 간호원이 되어 후일 독립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그 힘을

다하고자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⁹⁾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구국민단의 결성은 대한적십자회의 회원 모집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조직되었고, 여학생들의 간호원이 되어 독립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았던 것이다. 실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의 처지에서 상해임시정부의 적십자회의 간호원 양성소 입소는 식민지 조국을 탈출하여 독립운동을 꿈꾸며 향후 독립전쟁을 대비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활발하게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 활동하던 중 1920년 8월 박선태·이득수·임순남 등과 함께 이선경은 체포되었다. 실제 구국민단이 결성되고 몇 달도 안되어 체포되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선경이 1920년 8월 31일 경기여고를 퇴학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학적부에는 2학년(1~3학기) 성적과 3학년 1학기 성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1920년 8월 31일 본교 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퇴학 조치되었다. 3학년 1학기의 경우 결석일수가 22일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1920년 8월 31일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무단결석으로 퇴학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선경이 체포된 시점이 8월 10일 전후의 일로 추정된다. 한편 학교당국은 이선경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김백순 등 8명에게 퇴학조치를 하였다고 한다.¹⁰⁾ 따라서 이선경이 3.1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해왔음을 알 수 있다.

수원 혈복단을 조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이득수(이종상)였다. 그는 경성기독교청년학관 학생으로 수원 하광교리 출신이었다. 정동에서 하숙을 하였는데, 이현경과 이선경도 정동의 성공회 성당에 있는 학

9)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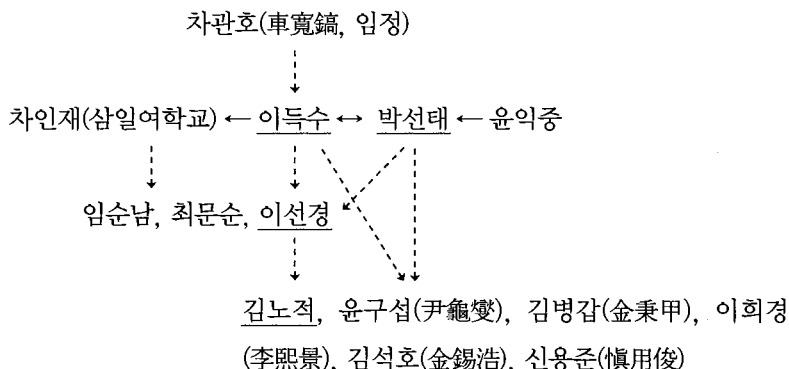
10) 이현희, 『한국근대 여성 개화사』, 이우출판사, 1978, 228쪽.

그러나 김백순(金百順, 1904. 5. 14일생)은 1918년 4월 입학하여 1919년 9월 30일 이선경과 같은 이유(본교 규칙 제35조 제4항 위반)으로 퇴학당하였다. 이선경보다 1년 앞서 퇴학당한 것으로 김백순 등과 이선경 등은 독립운동을 함께 모의하고 활동한 동지였다고 할 수 있다.

생 기숙사를 이용하였던 점에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을 조직하는데 삼일여학교 교사 차인재의 역할도 중요하였지만, 이선경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삼일여학교 출신인 임순남(임효정)과 최문순을 소개한 것이 차인재 선생이었지만 이들 여학생들을 이끌며 좀더 조직적인 형태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이선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국민단 조직 흐름도



이후 이득수보다 구국민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은 단장 박선태였다. 박선태와 같은 마을 출신인 이선경이 그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학생들을 이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문만 남아 있고 예심조서 등이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선경에 대한 고문의 강도와 이와 관련하여 순국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유추하여 보면 이선경이 구국민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가 조직적 관계망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삼일여학교 출신의 여학생들 보다 1년 선배이기도 하고, 처음 조직결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득수(이종상)와 서울의 인근 동네(정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던 점,¹¹⁾ 이후 구국민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박선태와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의 간호부 양성계획과 연관된 측면이 일제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았을 것이다. 즉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제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고리와 지점을 집요하게 추궁하였을 것이고, 이에 이선경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구국민단의 확인된 구성원 이외에 동조자 및 동지들이 김노적·김희경 등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산루리 사람들과 기차 통학생

박선태와 김노적은 이선경이 자라난 산루리 사람들이다. 변화한 상점과 상가 및 관공서가 위치한 성안의 신평리와 복수리 및 남수리와 달리 산루리는 팔달산 아래쪽 성밖에 위치한 조선인 마을이다. 따라서 성안의 일본식 건축물들과 번듯한 상점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변화에도 산루리는 여전히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로 식민지적 차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수원역으로 대표되는 일본인 거주지와 팔달문의 남문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상가를 이어주는 위치의 산루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근대적 문물이 유입되는 길목에 위치하며 남루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따라서 수원역에서부터 일본인학교와 수원향교, 그리고 성공회 교회를 지나면 만나는 초가집들은 팔달문 앞의 변화한 상점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곳이 산루리였다. 지금의 구천동과 중동 일대였다.

11) 언니 이현경은 정동 성공회가 운영하는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지만, 이선경은 태평동 1정목 3번지에서 하숙하였다. 이득수도 정동에서 하숙하였는데, 이선경의 하숙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다. 그러나 이선경은 얼마 있다가 수원에서 통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은 산루리 출신이 많았고,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과 수원노동조합 역시 산루리 101번지에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었다.

산루리 출신으로 김노적(金露積, 1895~1963)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노적은 1895년 5월 12일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332번지 김용보와 김용선 사이에서 2남으로 출생하였다. 1910년 商務夜學을 졸업하였고, 1917년 수원상업강습소를 졸업하였다. 이때 상업강습소 소장은 김세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919년 3·1운동 당시 김세환을 도와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 즉 1919년 4월 1일 사립중앙고등고보에 입학하였고, 이듬해인 1920년 7월 11일 수원진명구락부 창립총회에서 도서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진명구락부는 회장 김인순, 총무 조용호, 운동부장 박선태, 그리고 도서부장이 김노적이었다. 따라서 박선태와 관련이 있었던 구국민단에도 일정하게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1운동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잡혔던 김노적은 이때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는데, 머리를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머리 한쪽이 함몰될 정도였고, 왼쪽 손목을 거의 못쓸 정도로 으깨놓았다고 한다. 김노적 선생은 평생 왼쪽 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고, 선생의 사진은 항상 왼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찍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당한 고문의 상처를 성공회 신부들이 극진히 보살펴 준 인연으로 성공회에 가입하였고 이후 진명구락부에서 활동하였다. 1920년 박선태·이득수·이선경 등의 구국민단 활동이 발각되었으나 동지들의 보안으로 체포를 피했으나 중앙고보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배재고보로 전학, 4학년으로 편입하여 1922년 배재고보 제 6회 졸업생이 되었다. 1922년 4월 1일 수원 사립 화성학원 교원이 되었다가 1년 뒤인 1923년 4월 10일 화성학원을 사임하고 중국 長春으로 망명하였다.

또 다른 산루리 출신인물로 박선태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휘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9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해로 가려다가 이종상을 만나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펴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920년 7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애국창가집』과 「대한민보(大韓民報)」 수십 매를 배포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들은 이후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펴기 위해 1920년 6월 20일 임순남·최문순·이선경 등의 여학생을 규합하여 비밀결사 구국민단을 조직하였는데 그는 단장에 선임되어 동단의 활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같은 산루리 출신이라는 점에 더하여 성공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노적과 박선태는 진명구락부(進明俱樂部) 임원이었다. 즉 1920년 6월 28일 오후 7시 남문 밖 성공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덕성 함양과 체력과 지식을 계발하며 부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명목상 종교 활동이었지만 내용적으로 피압박민족의 자주독립운동에 있었다. 발기인은 영국인 구세실(具世實)을 비롯하여 김인순·김현필·허용·안영기·이인영 등이었다.¹²⁾ 이어 같은 해 7월 11일 성공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이 40여 명에 이르렀다. 임원으로 회장 김인순, 총무 조용호, 도서부장 김노적, 운동부장 박선태 등이 선출되었다. 김노적과 박선태도 성공회와 관련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선경이 박선태와 김노적과 연결되는 것은 산루리라는 지연과 더불어 성공회라는 종교적 연관도 밀접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 서울 유학과 기차 통학생이었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즉 구국민단의 주요한 인물은 수원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한 인텔리 청년들이었다. 이들을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고리는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하였다

12) 구세실은 쿠퍼(Alfred Cecil Cooper) 신부로 1908년 부재열(George Alfred Bridle) 신부의 보좌 사제로 부임하였다. 1922년 김인순 신부가 수원 관할사제로 부임하면서 수원교회를 떠났다. 김인순은 1920년 조직된 진명구락부 회장이었다.

는 점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수원지역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수원지역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이미 수원 거주자로 중등학교 정도 학교 재적생으로 조직된 ‘수원학생친목회(水原學生親睦會)’가 1917년 조직되어 있었다. 서울 유학생과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었던 셈이다. 그 정확한 설립연도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1920년 한국어 신문이 발간되면서 1925년 수원학생친목회 8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되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¹³⁾ 따라서 이를 역산하면 1917년 수원학생친목회가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원학생친목회의 1924년 신입회원은 중동 3, 배재 6, 중앙 1, 선린 1, 일고(제일고보) 1, 양정 3, 보성 4, 이화 2, 숙명 5명 등 총 26명이었다.¹⁴⁾ 이후 서울로 기차 통학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서 1937년 3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기차 통학생이 2번째로 많은 도시였다.¹⁵⁾

당시 서울로 유학하는 학생들의 광범한 존재는 수원에 중등교육기관으로서 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원에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는 수원지역 유지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운동이 펼쳐졌고, 이에 따라 사립 삼일학교에 고등과가 부설된 것이 1935년의 일이고, 공립 농업학교(公立農業學校)가 설립된 것이 1936년의 일이다. 따라서 당시 남학생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으로 농업학교와 삼일학교 고등과가 있었고, 여학생을 위한 수원고등여학교가 설립되는 것 역시 1930년대 후반의 일이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까지 수원지역의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위해 수원을 떠나 서울로 유학하거나 기차를 이용한 통학으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13) 野外歌劇公演, 水原學生親睦會에서 八週年創立紀念으로, 『동아일보』 1925. 8. 1.

14) 水原學生親睦會組織, 『동아일보』 1924. 4. 22.

15) 汽車通學禁止로 三百學生大打擊 『동아일보』 1937. 8. 21.

따라서 1917년 결성된 수원학생친목회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1920년 이선경을 비롯한 서울유학생들은 친목회 또는 기차 통학을 통해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었음에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해내는 일은 이들 통학생과 수원학생친목회의 또 다른 지하그룹의 생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선경의 순국

수원지역 3·1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김세환은 전국적인 거사 계획을 갖고 수원에서 金露積을 중심으로 박선태·이선경·임순남·최문순·金錫浩·金秉甲·李熙景·慎用俊 등이 김세환의 시위계획을 듣고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¹⁶⁾ 그 구체적인 전거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1920년 구국민단의 조직 이전부터 이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점과 구국민단 조직 구성원 이외의 인물들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한 함구는 이선경의 순국과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21년 4월 박선태와 이득수는 징역 2년을 언도 받았고, 이선경을 비롯한 여학생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미결 구류일수 140일 산입)을 언도 받았다. 이선경 열사는 구류 8개월 동안 심한 고문으로 인해 재판정에 나가 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결석재판에 의해 이선경은 임순남·최문순 등 여학생들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40일 동안 미결 구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약 5개월 가량이 된다.

당시 변호사는 김우영(金雨英)이었는데, 나혜석과 1920년 4월 10일 정동

16) 이재재, 「수원지방 독립운동의 선구자 金露積 선생」, 『수원의 옛 문화』, 154쪽.

예배당에서 결혼한 인물이었다.¹⁷⁾ 변호사 김우영의 변론 내용은 “피고의 행한 일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이상에 될 수 있으면 무죄로 하고 유죄의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되기를 바란다”고 변론하였다. 그 마지막 재판일은 1921년 4월 12일이었다. 이날 방면되어 수원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옥중에서 풀려난 지 9일 만인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장소는 큰 오빠 이완성(李完成)의 집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완성의 3째 아들 상래(相來, 1924년생)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선경은 8개월 만에 풀려나서 부모가 있던 산루리 470번지(85평)의 본가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가가 산루리에서 매산리로 이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본가는 산루리에서 1921년 4월 17일 매산리 67번지(358평)로 이사를 했다. 따라서 이사 준비로 집을 싸는 어수선한 상황과 아직 안정되지 못한 본가인 산루리 470번지에서 정양하지 못하고 매산리 119번지(502평)의 보다 넓은 오빠 이완성 집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1년 당시 가장 규모가 있는 의원은 수원자혜의원이었고, 역전 앞에도 의원이 있었지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한 것이었다.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었으나 이선경 열사는 일제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옮겨지고 난 뒤 9일 만에 19살의 나이로 순국하였던 것이다.

17) 정동예배당의 나혜석 결혼식에 이선경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혜석과 이선경 및 이현경이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김우영이 변호사로 나섰다 수도 있다. 물론 당시 김우영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건을 도맡아서 변호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3. 잊혀진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1) 동경 유학과 이현경

근대수원의 대표적인 여성은 나혜석(羅蕙錫, 1896~1946)으로 알려져 있다. 나혜석 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수원의 여성으로 이현경(李賢卿, 1899~?)을 꼽을 수 있다. 이선경의 언니이다. 그러나 이현경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그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이현경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근우회 활동 등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거나,¹⁸⁾ 성적 스캔들의 문제적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¹⁹⁾ 최근 본격적인 연구논문은 아니지만 이현경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바가 있다.²⁰⁾

이현경은 잊혀진 인물이다. 실상 1928년 중국 망명 이후 국내 활동 무대에서 그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후 귀국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잊혀진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이현경은 1898년 4월 25일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적부에 따르면 1918년에 생년을 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현경은 태어난 때를 1898년에서 1899년(광무3)년으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1917년 졸업한 학적부는 1918년 정정된 생년을 반영하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이현경이 태어난 때는 1899년 4월 25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현경은 수원 산루리(현 교동)의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수원 사립진명여

18) 남희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 석사논문, 1989 ; 박혜란,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대 석사논문, 1993.

19) 전봉관, 「경성자살클럽 - 근대 조선을 울린 충격적 자살 사건」, 살림, 2008.

20) 소현숙,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경기도, 2002 ; 박철하, 「같은 길, 다른 선택- 혁명과 친일의 갈림길에 서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학교(進明女學校)를 졸업하고 1914년 4월 7일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이후 경성여자고보(현 경기여고)를 1917년 3월 25일 제7회로 졸업하였다.

이현경의 학적부 주소는 수원군 남부면 산루동(구천동) 9통 7호로 기록되어 있고 현 거주지는 경성 정동 약현 성모관, 즉 정동 성공회 성당에서 운영하던 학생 기숙사였다. 그리고 보증인은 세실(Cesil) 수녀로 되어 있다. 당시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학교는 4개가 있었다. 수원 산루리의 진명학교를 비롯하여 강화 온수리, 천안 부대동, 목천 아우내 등이었다. 수원의 사립 진명학교는 1908년 학생 80명이 남녀공학으로 시작되었고, 1909년 성당 축성식을 거행하고 두 채의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는 진명여학교로 개설하였다. 교육은 세실 수녀와 한국인 교사 1명이 담당하였는데, 독서·습자·신학·지리·역사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²¹⁾ 따라서 성공회에서 운영하던 수원 사립진명학교를 다녔던 인연으로 정동 성공회 성당과 세실 수녀와 인연을 이어갔던 것이다.

졸업 이후 잠시 경남 밀양에서 보통학교 교원 생활을 하다가 같은 여고 동창이자 절친한 벗이었던 이덕요(李德耀)를 따라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선경이 수원에서 구국민단의 조직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다가 끝내 일제에 의해 잡혀 혹독한 고문 끝에 사망하였을 때, 즉 1921년 4월 21일 당시 이현경은 일본 동경에서 유학 중 일제에 잡혀 있었고, 동생 이용성은 개성 송도고보에 재학 중이었다.

언니 이현경은 1921년 3월 1일 3·1운동 2주기를 기념하여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140여 명의 유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펼쳤다. 이때 만세 시위를 한 2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검거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현경을 비롯한 여학생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현경은

21)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100년사』, 2000.

히비야 만세시위 운동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이다.

1921년 4월 21일 이선경이 수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이현경 역시 일본 동경에서 일제의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렇듯 1921년 봄 수원 출신 두 자매는 용감하게 불의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온 몸으로 항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현경이 1917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나혜석도 그곳에 있었다. 적어도 나혜석이 학업을 마치고 1918년 3월 귀국할 때까지 서로 유학생으로서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나혜석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이현경은 나혜석과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크지만 서로 삶의 지향과 방식이 달랐다.

이현경은 일본여자대학 사회학부 여공보전과(女工保身科)에 입학하여 1927년 졸업하였다. 당시 일본여자대학을 동문수학한 인물들은 8명이나 되었다.

일본여자대학 사회사업학부에 입학하여 박순천(전 민중당 당수)·황신덕(중앙여중·고 재단이사장)·이현경·김운순·오인숙과 동문 수학하였다. 오인숙은 이재명(李在明) 의사의 부인 오인성의 막내 아우다. 영문과 3학년에는 최덕상(뒀날 서울 프레스 주필 김용주 부인)이 있었고, 가정과 1학년에는 민계식이 있었다. 우리는 일본여자대학 팔선녀로 불리었다.²²⁾

같은 과에는 이현경을 비롯하여 박순천(朴順天, 1898~1983)·황신덕(1898~1984)·최은희(崔恩喜, 1904~1984)·김운순·오인숙 등 6명이 수학하였고 영문과 최덕상과 가정과 민계식과 더불어 일본여자대학 8선녀로 불렸다는 것이다.

1926년 같은 과를 졸업한 인물로 박순천이 있다. 최은희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3학년을 마치자마자 조선일보의 여기자로 취직함에 따라 먼저 귀국하였다.

22) 崔恩喜, 『韓國開化女性列傳』, 정음사, 1985, 19~20쪽.

한편 이현경은 1925년 3월 동경에서 결성한 삼월회(三月會)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현경은 황신덕(黃信德)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무산계급 해방과 한국여성의 계급적·인습적 구속 및 민족적 압박의 철폐를 목적인 삼월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삼월회는 일본의 조선노동총동맹과 일월회(日月會) 등 사회주의 단체와 연합하여 활동했다. 특히 1925년 10월 15일 일본 북해도 오타루(小樽)고등상업학교의 야외 군사연습에서 교관이 작성한 군사교안에 조선인과 무정부주의자를 가상의 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경에 있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재동경무산청년동맹·조선인유학생학우회·무산학우회·흑우회(黑友會)·형설회(螢雪會)·일월회(一月會) 등의 학생단체·사상단체와 함께 연합된 항의단체를 만들고 일본정부를 성토했다는 선언문을 작성, 일본정부와 주요기관에 발송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16일 동경에서 앞의 단체 등과 함께 가상적문제규탄대연설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삼월회 회원 박경희(朴慶姬)·정칠성(丁七星) 등이 연사로 연설하였다.

12월에는 재일본 조선무산계급 여성사상단체임을 명백히 하고 “조선여성은 계급적·봉건적·인습적 압박의 쇠사슬에 얽매어 있으므로 무산계급 남성과 제휴하여 인류의 압력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고 민중 본위의 새로운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선여성의 해방’과 ‘무산계급 남성과의 제휴’라는 선언문을 채택, 강령과 규약을 발표하였다.

1926년 3월에는 일월회의 이여성(李如星)이 조선 무산계급 해방운동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관동 무산계급 단체에 기부한 2,500원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아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라는 이름의 한글판 팸플릿 1,000부를 발행하였다. 서무부장 이춘수(李春壽)는 여름방학에 이 책자를 국내에 들여와 주요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자금 조성을 시도하였다.²³⁾

23)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한민족독립운동사』 8, 475쪽.

2) 귀국 후 이현경의 사회운동

1926년 3월 동경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에 힘쓰던 이현경이 일본에서 귀국하였다.²⁴⁾ 그리고 이듬해 1927년 4월 26일 근우회(槿友會)가 이현경을 비롯하여 김활란(金活蘭), 유각경(俞玉卿) 등 40여명의 발기인단을 중심으로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현경은 근우회의 주도적 인물이 된 셈이다. 이에 1927년 5월 27일 근우회 창립총회가 YMCA강당에서 개최되었을 때 21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한명으로 선출되었다. 즉 민족운동 진영은 김활란·유각경·유영준(劉英俊) 등이 참여하였고, 사회주의 운동측으로는 이현경을 비롯하여 황신덕(黃信德)·박원희(朴元熙)·정종명(鄭鍾鳴)·정칠성(丁七星)·주세죽(朱世竹)등이 참여하였다.²⁵⁾

귀국 후 이현경은 조선여성동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경제상태의 변천과 여성의 지위」를 『현대평론』에 5회에 걸쳐 연재하는 등 언론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주업이었고 기자생활은 부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남기지 못한 것 같다. 당시 동아일보 여기자는 1924년 11월 경 허정숙(허헌 변호사의 딸, 소설가 허근옥의 언니)이 처음으로 채용되어 활동하였고, 그 뒤를 이어 허영숙(나혜석의 친구, 이광수의 부인)이 맡았다. 허영숙이 그만 둔 뒤를 이어 이현경이 동아일보 여기자가 되었던 것이다.²⁶⁾ 이현경의 후임으로는 동경여자사범학교 출신의 최의순이 뒤를 이었다.

이현경이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접고 한때 수원에서 교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이에 대한 기록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그는 ‘영리하고도 이해 잘 따지기로 유명한 水原人의 특징’을 지닌 수원

24)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청계연구소, 1986, 78쪽

25) 박용옥,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274쪽

26)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정음사, 1985, 24쪽.

여자였다. 즉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은 고향 수원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아 기 업은 조선인 아낙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인 일본인 남자의 가슴에 주먹질을 할 정도로 민족적 각성과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한 인물이었다.²⁸⁾

이러한 이선경에 대한 1935년 『개벽』지에 실린 짧은 평가는 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후리한 키와 반짝반짝하는 白金齒에 영리하고도 이해 잘 따지기로 유명한 水原人의 특징을 소유한 그는 기자로서 남을 방문하거나 또는 무슨 기사를 취 급할 때에 상대자에게 호감을 주고도 민첩하게 잘하였다. 그러나 그는 安光泉 군의 애인이요 女性同友會의 간부이니 만치 기자 직업은 역시 부업으로 하고 사회 운동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자로서 기자다운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을 지나다가 安군의 뒤를 따라 국경을 탈출하였다. 그는 기자 시대에는 아모리한 이약이거리가 없지만은 東京 유학시대에 작고한 여의사 李德耀씨와 열렬한 동성연애를 하여 일시 자살미수 소동을 일으키던 일과 水原行 차 중에서 어떤 異服 입을 남자가 춘여자에게 모욕 행동을 하는 것을 보 고 대분개하여 용감스럽게 달려드러 뺨을 친 일은 지금까지 그의 동지 여성계 에서 이약이 거리가 되어 있다.²⁹⁾

실상 이현경이 일본에서 1926년 귀국하여 1928년 봄 중국으로 망명하기 까지 활동은 2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간회 운동과 더불어 여성운 동 단체의 좌우합동 조직인 근우회를 조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막내 남동생 이용성(李容成, 1906~1974)의 수원청년동맹의 활동도

27) …李賢卿씨는 水原서 女敎員 노릇하다가 北平에 逃走한 安光泉의 안해가 되었섯고… 「舍夫人學力等級記」, 『삼천리』 제7권 제5호(1935. 6), 202쪽.

28) 「義憤公憤心膽俱爽痛快!! 가장痛快하였든 일」, 『별건곤』 제8호(1927. 8), 59쪽.

29) 「女記者 群像」, 『開闢』신간 제4호(1935. 3), 72쪽.

이현경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해방 후 수원시의회 2대 의장과 초대 산업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성은 일제강점기 수원의 대표적 사회주의자였던 박승극 등과 함께 수원청년동맹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³⁰⁾ 그러나 1934년 수원지역의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이 휴면기에 접어들면서 이용성은 수원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해방 후 수원시의회 초대 및 2대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³¹⁾

3) 중국 망명과 그 후

이현경의 남편이었던 안광천(安光泉, 1897~?)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본명은 안효구(安孝駒)이지만 안광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안호우(安乎于)·노정환(盧正煥)·삼각산인·GH생·사공표(司空杓)·임재일(林在一) 등 많은 필명으로 활동하였다. 출신지는 경상남도 김해로 부친은 시의(侍醫) 안왕거(安往居)였다. 집안의 가업을 잇기 위해 안광천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한 뒤 1924년 일본으로 건너가 김약수·이여성 등 경상도 출신 유학생들이 조직한 북성회(北星會)에 가입하였다. 북성회 간부들이 귀국하여 국내 운동에 주력하자 일본에 남은 소장파를 중심으로 1925년 1월 일월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일월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전선통일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론적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1926년 11월 15일 안광천은 '정우회 선언'을 통해 정치운동으로의 방향전환과 민족협동전선 결성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926년 9월 20일 조선공산당(ML당)에 가입, 10월 선전부 책임자로 당원 모집에 힘썼고, 12월 6일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30)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31) '초대·2대 이용성', 「의원프로필」, 『水原市議會史』, 수원시의회, 2002, 293쪽.

1927년 9월 20일 당 책임비서를 김준연에게 물려줄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27년 「신간회와 그에 대한 입부」를 발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전취론을 주창하였고, 그가 기초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논강」이 당의 공식방침으로 채택되었듯이 그는 당대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대표적 이론가로 활동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론이 청산파 등 반대에 직면하고, 제3차 조선공산당 검거 때에 일시 감금되었다가 탈출한 사건(1928. 2. 3)으로 안광천 밀정설이 유포되었고, 더욱이 부인 이현경을 불법으로 복당시킨 사건이 문제되면서 1928년 5월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규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이현경의 복당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은 당규 문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안광천을 공산당에서 추방하는 조치에 다름없었다.³²⁾ 이에 국내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자 안광천과 이현경은 1928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함께 국내를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던 것이다. 안광천과 이현경은 의열단의 김원봉(金元鳳)과 함께 1929년 북경에서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을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어 『레닌주의』를 발간하는 한편, '레닌주의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1931년까지 20여 명을 교육하여 국내에 밀파하여 당 재건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안광천은 국내 활동에서도 정우회 선언에서 민족단일당 주장으로 그의 사상적 심도와 전략적 수완을 보여준 바 있다. 이른바 공산주의자로서의 민족적 임무라고 하는 민족주의와의 통일전선 결성의 '시범'을 보인 사람이다. 그가 한때 열혈적인 민족혁명운동자였던 김원봉과 굳게 손잡고 조선공산당 재건활동을 전개한 것은 그로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와 통일전선이라는 전략사상에 복종한 기술적 문제였을 것이다.³³⁾

32) 김기승, 「1920년대 안광천의 방향전환론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 현실』6, 1991, 113~114쪽.
3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5, 청계연구소, 1988, 334쪽.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김원봉이 남경으로 이동 한 후 안광천과 이현경의 활동을 알려주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단편적으로 알려진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김성숙의 평가는 눈여겨 볼만하다.

안광천은 해외에 나와 있는 조선인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방면에서는 첫째가는 이론가로 꼽혔지요. 일본에서 배워 갖고 왔지요. 그 사람이 변증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성격상 대단한 소극주의자였습니다. 약하고, 세밀은 하면서도 강하지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타락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제 마누라하고 뒀을 했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하고만 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중국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³⁴⁾

조선을 대표하는 공산주의 이론가이자 당 대표였던 안광천이 대대적인 일제의 탄압과 반대파에 의해 일본의 밀정이라는 설이 유포되면서 국내에서 활동기반을 잃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현경이 남편 안광천과 함께 망명할 즈음, 가장 절친한 친구 이덕요(李德耀)의 남편 한위건(韓偉建)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한위건은 『아리랑』의 김산(장지락)과 갈 등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한 이현경에 대한 소식은 풍문으로 떠돌 뿐이었다.³⁵⁾ 그들은 광활한 중국 땅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이현경은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4) 이정식·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1988, 96쪽.

4. 결론

「제적부」를 통하여 언니 이현경의 확인과 이선경의 정확한 생몰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선경(1902. 5. 25~1921. 4. 21)은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사망하였다. 구국민단 사건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날짜는 1921년 4월 12일이었다. 그날로부터 9일 만에 사망한 것이다. 순국소녀 이선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유관순 열사가 1920년 10월 독립운동의 제단 위에 거룩하게 바쳐지고 난 지 6개월만인 1921년 4월 21일 이선경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또 다시 순국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수원이 낳은 이선경 열사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살아왔다.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이화학당 교사 미쓰 윌터 선생이 시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 이선경의 경우는 경기여고를 퇴학한 상태였고, 구류 8개월 만에 석방되어 나와 집에서 순국하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던 인물들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언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일본유학을 했던 언니 이현경이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고, 일제의 검거를 피해 안광천과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귀국하지 않아 순국한 이선경을 조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동생 이용성 역시 누나 이현경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사회주의적 사상을 받아 수원청년동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후 해방 공간에서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일정한 시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그만 둔 것으로

35) …李賢卿氏は 水原出生으로 善校教師, 東亞日報 女記者를 지낸 뒤 安光泉을 따라 上海에까지 이르렀다가 요지음은 다시 故郷에 도라와 있다가… 草土, 『現代女流思想家들(3),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三千里』제17호(1931, 7), 18쪽.

…李賢卿동무는 北平에 가 있다가 그 뒤는 잊지된 줄 모르겠고, … 丁七星, 『同志생각』, 『삼천리』제7권 제3호(1935, 3), 100쪽.

보이지만, 여전히 누나 이선경을 현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문제는 실상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고통받은 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폭력적 진압 속에서 죽어갔던 엄혹한 역사적 사실과 이후 감옥에서 순국한 많은 사람들에 비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 대하여 널리 현창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근대사가 갖는 껍진함에 있다. 해방 후 좌우대립과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낳았고, 더욱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했던 지난날의 우리 삶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했던 시대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수원에서 3·1동지회 등이 조직되어 활동했지만 이선경의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 역시 폭넓은 조명은 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뚜렷한 역사적 궤적을 보여주는 순국열사 이선경에 대하여 수원은 기억하고 그와 그의 가족의 뜨거운 조국애를 널리 현창해야 할 일이다. 수원에는 불꽃같은 여성 나혜석이 있고, 그와 동시대를 뜨겁게 살아갔던 이현경과 이선경이라는 특출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이선경과 이현경에 대하여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없었다. 어렵듯이 가까운 친척일 수 있겠다는 정도의 생각만을 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적부를 통해 이선경과 이현경이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생 이용성은 이선경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현경과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발견이라 할 수 있다. 千里裙風 李賢卿³⁶⁾으로 표현될 정도로 일천리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활동했던 이현경은 나혜석 이후 수원사람으로 일본유학을 다녀온 최고의 인텔리 여성이었다. 더욱이 사회운동을 펼쳤던 인물로 안광천(安光泉)의 부인이었다. 이선경과 이현경 자매와 이용성의 재발견은 수원지역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36) 石室居士, 『短彩錄』, 『삼천리』 제7권 제9호(1935. 10), 49쪽.

◆ 참고문헌 ◆

- 『東亞日報』 『三千里』 『別乾坤』 『開闢』
 金雲成, 『三一運動小史 - 八達山の 喊聲』
 金雲成, 『水原五十年』, 學友社, 1973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1978
 이현희, 『한국근대 여성 개화사』, 이우출판사, 1978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0
 崔恩喜, 『韓國開化女性列傳』, 정음사, 1985
 김준엽 ·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3, 청계연구소, 1986
 김준엽 ·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5, 청계연구소, 1988
 이정식 ·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이재재, 『수원지방 독립운동의 선구자 金露積 선생』, 『수원의 옛 문화』
 박용옥,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교회 선교100년사』, 2000
 이창식, 『水原市議會史』, 수원시의회, 2002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전봉관, 『경성자살클럽 - 근대 조선을 올린 충격적 자살 사건』, 살림,
 2008
 남희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 석사논
 문, 1989
 김기승, 『1920년대 안광천의 방향전환론과 민족해방운동론』, 『역사와 현
 실』6, 1991
 박혜란, 『1920년대 사회주의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대 석사논문,
 1993

-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사학』2, 1998
- 소현숙,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이현경」,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경기도, 2002
- 이동근, 「일제강점기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인물」,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 박철하, 「같은 길, 다른 선택-혁명과 친일의 갈림길에 서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 한동민, 「3.1운동 전후 수원의 여성운동과 삼일여학교」,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 정명희, 「신여성 林孝貞의 생애와 활동」, 수원대 석사논문, 2010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李善卿, 1902~1921)은 수원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선경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밝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기본적인 생몰년에 대하여도 정확하지 않았고, 학교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선경은 수원 공립보통학교(현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4월 30일 서울의 사립 숙명여학교에 입학하였다. 2학년 때인 1919년 3월 5일 서울 학생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15일간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9년 9월 1일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언니 이현경이 1917년에 졸업한 학교였다. 이선경은 집안의 경제적 여유와 개명된 아버지 덕에 언니 이현경의 뒤를 이어 서울로 유학할 수 있었다.

이선경(1902. 5. 25~1921. 4. 21)은 수원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구국민단(救國民團) 사건으로 체포되어 최종 판결을 받은 1921년 4월 12일로부터 9일 만에 사망하였다. 혹독한 고문에 따른 순국이었다. 19살 꽃다운 나이였다.

언니 이현경은 일제시대 유명한 여성 사회주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일분유학을 했던 이현경은 귀국 후 동아일보 기사를 역임하였고, 여성단체 여성동우회를 이끌고 근우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던 이현경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1928년 남편 안광천과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수원에는 불꽃같은 여성 나혜석이 있었고, 그와 동시대를 뜨겁게 살아갔던 이현경과 이선경이라는 특출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가지고 있다.

* 주제어 : 이선경, 이현경, 안광천, 구국민단(救國民團), 순국, 망명, 여성 독립운동가

Lee, Sunkyung and Lee, Hyunkyung, the Female Independentalist of Suwon

Han, Dong-min

Lee Sunkyung(李善卿, 1902~1921), known as the Yoo, Gwansun of Gyeonggi-do is a key female independentalist. However, there are almost no historical facts revealed about Lee, Sunkyung. The basic dates of her birth and death are not accurately recorded, and her educational background is also not clear.

Lee,Sunkyung graduated from Suwon Public Primary School (currently Shinpoong Elementary School) and entered the private Sookmyung Women's High School of Seoul in April 30, 1918. On March 5, 1919, when she was in her 2th grade, she participated in the 'Seoul Manse Student Protest (Nonviolent Independence protest)'and was arrested for 15 days. Also, on September 1, 1919, she transferred to Kyungseong Girls' Government School. This was the school that her older sister, Lee,Hyunkyung graduated in 1917. Due to the economic wealth of her household and the flowering of culture, Lee, Sunkyung was able to study abroad in Seoul, following her older sister, Lee, Hyunkyung.

Lee,Sunkyung (1902. 5. 25~1921. 4. 21) was arrested with her participation in the Gugukmindan (literally translated, the group of public saving the country), the independent movement group in the Suwon region, and received her final judgment on April 12, 1921. Nine days after which,

she died. She became a martyr for her country. She was at the blossoming age of 19.

Her older sister, Lee, Hyunkyung was one of the famous female socialist during the Japanese Rule. Having studied abroad in Japan, Lee, Hyunkyung held a position as a reporter for Daily Newspaper, The Dong-a Ilbo after her return to Korea, and she led female associations and groups to organize Geunwoohoe, the anti-Japanese female group. As a member of the Joseon communist party, Lee,Hyunkyung escaped her arrest by the Japanese to take refuge in China, with her husband An, Kwangcheon in 1928. Since then, she led independent movements in China and was never able to return to her home country.

Suwon beget the fiery woman, Na, Hyeseok, and also fostered the outstanding female independentalists, Lee, Sunkyung and Lee, Hyunkyung, who lived with a fiery passion in the same era.

* Keywords : Lee Sunkyung, Lee Hyunkyung, An Kwangchun, Gugukmindan(救國團體), martyr, refuge, female independentalist

여 백

洪承河의 전도활동과 민족운동

박 환*

1. 서언
2. 홍승하의 출생과 기독교 입교
3. 경기도 남양에서의 전도활동과 사립 보흥학교 육성
4. 하와이로의 전도 활동과 신민회 회장 홍승하
5. 홍승하의 가족관계와 손자 홍가륜의 항일운동
6. 결어

1. 서언

홍승하는 1900년도 전반기 하와이에 파견된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남양지역에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전도하여 많은 신자들을 얻은 인물이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는 수원교회(수원종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수원 및 그 인근 지역의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목회자로서도 수원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그의 아들 洪亨俊도 목사로서 오산, 이

*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천, 장호원 등지에서 목회를 한 인물이다. 홍형준의 부인 김에스더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즉 그의 집안은 구한말 및 일제시대에 기독교를 신앙하고 전도한 집안으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홍승하의 장손 洪加勳은 기독교를 신앙하다가 중국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원으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신앙을 포기하였다.¹⁾ 이점은 흥미롭다.

필자는 우선 홍승하의 전도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홍승하의 기독교 입교와 더불어 그의 남양지역에서의 전도활동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홍승하는 당시 남양군에 소속된 영흥도 출신이었다. 그와 그의 4촌 동생 홍승민이 이 지역에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전도한 대표적 인물이므로 초기 남양지역의 기독교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홍승하의 선교사로서 하와이 파견과 하와이에서의 신민회 설립과 그 활동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장에서는 홍승하의 하와이 파견 시기에 대하여도 밝혀볼 것이다. 그의 파견 시기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일정한 논란이 있어왔다.²⁾ 특히 홍승하는 외국에 파견된 최초의 한인 선교사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아울러 학계에서 그동안 주목해 온 하와이에 설립된 신민회와³⁾ 그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의 홍승하의 전도활동에 대하여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손자 홍가륜의 민족운동 참여에 대하여도 밝혀보고자 한다. 기존에 학계에서 그의 항일운동에 대하여 살펴본

1) 홍가륜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 이상일, 「수원출신 항일청년투사 홍가륜」, 『수원문화사연구』2, 수원문화원, 1998.

2) 기존의 설에 대하여 이만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만열은 그의 논문 「하와이 한인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2002, 43쪽에서 홍승하는 「신학월보」 1903년 10월호 437-439쪽의 기록으로 보아 1903년 말경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홍승하를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보는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동석, 『하와이의 한인교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2006), 40쪽에서는 홍승하가 1904년 2월 18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와이 최초의 선교사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신민회에 대하여는 그동안 김원용, 최창희 등이 주목하여 왔다.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1958), 최창희, 『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운동(1903-1908)』,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2003.

바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기독교 관련 부분과 그의 말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본고는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집안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피는 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2. 홍승하의 출생과 기독교 입교

홍승하는 남양홍씨이다. 그의 집안은 남양에서 살다가 고조부때 영흥도로 이주하였다고 전해진다.⁴⁾ 홍승하는 1863년 8월 23일 경기도 용진군(당시 남양군) 영흥면⁵⁾ 내동⁶⁾에서 아버지 洪允善과 어머니 평택 임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⁷⁾ 홍승하의 집안은 영흥도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듯 하다. 그의 손자인 의열단원 홍가락⁸⁾의 다음의 신문 조서를 통하여⁹⁾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 4) 남양홍씨중앙회수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홍승재의 증언(2011년 11월 17일)
- 5) 영흥도 [靈興島] 네이버 백과사전 홍승하가 출생한 영흥도는 섬으로 면적은 23.46km², 해안선길이는 42.2km이다.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26km 해상에 위치한다. 최고봉은 중앙에 솟은 국사봉(國思峰:127.7m)이며, 동쪽에 대부도(大阜島), 북쪽에 무의도(舞衣島), 서쪽에 자월도(紫月島)가 있다. 원래 명칭은 연흥도(延興島)였으나 고려 말 익령군(翼嶺君) 기(奇)가 정국의 불안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져자 온 식구를 이끌고 이곳으로 피신하면서 익령군의 영(靈)자를 따서 영흥도(靈興島)라고 칭하였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9) 수주(수원)에 속군되었으며, 뒤에 인주(인천)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양부에 속하였고, 1914년 3월 1일 경기도 부천군에 소속되었다. 해안은 대체로 굴곡을 이루고 있어 어장이 발달하였고, 간조 때에는 넓은 개펄 위로 바지락·굴·소라·낙지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게 채취된다. 산이 낮고 농경지가 많아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섬 전체에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 6) 홍승하가 태어난 내동은 영흥도 선착장에서 4km 떨어진 길이 1km 폭 10m의 중앙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깊숙이 들어 앉아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동(관청이 있는 마을)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즉 관청이 있는 영흥도의 중심마을임을 알 수 있다
- 7) 홍석창, 『한국감리교회를 섬긴 사람들』(에이멘, 1988), 26쪽.
- 8) 호적부에 따르면 홍가락의 이명은 洪勝繁이다.
- 9)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1(義烈鬪爭 4), 1997, 경찰신문조사 문서제목 洪加勒 신문조사

문) 가정과 생활 상황은 어떤가.

답) 부친 亨俊(당 47세)이 호주이고, 모친 金愛西德¹⁰⁾(당 48세), 누나 水晶(당 24세), 누이 玉晶(당 18세), 아우 性達(당 16세), 누이 石晶(당 13세), 아우 性萬(당 10세), 나와 8인 가족이다.

조부 시대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데, 대대로 기독교에 열중하여 자선사업 등에 재산을 탕진, 부친 대에 와서는 거의 무자산이었고, 나도 중학은 고학으로 마쳤다.(중략)

문) 경력을 대강 진술하여라.

답) 나는 대정 二년(1913년-필자주) 10월 19일 京城 水原郡 陰德面 南陽里에서 호주 洪亨俊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당시 조부 승하는 기독교 목사였고.(중략)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홍승하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으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자선사업을 하여 가난하게 된 것 같다. 아울러 홍승하의 며느리 김에스터도 기독교 신자이며, 손자인 홍가륜의 경우 경기도 남양에서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승하는 11세(1874)부터 19세(1882)까지 내동 사숙에서 한문을 공부하였다고 전한다.¹¹⁾

홍승하가 언제부터 기독교를 신앙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씨는 1899년 10월에 서울 남감리교회에서 비로소 믿기를 작정한 후¹²⁾

10) 성경에 나오는 여성 에스터의 한문식 표기임.

11) 홍승하의 집안, 어린시절 및 그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역 기독교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수원 동탄 교회 원로 목사인 홍석창의 글이 있어 이를 주로 참조하였다. 홍석창, 『감리교회와 독립운동』(에이앤, 1998), 317쪽.

12)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99년 10월에 남감리교회에서부터가 아닌가 추정된다.¹³⁾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홍승하는 영흥도에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일본인을 만나 따귀를 때리고 도망하다가 안전하게 피하기 위하여 당시 치외법권 지역인 정동에 있는 아펜젤러의 집 담을 뛰어 넘어 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아펜젤러와 인연을 맺어 기독교와 접하게 되었다. 원래부터 그는 키가 크고 몸이 건강하고 씨름도 잘하여 성격이 불같아서 자녀나 친구를 대할 때, 따귀를 먼저 때리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를 가르켜 홍 따귀 또는 홍몽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를 접한 이후부터는 聖江 홍승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¹⁴⁾

3. 경기도 남양에서의 전도활동과 사립 보흥학교 육성

1) 남양에서의 전도활동

홍승하의 본격적인 전도활동은 그가 신학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난 후 남양에서부터 시작된다. 홍승하는 한국최초의 기독교 지도자 양성소로 1899년에 설립된 감리교회의 신학회 안에 있는 권사와 지방전도사 양성반에서 1900년 경 전도사 교육을 받았다.¹⁵⁾

13) 서울의 '남감리교회'는 교회명칭이 아니라 남감리회 교파를 뜻한다. 하지만 수원지역은 북감리회 소속이므로, 한번 소속 선교회를 바꾼 것 같다. 윤치호와 남궁익이 남감리회 소속이다.(광주대 남규무 교수 교시). 안희선, 『수원종로교회사(1899-1950)』, 수원종로교회, 2000, 117쪽에 따르면, 홍승하는 1900년에 개종하고 존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14) 홍석창, 『감리교회와 독립운동』(에이앤, 1998), 317쪽.

15) 유동석, 『하와이의 한인교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2006), 40-43쪽. 이점은 홍승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 및 근대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지 않아 앞으로의 자료 발굴을 기대한다.

홍승하에 대한 기록은 『신학월보』¹⁶⁾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위의 기록을 보면, 홍승하는 1900년 12월 인천항 우각동 감리교회당에서 행해진 예수 탄신 경축예식의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¹⁷⁾ 이를 통해 홍승하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홍승하는 1901년 2월에¹⁸⁾ 양성반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그의 고향인 경기도 남양구역의 담임전도사로 파송되어 일하였다.¹⁹⁾ 홍승하가 전도사로 고향으로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신학월보』 1901년 7월호에 실린 홍승하의 연설문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작년에 사경회가 달성회당에서 모인 후에 그 참례한 형제 중 남양 속장 홍승하씨가 작별하는 연설을 만들어서 연설하라고 하였더니, 마침 그때 사경회는 작별회로 모이지 못하였으니 그 연설을 못하였으나, 그 연설의 문서를 본즉, 말이 기회와 잘 합한 말이니, 작에 기재하여 형제들이 그와 같이 문제와 관항을 자세히 하고 기회와 잘 합하여 연설하기를 바라노라.²⁰⁾

16) 신학월보는 감리교 선교사 존스가 주도하여 창간한 한국 최초의 신학 잡지이다. 1900년 12월 창간 이후 1904년까지 월간으로 발행되고 2년간 중단되었다가 1907년 7월 복간되어 1910년 가을까지 격월간으로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신학 교회사 성서주석 설교학 등에 관한 논문과 논설, 신앙고백, 교회 관련 기사 등을 실고 있다. 신학 전문 잡지이지만 순한글로 되어 있어 일찍부터 한국 신학의 형성에 공헌하였다. 또한 신학서적이 거의 없던 기독교 초창기에 신학교의 교재 역할을 함으로써 목회자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7)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씨 탄신에 인천항 우각동 미이미 감리교회당에서 경축예식을 행할 때, 예배당 안과 밖에 찬란이 단장하였는데, 상오 9점에 종경을 울리매, 남녀교우 2백여명이며, 서국 손님 4분과 청국영사 내외분이 오셨더라. 목사 조원시씨는 누가복음 2장을 전도하고 만당제인이 기쁜 마음 한량없이 구세주 오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 찬송하니 노래곡조 더욱 기쁘더라. 또 저녁 불노리에 색등이 백여개 산천도 응하여 기뻐하는 듯, 관광인 합 300인데, 그중에서 회당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는 인가 50여인이요, 또 금광회사장께서 각색 실과와 과자 한짐을 선물하고 사랑하는 형제 김경선씨와 그 부인 이리사벳씨는 동화 18원을 선물 하였더라 홍승하

18) 『기독교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는 “1901년 2월에 남양군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9처에 세우고, 교우는 272인에 달하였으며”라고 하여 1901년 2월에 홍승하가 남양군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19) 유동석, 『하와이의 한인교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2006, 40~43쪽.

20) 『신학월보』 1901년 7월호

작별 논설

문제는 서로 떠나는 일이라.

우리가 몇 날 안에 장로사와 목사들에게 모여 보배로운 이치를 얻어 새롭게 다라 아는 것이 많은데, 지금 각기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하겠사오니 작별 하는데 말이 세가지 있노라

일관은 감사하고 서로 떠나움, 2관은 중한 부탁 서로 받고 떠나움, 3관은 영혼 교통함을 언약하여 서로 떠나움이다.

일관은 감사할 일이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거하고 사망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심을 급히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녀이(이하 생략)

라고 하여, 각자 고향으로 전도하러 떠나면서 감사, 영혼 교통함을 서로 약속하며 떠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때 남양은 1898년 이래 가정집에서 신도들이 모이고 있었다, 거기서 어머니와 부인 김살로매와²¹⁾ 장남 형준 등은 가족이 함께 기독교를 신앙하게 되었다.²²⁾

남양으로 전도하러 떠난 홍승하는 그곳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다.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1901년 2월에 남양군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9처에 세우고, 교우는 272인에 달하였으며 1903년에 하와이에 건너가서 교회를 10처에 세우고 신호에 와서 이민회사에 전도하다 그후 1905년 3월에 다시 남양에 와서 전 할세 암자와 판데사당집을 남학교에 부치게하고²³⁾

21) 홍승하 호적등본

22) 홍석창, 『한국감리교회를 섬긴 사람들』(에이앤, 1988), 26~27쪽

23)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라고 하여, 그가 교회를 9곳에 세우고, 교우 272인을 전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홍승하의 남양 구역 전도 활동 상황은 여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신학월보』 1901년 9월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양교회 흥왕황합

우리 사랑하는 남양 속장 홍승하씨가 성신 도와주심으로 남양 모든 마귀와 마귀에 일을 다익이고, 지혜로이 전도하여 교회 일을 힘써 보시는데, 일년 동안에 남양 등지에, 일곱 교회를 일으키시니, 남양을 양철이, 포막, 매화동, 용두, 영흥섬, 선감섬이라. 그 외에 여러섬 과 여러 촌을 일일이 셀 수 없으나, 이 일곱 교회는 특별히 큰 교회될 여망이 있더라.²⁴⁾

라고 있듯이, 홍승하는 속장으로서 남양읍과 영흥도, 선감도 등 일곱 교회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가 전도에 나서기 이전인 1900년 10월까지의 남양을 통틀어 남양읍과 포막동에 2개의 신앙공동체가 있었으나 1901년 홍승하가 남양선교에 전적으로 나선 후부터는 불과 1년 사이에 5군데 신앙공동체가 더 생겼던 것이다.²⁵⁾ 아울러 홍승하의 사촌 동생으로 남양교회 속장인 홍승문 역시 기독교 전도에 매진하였던 것이다.²⁶⁾

홍승하 고향인 영흥도 전도활동은 『신학월보』 1901년 10월의 「성신입하심」에 더욱 자세히 보이고 있다.

24) 『신학월보』 1901년 9월호

24) 김진형, 『사강교회 50년사』(사강교회, 1997), 50쪽

26) 『신학월보』 1901년 9월호에 역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양교회 속장 홍승문씨는 홍승하씨의 종제인데, 일찍이 주를 믿어, 이 세상 영화와 욕심을 등지고, 다만 천국일을 힘써 구하는데, 노자를 자비하고, 어려섬과 촌에 다니며, 예수를 힘써 간증하며, 천국이 가까이 옴을 반포하여 주 믿는 사람이 날로 흥왕한다 하니, 우리가 듣기에 심히 기쁘고, 또한 이 형제 두분을 대하여 치하할 일이다. 이 소식을 듣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 형제의 본을 따서, 천국일을 힘쓸지이다

(음력 7월분에 영흥섬에 전도 갔었더니) 그 후에 12세된 남자가 병이 있는데, 본읍 속장 홍승하씨가 그 집에 가서 기도 찬미하는데, 도원씨 부인 기씨는 방에 있다가 본즉, 공중으로 광채난 불빛이, 호박꽃모양 같이 방중에 내려 헤어지는 지라. 이상히 여겼더니, 일후에 병든 아이가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박하고 섬섬하오나, 부모님께서 슬퍼마시고, 세수하시고 기도하라하며, 그 부모가 닭이 울도록 기도한 후에 보던 불꽃 모양이 이상한 것을 이야기함에, 그 아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복을 주실려고 성신이 나리심이라고 하고 잠자는 모양으로 별세하였으니, 이 아이는 천당에 있을 줄 믿사오며, 또한 그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오니 참 감사하오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나이다. 전도인 복정채²⁷⁾

1902년 홍승하의 활동은 『감리교선교회 연례보고서』를 통하여도 짐작해 볼 수 있다. 1902년 「서울 서지방」〈남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고 되고 있다.

남양

현재 여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역은 권사자격 갱신에 추천받은 홍승하 형제가 대부분 만들어냈다. 3년간의 전도로 이곳에 계삭회가 편성되었고, 현재 12명의 입교인과 75명의 학습인이 있다. 그들은 아직 아무 재산도 없으며, 기근 때문에 큰 비탄에 잠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홍씨를 매우 전도

27) 「신하월보」 1901년 10월의 「성신임하심」에 홍승하와 사촌 동생 홍승문의 고향인 영흥도 전도활동은 더욱 자세히 보이고 있다. 남양교우 홍승문씨가 음력 7월분에 영흥섬에 전도갔었더니, 그곳 하도원씨집에 19세된 여인이 병드려 누운지 양삭에 음식을 전폐하여 피골이 상련하고 말을 못하여 죽을 지경이더니 승문씨의 전도를 듣고, 꼭 그날로 사신과 신주를 소화하고 기도하였는데 3일후에 병인이 말하되, 내가 이제 집에 있을수 없으니, 뒤분으로 나가서 개구명으로 나가 정한산에 가 있다가, 내곳으로 가겠다고 하고, 새 옷을 입고 나와서 부엌에 누우며, 나를 업고 나가자고 하자늘, 그 부친 도원씨가 업고 밖에 나갔다. 드러오매, 곡 밥을 찾으며 음성이 푹푹하여 짐짓 귀신이 하는 모양같으니, 그 부모 이상히 여겨 음식을 주매, 곧 충실하였으며,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를 권사자격갱신에 추천한다. 일년 동안 이 구역에서 45명의 성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자금을 위해 한국돈으로 110불을 거두었다.²⁸⁾

라고 하여, 홍승하가 3년간의 전도로 이곳에 계삭회를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계삭회란 선교 초기 한국감리교회 의회로서 일년에 4차례 모였다. 1902년 3월 6일 남양구역 최초의 계삭회가 남양교회에서 열렸던 것이다.²⁹⁾

1903년 홍승하의 활동은 『감리교선교회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1903년 「서울 서지방」〈남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남양

이 구역은 홍승하 형제의 유능한 지도로 매우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 이곳에는 8개의 담당지역이 있으며, 명부에는 131명의 입교인과 학습인이 올라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대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가치있는 일꾼들을 확보해야 한다.³⁰⁾

즉, 홍승하의 유능한 지도로 131명이 입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학월보』 1903년 2월 「남양교회 진보함과 마귀를 승전함」에 홍승하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8) 홍석창, 『1885-1930 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에이앤, 1995), 145쪽

29) 『사강교회 95년사』, 54쪽.

30) 홍석창, 위의 책, 153쪽.

권사 장원근

4년 전에는 남양 등지에 주의 참 이치를 아는 자 하나도 없더니 주강생 1천 구백년에 주의 택한 종 홍승하씨가 비로소 주의 빛을 전파한지 지금 3년인데 교회가 일곱곳에 설치되고 믿는 형제가 날로 흥왕하는데 교회가 케블 목사와 함께 십일초 5일에 남양읍 내려가서 제2차 계삭회를 모였는데 각 교회 속장에 보단을 보니, 성도가 날로 흥왕한다 하였고, 또 재미있는 말이 많은 중,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사 홍악한 사귀들인 남자 하나와 여인 하나를 고쳤는데, 남자의 이름은 홍소원이다. 나이 지금 30세인데, 7년전부터 사귀들려, 점점 미친마음이 더욱 발하여 밤낮 잠도자지 않고, 낮을 가지고, 그 바지와 안해를 해하려 하며, 음식은 밤에도 두세번씩 먹고, 낮에는 수업이 먹어가며 사람을 보면, 낮으로 해하려 하더니 권사 홍승하씨가 믿는 형제 두어분과 같이 가서 참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리매, 점점 머리를 숙이거늘 모든 집안을 모으고 기도하고 왔더니, 몇일 후에 다시가서 엇더함을 물으매, 홍소원씨 말이, 밤에 꿈을 꾸니 실신할때부터 항상 같이 있던 여인 셋이 울며하는 말이, 오늘은 홍소원이가 읍내 회당에 가겠으니, 우리는 피하여 가노라 하고, 도라보고 가더라 하며,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행사가 성한 사람과 같으며, 그후로 항상 회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니 이었지 주의 권능이 아니리오. 참 감사하오며, 또한 여인의 성은 리싼대과부라. 홍악한 사귀가 돌녀, 밤낮으로 야단하고 제물을 제가 상하더니, 믿는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 잡아다 놓고, 한곳에 모여 찬미 기도할 때에 그녀인이 크게 소리지르고 무섭다하고, 도망하거늘, 즉시 붙잡아 앉히고 홍승하씨가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인의게서 나가라 하며, 삭귀가 악한 소리로 거역하여, 갈아대나도 예수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고, 자기 몸을 심히 쳐상하거늘, 홍승하씨께서 다시 꾸짖어 갈아돼, 예수의 이름으로 사귀야 나가고, 여인아 거기 없데어라. 내가 하나님기도 하겠다 하니 여인이 순종하여 엽대이고 기도할 동안에, 조용하더니 기도를 마치고 이러보매, 정신이 깨끗하여 손으로 스스로 따립대를 만지며,³¹⁾

31) 『신학월보』 1903년 2월 「남양교회 진보함과 마귀를 승전함」

『신학월보』 1903년 4월호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남양교회 왕성함

남양교회 재미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으므로 그 중에 요긴 한 것만 뽑아 간략하게 기재하노라.

권사 홍승하씨의 보단을 거한 즉, 남양교회가 매우 흥왕하여 믿는 이가 날로 많아지고, 또 교회를 여러 곳에 새로 실시하였는데, 두곳은 신설이요, 또한 곳은 복설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날마다 성신으로 인도하사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병든 자는 낫음을 얻고, 사귀들여 미친자는 그 사귀가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고로 모든 믿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증조를 보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믿는 자들이 처자 권속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 오는자가 많다고 하더라.

『신학월보』 1903년 10월에 또 전도사 홍승하는 남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시험은 믿음을 나타냄〉

남양 송동 김더현의 셋째 자부 김씨는 지금 19세인데, 연전에 영흥 친가에 가서 예수 도리를 듣고 깊이 믿어 성신이 충만하여 여인들을 만나는 대로 예수를 증거하더니, 시집에 돌아가니 그 집 사람들이 크게 악하여 성경찬미를 뺏아서 감춘지라. 김씨가 간구하대, 책을 주면 두었다가 친가로 보내겠으니 달라하니 마지못하여 주거늘, 의장안에 감춰두고 밤이면 몇절 보아외우더니 집사람이 알고 기름을 주지 않는지라. 자기 머릿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실심지에 한방울 시켜놓고 성경 몇절 보아 외우고 깨지면 기도하고 매달 달빛있는 날이면 집사람 잠든 때에 달빛에 나가 읽어 외은 것이 여섯장인데, 교회부인이 가시면 강을 바치더라. 또 그 남편에게 돈 몇푼씩 구청하여 예배전을 모으고저

하나 그 동서가 엇지 약한지 몇일 만큼 김씨의 의장을 뒤지는 고로 땅을 파고 모아서 동화 18전을 읍내 회당으로 전하며 하나님께 바쳐 달라 하였다. 이 김씨는 방금 아파 룬같은 마귀와 가시덤불 같은 시험에 들었으니 여러 형님 자매는 이 김씨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사 홍승하³²⁾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1년 2월에 남양에 전도하러간 홍승하는 1901년부터 1903년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³³⁾ 이처럼 남양에 파견되어 활발한 전도활동을 하던 홍승하는 1903년 가을 하와이로 전도활동을 떠나게 된다. 이는 『감리교선교회 연회록』 1904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남양-지난 가을 이 구역은 낙원 즉 하와이로 떠난 홍씨의 능력있는 지도력을 잃었고, 박세창 형제가 대신 사업을 맡게 되었다.

라고 하여 홍승하가 1903년 가을에 하와이로 떠났음을 밝히고 있다.³⁴⁾ 물론 전도대상은 하와이에 이주한 한인들이었다. 한편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홍승하가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영흥도라는 섬 출신인 점과 아울러 그의 탁월한 전도능력이 그가 선교사로 뽑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와이로 파견되기 전 그는 전도에 대한 보다 다양한 교육과 일정한 영어교육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³⁵⁾

32) 『신학월보』 1903년 10월호

33) 홍승하는 1902년 권사 2급이었으며, 1902년 5월과 1903년 5월 사이에 서한국지방회에서 전도사 직첩을 받았다.(『사강교회 95년사』, 63쪽)

34) 홍석창, 위의 책, 162-163쪽.

35) 독립기념관 김도형 박사의 교시에 따르면 당시 선교사로 파견되는 인물들은 통번(통역)을 담당하므로 영어에 능통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 좀더 검토하고자 한다.

2) 남양에서의 보흥학교 육성

『남양백년사』에 따르면,³⁶⁾ “1908년에는 홍승하씨가 육성하던 남양보흥학교를 편입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구한말 남양지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인 보흥학교³⁷⁾와 홍승하의 상호관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8일 「南校落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남양군 사립보흥학교 부교장 이창회의 진술에 의하면, 본교는 1901년에 미국인 조원시의 기부금 매달 6원으로 기금삼아 학교를 설립하여 학부의 인허가를 얻었다.³⁸⁾

라고 하여 1901년 미국인 목사 존스(G. H. Jones)의 기부로 학교가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이 지역에서 전도사로서 활동한 인물이 홍승하이며,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인물이 바로 존스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전도사로 간 1901년 이후 사립 보흥학교의 육성은 바로 홍승하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보흥학교 즉 남양매일학교가 연회보고서에 처음 언급되기는 1906년부터이다, 이 학교에 대한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06년 우리는 크게 번영하는 매일학교 하나를 남양읍에 가지고 있습니다³⁹⁾

36) 남양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동문회, 『남양백년사』(1898-1998), 1998, 121쪽.

37) 李梯幸, 「남양군의 사회와 교육-인물을 중심으로」, 『화성의 얼』 3, 화성문화원, 1998.

38)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8일 「南校落成」

39) 홍석창 편저, 『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에이앤, 1995), 188쪽

1907년 남양의 학교는 현재의 건물에서 불편을 느낄만큼 성장하여 새로운 학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⁴⁰⁾

1908년 큰 학교 건물이 남양리에 제공되었고 70명의 소년들이 2명의 기독교 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그 구역 목사(필자 주-이창희 권사)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⁴¹⁾

이 학교의 부교장으로 학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李昌會⁴²⁾ 역시 기독교인이었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2일자 잡보 「勒奪校土」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래인의 전설을 들을 즉, 남양군 사는 이창희는 야소인이라. 본군에 설치 학교(設施學校)하고, 본교 향교 교토(校土)를 녹탈하여 찬성한다 칭함에⁴³⁾

라고 하여 그가 기독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그는 1904년 남양구역 권사 1년급 명단에 들어 있는 초기 남양구역 개척자였다고 할 수 있다. 1906년에는 남양군에 영어학교를 설립한 인물로⁴⁴⁾ 1907년에는 권사로서 김우권 전조사와 함께 남양순회구역 사역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13년에는 남양구역장으로 부임하였으며,⁴⁵⁾ 1915년 집사목사, 1917년 장로목사 안수를 받았다.

40) 위의 책, 201쪽.

41) 위의 책, 209쪽.

42) 이창희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활동」,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국학자료원, 2003), 130쪽.

43) 『대한매일신보』 1906년 12월 2일자 잡보 「勒奪校土」

44)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1일자

45) 안희선, 『수원종로교회사(1899-1950)』, 수원종로교회, 122-123쪽

1908년 『감리교선교회 연회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이창회의 활동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남양구역은 작년에 두 가지 일들로 고생했다.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면에서 의병들과 그들을 추적하는 일본군의 잦은 습격 때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면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우리가 유능한 한국인지도자들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6개 교회가 있는 이 큰 구역은 이창회 권사 한 사람의 감독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혼자서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누가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는가” 큰 학교 건물이 남양시에 제공되었고, 70명의 손녀들이 소년들이 두 명의 기독교 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그 구역의 목사의 감독을 받고 있다.⁴⁶⁾

특히 이창회는 홍승하가 1918년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홍형준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다. 『왜정인물사료』 1권 「李昌會」에

사회관계 1) 洪亨俊, 洪識杓

라고 있는 데서도 이를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이창회는 『왜정인물사료』 1권의 다음 기록을 통하여도 그가 친기독교적 인물이며, 홍승하와 가까운 인물이었던 점을 추정할 수 있다.

46) 홍석창, 위의 책, 209쪽.

생년월일 1872년 7월 17일

출신지 京畿道 水原郡 陰德面 南陽里(원적)

학력 1920년 京城 天然洞 聖經學院⁴⁷⁾에 들어가 3개월간 수업

경력 및 활동 南陽 普通學校長을 지낸 일이 있음

1911년 7월 장호원으로 이사하여 사립 기독교 制荷學校의 監理를 하는 한편 농업을 영위함

그 후 경성 인천 등지에서 약을 파는 행상을 하거나 혹은 토지 매매 중개를 함

1919년 3월 보안법 위반으로 禁錮 4개월에 처해짐

1923년 獸肉 판매, 하숙업 영업 등을 함

1923년 고려공산당 선전원 李大鼎과 공모하여 富川郡에서 공산당 선전비 모집을 하다 검거되어 처벌됨

1924년 경성지방법원에서 공산당 선전자금 모집 때문에 징역 3년에 처해짐
계통 소속단체 : 고려공산당

인물평 외모 키 5척 4촌

등근 얼굴형에 빨간 피부. 얼굴에 하얀 천연두의 자국이 있음

배일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에 찬성하여 그 주의를 고취 선전할 우려가 있음⁴⁸⁾

즉, 이창회는 남양출신으로 기독교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47) 현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전신임

48)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4. 하와이로의 전도 활동과 신민회 회장 홍승하

1) 하와이로의 전도활동과 신민회 참여

1902년 가을에 하와이 설탕회사에서 한국정부에 이민 노무자 고용을 제의해 왔다. 원래 하와이에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포르투갈인, 일본인 등이 일찍부터 사탕수수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임 분쟁이라든지, 동맹파업 등이 빈번해지자 온순 근면하다는 한국인 노무자를 희망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한국정부는 하와이 설탕회사 측과 이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일을 담당할 기관인 綏民院을 설립하였다. 이민 모집사원을 동아개발회사가 맡고 데슬러(D.W.Deshler)라는 미국인이 실무자로 뛰었으나, 일의 진척이 여의치 않자 수민원에서는 존스 목사에게 이민 모집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⁴⁹⁾ 이에 홍승하 전도사는 존스 목사에게 남양구역을 책임 맡은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이 인정되어 하와이 전도사로 선택되었던 것 같다.⁵⁰⁾ 이에 홍승하는 14세인 그의 아들 형준을 데리고 1903년 가을 고국을 떠나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⁵¹⁾

당시 하와이에서는 1903년 8월 1일부터 한인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동년 11월 3일에 정식으로 안수정과 유병길을 대표로 하여 감리교회 감리사 피어슨과 한인전도회 조직을 교섭하였다. 그 결과 같은 달 10일에

49)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내리교회, 내리백년사』(1985), 142~14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 120~121쪽.

50) 이만열은 그의 논문 「하와이 한인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2002, 43쪽에서 홍승하는 『신학월보』 1903년 10월호 pp. 437~439의 기록으로 보아 1903년 말경까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홍승하를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보는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동식, 『하와이의 한인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2006, 40쪽에서는 홍승하가 1904년 2월 18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1) 오인철, 『하와이 한인이민과 독립운동, -한인교회와 사진신부와 관련하여』(전일실업출판국, 1999), 95쪽.

리버 스트리트에 집을 얻어 한인전도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⁵²⁾ 바로 이러한 때를 전후하여 흥승하는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에 1903년 11월 흥승하의 지도아래 하와이 여러 섬의 우수한 청년들이 호놀룰루에 집합하였다. 임치정, 이교담, 임형주,⁵³⁾ 윤병구, 그리고 박윤섭과 그의 부인 등이 호놀룰루로 모여 들었다. 이때 감리교 목사인 피어슨(George L. Pearson)의 지도 아래 한인 감리교회가 호놀룰루에 설립되었고 흥승하가 전도사를 담당하게 된다.⁵⁴⁾

피어슨牧師의 指導下에 韓國地方傳道會가 호놀룰루에 設立되고 洪承河가 地方傳道師로 任命되었다.⁵⁵⁾

한편 흥승하는 피어슨과 협력하여 『포와 한인교보』(하와이의 한인 소식지)라는 최초의 하와이 한인신문을 발간했는데,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판매되었다. 불교도들과 성공회 신도들 중의 일부는 대부분이 감리교도인 신민회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 윤치호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반감리교 파벌은 1904년 3월부터 1905년 5월까지 『新潮』라는 신문을 한달에 두 번 발간했다고 한다.⁵⁶⁾

52) 홍석창, 위의 책, 28-29쪽.

53) 1904년 귀국해서 안식교인이 되고 임기반으로 개명한다.

54) 홍석창, 『흥승하』, 『감리교회와 독립운동』(에이멘, 1998), 318쪽. 재미사학자 이덕희는 “호놀룰루 시내에는 안정수와 우병길이 피어슨 감리사와 의논하여 1903년 11월에 한인선교회를 조직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1904년 2월 18일 흥승하 지방전도사가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이 한인선교회를 맡아 이끌어 가다가 1905년 4월에 정규교회로 인정받았다. 명단에 20명의 교인이 있다. 흥승하 전도사는 제1대 목회자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밖에 창설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교회이다.” 라고 하고 있다(이덕희,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와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 역사』(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3), 288쪽. 즉 씨는 흥승하가 1904년 2월 18일 하와이에 도착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1905년 4월 경 목회자로 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흥승하의 도착 시기 및 그의 한국으로의 출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55) 현순, 『玄楯自史』, p.64: Soon Hyun, MY AUTOGRAPHY,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276쪽.

56) 정대화역, 웨인 패더슨 저,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들녘, 2003). 93쪽.

2) 신민회 회장 홍승하

1903년 11월 홍승하와 尹炳球, 文鴻錫, 朴允燮, 林崑正, 林炯住, 김정국, 安正洙, 송헌주 등 주로 기독교 감리교 계통의 인사와 유학생들은 신민회를 조직하였다.⁵⁷⁾ 그리고 홍승하는 신민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⁵⁸⁾ 신민회 조직자 중의 한 사람인 현순은 신민회의 설립과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03年 11월에 布哇群島의 優秀한 靑年들이 모두 호노롤루에 洪承河 指導 下에 集合했다. 韓國에서의 危險한 情勢를 討論한 後 우리는 新民會를 組織하고 洪承河는 會長으로 被選되었다.⁵⁹⁾

현순의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와이 도착한 홍승하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기독교인들과 젊은 유학생들을 다수 모았을 것이고 이를 하나로 묶는 조직체를 만들 것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이 계획은 하와이에 살고 있던 당시 기독교 계통의 윤병구, 문홍석 등 여러 유력인사들이 갖고 있던 구상을 고국에서 홍승하가 도착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홍승하 등 신민회를 조직한 인사들은 기독교 전도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현순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인들의 교육과 경제적 이익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

57) 신민회의 조직시기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김원용은 『재미한인오십년사』, 85쪽에서 1903년 8월 7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창희교수는 현순의 기록을 따라 1903년 11월 경으로 파악하고 있다(최창희, 『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운동(1903~1908)』,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2003). 66~67쪽, 필자의 생각으로는 홍승하가 1903년 가을에 하와이로 갔으므로 11월경에 조직되었다고 판단된다.

58) 『현순 자전』(연세대학교, 2003), 275~276쪽.

59) 현순, 『玄楯自史』, 64쪽 : Soon Hyun, MY AUTOGRAPHY., 276쪽.

해서 무엇보다도 한인들을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 중요함을 깨닫고 단체명을 “신민”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흥송하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동년 12월 2일에 흥송하, 安正洙, 尹炳求 등은 가와이섬 갑파지방에도 신민회지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이 지회의 회장은 韓柱東, 부회장 張永煥, 서기 鄭鎮相, 회원 梁天泰, 高錫柱, 趙炳玉 등이었다.⁶⁰⁾

신민회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자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점은 당시 신민회 창립대회에 참여한 방사겸이 쓴 그의 『평생일기』 1권의⁶¹⁾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방사겸은 1905년 12월 9일 조직된 大同教育會와 1907년 3월 2일 조직된 大同輔國會에서 활동한 인물이다.⁶²⁾

하와이 신민회에 참석(참석)하여 본 관경

이 농장(길노이 농장--필자 주)에 몇 주일 있는 동안에 평양 사람 송원숙 씨의 부인과 김진하 씨 두 분이 나에게 친절히 할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종종 먹게 한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나는 불가불 매부를 찾아야 되겠는 고로 이곳에 이같이 사랑하는 이 두 분을 작별하고 하와이섬 힐로항에 나와서 호놀룰루로 가는 배를 잡아탔다. 이 배에 일꾼들 전부가 하와이 토종 가나끼인들인데 처음 보기에는 무서웠다. 나는 수질을 몹시 하므로 배 옷장 한편 구석에 담요를 펴고 새로 사 신은 구두를 벗고 누워서 잠시 잠을 들었다. 깨어나니 벗어 놓은 새 구두가 없어졌다. 그러나 찾을 도리가 없어 잃고 말았다. 배는 벌써 호항(호놀룰루)에 도착하여 하륙하게 되는 때에 꼴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웃을만하다.

6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460쪽, 658쪽

61) 『방사겸 평생일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6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661쪽.

나는 커다란 가죽 가방을 메고 맨발로 내려서 호항(호늘물루) 한인의 신민회관을 찾아 갔다. 나는 마침 신민회 개최하는 때에 들어서게 되어 회식에 같이 참여하여 회무 결정을 구경하고 있었다. 신민회 회장은 홍승하 씨요 회에서 지금 일어난 변론의 문제는 역적도모라는 문제로 정론을 하는 것인데 역적도모라는 그 이유는 어디서 생기었는가 한다면 신민회 회장 홍승하 씨가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독립하게 되면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누구는 총리 외무 군부 통상 공부 사업대신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역적도모라는 명사를 지어 가지고 홍승하 씨를 공격하는 기회였다. 이 문제로 홍승하 씨를 공격하는데 고수자는 이교담 씨였다. 이교담 씨는 미주 공립협회 사람이었다. 나는 일찍이 사회에서 연단(단련)도 없고 교회에도 다녀보지 못하다가 졸지에 이런 사회에 침례한 것이 스스로 장쾌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변론하는 것을 취미있게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큰 상업에서 여러 가지 계급의 사람을 많이 상종하여서 사람들의 시비와 변론하는 것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것은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 홍승하를 역적도모를 하였다고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신민회 반대자로 나는 스스로 인증하게 되었다.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민회 회장 홍승하 씨가 말하기를 우리가 장차 독립하게 되면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누구는 총리 외무 군부 통상 공부 사업대신이 된다고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다, 홍승하는 정부를 개혁하려는 의지로 서재필을 수상으로, 윤치호를 외무장관으로 하는 하나의 정부를 구상했는데, 이것은 현 정부를 타도하고 임시정부를 획책한다는 인상을 주었다.⁶³⁾ 신민을 바탕으로 소박하나마 새로운 나라를 꿈꾼 홍승하에 대하여 “역적도모”란 딱지가 붙여졌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 같다. 한편 윤치호는 이러한 명단을 만든 홍승하를 보고 바보라고 바웃고, 반

63) 정대화역, 웨인 패터슨 저,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들녘, 2003). 95쪽.

대파인 김규섭은 홍승하의 이러한 행동을 이용하여 홍승하와 그의 동지들을 역적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반대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忠義會를 조직하였다.⁶⁴⁾

홍승하의 정치적인 주장은 기독교인으로서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홍승하 개인의 의견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시 신민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감리교계통의 하와이 현재 한인 지도자들의 구상이 더욱 반영된 형태가 아닌가 판단된다. 『국민보』1949년 11월 30일자 「국민회의 사명」 중 신민회 관련 부분은 신민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하와이에 그같이 피난을 온 사람들의 첫 조직은 신한회(新韓會) 혹 신민회(新民會)니, 그 회의 목적은 일변으로 부패한 우리 정부를 개혁하고 포악한 왜적의 세력을 항거하려 함이었다. 그 회의 민주제로 된 해외조직의 처음인데, 회장이 외에 총무 내무 외무 재무 군무 등 임원을 둔 것이 정부의 부과를 둔 것과 같고, 그 회를 조직하던 지사들은 스스로 그 회를 가르쳐 무형정부라고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위의 기사는 1949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재미한인들이 신민회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민회는 하와이 이민 사회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한인단체 나아가 정부적인 체제를 갖춘 “무형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설립목적은 부패한 조선 정부를 개혁하고 포악한 일제에 항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치적인 단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신민회의 설립 목적은 좀더 정치적인 조직으로 과장되어 조선 정부에도 알려져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위의 신문에 이어서 서술된 다음의 기사는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64) 위와 같음.

그 말이 유전되고 오전되기도 하고 혹은 고의로 곡해와 무소로 소식을 보내어, 광무(光武)의 조정은 크게 경동되었으니, 그 이유로 윤치호(尹致昊) 박희병 등을 특사로 보내어 하와이와 멕시코의 이민사회들을 조사하였으니, 멕시코 조사에는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었으나 하와이 조사는 「역적도모」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죄가 있고 따라서 겁이 많은 광무의 정부(대한제국)는 왜통감과 협의하여 한인의 일반 외국이민을 막은 것이다.

즉, 조선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문에 경각심을 갖고 특사를 파견하여 하와이 사회를 조사하였다.⁶⁵⁾ 아울러 이민사회의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외국으로의 한인이민을 막는데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흥승하는 귀국하게 된다, <국민보> 1949년 11월 30일자 <국민회의 사명>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하와이에서 그렇게 시작된 사회조직이 그 조직자들의 떠나는 것을 따라서 잠시 침식되고 말았다. 그 조직의 창시자들은 누구이나, 흥승하 안정수 윤병구 임치정 이교담 등인데, 그들은 내지에서 일찍이 독립협회(獨立協會) 그 후에 보안회(輔安會) 등 내지사회에서 직접 간접의 경력으로 신공기 흡수의 초동훈련을 받은 이들이다. 그들이 하와이에 첫 조직을 시작하였으나, 흥승하는 신병으로 귀국하고 그 나머지는 대륙으로 옮기게 되는 때에 자연히 그 조직은 침체되었으나, 그 정신은 하와이에서 계속되고 미국과 멕시코에 전파되고 내지와 원동예까지 여단의 연락이 있게 되었다. 그 정신으로 된 단체들이 지방적으로 조직된 것이 초정(礎定)이요, 그것을 통일한 것이 그 다음이다. 그 당시 국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5조약 7조약 합병조약의 치욕을 당하는 고로, 해외의 민족적 단합이 더욱 속성된 것이다.

65)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럽다. 윤치호가 멕시코교민 학대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가던 중 하와이에 들른 것은 1905년 9월이며, 멕시코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윤치호일기」 6(국사편찬위원회, 1976.) 145~172쪽,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86~89쪽.

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민회 주요 구성원은 국내에서 독립협회, 보안회 등에 참여하여 조선의 국권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던 인사들이었으므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회장인 홍승하의 경우 경기도 남양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열심히 전개한 대표적인 전도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신민회는 일부에서는 감리교인만의 조직이 아닌가하여 주변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⁶⁶⁾ 신민회는 구성원들의 정치의식 부족과 종교적 분파 등으로 인하여 1904년 4월 20일 해체되고 말았다.⁶⁷⁾ 그러나 이 하와이 신민회의 활동과 역사는 1907년 국내로 들어와 신민회 성립에 참여하는 입지정에 의해 국내 신민회 조직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판단된다.⁶⁸⁾ 다만 하와이 신민회와 1907(1908)년 국내에서 조직된 신민회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3) 귀국 후 국내에서의 목회 활동

홍승하는 1904년 2월 18일⁶⁹⁾ 도릭(Doric)호를 타고⁷⁰⁾ 일본 고오베를 거쳐,⁷¹⁾ 귀국하여⁷²⁾ 1905년 3월 경부터 남양에서 전도일을 시작하였다.⁷³⁾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66) 홍석창, 위의 책, 28-29쪽.

67) 최창희, 위의 논문, 66-67쪽.

68) 국내로 귀국하는 홍승하의 경우 기독교활동 외에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

69) 김택용, 『재미한인75년사』에는 1907년에 귀국하였다고 하고 있다. 홍승하 독립유공자평생이력서에도 1907년에 귀국하였다고 하고 있다. Early Membership of Korean Methodist Churches in Hawaii 참조

70) Early Membership of Korean Methodist Churches in Hawaii 참조

71)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72) 안희선, 『수원종로교회사(1899-1950)』, 수원종로교회, 117쪽에서는 1904년 11월에 귀국하였다고 한다.

73) 『국민보』 1949년 11월 30일자 ;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 「고 홍승하 목사의 약사」

1901년 2월에 남양군에 가서 전도하여 교회를 9처에 세우고, 교우는 272인에 달하였으며 1903년에 하와이에 건너가서 교회를 10처에 세우고 신호에 와서 이민회사에 전도하다 그 후 1905년 3월에 다시 남양에 와서

라고 있음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홍승하의 귀국 후 국내에서의 활동은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3월에 다시 남양에 와서 전 할세 암자와 판테사당집??을 남학교에 부치게 하고 6월에 강화도로 파송되어 1년간 전도하다가 익년 6월에 인천 교회에서 1907년에 연회에 입회하고 충청북도의 36교회를 치리하다가 그 구역은 장로회구역으로 바꾸게 됨으로 1909년 11월에 공주교회로 파송되어 전도하였고, 1911년에 신학졸업하고 12년에 장로성품을 받았더라. 동년 연회에서 수원지방으로 파송하여 60교회를 치리하다가 14년 여름에 순행하던 중, 병을 얻어 수년 한양 치료하던 중, 16년 3월 2일에 그 처상을 당하였으며, 씨는 본년 2월 11일 하오 십시반에 엄연히 이 세상을 열결하였으니 오호 애재라 씨의 서거함이며. 하느님의 성역에 종사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니 교회를 세운 것이 20여처요, 인생 구원한 것이 924인에 달하였더라. 그 가족은 80노모가 생존하였으며, 3자 3녀와 손자 2, 손녀 2인이 있으니, 모두 13식구더라.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하여 하느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족하시기를 삼가 비노라

라고 하고 있다.

홍승하의 귀국 후의 보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1905년 『감리교선교회 연회록』 「서울 서지방」〈남양〉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양〉

이 구역은 숫적으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사업의 다른 방면에서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다. 2년 동안 하와이에 있던 홍승하 형제가 다시 그의 옛 일로 돌아왔고, 그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가 하와이로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였으며 그 일로 인해 전 구역에 걸쳐 많은 실망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향이 이 실망의 구름을 몰아내었다. 나는 그의 유능한 지도력 하에 그 사업이 활기를 띠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 홍씨는 청년들을 매우 잘 다루어서, 그들에게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가 남양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쁜 새 교회가 건립되었으며, 현재 봉헌식을 기다리고 있다.⁷⁴⁾

홍승하는 하와이를 출발하여 일본 고오베에 있다가 귀국하여 1905년 3월 다시 남양으로 가서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는 동년 6월 강화도로 파송되어 1년간 전도하였다.⁷⁵⁾ 1906년 3월 제물포의 케이블 목사는 「본처 전도인 그룹」이란 제목 하에, 홍승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홍승하는 2년 전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동포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도했다. 그는 병이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 병이 매우 호전되어 여기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이다. 그는 스스로 믿는 것을 설교하며, 죄의 고발에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구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는 금주 금연운동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담배를 술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였다. 현재 홍씨는 강화도의 여러 구역들 중 하나를 맡고 있다. 여덟교회와 5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그의 관할 하에 있다. 지난 몇일간 홍씨는 고통과 슬

74) 홍석창, 위의 책, 170~171쪽.

75) 『기독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홍승하목사의 약사」

품의 깊은 바다를 지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에 대한 꺾이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⁷⁶⁾

즉, 홍승하를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며, 능력있는 지도자이다. 그는 스스로 믿는 것을 설교하며, 죄의 고발에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구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그는 금주 금연 운동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담배를 술과 같은 범주로 취급하였다.”라고 하여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지도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홍승하는 1906년 6월 29일에는 연회에서 인천향교회(현 내리교회)와 영화학교장으로 파송을 받았다. 한편 동년 그는 전도사로서 인천향 감리에게 인천향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⁷⁷⁾ 1907년에는 남양구역으로 가 지역의 전도활동을 도왔다.⁷⁸⁾ 아울러 동년 집사안수목사를 받고, 공주지방으로 파송되어 충청북도의 감리교 선교를 개척하였다. 1912년 장로목사가 된 후 홍승하는 수원종로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되었다. 그 후 1914년까지 수원교회 담임목사로서 새로이 교회를 건축하는 한편, 중구역 구역장으로서 수원교회와 인근교회를 맡았다.⁷⁹⁾

1915년에는 병중에 광주, 이천, 여주 등지를 다니면서 설교사 양성을 위한 강좌를 하였으며, 1916년에는 수원 북, 시흥 남, 부천동 지역을 순방하였다. 1918년 2월 11일 지병인 폐결핵과 그리고 치질, 각기병 등의 합병증으로 수원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수원 버드네(현 세류동)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⁸⁰⁾

76) 홍석창, 『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 257~258쪽.

77) 『황성신문』, 1906년 9월 12일 「전도죄수」

78) 홍석창, 『제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 210쪽.

79) 안희선, 『수원종로교회사(1899-1950)』, 수원종로교회, 2000, 200-204쪽.

80) 홍석창, 위의 책, 29-30쪽.

5. 홍승하의 가족관계와 손자 홍가륜의 항일운동

홍승하의 손자 洪加勒(1913-?)은 1933년 9월 중국 남경에서 의열단 가입과 동시에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한 후 1935년 4월 동교를 졸업한 후 동지 규합을 위해 국내로 잠입하였다가 동년 5월 중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홍승하의 손자 홍가륜의 신문 조서를⁸¹⁾ 통해 그의 집안과 생활상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 가정과 생활 상황은 어떤가.

답) 부친 亨俊(당 47세)이 호주이고, 모친 金愛西德(당 48세), 누나 水晶(당 24세), 누이 玉晶(당 18세), 아우 性達(당 16세), 누이 石晶(당 13세), 아우 性萬(당 10세), 나와 八인 가족이다.

조부 시대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다는데, 대대로 기독교에 열중하여 자선사업 등에 재산을 탕진, 부친 대에 와서는 거의 무자산이었고, 나도 중학은 고학으로 마쳤다.

현재 부친 亨俊은 예수교조선감리파의 목사이며, 그 교파의 온천리에배당에 근무하고 월급은 30원이며, 모친 金愛西德도 그 배당의 전도부인에 봉직하고 월액 10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누나 水晶은 利川읍에 있는 그 교파 利川교회당 부속 유치원에서 보모로 근무, 별거하고 있는데 나와 아우 性達은 무위도식하고 있다. 누이 玉晶은 현재 京城의 梨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또 누이 石晶, 아우 性石은 溫泉공립보통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부친의 급료는 신자들의 출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정 금액도 못받을 때가 흔하며, 누나도 전에 월 35원 봉급이었으나, 그 급료도 전도비에서 지출되는

8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1(義烈鬪爭 4) 洪加勒 신문조서

까닭으로 근년 미국의 전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월급도 감액된 듯, 근래는 그전 처럼 누나의 보조 송금이 없으므로 梨花여고보에 다니는 누이 등은 고학하고 있는 정도라서 생활은 어렵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부 홍승하에 이어, 부친 역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전도 부인으로, 누나는 이천 교회 유치원 보모로서 가족모두가 기독교 전도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신문조서에서 홍가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문) 경력을 대강 진술하여라.

답) 나는 대정二年(1913년-필자주) 10월 19일 京城 水原郡 陰德面 南陽里에서 호주 洪亨俊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당시 조부 承河는 기독교 목사였고, 부친은 농사에 종사하던 바, 내가 어릴 적에 조부는 별세하여 부친이 대신하여 목사가 되었고, 나는 9세에 부친이 기독교조선감리파의 烏山예배당으로 전임하게 되어 일가족은 水原郡 城湖面 烏山里 소재, 烏山예배당으로 이사했다. 나는 소화二年三月, 烏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四월부터 京城 培材고등보통학교에 통학하고 있던 바, 중학二·三학년경 부친은 또 利川郡 長湖院예배당에 전임됨으로써 집을 옮겨 갔는데, 당시 나는 운동을 하다 척추를 좀 다쳐 앓게 되었다. 목사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으므로 집에서 정양 겸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京城府 天然洞에 살던 전임 목사로 내 조부의 친구 鄭在寬의 소개로 소화七年八月 하순인 9월 초순경 당시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지 얼마 안되는 京城府 橋北洞(번지미상) 거주 金基淳 댁에 그의 외동딸 恩惠의 가정교사가 되어 입주 근무하던 중, 그 해 11월 초순경 金基淳이 黃海道安岳郡(이하미상)에 토지를 구해서 이사하게 됨으로써 실직한 나는 귀가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만주 奉天으로 갔다.

라고 하여, 홍가륜의 부친인 홍형준은 오산 및 이천 장호원 교회의 목사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부와 부친이 모두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난 홍가륜은 오산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2년 3월에 기독교학교인 경성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기독교 집안 출신인 홍가륜의 민족의식의 형성 또한 기독교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가륜의 다음과 같은 신문조서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문) 어째서 조선독립운동을 할 마음이 생겼는가.

답) 그것은 일시 작심이 아니라, 오랫동안에 걸쳐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겠는 당위성이 내 자신의 심정으로 온양되었으므로 그 경위를 진술하겠다.

전술한 바도 있지만, 우리집은 조부 시대부터 기독교에 열중 귀의한 관계로 나도 유년 시절부터 성서를 배웠다. 유년 시절은 그저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익히고 있다가, 철들 무렵이 되고서는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불우한 처지임을 알았고, 이어서 일본인이나 외국인들이 운택한 생활을 하는데, 반대로 조선민족 대중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극히 불우한 처지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부자연한 사리를 깊이 궁리해 본 결과 조선민족이 그러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탓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싹터오고부터는 성서를 공부해도 그 때까지는 그저 정신적 하늘나라를 설교하는 것으로 교리 그대로 순종하며 해석했으나, 그 뒤로는 현실사회에 비추어서 성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馬太」 「馬可」 「누가」 「요한」의 사복음 중 아마 「마태」의 어느 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하는 구절에서 교회의 실체는 그 나라 즉 「천국」의 뜻, 즉 「대의명분」을 구하여라. 「그러면 사람 세상의 만사는 해결되리라」라고 한 것이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이것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조선민족은 지상천국을 먼저 건설함에 있어서 빼앗긴 조선국을 탈환 독립케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것이 나의 조선에 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조짐이었고, 그것은 내가 培材
고등보통학교 二·三학년생 때의 일이었다.

라고 있듯이, 배재고등보통학교 2.3학년 시절에 성경공부를 조선의 현실사
회에 비추어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그는 「마태」의 「먼저 그 나라
와 의를 구하여라」하는 구절에 대하여, 이것은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조선
민족은 지상천국을 먼저 건설함에 있어서 빼앗긴 조선국을 탈환 독립케 해
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1933년 9월 6일 간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만주 봉천을 출
발, 상해, 남경을 거쳐 9월 16일 江蘇省 江寧縣 江寧鎮에 있는 조선혁명간부
학교에 도착 즉시, 의열단 단장 金元鳳을 면담하고 의열단에 가입한 다음 간
부학교 2기생으로 입학하였다.⁸²⁾ 이곳에서 그는 6개월에 걸쳐 정치과목으로
철학, 유물사관, 변증법, 경제학, 중국혁명사, 삼민주의, 사회과학, 의열단
사, 조선정세, 공산당 조직론, 세계정세 등을 공부하였다. 정치과목의 하나
인 당조직론에서는 당조직방법으로 먼저 노동자 농민 등 최하층 속에 파고
들어서 동지의 획득에 힘써 3인의 동지를 얻고 이를 기본조로 하여 순차로
상부조직의 결성에 힘쓸 것을 교육받았다. 홍가락을 포함한 2기생 53명은
1934년 4월 20일 졸업하였다. 졸업 후 3일 뒤 홍가락은 학교에 「입학후의
감상」, 「금후 조선혁명운동에 관한 의견」, 「농촌운동에 관한 의견」, 「조선농
지령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논문을 제출하였다.⁸³⁾ 이들 논문들을 통해 볼
때, 기독교 신자였던 홍가락의 생각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변화한 것 같다.

홍가락은 1935년 국내로 입국한 후 평양을 거점으로 활동하다가 동료의
자수로 온양에서 체포되었다.⁸⁴⁾ 그는 징역 3년을 언도받고⁸⁵⁾ 서대문 형무소

82) 이상일, 위의 논문, 142쪽.

83) 이상일, 위의 논문, 145쪽.

84) 동아일보 1934년 11월 20일, 23일, 『사상회보』 1935년 8월 31일

85) 동아일보 1935년 2월 16일,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16일, 홍가락 판결문(국가보훈처 소장)

에서 옥고를 치루다. 1936년 9월 11일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⁸⁶⁾

홍가륜의 조부, 부친은 모두 기독교 목사였다. 홍가륜 역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그가 의열단 가입을 통하여 의열단원으로 그 사상적 성향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그는 신문조서에서

문) 종교는 무엇인가.

답) 기독교였지만, 지금은 신앙이 없다.

라고 답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홍가륜은 출감 후 요통이 재발하여 2년간 투병 생활을 하였다, 그 후 군관학교 재학 당시 김구와 친분이 있어 해방이후에도 김구를 도와 충북 진천 지역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수감되어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청주형무소에 이감되어 있다가 6.25발발 1주일 전에 청주형무소 근처 청원군 남성면 호정리에서 죄수들과 더불어 집단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⁸⁷⁾

6. 결어

홍승하의 생애와 그의 신앙과 사상은 『기독교신보』 1918년 4월 24일자 「고홍승하 목사의 약사」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은 찬송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86) 김방우 가출옥 문서(국가보훈처 소장)

87) 홍가륜의 후손들 증언

「별세시에 지은 찬송」

1.

감사하신 천부님
크신 사랑 찬송하세
없는 천지만물들을
나 위하여 지으시고
죄악 덮인 더러운 세상
한량없는 크신 사랑은
독생성자 예수씨를
날 위하여 주셨도다

2.

반가울사 우리구주
크신 구원 찬양하세
무죄한 몸 십자가에
날 대신해 못박혔네
사망권세 이기시고
은혜나라 세우셨네
끝날 심판 구주처럼
날 위하여 오시리라

3.

기쁘옵신 보혜사께
크신 권능 감사하세
바위냉수 같은 세상
날 위하여 임하셨네

멀망같은 완쾌한 마음
권능으로 감화시켜
천부자년 만드심은
날 위하여 하심일세

4.

어화 우리동포들아
어서 속히 나아와서
천부님의 크신 사랑
성자님의 속죄구원
성신님의 감화능력
값없어도 가난해도
오면영생 주시리니
의심말고 곧 오시오

홍승하는 남양군 영흥도 출신으로 1900년대에 남양 등 경기도 일대의 기독교 전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03년에는 하와이에 파견되어 활동하는가 하면 귀국 뒤에도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기독교 전도에 기여한 인물이다. 아울러 그의 사촌동생 홍승문, 그의 아들 홍형준과 며느리 김 에스터 역시 감리교 기독교 전교에 큰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승하는 1903년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설립된 신민회 회장으로 하와이 한인사회의 교회 설립과 전도활동 그리고 사회정치적 활동에도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그런데 그의 하와이 전도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그의 하와이 도착 및 귀국 시기 등 여러 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 아마도 자료의 제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신보 및 선교사 기록들을 통하여 그가 1903년 가을경 하와이로 출발하여 도착 후 전도활동 및

신민회 조직 및 회장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홍승하는 1904년 2월 18일 도릭(Doric)호를 타고 일본 고오베를 거쳐, 1905년 3월 경 귀국하였다는 점도 밝혀 보았다.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한 홍승하의 장손인 홍가득 역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망명한 후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그는 기독교도에서 유물론자로 변화하게 된다.

홍승하 집안의 사례를 통하여 조부와 부친이 목사 및 전도사였던 한 집안의 손자가 어떻게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기독교도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한 사례에 불과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 가문의 사상적 변화의 한 단편을 살펴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 국민보
 기독교신보
 신학월보
 대한매일신보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천 내리교회, 내리백년사』, 1985
 김방우 기출옥 문서
 김월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958
 김진형, 『사강교회 50년사』, 사강교회, 1997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1(義烈鬪爭 4), 1997
 남양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동문회, 『남양백년사』(1898-1998), 199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8, 1974
 방사겸, 『방사겸 평생일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6
 안희선, 『수원종로교회사(1899-1950)』, 수원종로교회, 2000
 오인철, 『하와이 한인이민과 독립운동, -한인교회와 사진신부와 관련하여』,
 전일실업출판국, 1999
 『왜정인물사료』 1,2,3
 유동석,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100년사-』, 그리스
 도연합감리교회, 2006
 국사편찬위원회, 『윤치호일기』 6, 1976
 이상일, 「수원출신 항일청년투사 홍가륙」, 『수원문화사연구』2, 수원문화
 원, 1998
 정대화역, 웨인 패더슨 저,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들녘, 2003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활동」,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최창희, 「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운동(1903-1908)」,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하와이대학 한국학 센터, 2003

현순, 『玄楯自史』

홍가륜 판결문(국가보훈처 소장)

홍석창, 『한국감리교회를 섬긴 사람들』, 에이멘, 1988

홍석창, 『1885-1930 재물포지방 교회사자료집』 에이멘, 1995

홍승하는 남양군 영흥도 출신으로 1900년대에 남양 등 경기도 일대의 기독교 전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03년에는 하와이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활동하는가 하면 귀국 뒤에도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기독교 전도에 기여한 인물이다. 아울러 그의 사촌동생 홍승문, 그의 아들 홍형준과 며느리 김 에스터 역시 감리교 기독교 전교에 큰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승하는 1903년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설립된 신민회 회장으로 하와이 한인사회의 교회 설립과 전도활동 그리고 사회정치적 활동에도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그런데 그의 하와이 전도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그의 하와이 도착 및 귀국 시기 등 여러 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 아마도 자료의 제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신보 및 선교사 기록들을 통하여 그가 1903년 가을경 하와이로 출발하여 도착 후 전도활동 및 신민회 조직 및 회장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홍승하는 1904년 2월 18일 도릭(Doric)호를 타고 일본 고오베를 거쳐, 1905년 3월 경 귀국하였다는 점도 밝혀 보았다.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한 홍승하의 장손인 홍가륜 역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망명한 후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그는 기독교도에서 유물론자로 변화하게 된다.

홍승하 집안의 사례를 통하여 조부와 부친이 목사 및 전도사였던 한 집안의 손자가 어떻게 항일운동에 참여하고 기독교도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물론 한 사례에 불과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한 가문의 사상적 변화의 한 단편을 살펴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 주제어 : 홍승하, 홍형준, 홍가륜, 이창희, 하와이 신민회, 보흥학교, 홍승문

Missionary works and national movement of Hongseungha

Park, Hwan

Born in Namyang gun, Youngheung do, Hongseungha led the mission activities around Kyunggu province during the 1900th. He was sent to Hawaii as a missionary and returning to Korea, he devoted himself to work for missionary works in Kyunggi and Chungchung provinces.

Besides him, his cousin Hongseungmoon, and son Honghyunjoon along with daughter in law, Kim Ester contributed to missionary works of Methodist church in Korea.

Among his works, his achievements of building Korean church in Hawaii, missionary works, and social-political works as a head of Shinmin association in Hawaii-Korean society were most highly evaluated these days.

However, some confusing issues were generated from his missionary works in Hawaii, especially about the period of his arrival to Hawaii and return to Korea, due to lack of data.

This paper found that Hongseungha left for Hawaii in the fall of 1903 and worked as a head of Shinmin association and a missionary to Hawaii, by researching Kidockshinbo and records of missionary works. This research also found that Hongseungha returned home around March of 1905 via Kobe, Japan, departing on 18th, February 1904 by Doric liner.

Hongseungha's first son, Honggareuk who led an anti-Japan movement was also a Christian. However, he later turned to be a materialist after studying socialism in China where he exiled.

Through researching the case of Hongseungha, it is discovered that how the son of strict Christian family turned to be a socialist from a Christian. Although this finding is from one case study, this research shows the ideological changes of one family through the trend of the times.

* Keywords : Hongseungha, Honghyungjoon, Honggareuk, Leechanghoe, Hawaii Shinmin association, Boheaung school, Hongseungmun

여 백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박 철 하*

1. 머리말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상황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5.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6. 에필로그

1. 머리말

1941년 9월 14일 한 청년이 수원읍 공설운동장 동쪽 성벽 소나무숲 속에 있다가 수원경찰서 사찰원의 검문을 받았다. 그 청년은 수원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수원군청년단 결성식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검문 중에 사찰원에게 ‘민족의식이 농후’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결국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원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편지 때문이었다. 그 편지는 1941년 8월 25일 다른 조직원에게 보내기 위해 썼던 것으로 우표까지 붙이고 우체통에 넣으려 하다가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라 생각되어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없애버리려 했는데 그만 잊었던 것이다. 편지를 가지고 있던 청년은 누구이고, 그는 누구에게 보내려 했으며, 무슨 내용이라서 보내지 못한 것일까. 편지 소유자는 바로 수원호연예술구락부의 책임자 최용범(崔龍範)이고, 그 편지는 당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있는 조직원 최태종(崔泰鍾)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

최용범은 당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였다. 그는 각 동지들과 연락을 직접 담당했으며, 멀리 있거나 활동이 어려운 동지들에게 편지로 동지로서의 약속을 잊지 않고, 투쟁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최태종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도 그와 같았다.

최용범은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 중인 최태종이 지원병에 지원한 동기가 “황국신민 사상 때문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열망을 위한 것”이라 믿고자 했다. 그러니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지만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맹약을 실행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내려했던 것이다.¹⁾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 최용범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 수원경찰서에 검거되고 말았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들은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 불경죄, 육군형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실시하였다. 1940년 10월에는 ‘총력운동’ 즉,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특히 미나미(南次郎) 총독

1)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7회), 1941.11.15.

(1936.8~1942.5)은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에 입각한 식민지 동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씨개명, 징병·징용제 등을 실시했다.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938~1939년에는 특히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장고봉 사건’ ‘노몬한 사건’ 등 일본과 소련의 충돌이 발생했다. 1941년 6월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일어났다. 점차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쟁 가능성도 매우 높아갔다. 이러한 가운데 1941년부터 조선 내에서는 일제의 패전과 조선독립의 호기가 도래했다는 ‘불온언론범죄’가 격증하였다.²⁾

바로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941년 9월 14일에 발각된 이 사건의 연루자 최용범 외 8명 모두 서대문형무소 구류 기간을 넘겨가면서 취조를 받았다.³⁾ 1942년 1월 1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부터 공판청구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 경성지방법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언도되었다.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은 최용범, 차준석(車濬楫), 김길준(金吉俊), 최태중, 홍종철(洪鍾哲), 맹승재(孟升在), 강성문(康聖文) 등 7명이다. 모두 예술에 관심이 많은 20세 전후의 청년들이었다. 특히 영화나 연극, 음악을 좋아했으며, 음악 가운에서도 성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수원극장을 자주 찾게 되었고, 더욱이 홍종철이 수원극장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원극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다.

2)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과 박사학위논문, 1998, 118~162쪽 참조.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 9명 모두 경성지방법원 형사 제2부의 구류기간 갱신결정에 의해 1942년 7월 27일 최종 판결 때까지 구류기간이 연장되었다.

수원예술호연극연구락부 결성에서 최용범은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가 조선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적극 나세게 된 데는 홍종철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39년 봄 수원극장에서 이뤄졌다. 최용범은 연극이나 영화를 매우 좋아했고, 그래서 수원극장에 자주 관람하러 갔다. 홍종철은 1931년부터 수원극장에서 일했는데, 처음 기수를 거쳐 1937년 6월부터는 선전부에 근무했다.⁴⁾

· 최용범은 수원극장에 가면 홍종철과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사상가, 공산주의자, 조선독립운동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에게 ‘사상가’란 공산주의자나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공산주의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사회제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조선독립운동’은 일본의 속국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최용범은 홍종철과 교류하면서 반일 독립의식과 공산주의 사회제도 실현의 의지를 점차 강화시켜 나갔다.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강성문은 축구를 매우 좋아했다. 당시 경성전기 수원지점 안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주 모여 축구 연습을 했다. 최용범과 차준석의 만남은 이곳 축구장에서 이뤄졌다. 이후 두 사람은 수원극장으로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면서 더욱 친해졌다.

차준석은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성씨 가운데 하나인 연안 차씨의 후손이었다. 차준석과 김길준, 강성문은 1937년 3월 신평공립보통학교를 함께 졸업한 소꿉 친구였다. 이들은 축구를 좋아했고,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최용범은 차준석을 통해 이들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조선

4) 수원극장은 1933년 12월 26일 수원을 궁정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그 전에는 수원을 본정 1정목에 위치하였는데 1941년 현재 그 자리는 수원봉급자소비조합이 자리하고 있었다. 『홍종철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1941년 11월 1일)』

의 독립'의 필요성을 서로 주고 받았다. 이후 이들은 자주 만나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져갔다.

또한 차준석은 1939년 6월경 수원읍 궁정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국원(富國園)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맹승재도 함께 일하게 되면서 친해졌다. 직장 내에서 일본인의 차별대우로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맹승재는 차준석의 조선 독립운동에 대해 얘기 듣고 그에 찬성하였다. 그해 8월경 맹승재는 차준석을 통해 최용범, 김길준과도 알게 되었고, 결국 동지가 되었다.⁵⁾

최태종은 최용범이 한 때 수원을 남부정에 살 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수원극장에 자주 가면서 친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태종은 차준석과도 친했다. 차준석의 아버지와 최태종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친했기 때문에 1938년경부터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⁶⁾

1939년 7월경 최용범과 차준석, 김길준, 강성문은 친구들과 함께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했다. 휴식시간 중에 최용범과 김길준은 친구들에게 조선독립에 대해 얘기했다.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일본인으로부터 노예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을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했다.

이후 자주 만나 조선의 독립 문제를 얘기하던 최용범과 김길준, 차준석 등 세 명은 1939년 10월 초순 오전 11시경 당시 팔달공원 팔달사진관 옆으로 오르는 휴게소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길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조선인은 참으로 비참하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정말 가엽다. 조선도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조선의 나라를 건설하

5)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5.

6) 「최태종」 피의자 신문조서, 1941.12.9.

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최용범은, “언젠가 조선도 독립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도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곧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도 조선인의 정신으로써 그 운동에 참가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예술을 연구하면서 ‘동지’를 모집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정신을 주입시켜 나가는데 마음이 합치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지를 모으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⁷⁾

그 결실은 곧바로 그 다음 모임이었던 1939년 10월 중순 차준석의 집에서 이뤄졌다. 당일 오후 4시경 차준석의 집 건넌방에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곧이어 최태종도 합류하였다.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이전부터 수원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또는 경성전기 주식회사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온 동지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용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예술에 정진함과 동시에 동지를 모아 동지의 결속과 예술연구를 하자. 이를 위해서는 예술연구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명칭을 붙여야 하는데 예술호연구락부(藝術互研俱樂部)라고 이름 하는 것이 어떨까.”

7)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0.17. 이때 경찰 신문과정에서 최용범은 ‘동지(同志)’란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란 정신으로 그 운동에 참가한다는 뜻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동지’에 대하여 홍순철은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조선인 독립된 후 조선에 평등한 사회제도를 실현시키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1.4.

8) 최태종은 이 자리에 나중에 합류했다. 최용범은 최태종에게 “우리는 예술을 연구하면서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도 이에 참가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최태종은 찬성하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 함께 한 동지들은 모두 최용범의 말에 찬성하였다. 최용범은 곧바로 폭 20cm, 길이 80cm 정도 되는 백지(白紙)에 묵필(墨筆)로 <<수원>>예술호연구락부라고 썼다. 명칭 우측에는 함께 한 동지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최태종의 이름을 썼다. 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차준석의 방벽에다 붙였다.⁹⁾ 마침내 1939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무 살 전후의 청년들은 예술연구와 조선의 독립운동 준비를 목적으로 한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탄생시켰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조직했을 때, 그들은 예술을 연구하면서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조선을 공산주의 사회제도로 하기 위하여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특별한 규약이나 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수하기로 약속하였다.¹⁰⁾

1. 우리는 서로 예술을 연구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운동의 뜻을 굳게 할 것
2. 우리는 서로 비밀을 엄수하고, 친형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누설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면서 구락부의 자금으로 하고 최용범에게 맡길 것
3. 최용범이 모임의 지도자이므로 최용범이 말 한 것을 실행할 것
4. 서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동지를 획득하면 최용범에게 소개할 것
5.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용범에게 알릴 것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사건 관계자들의 신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는 최용범이었다. 함께 한 동지들은 하나 같이 최용범이 지도자였음을 말하였다. 간부로는 김길준과 차준석이 그 역할을 맡았으며, 그 외 최태종, 홍종철, 맹승재, 강성문은 동지이자 구락부의 구성원이었다.

9) 「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1941.10.30.

10)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 (제6회), 1941.11.8 ;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 (제2회), 1941.11.6

〈표 1〉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현황(1941년)

이름	생년월일/나이	주소	비고
최용범 崔龍範	1923.8.20/19세	본적/경성부 신길정 229 ¹¹⁾ 주거/수원군 일왕면 정자리 287	지도자
차준석 車濬皙	1922.12.23/20세	본적/수원군 수원읍 영정(산루리) 28 주거/상동	간부
김길준 金吉俊	1923.6.18/19세	본적/수원군 수원읍 영정(산루리) 38 주거/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	간부
강성문 康聖文	1924.10.15/18세	본적/수원군 수원읍 영정 30 주거/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	
최태중 崔泰鍾	1920.10.23/22세	본적/수원군 수원읍 남부정 11 주거/수원군 수원읍 궁정 114	
맹승재 孟升在	1925.(5.27)/17세 ¹²⁾	본적/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452 ¹³⁾ 주거/상동	
홍중철 洪鍾哲	1920.3.26/22세 ¹⁴⁾	본적/수원군 수원읍 인계정 813 주거/상동	
박인중 朴仁鍾	1922.12.28/20세	본적/평택군 북면 아마리 56 ¹⁵⁾ 주거/만주국 신경시 길야정 3정목 6	(제외)
용헌식 龍憲植	1915.12.29/27세	본적/수원군 일왕면 송죽리 408 주거/상동	(제외)

- 11) 최용범은 용인군 구 읍내에서 태어났다. 출생 직후 서울로 이사했다가 7살 때 수원읍 남부정(당시 안왕면)으로 이사했다. 이후 부모님은 수원읍 지야정 93번지에 살았다.
- 12) 호적에는 1925년 5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23년에 출생하였다고 한다. 「맹승재」피의자조서(제6회), 1941.12.13.
- 13) 맹승재는 충남 당진군 당진면 사기소리 출생이다. 1939년에 수원읍 남부정 22번지 양금산(매형)의 집으로 왔다.
- 14) 「본적조회서」에 따르면 홍중철은 1920년 3월 26일 생이다. 그런데 조회서에는 1941년 11월 현재 23세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회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22세가 되어야 맞다.
- 15) 박인중은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 출생이다. 어머니를 따라 수원읍 본정 1정목 209번지 작은아버지댁에서 생활하였다.

〈표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학력과 취미

이름	학력	취미
최용범	1930~1935.1 삼일학교(1941년 현재 팔달학교) 6학년 1월 전학. 1936.3 영등포공립보통학교 졸업.	성악, 연극, 영화, 축구
차준석	1937.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劍劇 ¹⁶⁾ , 음악, 축구
김길준	1937.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1938.7 사립 삼일학교 고등과 2학년 1학기 중퇴.	성악, 축구
강성문	1937.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영화, 축구
최태종	1934.3 신풍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1936.4~1938.7 수원공립농업학교 3학년 중퇴.	성악, 음악
맹승재	1939.3 충남 당진군 순성면 순성소학교 졸업(6년).	영화, 운동
홍종철	1927.4~1928 경성부 관철동 관철공립보통학교 2학년 전학. 1928~1930 수원 신풍공립보통학교 4학년 1학기 중퇴.	음악, 무용, 성악
박인중	1930.4~1933 수원 사립 삼일학교 4학년 2학기 전학. 1933~1934.10 평택군 북면공립보통학교 5학년 2학기 중퇴.	성악, 음악, 권투
용현식	1931.3 수원 사립화성학원 졸업(6년). 1934~1938.3 수원공립청년훈련소 졸업.	검도, 영화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상황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수원지역의 18세~22세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결사이다.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을 좋아하는 청년들로, 신풍공립보통학교 또는 삼일학교의 동료이거나 직장 동료였다. 당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와 경기도 도회위원을 지낸 최재엽의 아들인 최태종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넉넉지 못했다.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직장을 옮겨 다니

16) 검극은 일본의 시대극의 하나로 일명 찬바라 영화라고 하며 사무라이 영화를 통칭하는 말이다.

거나 고향을 떠나 함경도로, 심지어는 만주로까지 가야했던 고통 받는 식민지 청년들이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 관련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경력

이름	경력
최용범	영등포 기린비루회사 인부(1937.5~11), 수원에서 토끼와 계란 행상(1939), 경성부 서계정 경성철공장 旋盤工 견습(1939), 아버지 농사 도움(1940.1~1941.6), 용한식과 양축업 경영(1941.7~9),
차준석	近藤인쇄소 문선공(1938~1939.6), 주식회사 부국원 임시고원(1939.6~10), 주식회사 부국원 정식 사원(1940.6~1941.9),
김길준	일왕면 광고리 수원천 개수공사 땅고르기 작업(16세), 수원농사시험장 畵部 見習夫(17세) 및 手藝部 (1939.2~4), 금중(今中)약방 점원(1939.4~6), 주식회사 부국원 증묘발송부 임시고용인(1939.7~11), 매일신보 수원지국 배달부(1939.11~1940.2), 중국음식점 일흥루 우동배달부(1940.8~1941.3), 수원농기구 주식회사 목공부 견습공(1941.3~7), 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번지 杼山出張所 수도공사 직공(1941.7~9),
강성문	수원을 본정 3정목 今中藥店 점원(1937.10~1938.6), 아버지 경영 해물상 도움(1938.6~1939.3), 수원을 본정 3정목 昭和織物工場 기계직공 견습(1940.10~1941.7), 함남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 52번지 杼山出張所 수도공사 직공(1941.7~9),
최태중	아버지 최재업 경영 경남택시 업무 도움(1940.11~1941.7), 조선육군특별지원지훈련소(1941.8~11), 山砲 재보충병 편입,
맹승재	주식회사 부국원 증묘발송부 임시고원(1939.6~7), 수원을 본정 1정목 수원양조주식회사의 술상자 판매업하는 매형을 도움(1939.8~1940.1),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순성이발관 견습(1940.6~1941.2), 순성이발관 직접 경영(1941.2~1941.9),
홍종철	수원을 남창정 음식점조합 주류부 주류배달부(1931.가을~4개월), 수원극장 기수(1932.5~1937.5), 수원극장 선전부 직원(1935.6~1941.3), 경성적십자병원 식당 보이견습(1941.4~5), 수원을 영화정 水原?寸 주식회사 제1부 軸掘工(1941.6~8),

이름	경력
박인중	수원읍 신평정 화신백화점주 이기현 집의 점원(1936), 近藤인쇄소 문선공(1936~1936.10), 아버지 농사일 도움(1936.10~1939.1), 경부선 오산역-병점 간 복선공사 노동(1939.2~6), 경성부 삼판동에서 아버지의 고물상 도움(1939.7~8), 紙器聯合주식회사 紙箱제조 작공(1939.8~1940.2) 경성역 檢事區 傭人(1940.3~8), 수원읍 본정 1정목 백화원(음식점) 雇人(1940.11~12), 만주국 新京 및 哈爾濱에서 문방구·카페 등의 雇人(1941.3~9)
용한식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집달리 사무소 급사(1933.5~1935.3),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廷丁(1935.4~1937.12), 수원학교조합 임시고원(1938.3~5) 강릉읍 중앙소학교 강릉공립청년훈련소 보도원(1938.2~1939.1),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 임시고원(1939.2~3) 강릉읍 재무계 임시고원(1939.4~5), 중국 간도섭공서 농사시험장 인부(1939.6~10), 중화민국 천진에서 아이스케키 판매점 점원(1940.5~11), 형 농사일을 도움(1941.3~6), 최용범과 양축업 경영(1941.7~9).

최용범은 자작농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생활상 곤란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용인군에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가 수원에 정착하였다. 사립 삼일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영등포로 전학하였으나 결국 공립보통학교만 졸업하고 학자금이 없어서 중학교진학을 포기했다. 15살 때부터 일급 50전을 받고 영등포의 맥주회사를 다녔다. 1939년 경성철공장에서 일급 70전을 받고 일하다가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다시 수원으로 내려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종축업을 경영하였으나 실적 없이 운영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¹⁷⁾

차준석은 아버지가 소장사를 하며 우시장이 설 때마다 30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있어 가족의 생활상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자신 명의의 자산은 없으나 일찍 주식회사 부국원에 취직하여 월급 4원 19전을 받았다. 신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직후 수원 근등인쇄소에서 문선공으로 일한 바 있다.¹⁸⁾

17)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 1941.10.15.

18) 「(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 1941.10.28.

김길준은 신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립 삼일학교 고등과에 입학했으나 가정 형편상 2학년 1학기때 중퇴했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땅고르기 작업, 수원천 개수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며, 수원 농사시험장, 약방, 주식회사 부국원 등에서 잠깐씩 일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을 하면서 1939년 11월부터 1940년 2월까지 매일신보 수원지국의 배달부로 근무했다. 1941년 3월 수원을 평정의 수원농기구 주식회사에 견습공으로 일급 80전을 받고 일하다가 회사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되었다. 1941년 7월 함경남도 흥남의 경성 구산출장소(杻山出張所) 수도공사장 직공으로 일급 1원 20전을 받고 일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¹⁹⁾ 아버지는 수원목재배급통제조합의 장작배달부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강성문은 14살 때 수원을 본정의 과자점에 일하다가 부모님의 해산물시장을 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940년 소화직물공장의 기계직공 견습으로 월급 15원을 받다가 흥남으로 갔다.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처지로 1941년 7월 함경남도 흥남에 있는 경성 구산출장소(杻山出張所) 수도공사장 직공으로 일급 1원 40전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다.²⁰⁾

최태중은 아버지가 증추원 참의와 경기도회의원을 지낸 최재엽으로 생활이 매우 여유로웠다. 1938년 7월 수원 공립농업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경남택시 일을 도왔다. 1941년 8~11월 조선육군특별지원자훈련소를 마치고 산포(山砲) 제1보충병에 편입되었다. 훈련소 입소 중에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1941년 11월 30일 훈련소를 마친 뒤 경찰에 체포되었다.²¹⁾

맹승재는 아버지가 자작 겸 소작을 하고 있어 생활상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주식회사 부국원에서 일하면서 차준석과

19)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 1941.10.30.

20) 「강성문 피의자 신문조서」, 1941.10.30.

21) 「최태중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25.

교류하였다. 이후 수원에서 1년 6개월 일하다가 1940년 1월 고향인 충남 당진군으로 내려가 이발 기술을 배워 아버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발관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²²⁾

홍종철은 가족들이 모두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상의 곤란은 없으나 여유롭지는 않았다. 형들은 수원극장의 영화기사와 미스코시백화점 점원, 남동생은 화성철공장 직공견습, 여동생은 소화직물공장 여공으로 일하는 등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홍종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가계가 어려워 11살 때 신흥공립보통학교 4학년을 중퇴했다. 12살에 음식점조합의 주류배달부를 하다가 13살에 수원극장에 취직하여 1941년 3월 인사정리로 해고될 때까지 근무했다. 그로 인해 수원극장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의 주요 비밀회합 장소로 이용되었다.²³⁾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1) 현실인식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들의 신문내용을 통해 그들의 현실인식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민족적 차별행위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다. 예술호 연구락부 구성원들이 느낀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차별(민족차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5.

23) 「(홍종철)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1.

○ 최용범

16살 때(1938년경) 부모님은 수원군 수원읍 남부정에 가옥 한 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집의 부지는 신기(神崎) (수원읍 본정 3정목)라는 일본인 소유의 토지였다. 아버지는 그 집을 부수고 새로 지을 생각으로 부지를 빌리고자 했으나 토지주인의 반대로 빌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크게 손해를 보았다. 이후 일본인은 조선인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개했다.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 1941.10.15

○ 차준석

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볼 때마다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면, 어느 관청이나 회사에서도 일본인은 상석을 차지하고 조선인은 항상 아래쪽에 있다. 또한 월급도 일본인은 많이 받고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항상 적게 받는다. 따라서 나는 내선인의 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때는 수원읍 본정 3정목 근등인쇄소(近藤印刷所)에서 문선공으로 일급 17전을 받을 때였다. 「(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0.30

○ 김길준

내선일체(內鮮一體)라고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차별이 있고 일본인에 대한 반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농사시험장에 고용되었을 때의 일이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급료는 월 45원 정도인데 우리는 일급 25전 정도였다. 그리고 일도 우리 조선인에게는 상당히 무리하여 우리를 노예취급 하였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적 대우라고 생각한다.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 1941.10.30

○ 맹승재

부국원에서 일본인의 감독자에게서 업무에 대해 크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

다. 그 사람은 “조선인은 눈을 피해 몰래 흠치고 놀기만 하므로 안된다”고 모욕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5

○ 최태종

수원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고 2,3개월 지나서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상급학생에게 결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이때부터 일본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를 중퇴한 뒤에도 항상 내선인의 차별에 관하여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최태종) 피의자 신문조서」, 1941.12.9

이상과 같이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또는 근무 현장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대우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반일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독립운동과 계급해방으로까지 인식의 확장을 보였다. 구락부의 구성원들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홍종철의 경우, 10여 년 동안 수원극장에서 일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적은 급료 때문이었다. 그 원인은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자본가들이 “우리와 같은 빈핍한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는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²⁴⁾

김길준은 동지들을 만나면 “현재의 조선인은 정말 참혹하다. 내선인의 구별이 너무 심하다.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조선을 속히

24) 「(홍종철)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1.4.

독립시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 차준석 또한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조선인만으로 정치를 집행하면 일본인에게 조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이른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중일전쟁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일제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용범은 1939년 12월경 동지들 앞에서 당시 일본의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일본은 지나(중국-필자)의 장개석(蔣介石)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일본군이 일찍이 남경(南京)과 한구(漢口)를 점령하였다고 신문이나 라디오로 보도하고 있지만, 지나의 장개석은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받아 일본에 항복하지 않고 있다. 지나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 병력은 약화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일본은 소련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군은 패배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키면 조선의 독립도 일찍 실현될 것이다.”²⁵⁾

또한 최용범은 1941년 3월 20일경 시국에 대해 얘기하면서, 당시 『매일신보』가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획득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일본군은 한창 승리하고 있다고 신문에 쓰여 있다. 일본군이 일찍이 남경(南京)과 한구(漢口)를 점령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경(重慶)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경을 재삼 비행기로 폭격하고 있지만 장개석은 중경에 머물러 있다. 신문은 정말 엉터리다.”²⁶⁾

즉 구성원들은 일본이 『매일신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보

25)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1941.10.22 ;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9회), 1941.12.5 ; 「(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0.30.

26)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1941.10.25 ; 「(용현식)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5.

도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된 보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전쟁은 장기화 될 것이며, 소련과도 전쟁이 진행되어 일본은 점차 약화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 활동 내용

(1) 동지 획득 활동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은 수원극장, 맹승재의 집, 차준석의 집 등을 오가며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그들은 차준석의 집 건넌방에서 자주 모여 예술 이야기를 나누고, 검극이나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때 차준석의 아버지에게 소란스럽다고 꾸중을 들은 이후 맹승재의 집으로 회합 장소를 변경하였다.

1939년 12월 중순부터 1940년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은 1주일에 서너 번씩 맹승재가 임시로 거처하는 수원읍 궁정의 일본인 집에서 비밀회합은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용범, 김길준, 차준석, 홍순철, 최태중, 맹승재 등 6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이곳도 집주인이 돌아오면서 비밀회합 장소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다. 이후 그들은 수원극장과 그 주변, 연무대, 수원천 주변 저수지 등 야외를 오가며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고, 동지 획득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 획득에 있어서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청년들 가운데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함께 하려는 청년들이 대상이었다. 특히 최용범은 동지 획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락부 구성원 이외에 최용범이 동지로 획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박인중(朴仁鍾)과 용헌식(龍憲植)이다. 박인중은 사립 삼일학교에 다닐 때 최용범과 동급 학생이었다. 최용범은 1939년 12월 20일 맹승재의 집 모임에서 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에게 박인중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서 박인중은 “현재 내선일체를 부르짖고 있지만 어떠한 회사도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은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고 있는데 반해 조선인의 급료는 일본인에 비해 적고 일에 있어서도 무리한 일을 주고 조선인을 노예취급 한다. 현재의 조선의 제도는 무리가 있다”고 현재의 사회제도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는 만주로 가서 김일성 부대와 결합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용범과 그의 동지들은 박인중에게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박인중 또한 그 존재를 모른 채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 실현에 찬동하여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박인중은 일자리를 찾아 1941년 3월 이후 중국, 당시 만주국新京(新京)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최용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만주에서 활동할 것에 대비하고자 했다.²⁷⁾

최용범은 1940년 초 수원을 영화정에서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로 이사했다. 일왕면 송죽리 출신의 용현식은 1939년 6월부터 1940년 후반까지 중국 간도와 천진에서 일하다가 늑막염으로 1940년 11월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1941년 2월 중순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특히 1941년 3월 수원극장에서 조선 영화 <집 없는 천사>를 관람하고 돌아오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이후 동지가 되었다. 두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개최하고 종축업(種畜業)을 경영하며 그들에게 ‘조선인의 정신을 주입’ 시키며 민족의식을 앙양시키고자 했다.²⁸⁾ 그러나 최용범은 용현식에게 수원예술호연구락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동지들과 연락의 중심은 최용범이었다. 1941년 7월 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 김길준과 강성문은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 흥덕리의 구산출장소(杻山出張所)로 가서 수도공사장의 직공으로 일했다. 최용범은 그들과 편지를 주

27) 「(박인중)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22 ; 「(박인중)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2.1

28) 「(용현식)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5 ; 「(용현식)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11.11

고받으며, 멀리 가 있더라도 동지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²⁹⁾ 앞에서 언급한 박인종과의 연락도 최용범이 담당했다. 최용범이 동지들과 주고받은 통신연락에 대해 다른 동지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2) 독립운동 방략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일제의 언론보도가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체로 일본의 열악한 군사력과 일본군의 사기 저하, 일본 국내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대립 등을 통해 일본의 패망을 전망했다. 이러한 인식은 곧 조선독립의 시기와 연계되어 이해되었다. 그들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소련과 전쟁으로 약화되어 곧 패망할 것이며 이때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면 조선의 독립이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동지들은 일본의 굴레에서 조선을 독립시키고,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들을 가지고 논의했다. 그들이 처음 제기한 것은 해외의 무장투쟁 세력과 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939년 12월 중순경 맹승재의 임시거처에서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홍순철, 최태중, 맹승재 등 6명의 동지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차준석은 만주로 가서 조선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29)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1941.11.19. 최용범은 편지에서 “김군! 투쟁하라! 이상의 낙원, 가편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자. 김군이 가기 전날 그 성스러운 마음을 잊지 말아주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 복수의 붉은 피, 힘차게 뛰는 고구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입술을 깨질 정도로 말하려 한다.”라고 하는 등 조선인의 정신을 잊지 말고 독립의식을 굳게 갖도록 당부했다.

“지금 일본은 지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국내는 올해 한발이 와서 쌀을 취하기가 곤란하다. 소련과 마주국의 국경에 국경경비를 위해 일본의 군대와 마주국의 군대가 많이 집결해 있고, 또한 만주국 내에는 마적이 왕성하게 출몰하여 곤란한 지경이므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만주에 가서 마적이 되어 마적의 대장 김일성과 연락을 가지고 조선독립운동을 하자.”³⁰⁾

같은 달 12월 말에는 같은 장소에 앞의 6명 외에 박인중도 참석하여 비밀 회합을 가졌다. 이때 최용범은 일본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김일성 부대에 들어가 일본과 전쟁을 하면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영화에서 보면 일본군의 행동은 매우 원기가 없다. 조선도 김일성(金日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전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일본군에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지나의 장개석을 상대로 싸워 일찍이 남경(南京)과 한구(漢口)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장개석은 중경(重慶)에 있으면서 쉽게 항복하지 않고 있다. 사변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일본군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다시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 즉 조선의 독립도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³¹⁾

그들은 만주를 가기 위한 방법도 논의했다. 먼저 여권과 여비 마련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걸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갈까 생각했으나 이 또한 일제의 엄중한 단속이 걱정되었다. 실제 차준석과 김길준은 주식회사 부국원에서 일하면서 여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들은 만주에 가는 도중 헌병이나 경찰관에게 취조를 받더라도 조선

30) 「(박인중) 피의자 신문조서」, 1941.11.22;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1941.10.31.

31)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1941.10.31.

독립의 목적이라는 것과 동지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 것, 심지어 자기 집이나 친족, 지인에게도 일체 통신을 해서도 안된다고 다짐했다.³²⁾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만주행은 중지되었다. 이러한 만주행의 목적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조선에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는 이른바 공산사회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낮은 단계나마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자 했다. 1941년 5월 초 김길준은 최용범, 차준석 등과 함께 수원천 저수지로 가는 도중 공동묘지 옆 커다란 바위 밑에 구멍을 파서 ‘군용품’을 숨기고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용범은 농촌으로 들어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의 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선독립운동을 실행할 때 주민들과 함께 호미와 팽이를 들고 싸우는 것이 좋은 방책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두 최용범의 의견에 찬성했다.³³⁾

같은 시기에 최용범은 소련군의 군대와 연락을 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생각했다. 최용범은 김길준, 차준석과 함께 수원천 저수지 제방에서 “우리는 조선독립을 거듭 얘기 해왔다. 소비에트로 가서 소련의 군대를 빌려 조선독립운동을 일으켜 빨리 실현하는 생각은 어떨까”하고 제안했다. 최용범은 소련에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만일 갈 수만 있다면 스탈린을 만나 현재 조선의 고통 받는 사정을 얘기하고 소련군대를 빌려 조선의 독립운동을 실행할 생각이었다고 한다.³⁴⁾

한편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일본 도쿄(東京)에 동지를 파견하여 일본의 국내사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1939년 12월 말 최용범은 동지들에게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먼저 일본 국내의 정세를 탐지해 그 기회를

32)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1941.11.7.

33)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5회), 1941.10.25.

34)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5회), 1941.10.25.

옛보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임무는 도쿄의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맹승재에게 부여되었다. 이 또한 여비가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³⁵⁾

결국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에서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해 일본의 중심부인 도쿄에서는 일본의 정황을 살피고, 중국의 만주지역에서는 김일성의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모두 계획을 논의하던 중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 최용범은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마을 주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고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들을 독립운동으로 이끌기 위해 야학회를 개최하는 한편 종축업을 경영하였다.

최용범은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로 이사한 뒤 이웃 마을 송죽리에 사는 용현식과 동지가 되었다. 두 사람은 1941년 3월 수원극장에서 조선 영화 <집 없는 천사>를 관람하였다.³⁶⁾ 이 영화는 당시 서울 밖의 흥제리에서 부랑아 및 고아들의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방수원(方洙源) 목사의 향린원 아이들을 주제로,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다.

최용범과 용현식은 영화를 보고 나서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보살펴 주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쳐주어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용현식의 제안으로 먼저 야학회를 열기로 했다. 야학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35) 수원예술호연구락부 동지들과 논의하여 도쿄로 가기로 했던 맹승재는 경찰 신문과정에서 동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즉 아버지가 면장의 현직에 있으므로 일본 도항증명서를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버지는 면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최용범, 용현식과 종축업 경영을 함께 하기로 했으나 고향 당진에 내려왔다가 어머니의 반대로 어려워져자 자신의 형이 일본에서 돌아오던 중 연락선에서 급사(急死)하였다는가 총복으로 이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 (제4회), 1941.11.20.

36) 1941년 2월 19일 개봉된 <집 없는 천사>는 일본인 니시가메 모토사다(西龜元貞)가 자신의 원작을 각본 각색하고 조선인 최인규 감독이 만든 영화로 출연 배우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수원극장에서 3월 초에 상영되었다.

목적은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야학회에서는 일본어, 조선어, 산술, 수신 등을 가르쳤다. 야학선생에는 최용범과 용현식 외에도 일왕면 정자리의 조재헌(趙載憲)과 조상호(趙商鎬) 두 사람도 함께 했다. 조재헌은 수원우편국 보함과 권유계에서, 조상호는 수통수리조합 사무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은 야학이 조선독립을 위해 시작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대체로 용현식은 일본어와 수신, 조상호는 일본어와 산술, 조재헌은 한문과 수신을 담당했고, 최용범은 조선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야학은 교사 두 사람씩 교대로 매일 밤 7시부터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³⁷⁾

야학에 나오는 아이들은 6살에서 14살까지의 남녀 어린이 40여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8명 정도 되었다. 동일한 교실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구별하여 앉도록 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산술의 경우 숫자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 또는 더하기와 빼기를 가르쳤고, 일본어는 가타가나 이름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거나 다음 날 배울 것을 가르쳐주었다. 특히 최용범은 어린이들에게 조선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조선어를 가르쳤다. 일정한 수업료는 없었으나 석유비와 백묵 비용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 유지비를 충당했다. 그러나 5월 하순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일시 중지되었다.

또한 1941년 8월 중순 최용범과 용현식은 종축업(種畜業)을 경영하였다. 용현식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수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최용범은 비용 250원을 마련하고, 용현식은 일왕면 정자리 285번지의 집과 부지를 제공했다. 맹승재도 준비과정에서 함께 하기로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먼

37) 「(용현식)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1941.11.25 ;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1941.10.25.

저 토끼 20마리와 닭 20마리를 사육했다. 이어 종축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원을 북수정의 김영복(金永福)이 함께 했다. 하지만 김영복에게는 그들이 목적하는 조선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실현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 사업 또한 최용범의 검거 이후 수원호연예술구락부 구성원 모두가 일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중단되었다.

5.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에 연루된 최용범 외 8명의 최종 판결은 1942년 7월 27일에 가서야 이뤄졌다. 그들은 모두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받았다. 최용범과 차준석, 김길준 3명은 각각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맹승재와 강성문은 각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 박인중은 단기 1년 장기 3년, 홍종철과 최태중, 용현식 3명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용범과 김길준, 차준석 3명은 범죄가 추가되었다. 김길준은 불경죄가, 최용범은 불경죄 및 육군형법위반이 추가되어 각각 단기 1년 장기 2년이 더 중형되었고, 차준석은 육군형법위반이 추가되어 단기 1년 장기 2년이 중형되었다.³⁸⁾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예술에 대한 연구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수원예술구락부 구성원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차별에서 반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민족차별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라는 현실에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현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 이후에는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38) 「昭和17年 刑公 第9號 판결」 및 「昭和17年 刑公 第10號 판결」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비밀 회합을 통하여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몇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을 계획하고 실제 추진하였다.

먼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소련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약화되어 패망할 것이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독립이 되면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패전을 확신한 그들은 비밀결사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결성하고 예술의 연구를 표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동지를 획득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으며,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있었다.

둘째,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1939~1940년경부터 중일전쟁이 점차 태평양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은 만주의 '김일성 부대'에 환상을 가지고 직접 만주로 가서 그들과 연락하여 일본과 전쟁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의 중심부인 동경에 동지를 파견하여 일본 국내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으로 들어가 마을주민들에게 조선인이란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며 민족의식을 일깨워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폭동'의 형태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조직하고 민족의식을 앙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종축업을 경영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이 전개한 독립운동 방략은 당시 독립과 민족해방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던 '무장투쟁'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전국적, 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조직화하여 조선의 독립과 계급해방을 전망하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6. 에필로그

사건 관련자들은 수원경찰서 최종 신문과정에서 조선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한 자신들의 활동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래에는 일본의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열심히 일할 각오’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을 선처하지 않았다. 관련자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던 것이다.

지도자 최용범은 1941년 10월 25일 제5회 신문 때까지도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독립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주의사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³⁹⁾ 그는 다른 어느 동지들보다도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건했다.

한편, 최용범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원 공판 전 1942년 3월 20일부로 판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즉 60여 세의 아버지가 중병으로 생명이 위독하니 가족의 유일한 보호자인 자식을 집행유예로라도 관대하게 처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최용범은 1942년 7월 13일 경성지방법원 공판 법정에서, 집에 계신 노모를 염려하며 ‘훌륭한 황국신민으로 갱생할 각오’라는 표현으로 관대한 처분을 원해야 했다.⁴⁰⁾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용현식과 최태종은 일제의 전향정책에 따라 전향문을 제출하고 가출옥했다. 용현식과 최태종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대구형무소장은 1944년 4월 16일 잔여 형기 2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조선총독에게 최태종과 용현식의 가출옥을 신청하였다.⁴¹⁾ 이미 최태종은 1943년 1월 8일자로 <감상문>을 제출하였고, 용현식은 1942년 9월에

39)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5회), 1941.10.25.

40) 「공판조서」, 1942.7.13.

41) 대구형무소장, 「(大邱刑秘 第123號) 假出獄具申」, 1944년 4월 16일; 대구형무소장, 「(大邱刑秘 第124號) 假出獄執行濟ノ件報告」, 1944년 4월 29일

〈감상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두 사람은 1943년 4월 29일자로 가출옥 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전향서를 썼을까? 마지막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들이 마지막 경찰 신문과정에서, 이어 최종 공판 판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황국신민’으로 살겠다고 대답했던 그들. 그럼에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야했던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까?

일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을 실시하였다. 1940년 10월에는 ‘총력운동’ 즉, 조선총독을 총재로 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특히 미나미(南次郎) 총독(1936.8~1942.5)은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에 입각한 식민지 동화정책을 비롯해 창씨개명, 징병·징용제 등을 추진했다.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1938~1939년에 특히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과 소련의 충돌이 발생했다. 1941년 6월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과 소련 사이의 전쟁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1941년부터 조선 내에서는 일제가 패전할 것이고, 조선독립의 호기가 도래했다는 ‘불온언론 범죄’가 격증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1941년 9월 수원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두 9명의 청년들이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1939년 10월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등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표면적으로는 예술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구성원들은 연극과 음악을 취미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운동으로 축구를 매우 좋아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비밀 회합을 통하여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몇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을 계획하거나 실제 추진하였다.

먼저 그들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소련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약화되어 패망할 것이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독립이 되면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패전을 확신한 그들은 비밀결사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조직했다. 예술의 연구를 표면에 내세웠으나 이는 동지를 획득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으며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

제도의 실현에 있었다.

둘째,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1939~1940년경부터 중일전쟁이 점차 태평양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은 만주의 '김일성 부대'에 환상을 가지고 직접 만주로 가서 그들과 연락하여 일본과 전쟁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으로 들어가 마을주민들에게 조선인이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들을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양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종축업을 경영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이 전개한 독립운동 방향은 당시 독립과 민족해방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던 '무장투쟁'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전국적·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수원지역 20세전후의 청년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조직화하여 조선의 독립과 계급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주제어 : 수원예술호연구락부, 독립, 공산주의, 민족의식, 김일성

The activit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水原藝術互研俱樂部) in the period of war footing under Japanese Imperialism

Park, Chul-ha

The Japanese Empire, with the Sino-Japanese War as a momentum, proclaimed the national mobilization act in 1938 and enforced the so-called 'National Spirit Mobilization Campaign.' In October, 1940, 'Total Strength Campaign', i.e. the National Total Chosun-Federation with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s its president was organized. Particularl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Minami(1936.8~1942.5) promoted a name-changing policy and compulsory service and impressment including the colony assimilation policy based on 'Naeseon Ilche theory'(內鮮一體論:theory of oneness of Korea and Japan).

In addition, with the Sino-Japanese War extended, there was a sign of its escalation into a world war. Particularly, there occurred a collision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centering on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June, 1941, there broke out a war betwee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re was also a high probability of a war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In the midst of such a turbulence, from the year 1941, there upsurged a 'seditious press crime' in Chosun that the Japanese Empire would be defeated and subsequently there came a propitious period of Chosun's independence.

It was no other than this period that there occurred Suwon Yesul Hoyeon gurakbu(水原藝術互研俱樂部:Suwon Art Mutual Research Club) accident at Suwon in 1941. 9 young men involved in the accident were arrested by the polic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Suwon Yesul Hoyeon gurakbu was a secret organization led by the young men somewhere about the age of twenty including Choi, Young-beom, Cha, Jun-seok, and Kim, Kil-joon, etc. in October, 1939. On the surface, it aimed at doing research on art, but practically, it pursued the realization of Chosun's independence and the communist social system. Its members did theatric art and music as hobbies, especially in soccer as a sport.

The members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 mapped out some schemes for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actually promoted them while predicting the Japanese Empire's collapse through their clandestine meeting.

First, they judg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alize the communist social system if they prepared an independence movement in preparation for the time of the Japanese Empire's fall because of the eventual weakening of the Japanese army, and Chosun achieved independence while predicting that the Sino-Japanese War would be prolonged and further foresaw the war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Japan. Convinced of Japan's losing war, they finally organized a secret society-Suwon Yesul Hoyeon gurakbu. They brought the art research to the fore, but this was just a camouflage tactics for securing like-minded comrades and their practical purpose lay in the realization of Chosun's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communist social system.

Second,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as above, the members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Sino-Japanese War

was gradually headed for the Pacific War from around 1939 and 1940, intended to develop the Chosun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war against Japan in link with the ‘Kimilsung Troops’ in Manchuria with their illusion of the Troops.

Third, on the other hand, they went into the rural areas to awaken the village residents to the national consciousness lest they should lose the spirit of Korean people and would intend to lead them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the Chosun independence movement actually arise. For this purpose, they organized a night school targeting children in an effort to exalt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also tried look after the homeless people and orphans, as well as to instill the national consciousness into them by running a breeding stock business.

It might be possible for us to find a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the scheme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by the members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 went with the flow of ‘Armed Struggle’ raised by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liberation of the people, and the club members made efforts for Chosun’s independence and class liberation by organizing the spontaneously formed national consciousness and class consciousness of the youth somewhere about the age of twenty at Suwon district under the circumstances free of the central organization which could guide the people on a national, unified scale.

* Keywords : Suwon Yesul Hoyeon gurakbu, Independence, Communism, National Consciousness, Kim, Il-sung

〈부록〉 사진으로 본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들



강성문(康聖文)



김길준(金吉俊)



맹승재(孟升在)



차준석(車濬皙)



홍중철(洪鍾哲)



최태중(崔泰鍾)



박인중(朴仁鍾)



용헌식(龍憲植)



최응범(崔龍範)

『수원역사문화연구』투고 원칙

I. 일반원칙

1. 『수원역사문화연구』(이하 “연구지”라 약칭한다)는 경기도 수원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논문, 서평, 자료소개,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논단, 기타 학술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작성 : 연구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의 작성은 본 연구지의 원고작성 방침에 따른다.
3. 분량 :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70매 내외로 하며, 경우에 따라 170매를 초과할 수 있다. 비평논문, 논단의 경우 100매 내외, 서평 등 기타 글의 경우에는 50매를 기준으로 한다.
4. 제출요령 : 출력된 원고 2부와 디스켓(CD) 1매를 제출(다만, 디스켓을 대신하여 E-mail로 전송할 수 있다)해야 한다. 제출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문초록, 영문초록(300단어 내외), 국문주제어, 영문 Keyword를 포함해 집필자의 소속, 투고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II. 원고작성 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한글’로 작성한다.
2.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본문,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키워드의 순서로 작성한다.
3. 원고 양식
 - 1) 글꼴 : 바탕
 - 2) 기준크기 : 제목/16p, 본문/11p(저자표시, 목차 포함), 본문 내 인용문 및 각주/9p
 - 3) 줄 간격 : 160
 - 4) 장평 : 100%
 - 5) 자간 : 0%
 - 6) 정렬방식 : 양쪽 혼합

- 7) 첫줄 들여쓰기 : 1pt(키보드의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음)
- 8) 용지방향 : 좁게(세로)
- 9) 용지여백 :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5mm, 왼쪽, 오른쪽은 25mm
4. 원고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명·지명·사건명 및 기타 역사술어는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외국어의 경우 한글발음으로 표기하되 처음에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5.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6.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예) 홍길동(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7.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
8. 국문주제어 및 영문키워드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9. 영문 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10. 단행본의 제목은 동양서의 경우 『 』, 서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1. 논문의 제목은 동양서의 경우 「 」, 서양서의 경우 “ ”로 표기한다.
12. 본문어나 주에서 간접인용과 돋보임 등에는 ‘ ’, 직접인용에는 “ ”를 사용한다.
13. 모든 도표에는 제목을 붙이고 표 내의 자구(字句)중 긴 것은 적절한 약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붙인다. 도표 밑에는 출전을 밝힌다.
14.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1→1)→(1)→①→가 순으로 한다.
15. 괄호의 표기는 [], (), 「 」의 순으로 한다.
16. 모든 인용문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금석문 등 번역에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17.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행(別行)으로 처리하며, 인용문에 가하는 필자의 설명은 [] 안에 넣는다.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18. 원문에 있는 주석은 ()로 처리한다.
19. 연대의 표시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며, 연호(年號)나 왕력(王曆)으로 표기할 경우 () 안에 서기를 표기한다.
20.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쓸 수 있다.
21. 강조할 부분은 고딕체로 표기하고, 누가 강조하는 것인지를 밝힌다.

22. 주(註)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단행본과 논문의 표기방식은 앞의 10, 11조에 따른다.
- 2) 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뒤에 '편' (서양서의 경우 'ed.', 편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eds. ')을 기입한다.
- 3) 동일한 문헌이나 자료를 여러 번 인용할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한다.
- 4) 단행본의 경우 저자 혹은 편자, 책제목(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수원지역사』(수원, 박물각, 1999), 120쪽.

홍길동 편, 『수원의 일상』(수원, 박물각, 2000), 205쪽.

T. John, *European History*(London, Routledge, 1997), p.122.

T. John, ed., *Oriental History*(New York, Duke Univ. Press, 1996), p.251.

- 5) 단행본에 실린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편자, 단행본제목(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화성의 건축미」, 박물관 편, 『한국문화』(수원, 박물각, 1999), 51쪽.

T. John, "Orientalism", C. Marry, ed., *World History*(London, Longman, 1997), p.12.

- 6)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수록된 정기간행물의 제목과 호수, 발행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수원의 일상」, 『수원역사문화연구』15, 1999, 120쪽.

T. John, "European History" *Historical Review*, Vol.12, 1997, p.12.

- 7) 페이지 표시는 동양서는 '쪽'으로, 서양서는 'p.'로 한다. 복수의 페이지 표시는 가운데에 '-'를 넣고, 앞뒤 페이지 전체를 표기하며, 서양서의 경우 'pp.'로 표기한다.

예) 31-2쪽(×), pp.245-7(×) : 31-32쪽(○), pp.245-247(○)

- 8) 바로 위에서 인용한 문헌을 곧바로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동양서는 '위의 책' (단행본의 경우) 혹은 '위의 글' (논문의 경우)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위의 책', '위의 글'로 표기하거나 'Ibid.' 혹은 'Ibid.'로 표기한다.

- 9)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나중에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동양서는 저자(필자)의 이름을 쓰고 '앞의 책' (단행본의 경우) 혹은 '앞의 글' (논문의 경우)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쓰고 '앞의 책' 혹은 '앞의 글'로 표기하거나 'op. cit.' 혹은 'op. cit.'로 표기한다.

수원 역사문화 연구 창간호(통권 1호)

발행인 : 송영완(수원박물관장)

발행일 : 2011년 12월 31일

발행처 :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전화 031-228-4150, 팩스 031-228-4149)

<http://swmuseum.suwon.ne.kr>

제작 및 인쇄 : 경인M&B(전화 031-231-5522~7)

발간등록 번호 : 71-3740159-000032-09

ISSN : 2234-7887

- 水原の地名變遷 ————— 李 在 範
- The Traditions of 'Respecting Martial Arts and Military Readiness'
in the Su' weon/水原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Su' weon' s Reputation as the 'Town of Martial Arts(武鄉)' ————— Chung, Hae-eun
- The moving of administrative office and socio-economic
transition in Suwon during the reign of the King Jeongjo ————— Lee, Jeong-ill
- Suwon' s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the Japanese rule time ——— Kim, In-ho
- A Study on the Urban Policy Based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Suwon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 Lee, Chang-soo
- Life and Racial Movement of Byung-heon Le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Sung, Ju-hyeon
- Lee, Sunkyung and Lee, Hyunkyung, the Female Independentalist
of Suwon ————— Han, Dong-min
- Missionary works and national movement of Hongseungha ————— Park, Hwan
- The activit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Suwon Yesul Hoyeon
gurakbu(水原藝術互研俱樂部) in the period of war footing under
Japanese Imperialism ————— Park, Chul-ha